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분석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김희진 · 조혜영 · 한지형



보고서 표지 디자인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AI 보고서 디자인 콘테스트』의 당선 작품을 카카오톡 이모티콘 작가(작가명 모지)로 활동하고 있는 직원이 실사한 것입니다.

***당선작 프롬프트**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청소년, 청소년들을 지지하는 어른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다문화, 기후변화, 인공지능, 미디어, 권리”

AI 디자인_ 곽진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행정원)

실사 디자인_ 변지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인턴)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분석 및 자립지원방안 연구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분석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저 자 김희진, 조혜영, 한지형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희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조혜영(공주교육대학교 교수)
한지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보조원 박소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연구요약

■ 연구목적

- 학교 밖 청소년의 과거와는 다른 변화양상에 주목하되, 청소년으로서의 권리에 기반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둠에 따라 경험하는 취약성, 특히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저해할 수 있는 다차원적인 불리함이나 어려움을 파악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음.

■ 연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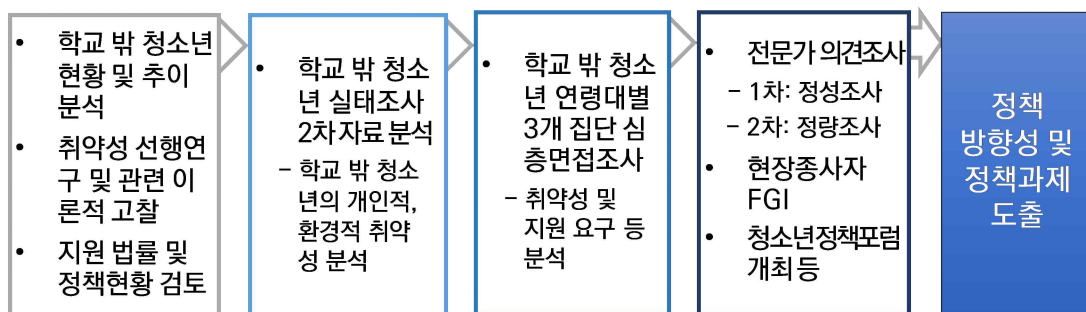
-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과 규모 확인을 위한 행정통계와 관련 자료 검토, 성인기 이행 및 자립, 권리기반 접근과 같은 이론적 고찰 수행
- 2021년에 수행된 전국 규모 조사인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2차 자료 분석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경험 정도와 연령대에 차이가 있는 학교 밖 청소년 3개 집단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이들이 경험한 취약성과 어려움, 극복요인, 지원 경험 등 파악
- 관련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조사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장 실무자 대상의 FGI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취약성 및 현안 진단, 정책과제 의견 수렴
-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지원 내용과 제반 여건을 고려한 지원방안 제안

■ 연구방법

- 문헌연구: 학업중단 학생 규모 관련 행정통계 검토, 취약성 및 권리기반 접근 등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정책/행정자료 검토

- 전문가 자문 및 워크숍: 연구내용과 2차 자료 분석, 면접조사내용 등 검토를 위한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자문, 질적자료 분석결과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 추진
-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원자료에서 취약성/불리함/어려움 및 지원관련 변수를 선별하여 2차 자료 분석 실시(기술 분석 및 다변량 분석)
- 학교 밖 청소년 3개 집단(집단A: 성인기, 집단B: 성인기 이행기, 집단C: 청소년) 심층면접조사 실시 및 비교분석(복수집단 사례 분석),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경험 없는 오랜 질적자료가 축적된 집단A 종단자료 분석(구성주의적 근거이론 접근 분석)
- 전문가 의견조사: 학교 밖 청소년, 교육, 복지 분야 학계 전문가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현장 전문가 21명을 대상으로 1차 정성조사, 2차 정량평가 실시, 학교 밖 청소년 현안(취약성)분석, 정책과제 및 방향성에 대한 중요도 및 우선순위 도출(AHP조사 및 Borich 요구도 분석 등)
- 현장실무자 FGI 실시: 꿈드림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장실무자 10명 대상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전문가 조사 내용,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 및 논의
- 학교 밖 청소년 정책포럼(2023.9.21.) 개최: 학교 밖 청소년의 변화 양상과 지역사회 현장 지원에의 함의 도출
- 기관생명윤리위원회(IBR) 심의: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면접지와 전문가 의견조사지, 현장실무자 FGI 면접지, 조사수행 과정 및 내용에 대한 승인절차 후(승인번호: 202305-HR-고유-010) 조사에 활용
- 본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 연구결과

주요 연구결과

- 문헌고찰 결과, 학업중단 학생 수 증가 및 저연령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코로나19 시기 감소하였던 학업중단 학생 수는 다시 증가하여 코로나19 이전 숫자를 넘어섰으며, 초등학생의 학업중단 비중이 커지고 있음.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의 이론적 틀로 제도적 차원에서 권리기반 접근, 실천현장에서 회복탄력성과 역경 후 성장 개념이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음.
 - 현행 지원 법률에는 교육 및 취업, 자립지원으로 영역이 구분되어 있으나,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진로와 관련된 내용은 제한적임. 이에 따라 진로관련 내용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음.
-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2차 자료 분석 결과,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도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부모의 지지가 낮은 집단의 경우, 여러 차원에서 더 취약하거나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심리·정서·신체적으로 더욱 취약하였고, 학교를 그만둔 이후 더 불이익과 어려움을 경험하였으며, 학교를 그만둔 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친구 사귀기 기회가 감소하였음. 학교를 그만둔 당시 계획 유무와 진로결정시기, 지원받기까지의 기간, 기관 및 서비스 이용 경험에도 차이를 나타냈음.
 - 다변량분석 결과에서도 경제적 수준, 부모 지원 수준, 학교 성적은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측면에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읍면리 거주/학교를 그만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경우, 진로결정 여부와 진로직업태도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보였음.
 - 학교를 그만둔 기간이 길어질수록 진로탐색체험, 직업교육훈련, 고민상담 제공 등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음.
- 학교 밖 청소년 세 개 집단 심층면접조사 결과, 진로/진학/취업준비에서의 어려움, 심리사회적 취약성, 부정적 사회적 인식 등은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나, 집단별로 학교를 그만둔 이유, 지원경험과 학교를 그만둔 직후의 경로, 학교를 그만둔 경험에 대한 평가에는 차이를 보였음.
 - 집단A는 20대 중후반의 성인으로 대부분 직장인이 되면서 자립한 것으로 보임. 학교를 그만둔 이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해 진로 준비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였음.

주요 연구결과(계속)

- 집단B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본격적으로 받음에 따라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지원 요구를 나타냈음.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해 대체로 만족도하였음.
- 가장 최근에 학교를 그만둔 집단C 대부분은 현재 대학진학을 준비 중에 있었으며, 관련한 지원 요구가 많았음.
- 이 세 집단의 면접조사결과에 대한 주요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아래 그림과 같음. (아래 그림의 *표시는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해 느끼는 감정 의미)

	학교를 그만둔 이유	지원 경험	현재 하는 일	평가/감정*
집단A 20대 중후반 - 학교를 그만둔 시기: 약 2012~2015년	- 출석일수 부족 자퇴 - 학교생활 싫증 - 공부가 적성에 안 맞음 - 집단따돌림	- 직업학교 - 취업성공패키지 - 꿈드림센터 검정고시 지원 (면접참여자 10명 중 1명)	직장인: 배송업, 대기업, 공장, IT회사 등 정규직, 간호조무사, 보안업무, 아르바이트, 육아, 대학원 재학 등	- 만족감/긍정평가 - 시간이 경과하면서 후회 증폭 - 양가적 감정, 수용 노력
집단B 10대 후반~20대 초반 - 학교를 그만둔 시기: 약 2018~2021년	- 뜰에 짜여진 학교생활, 학교의 필요성 못 느낌 - 친구/인간관계 어려움 - 진취적 진로탐색위해 - 대학 진학	- 꿈드림센터 검정고시, 인턴십, 학원비, 급식, 체험/문화활동, 근로교육 등 - 내일아름학교 - 청소년센터, 대안교육기관 등	- 고등학생(복교), 대학생, 대학 휴학 - 아르바이트 - 학원 수강 - 대학입시 준비	- 만족도 높음 - 꿈드림센터지원으로 후회 없음 - 개인생활관리 힘들 - 시간 허비 후회
집단C 10대 중후반 - 학교를 그만둔 시기: 2022년	- 학교에서 배울 것이 없음 - 학교 공부 무의미, 시험 압박 - 원하는 교육과정 없음 - 또래관계 어려움 - 대학진학 준비에 더 유리함	꿈드림센터 검정고시, 진학 상담, 대입 대비반 수업, 인턴십/직업체험, 자격증 취득 지원, 급식/건강검진, 문화예술체험, 동아리활동	- 대학입시 준비(면접참여자 10명 중 8명) - 아르바이트 - 직업훈련 - 인턴십	- 대부분 높은 만족도 - 더 빨리 그만뒀어야 (모의고사 성적 상승 기대) - 후회

- 집단A에 대한 질적종단자료 분석 결과, 이들은 대부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없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진학, 진로, 구직과정에서, 또 또래관계 경험부족에 따른 소외감/부정적 사회적 인식 등의 결과로 피로감/좌절을 경험하였음.
- 분석 대상 사례는 크게 진로포부가 강하고 취약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경우, 진로포부가 강하고 취약성 인식이 낮은 경우, 진로포부와 취약성에 대한 인식이 모두 낮은 경우로 구분하였음. 각자 취약한 부분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처하였으나 주로 개인적인 노력이나 현실 수용, 회피 등이 많았음.
- 취약성 인식과 대응과정에서 학업중단의 의미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또 현재 직업 만족도에 따라 상대적 평가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며, 이에 대한 성찰과 수용도 유동적으로 나타남.

주요 연구결과(계속)

-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현안으로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역량 증진 기회 부족, 정신건강 문제 증가, 학교/가정에서 모두 보호·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문제, 학교 밖 청소년 특성 다변화, 은둔·고립 성향 증가 등이 도출됨. 가장 취약한 분야로, 제한된 사회적 경험·대인관계로 인한 사회성 발달과 인간관계기술 부족, 소속감 부재, 학교/가정에서 보호·지원받지 못하는 사례, 제도권 공교육을 통한 보편적 복지 소외가 제시됨.
- 중점과제 우선순위(AHP) 분석 결과: 심리적 지원, 진로/학업 지원, 사회성 향상 기회 제공, 서비스 전달체계 및 지원방식 개선 순으로 도출됨.
- 지원에서의 아쉬운점: 상담 전문성 부족, 직업훈련 및 창업연계 내실 부족, 대학입시 지원 미흡, 자기계발 프로그램 지원 부족, 문화활동 및 전용공간 지원 부족
- 학교 밖 청소년 자립을 위한 보리치(Borich) 요구도 분석결과: 심리적 지원,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교육수당 지급, 주거지원 및 안정적 환경 제공, 프로그램 참여 동기를 강화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 제공 순으로 분석됨.
- 정책 방향성 우선순위(AHP) 분석 결과: 청소년의 특성/욕구 기반 맞춤형 지원, 심리·정서·사회적·신체적 건강 지원 강화, 꿈드림센터 운영 개선, 진로지도, 진로 지원, 자립지원 정책에 초점, 학교안팎 청소년의 동일한 권리 향유 순으로 도출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향후 역할과 기능: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사례관리 기능 강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중심기관으로서 지역 네트워크 기능 확대, 지역자원 연계·협력 강화, 청소년의 연령·특성·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에 초점,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습득 지원 순으로 중요도를 나타냄.
- 현장실무자 FGI 결과: 최근 학교 밖 청소년들은 뚜렷한 진로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점차 대인관계 스트레스, 정신건강 고위험군이 증가하고 있음.
- 현장실무자를 통해 보고된 취약성: 심리·정서적 어려움, 일상생활관리의 어려움, 소속감의 결여, 활동공간 부족, 편견과 차별, 진로탐색과 진로준비의 어려움 등
- 취약성 극복 방안: 학교 밖 청소년 발굴 강화, 전문심리상담 지원, 균등한 교육여건 보장,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요구 맞춤형 진로지원, 학교 밖 현장 환경 개선 등

핵심 정책제언

-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5개 정책 방향성에 기반하여 12개 정책과제, 22개 세부추진과제를 제안하였음.
- 22개 세부추진과제는 표 VI-3(pp. 269-270)에 제시하였음.

비전: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자립

정책 방향

1. 학교 밖 청소년의 전인적 건강 및 성장 지원 우선
2. 청소년의 특성 및 욕구 기반 맞춤형 지원
3. 직업역량강화 이전 진로개발역량 우선 강화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정체성·방향성 검토
5. 학교안팎 청소년의 동일한 권리 보장과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

정책 과제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적 취약성 단계별 심리·정서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사회자본) 강화 기회 및 지원 제공
-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체활동 활성화를 통한 건강 취약성 극복
- 학교 대비 학교 밖 진로지원 수준 제고(체계화·전문화)
-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보편적 경제적 지원 확대
- 대학입시 지원 전문성 강화
- 진로개발·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창업역량 강화

[자립지원 전달체계 및 환경적 차원]

- 학교 밖 청소년 특성 다변화에 따른 지원 방향성 합의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꿈드림)의 정체성 및 역할 재고
- 꿈드림센터 역량 강화 및 환경 개선
- 학교안팎 청소년에 대한 동등한 보편적 지원 권리 보장
-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접근성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인기 이행과 자립을 위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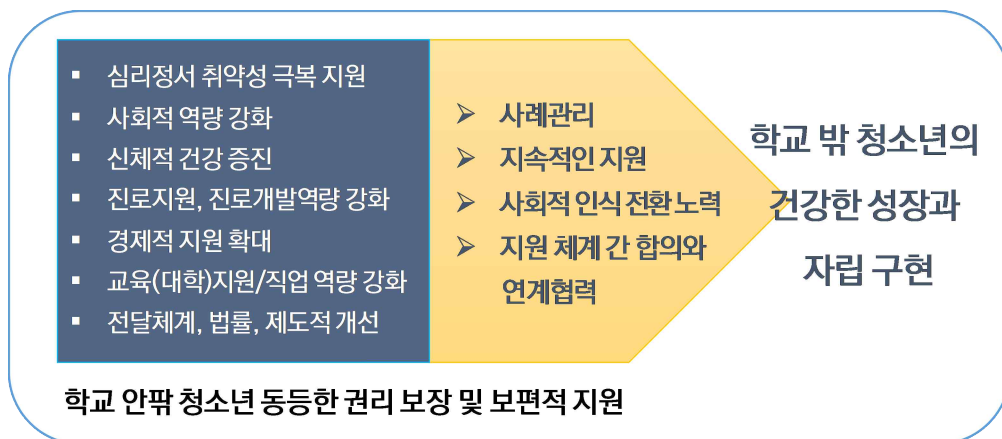
현안 분석

- 학교 밖 청소년 특성 다변화, 저연령화, 정신건강 문제 증가, 사회적 관계 역량 부족, 은둔/고립 성향 증가, 대학진학 희망 사례 증가
- 학교에서 가능했던 보편적 복지에서의 소외, 진로탐색/진로준비/취업과정에서의 불리함, 학교와 가정에서 모두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의 가중된 취약성,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정책방향성 및 정책과제]

핵심 정책제언(계속)

-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취약성과 어려움에 대한 접근이 개인적 문제 차원이 아닌 학교를 다니지 않음에 따라 발생했거나, 또는 이 과정에서 더 심화되었거나 취약해진 부분에 초점을 두고자 했으며, 또한 이에 대한 지원을 위해 권리기반 접근을 통한 보편적 지원을 토대로 하였음.
-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원 내용과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아래 도식과 같음.
 -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자립을 위해서는 결국, 학교 안팎 청소년의 동등한 권리보장 및 보편적 지원이라는 방향성을 토대로, 심리사회적, 신체적 건강과 진로지원, 경제적 지원에 더해, 대학진학 및 직업역량 강화, 전달체계, 법률, 제도적 개선 등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함.
 - 또한, 이러한 지원이 더욱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지원 이후의 사례관리와 지원의 지속성, 이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인식 전환의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에게 실질적으로 지원을 수행하는 지원체계 간의 합의와 연계·협력이 전제되어야 함.



[연구결과 요약]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분석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8
3. 연구방법	10
4. 연구추진체계	15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7
1. 학업중단 현황 및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19
1) 학업중단 현황 및 규모 추이	19
2)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21
2.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과 자립지원에 대한 논의	25
1)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논의 및 연구의 범위	25
2)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대한 논의	29
3)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관련 선행연구 고찰	32
3.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분석 및 지원을 위한 이론적 접근	35
1) 권리기반 접근(rights-based approach)	35
2) 회복탄력성과 역경 후 성장	38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의 현황과 함의	41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과 지원 내용	41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47

Ⅲ.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분석 실태조사 2차 자료 분석 53

1. 2차 자료 분석 개요	55
2.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 및 취약성 기술분석	58
1) 분석 개요	58
2) 분석 결과	60
3.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에 대한 다변량분석	87
1) 분석 개요	87
2) 분석 결과	88
4. 요약 및 시사점	94
1) 기술분석 결과 요약	94
2) 다변량분석 결과 요약	96

Ⅳ.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분석 학교 밖 청소년 질적조사 99

1. 조사 개요	101
2. 면접조사 내용	105
3. 면접조사 방법	108
1) 면접원 교육 및 면접 진행 방법	108
2) 연구 윤리 및 개인정보 보호	110
4. 분석 방법	111
1) 질적 횡단자료 비교 분석: 복수집단 사례 분석 ..	111
2) 질적 종단자료 분석: 구성주의적 근거이론 접근 분석	113
5. 분석 결과	115
1) 학교 밖 청소년 질적자료 분석	115
2) 학교 밖 청소년 종단자료 분석	169
6. 요약 및 시사점	195
1) 조사 및 분석 개요	195
2) 횡단자료 비교 분석 요약	195
3) 집단A 종단자료 분석 요약	203

V.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분석: 전문가·현장종사자 조사	207
1. 전문가 의견조사	209
1) 조사 개요	209
2) 조사 내용	210
3) 조사 및 분석 방법	214
4) 결과 분석	216
2. 현장실무자 면접조사: 초점집단면접(FGI)	239
1) 조사 개요	239
2) 결과 분석	242
3. 요약 및 시사점	252
1) 전문가 의견조사 요약 및 시사점	252
2) 현장실무자 FGI 요약 및 시사점	254
VI. 정책제언	257
1. 연구결과 요약	259
2. 학교 밖 청소년 관련 현안 진단 및 지원 방향성	264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방안	268
참고문헌	295
부 록	309

표 목차

표 II-1.	학업중단자 수와 비율 추이(2018~2022년)	20
표 II-2.	학업중단자 수와 비율 추이(2018~2022년): 성별·학교급별	22
표 II-3.	학교급별 학업중단 사유(2018~2022년)	22
표 II-4.	권리기반접근 원칙의 주요 내용	37
표 II-5.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지원 법률 조항	41
표 II-6.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43
표 II-7.	진로교육법에서의 진로준비 관련 조항	44
표 II-8.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내용	46
표 II-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47
표 III-1.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응답자 기관별 현황	56
표 III-2.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응답자 일반 현황: 인구사회학적 특성	56
표 III-3.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중 취약 관련 조사내용 ..	58
표 III-4.	심리정서적 취약 측면: 학교를 그만둔 이유_심리정서적 문제 ..	60
표 III-5.	심리정서적 취약 측면: 자아존중감, 우울, 불안	62
표 III-6.	심리정서적 취약 측면: 자살 생각 경험	63
표 III-7.	신체건강 취약 측면: ① 비만 및 과체중률 4개 집단 비교 ..	64
표 III-8.	신체건강 취약 측면: ② 비만 및 과체중률 2개 집단 비교 ..	65
표 III-9.	신체건강 취약 측면: 신체활동 실천율	66
표 III-10.	신체건강 취약 측면: 흡연·음주 경험	67
표 III-11.	가정환경적 취약 측면: 부모-자녀관계	68
표 III-12.	가정환경적 취약 측면: 가정 경제적 수준	69
표 III-13.	학업관련 취약 측면: 성적 및 학교를 그만둔 이유	70
표 III-14.	학업관련 취약 측면: 학교를 그만둔 후 후회하는 이유	71
표 III-15.	사회적 취약 측면: 학교를 그만둘 당시 상담자 유무	72
표 III-16.	사회적 취약 측면: 학교를 그만둔 이유_학교친구문제	73
표 III-17.	사회적 취약 측면: 학교를 그만둔 후 후회 이유_ 친구 사귄 기회 감소	74
표 III-18.	사회적 취약 측면: 학교를 그만둔 후 사회적 관계 친밀도 ..	75

표 III-19. 진로관련 취약 측면: 학교를 그만둘 당시 계획	76
표 III-20. 진로관련 취약 측면: 진로직업태도	77
표 III-21. 진로관련 취약 측면: 진로결정 유무	78
표 III-22. 진로관련 취약 측면: 학교를 그만둔 후 진로결정 시기	79
표 III-23. 환경적(제도적) 취약성·불이익측면: 학교를 그만둘 당시 제공받은 정보	80
표 III-24. 환경적(제도적) 취약성·불이익측면: 학교를 그만둔 후 후회	81
표 III-25. 환경적(제도적) 취약성·불이익측면: 진로관련 경험 유무 ..	82
표 III-26. 환경적(제도적) 취약성·불이익측면: 학교를 그만둔 후 불이익 경험	83
표 III-27. 환경적(제도적) 취약성·불이익측면: 학교를 그만둔 후 어려움 경험	84
표 III-28. 환경적(제도적) 취약성·불이익측면: 지원받기까지의 기간 ..	85
표 III-29. 환경적(제도적) 취약성·불이익측면: 기관/서비스 이용 전 주요 활동	86
표 III-30. 다변량 분석에 포함된 변수 설명	87
표 III-31. 회귀분석에 사용된 독립변수	87
표 III-32. 심리정서적 취약 측면(자아존중감, 우울 및 불안)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89
표 III-33. 심리정서적 취약 측면(사회적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89
표 III-34. 진로결정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90
표 III-35. 진로관련 특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91
표 III-36.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요구(학습관련)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92
표 III-37.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요구(진로 관련)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93
표 III-38.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요구(직업교육·고민상담)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94
표 III-39.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에 대한 다변량 분석 결과 요약 ..	97
표 III-40.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필요성에 대한 다변량 분석 결과 요약 ..	98
표 IV-1. 2023년 면접참여 학교 밖 청소년 집단A 현황	103
표 IV-2. 2023년 면접참여 학교 밖 청소년 집단B 현황	104
표 IV-3. 2023년 면접참여 학교 밖 청소년 집단C 현황	104
표 IV-4.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면접조사내용	106
표 IV-5. 학교를 그만둔 후 성인기 진입(집단A)	119

표 IV-6.	학교를 그만둔 후 4년 이상 지난 학교 밖 청소년(집단B)	120
표 IV-7.	가장 최근 학교를 그만둔 학교 밖 청소년(집단C)	121
표 IV-8.	심리적 취약성 및 극복방법	125
표 IV-9.	사회적 취약성 및 극복방법	129
표 IV-10.	진로 준비 관련 취약성	137
표 IV-11.	진로 준비 관련 문제가 없거나 극복함	140
표 IV-12.	진로준비 취약성 극복을 위한 지원 요구	143
표 IV-13.	대학 진학의 이유	145
표 IV-14.	대학 진학 과정, 준비에서의 취약성	149
표 IV-15.	대학진학 준비에 취약한 부분이 없거나 극복함	152
표 IV-16.	대학진학을 위한 지원 요구	153
표 IV-17.	취업과 관련된 취약성 경험 유무 및 내용, 지원 요구	158
표 IV-18.	자립의 의미	159
표 IV-19.	자립관련 취약성에 대한 생각	161
표 IV-20.	자립관련 취약성 극복 방법	162
표 IV-21.	자립에서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내용	163
표 IV-22.	환경체계 취약성 및 극복방법	167
표 IV-23.	집단A의 학교 밖 취약성 경험의 궤적과 의미	192
표 IV-24.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취약성과 지원 요구 등 집단 간 비교 세부 내용	200
표 V-1.	조사 참여 전문가 현황	210
표 V-2.	전문가 의견조사 내용: 1차 조사	211
표 V-3.	전문가 의견조사 내용: 2차 조사내용 및 방법	212
표 V-4.	2차 전문가 의견조사지: 지원정책 중점과제 중요도 (AHP 분석)(예시①)	213
표 V-5.	2차 전문가 의견조사지: 자립지원 정책 중요도 및 현재수준(보리치 요구도 분석)(예시②)	214
표 V-6.	전문가 의견조사 기간 및 방법	214
표 V-7.	분석결과: 주목해야 할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변화 양상	218
표 V-8.	분석결과: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분야	219
표 V-9.	분석결과: 취약한 영역 지원을 위한 중점과제	221
표 V-10.	분석결과: 중점과제 영역 우선순위	222
표 V-11.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역(전문가 의견조사 내용)	223
표 V-12.	분석결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주요 성과	224
표 V-13.	분석결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서의 아쉬운 점과 보완책	226

표 V-14. 분석결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서의 우선 고려 사항	229
표 V-15. 분석결과: 학교 밖 청소년 자립을 위해 중요한 지원_	
Borich 요구도 분석 결과	231
표 V-16. 분석결과: 학교 밖 청소년 자립을 위해 시급한 지원	233
표 V-17. 분석결과: 향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방향성	234
표 V-18. 분석결과: 향후 지원정책 방향성 우선순위	236
표 V-19. 분석결과: 향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238
표 V-20. 현장실무자 FGI 면접참여자 정보	239
표 V-21. 현장실무자 FGI 주요 면접 내용	240
표 V-22. 학교 밖 청소년 취약성 극복 및 자립지원을 위한 주제 분석	242
표 VI-1. 주요 조사결과 및 정책적 함의	260
표 VI-2.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주요 현안 및 취약성 진단 결과	265
표 VI-3. 정책과제·세부 추진과제	269
표 VI-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진로지원”	
신설 조항 주요 내용	277
표 VI-5.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 수당 제공을 위한 국비	
지원 기준안	281
표 VI-6. 진로개발·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보완 고려 사항	284
표 VI-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동등한 권리	
보장 내용 예시	290

그림 목차

그림 I-1. 연구 수행의 틀	8
그림 I-2. 연구추진체계	15
그림 II-1. 학교급별 학업중단자 수 추이(2016~2022년)	19
그림 II-2. 학교 밖 청소년 규모 및 비율(2013~2022년)	21
그림 II-3.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를 그만둔 사유 (2018,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24
그림 II-4. 연구 대상: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경험 내용	29
그림 II-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용	42
그림 II-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전달체계	48
그림 II-7. 서울시교육청 친구랑(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 지원 내용	50
그림 IV-1. 학교 밖 청소년 면접조사 참여 대상자 개요	102
그림 IV-2. 학교 밖 청소년 면접조사 참여자 선정 과정	103
그림 IV-3. 학교 밖 청소년 면접조사지 개발 과정	105
그림 IV-4. 학교 밖 청소년 면접조사시 작성된 필드 노트 예시	109
그림 IV-5. 연구참여자 집단A, B, C 주요 분석결과 비교	199
그림 IV-6. 집단A 연구참여자들의 진로포부와 취약성 인식의 궤적 유형	204
그림 V-1. Borich 요구도 분석을 위한 산출식	216
그림 V-2.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방안들에 대한 Borich 요구도 결과 도식	232
그림 V-3. 향후 지원정책 방향성 우선순위	236
그림 V-4. 현장실무자 초점집단면접 방법	241
그림 VI-1.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259
그림 VI-2.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정책방향성 및 정책과제	268
그림 VI-3.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적 취약성 측면을 고려한 단계별 심리·정서 지원	272
그림 VI-4.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사회자본) 강화를 위한 내용 요약	274

그림 VI-5.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설계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 활용 ..	278
그림 VI-6. 지역사회 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87
그림 VI-7.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한 지원 요약 ..	293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내용
- 3. 연구방법
- 4. 연구추진체계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교 밖 청소년의 비중이 학령기 연령대 인구에서 점차 커지고 있어, 이들의 건강한 성인기 이행과 자립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감소 하였던 학업중단자수는 일상생활이 다시 정상화되고 등교가 확대되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²⁾ 향후 추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학업중단을 역시 현재 단정 짓기는 어려우나 과거 추이를 볼 때, 당분간 증가 경향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2017년 0.8%→2018년 0.9%→2019년 1.0%→2020년 0.6%→2021년 0.8%→2022년 1.0%).³⁾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변화는 학업중단자수의 증감에서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의 스펙트럼이 넓어진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더욱 다양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김희진, 서고운, 조혜영, 2022a; 김희진, 임희진, 김정숙, 서고운, 2021b; 윤철경, 최인재, 김승경, 김성은, 2018b 등). 실제로, 학교 밖 청소년들은 매우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학교를 그만둔 이후의 경험과 진로가 다르며, 이후 직면하는 성인기 이행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정책 지원 요구에 차이가 크다(권지성, 김희진, 서고운, 2022; 김희진 외 2022a; 김희진 외, 2021b; 윤철경, 서정아, 유성렬, 이동훈, 2018a 등). 과거에는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부적응으로 학교를 떠났거나, 비행·일탈에 연루된 위기청소년으로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음을 볼 때, 학교를 그만두게 된 이후와 이후 경로에 있어서의 큰 폭의 다양성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재고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과 같은 맥락에서 이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1) 이 장은 김희진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다.

2)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학업중단현황. <https://kess.kedi.re.kr/index>에서 2023.02.02. 인출

3) 출처: 상동

개인적 특성이 아닌 이들이 학교를 그만둠에 따라 학교 밖에서 경험하는 환경적, 구조적 요인에 따른 취약성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지 않았다면, 즉 “학교 교육과정에 묵묵히 따르다 보면 어느 정도의 진로가 정해질 것이고,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졸업장을 획득할 수” 있었을 것이다(김영희, 최보영, 2015: 168).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었든,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은 이제 졸업장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학교체계에서 분리되었고, 학교에서 가능했던 모든 지원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는 학교에서 경험했던 유·무형의 많은 자원으로부터 동떨어지면서 많은 부분 취약성과 결핍을 겪게 되고, 또래 학생 청소년에게는 당연시되는 학교로부터 제공되는 교과학습과 같은 학업 부문과 신체활동과 급식 등을 통한 건강측면, 그리고 또래관계로 인한 사회적 발달측면, 아울러 교사로부터의 여러 차원의 지원이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해당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특히,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학업중단율이 가장 높는데(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2023.02.02. 인출), 성인기 이행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진로와 관련된 체계적인 지원과 필수적인 정보에서 배제되면서, 이 시기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일반적으로 학생 청소년이 비교적 장기간의 학교 교육과 진로교육/지도(진로관련 교과 포함)를 통해 성인기 이행을 준비하고 있을 때, 학교 밖 청소년은 정규 교육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교사의 지도, 진학 및 취업관련 정보, 사회적 관계의 부재 속에 대학 진학을 준비하거나 노동시장에의 진입을 시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학교를 그만둔 이후에 자신이 희망하거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장기적으로 충분히 탐색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갖기보다, 급히 검정고시를 치른 후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성인기 이행과정을 거치거나 한편으로는 학력에 대한 결핍으로 본인의 희망과 무관하게 급히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진로/진학을 고민하고 사회생활을 해야 했으며, 학교에 재학 중인 또래들에 비해 지원을 받지 못해 더 취약하다고 생각하며 불안해하거나, 학교를 그만둔 것을 후회하기도 하였다(김희진 외, 2022a; 김희진, 서고운, 김은정, 2021a 등).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여러 취약성 중에서도 성인기 이행 및 자립과 관련한 측면에 초점을 두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면서 갖게 된 취약성이 아니더라도 본래 가지고 있었던, 내재적인 취약성과 또 학교 재학 시의 부정적 경험과 연결된 취약성 역시 간과할 수 없다.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가정환경에서의 취약한 측면은(심리사회적 문제나 빈곤

등) 학교를 그만둔 이후 더욱 심화될 수 있으며, 학교 재학 당시의 부정적 경험(특히 학교를 그만두는데 영향을 미친)도, 이후 학교를 그만둔 이후의 장기간 진로미결정이나 은둔 경험 등으로 이어져 건강한 성인기 이행과 자립에 더욱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 개인의 특성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 부모의 지지 수준, 그리고 학교에서의 경험(특히 학교를 그만두게 한 요인)은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학교를 그만둠에 따른 학업 및 진로, 사회적 관계 등에서의 취약성에 더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되며, 이렇게 심화된 취약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누적되어, 결국 학교 밖 청소년을 우리 사회의 주변인으로 남게 할 수 있다.

2014년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전국 대부분의 시·군·구에 급속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설치되었고, 이후 직업훈련에 초점을 둔 내일이룸학교까지 포함하여 상담지원, 진로탐색, 검정고시준비,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건강검진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1). 그러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착수 초기와 현재와는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뿐 아니라 그 집단의 다양성에서 차원을 달리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더불어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자립하는데 있어서의 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는 없는지 분석하고, 시의적절한 대응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과거 학교 밖 청소년을 비행·일탈과 같은 위기청소년으로만 바라봤던 시선에서 점차 도움이 필요한 정책대상으로 변화되고 있지만, 이제는 그 지원의 범위나 수준이 청소년으로서의 마땅히 누릴 권리 차원에서 부족하거나 더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일반적으로 취약성을 재난과 같은 사건, 위험 등에 대한 노출과 피해를 입기 쉬운 정도라고 정의한다면(정지범 외, 2019: 15), 이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을 “제도권 중등교육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년기를 보냈거나 보내고 있음에 따라, 건강한 성인기 이행 및 자립에 필요한 모든 유·무형의 적절한 지원과 자원에서 배제되면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태,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인식하는 주관적 상태”로 조작적 정의하고자 한다⁴⁾. 따라서 학교를 그만두면서 학교를 통한 모든 지원, 자원에서 배제된 청소년, 즉 학교를 그만둠에 따른 결과로 불리함을 경험하는 청소년에 초점을 두고, 더 나아가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4) 관련 논의는 p.25쪽 이후 참조

저해할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요인들과 관련된 포괄적인 범위의 취약성을 가진 학교 밖 청소년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과거 취약성 분석이나 취약계층 분석들의 선례를 살펴보면, 빈곤층 학생의 교육 취약성 분석은 사회적 자본 개념을 이론적 틀로(류방란, 정바울, 김성식, 조상식, 송행희, 2013), 그리고 취약계층 청년의 정책 도출을 위해서는 다차원빈곤 접근 틀을 활용하기도 하였다(김문길, 김기태, 정세정, 김성아, 김기현, 2020). 이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학교를 다니는 것과 무관하게 청소년으로서 필요한 지원을 동등한 수준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권리기반접근(rights-based approach)에 기초하였다. 기존의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를 파악하여 지원을 하는 방식이 욕구를 토대로 한 접근(Needs approach)⁵⁾에 가깝다면, 권리기반접근은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 차원에서의 상대적인 불평등과 불리함에 초점을 둔 시스템 측면에서의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장의 실천적 차원의 함의를 위해 청소년의 회복탄력성(resilience)과 역경 후 성장(adversarial growth)의 개념도 함께 고려하였다. 이는 이전의 동일 면접대상의 질적종단조사에서 상당히 취약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건강한 성인기 이행을 거쳐 자립에 성공한 학교 밖 청소년 사례들에서 출발한다.⁶⁾ 부정적 경험을 극복하는 과정과 그 결과에 있어 개인적 차이가 있음을 고려할 때(Rutter, 1999), 학교 밖 청소년의 성공적인 성인기 이행과정을 가능하게 한 개인, 가족, 지역사회, 국가적 지지체계나 기제(mechanism), 취약한 상황을 극복하게 한 전환점이나 회복탄력성과 같은 특성이나 요인도 탐색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2021년에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2차 자료 분석과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심층면접조사, 전문가 의견조사(1차: 정성조사, 2차: 정량평가), 현장실무자 FGI 등을 병행하는 혼합연구(mixed methodology) 방식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취약성을 진단, 분석하고, 이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했는지를 함께 조명하였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지역사회와 지자체, 국가의 적절한 역할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제도권 교육의 부재로 결핍되지 않으면서, 건강한 성인기 이행을 거쳐 자립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요약하면, 이 연구는 학령기 연령대에서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의 비중이 커지고 있고,

5) 전통적인 자선 및 욕구기반 접근과 권리기반접근의 차이는 Boesen & Martin(2007) 참조

6) 취약한 환경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질적종단자료 분석 결과 참조(김희진, 서고운, 조혜영, 민윤경, 2022b).

이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와 특성 역시 과거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 학교체제와의 분리 후 뒤따르는 제약과 결핍을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무엇보다 본격적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고 10여년이 되어 가는 시점에서 향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전략이 어떠한 방향성을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취약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지원에 대한 취약성에 대한 분석과 검토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첫째,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경험하는 취약성, 특히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저해할 수 있는 취약성/불리함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현 국정과제⁷⁾에서도 강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자립준비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진로와 관련된 내용을 필두로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을 다차원적으로 탐색하였다. 둘째, 이러한 취약성으로 인한 결과와 이에 따라 더욱 심화된 문제점들을 조명하고, 셋째, 학교 밖 청소년들의 취약성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기초로, 근거에 기반한 자립지원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내용과 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 I-1과 같다. 학교 밖 청소년의 일부 개인적인 취약성에 초점을 둔 대부분의 선행연구들과 달리⁸⁾, 이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통해 이들이 경험한 다양한 차원에서의 취약성을 조명하고 그에 기반한 자립지원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의 학교 밖 청소년관련 변화와 추이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7) 120대 국정과제(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40075>에서 2023.04.25. 인출)

국정과제	세부 내용
9.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 학교 밖 청소년·위기청소년 지원 -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연계 강화, 진로·직업교육훈련 확대 , 청소년위기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청소년안전망 강화

8) 이러한 개인 연구자들을 통한 선행연구들뿐 아니라 본 연구는 과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된 여러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연구들과 차이가 있다. 과거 본원에서 수행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연구들이 양적 또는 질적패널연구들이 대부분으로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자료수집에 주력하는 기초연구 성격을 가짐에 따라 이렇게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분석 및 진단에 초점을 두어 해당 내용을 깊이 있게 탐색하지 않았다. 또한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정책연구로 구분된다는 점에서도 본 연구의 차별성을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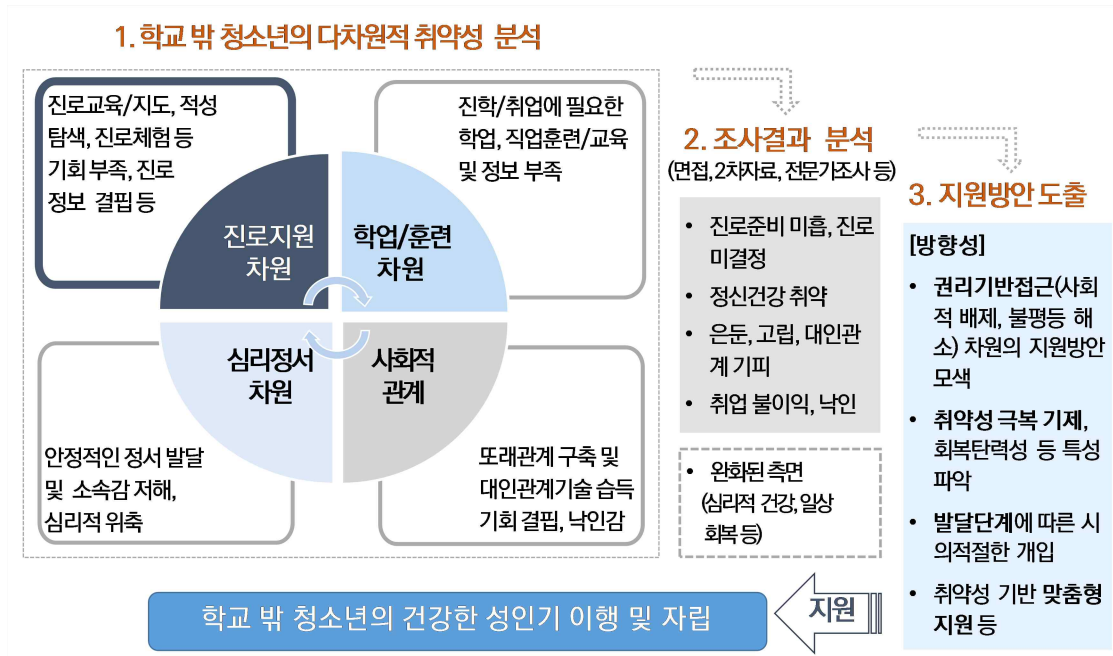


그림 1-1. 연구 수행의 틀

2. 연구내용

1)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을 포함하여 이들이 갖게 되는 취약성, 특히 성인기 이행과 자립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취약성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였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이론적 틀로써 권리기반 접근과 실천적 함의를 위한 회복탄력성 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수행하였다. 현행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과 관련한 제도적, 정책적 현황(관련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 등)도 함께 검토하였다.

2)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관련 2차 자료 분석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을 통해 대규모 학교 밖 청소년 표본을 대상으로 수행된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심리사회적 측면, 진로준비 및 자립관련 측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이용 등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환경적

취약성 등과 관련된 조사항목*들을 선별하여 2차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한 측면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며, 건강한 성장과 자립과 관련된 요인들을 탐색하고 이에 기초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서 학교를 그만둔 후 후회 경험, 이유, 후회하지 않은 이유, 학교를 그만둔 이후 차별/불이익 실태, 심리·정서·신체적 건강, 진로계획 및 진로·직업태도 등의 문항 중심

3)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심층면접을 통한 취약성 분석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과 자립지원 요구 파악을 위해 제도권 공교육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학교 밖 청소년 3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여기에는 오래전 학교를 그만두고, 현재 20대 중·후반이 된 성인들과(집단A) 4~5년 전 학교를 그만둔 10대 후반~20대초반의 학교 밖 청소년(집단B)이 포함되어 있다. 집단A, B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¹에서 수행된 이전 학교 밖 청소년 연구*의 질적패널로 참여한 바 있으며, 마지막 10명은 가장 최근에 학교를 그만둔 10대 중·후반의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집단을 구성하였다(집단C). 면접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심리사회, 진로준비, 진학 및 취업, 자립과 관련하여 경험한 취약한, 불리한 점들에 대한 것으로, 한편으로 이를 극복한 경험과 지원 요구 등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집단A, B, C가 학교를 그만둔 시기와 정책적 지원 경험에 차이가 큼에 따라 정책적 함의 도출을 위해 비교분석을 수행하였고, 또 가장 오랜 기간 질적종단자료가 충실히 수집된 집단A 사례들을 대상으로 종단적 심층분석을 실시하였다. 학교를 그만둔 시기에 따라, 또 본격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양한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경험한 취약성과 지원 요구는 자립지원방안 도출에 활용하였다.

* 집단A는 2018~2022년에 본원에서 수행한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의 연구에 참여하였고, 집단B는 2020년, 또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해당 연구에 참여하였음.

4) 전문가 및 현장실무자 대상 학교 밖 청소년 취약성 및 지원방안 조사

학교 밖 청소년 분야, 교육학, 사회복지학 등 분야의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에 대해 진단, 분석하고 건강한 성인기 이행과 자립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1차(개방형 질문)와 2차(정량평가)에 걸쳐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학교밖청소년

년지원센터 현장실무자와의 FGI(초점집단인터뷰)를 통해 현장에서 경험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과 지원 요구, 그리고 이의 변화 추이를 탐색함으로써, 더욱 실효성있는 자립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5)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방안 도출

선행연구 고찰,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2차 자료 분석결과,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면접조사결과 분석, 전문가 의견조사, 현장종사자FGI, 전문가 자문회의, 청소년정책포럼,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여, 이에 기반한 정책과제들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파악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현안과 취약성에 기초하여 이를 극복하고 향후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인기 이행과 성공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초점을 두었다.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추이 검토를 위해 학업중단자 수 등 관련 통계를 검토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원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와 이론들을 고찰하였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제도 및 정책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법률 및 행정자료를 검토하였고, 이러한 문헌연구 결과는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2차 자료 분석,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심층면접조사, 전문가 의견조사 및 현장실무자 FGI를 포함한 연구 설계 전반에 반영되었다.

2) 전문가 자문·워크숍

체계적으로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연구 내용 및 절차 전반에 대해,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면접 및 전문가 의견조사와 현장종사자 대상 면접조사 내용에 대해 학계와 현장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자문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전체적인 틀 구성을 위한 이론 검토와 전체적인 연구내용 및 방법론에 대해 학계의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고,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집된 질적자료 분석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질적연구방법론 전문가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횟수	자문영역(내용)	자문진	일정
1	• 이론적 접근에 대한 검토 및 자문	학계전문가	3/31
2	• 학교 밖 청소년의 향후 사회적응 관련 함의 모색을 위한 니트청년 관련 현장 전문가 자문	현장전문가	3/31
3	•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2차 자료 분석 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방법 자문	학계전문가	4/5
4	• 취약청소년 연구에서의 이론적 접근, 질적자료 수집 방법 자문	학계전문가	3/21
5	• 연구내용과 학교 밖 청소년 면접내용 자문	현장전문가	3/22
6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질적자료 분석방법 자문	학계전문가	3/23
7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면접조사지 서면 자문	학계/현장 전문가	5/9~11
8	• 전문가 의견조사지 검토 및 자문	학계전문가	6/26
9	• 2차 자료 분석 내용 적절성 검토 및 자문	학계전문가	7/31
10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질적자료 분석 방법 및 결과 도출 검토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	학계전문가	10/24

3) 2차 자료 분석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가장 최근의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대규모 조사인 ‘2021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한 2차 자료 분석을 수행하였다. 2차 자료를 활용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과 연관될 수 있는 개인적, 환경적 취약한 측면들과 관련된 변수들을 최대한 선별하여 기술 분석(t-test, Anova, Chi-square 검증 등)을 통한 실태 파악과 데이터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변량분석(회귀분석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석된 결과는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면접조사결과와 함께 정리하여 정책과제 도출에 활용하였다.

4)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심층면접조사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분석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방안 도출을 위해 학교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정책의 제도화 이전과 이후, 최근까지의 변화에 따라 이전 학교 밖 청소년

질적 패널조사 연구에 참여했던 일부 청년과 청소년을 면접조사에 포함하였고(집단A, B), 비교적 최근에 학교를 그만둔 학교 밖 청소년(집단C)을 새로 발굴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조사는 반구조화된 면접지를 활용하였으며,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방식에 따라 오프라인과 온라인 화상방식(Zoom활용)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주요 요소	집단A	집단B	집단C
	20대 중·후반 청년	10대 후반~20대 초반	10대 중·후반
면담참여자 섭외과정	• 이전 연구*에서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한 연구참여자만을 대상으로 올해 컨택하였고, 올해 연구에 합의가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대상자 선정		• 꿈드림센터, 청소년쉼터 등 학교 밖 청소년 접촉 가능한 곳을 통해 추천·네티네티표집
면담참여자 수	10명	10명	10명
면담참여자 특성 개요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전 학교를 그만둔 20대 중·후반 청년	• 본격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경험한 성인기 이행과정의 청소년	• 1~2년 내 최근 학교 밖 경험을 하고 있는 10대 중·후반 청소년
면담방식	• 반구조화된 면접조사를 활용하여 개별 면담 진행		
면담시간/횟수	• 각 60분 내외/ 1회		
면담자료 기록/ 녹취 여부	• 녹취 후 전사		
면담자	• 연구진, 관련 전공 석·박사로서 훈련된 면접원		

* 2018~2022년에 본원에서 수행한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연구

5) 전문가 의견조사

학교 밖 청소년 분야, 교육학, 사회복지학 등 관련 학계 전문가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장 전문가 총 21명을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을 진단하고 건강한 성장 및 자립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총 두 차례에 걸쳐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개방형 조사 방식의 1차 조사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과 주요 정책과제들을 도출하였고, 2차 조사에서는 이에 대한 정량조사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2차 조사결과는 지원방안 및 정책과제 등의 중요도에 대한 평균값 산출, 중점과제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AHP(계층분석적 의사결정 방법, Analytic Hierarchy Process)방식 분석, 향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방향성 설정 등을 위해 Borich 요구도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분석된 결과는 정책제언 도출에 활용하였다.

주요 요소	내용
조사대상	• 학교 밖 청소년 포함 관련 분야 학계, 현장 전문가 21명
선정방법	• 목적적 표본추출(purposeful sampling)
조사내용	•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및 추이 변화와 주요 취약성에 대한 의견 •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극복을 위한 정책과제, 향후 지원 방향성 설정에 대한 의견
조사방법	• 1차 조사는 개방형 자기기입식 방식으로 조사하고, 이를 범주화하여 주요 내용 도출 • 2차 조사는 1차 조사결과에 대해 정량조사 방식으로 평가
조사시기	• 1차 조사: 2023년 8월 16일 ~ 23일 • 2차 조사: 2023년 9월 13일 ~ 21일

6) 현장실무자 FGI(초점집단인터뷰) 실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최일선에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팀장급 현장 실무자와 가장 가까운 안전망 체계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취약성과 이들의 자립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요 요소	내용
면담참여자 섭외과정	• 전국의 시도, 시군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중 지역을 안배하여 해당 센터로부터 일정한 현장 경력을 가진 실무자 추천
면담참여자 수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7명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명
면담참여자 특성 개요	• 종사경력 2년 이상의 팀장급 실무자 중심
면담방식	• 시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시군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자들을 3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FGI 실시
면담 시간 및 횟수	• 1회 당 80~90분 소요, 총 3개 집단임에 따라 3회에 걸쳐 실시
면담자료 기록/녹취 여부	• 녹취 후 전사
면담자	• 연구진

7) 기타 연구방법

○ 학교 밖 청소년 정책 포럼 개최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협력 방안’을 주제로 청소년정책포럼을 개최하고(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와 공동개최),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진입, 학업복귀, 자립지원을 위한 지역 내 연계협력에 대한 사례발표와 각계 토론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특히 현장에서의 지원정책에의 합의 도출에 참고하였다.

주제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협력 방안	
일시	2023.9.21.	
주요 내용	•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다변화와 정책적 함의에 대한 주제발표(본 연구 책임자) •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진입, 학업복귀, 자립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내 연계·협력 방안 사례발표(우수사례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정책적 합의 도출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전문가 의견조사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지원과, 그리고 교육현장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의 연계와 관련된 협의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팀과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차수	주요내용	참석공무원 부처(과)	개최시기
1	전문가 의견조사 내용 및 정책적 합의 의견 수렴	여성가족부	7월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서의 교육현장과의 연계 합의	서울특별시 교육청	10월

8)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질적조사, 학계 및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의견조사, 그리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의 현장실무자를 대상으로 FGI를 수행함으로써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이에 따라 사전에 일련의 조사절차 및 조사내용(면접지, 조사지)을 포함하여, 본 조사에 대한 설명문과 연구참여동의서와 같은 연구윤리 준수를 위해 필요한 제반 내용과 양식에 대해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BR) 심의(IRB 승인번호: 202305-HR-고유-010)를 거쳐 승인받은 후 연구에 활용하였다(상세 조사 내용은 부록에 제시).

4. 연구추진체계

앞서 기술한 연구내용 및 방법을 정리한 본 연구의 추진 체계와 과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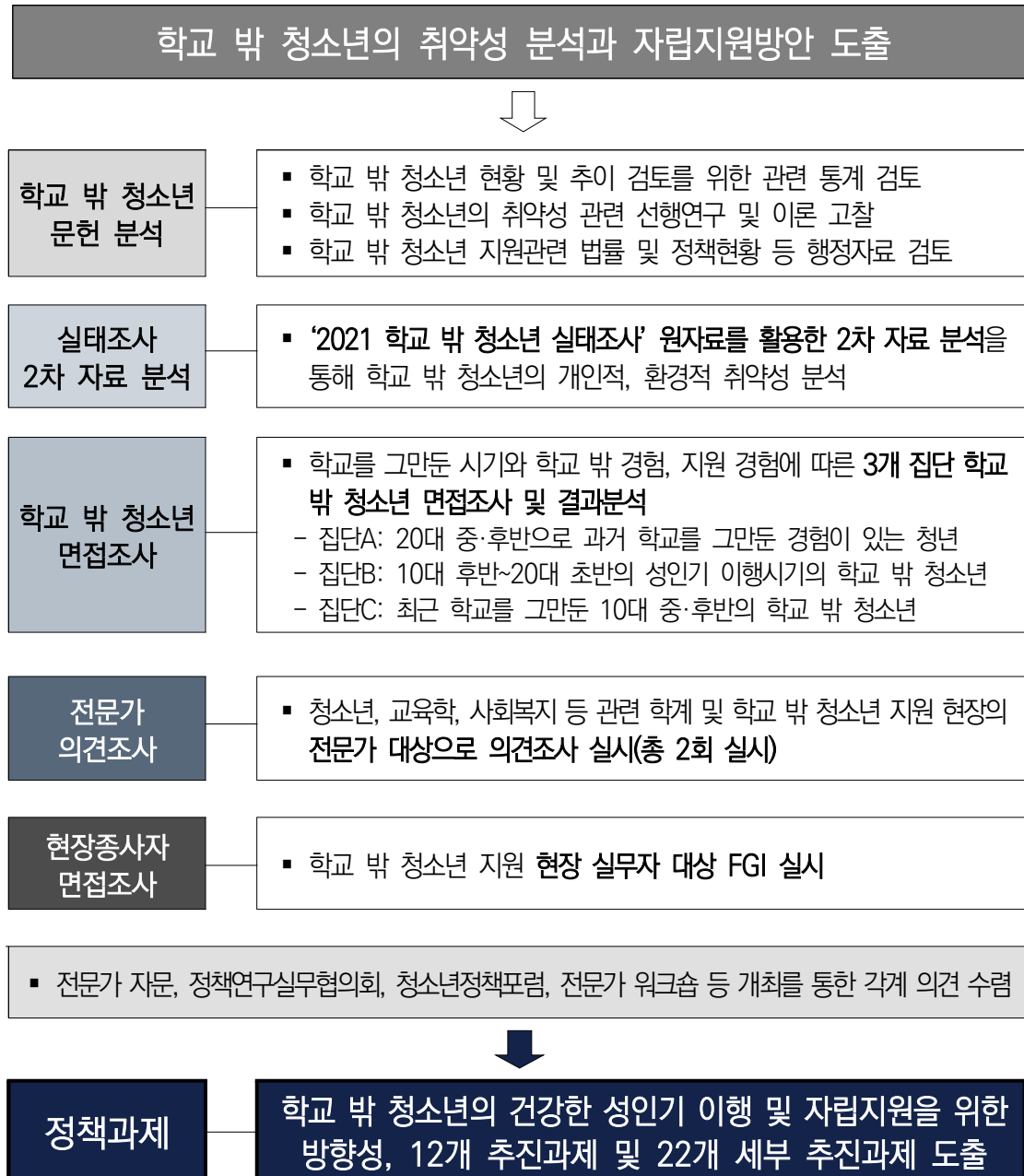


그림 1-2. 연구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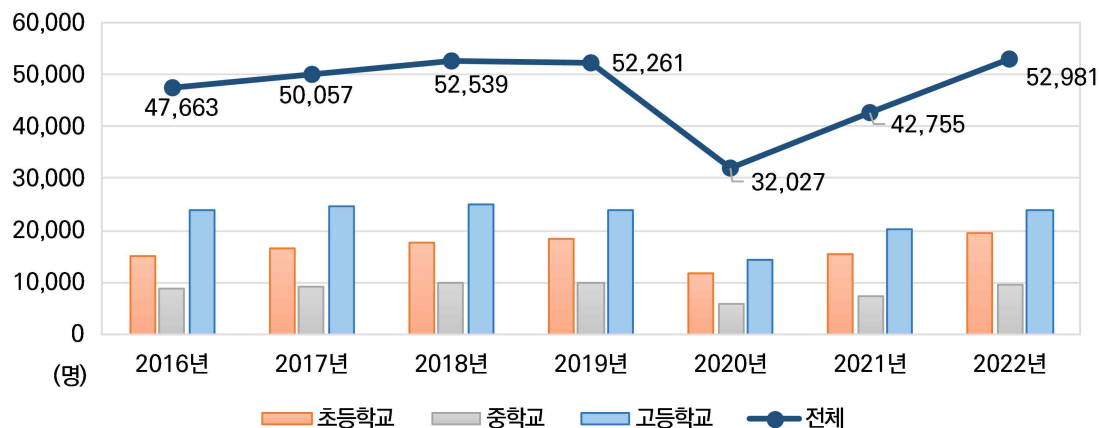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1. 학업중단 현황 및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 2.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과 자립지원에 대한 논의
- 3.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분석 및 지원을 위한 이론적 접근
-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의 현황과 함의

1. 학업중단 현황 및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1) 학업중단 현황 및 규모 추이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의 수는 코로나19 발생 전까지 매년 5만 명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학령기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서도 그 수에 큰 변동이 없었다(그림 II-1).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원격교육이 보편화된 시기에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의 수가 크게 감소하였는데(2021년 2월말 기준)(그림 II-1),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조기유학이 불가능해지고 또 학교에서의 원격교육 전환으로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 등에 따른, 즉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학업중단현황(2023년 2월말 기준). <https://kess.kedi.re.kr/index>에서 2023.09.08. 인출. 위의 링크에서 2016년부터 2022년 학업중단자 수 검색

그림 II-1. 학교급별 학업중단자 수 추이(2016~2022년)

9) 이 장은 김희진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으며, 2절의 '3)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과 관련한 선행연구 고찰'은 한지형 전문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공동 집필하였다.

즉, 등교가 확대되기 시작한 2021년부터 학업중단자 수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2022년 통계(2023년 2월말 기준)에서는 코로나19 시기 이전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II-1). 이는 조기 유학을 위한 해외출국이 다시 시작되고, 또 등교가 일상화되면서 코로나19 이전의 학업중단 상황으로 돌아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향후 추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으나, 학업중단을 역시 코로나19 이전의 2019년과 동일한 1.0%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2018년 0.9% → 2019년 1.0% → 2020년 0.6% → 2021년 0.8% → 2022년 1.0%).¹⁰⁾ 단적으로 대비되고 있는 최근의 학업중단율과 학교급별 학업중단 학생 수를 살펴보면 표 II-1과 같다.

표 II-1. 학업중단자 수와 비율 추이(2018~2022년)

단위: 명,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전체 학생 수	5,725,260	100.0	5,452,805	100.0	5,346,874	100.0	5,323,075	100.0	5,275,054	100.0
학업중단 학생 수/ 학생 수 비율	50,057	0.9	52,261	1.0	32,027	0.6	42,755	0.8	52,981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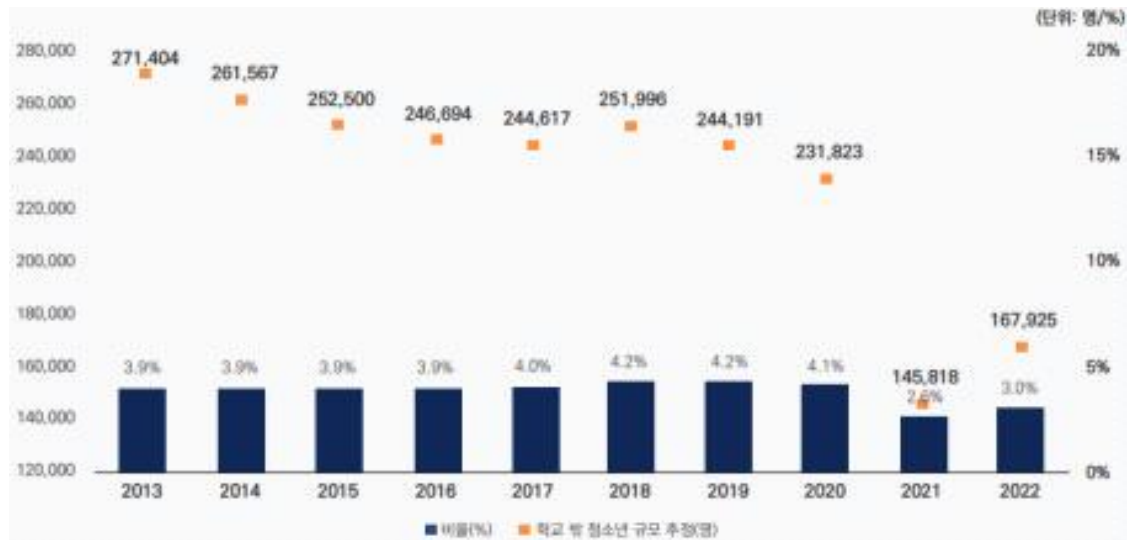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2023년 2월말 기준 학업중단현황. <https://kess.kedi.re.kr/index>에서 2023.09.08. 인출. 위의 링크에서 2018년부터 2022년 학업중단자 수 검색

앞서 살펴본, 교육통계를 통해 매년 발표되는 학업중단자 수와 그 비율을 통한 추이 외에, 그림 II-2와 같이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 추정¹¹⁾을 통해서도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을 대략 살펴볼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는 2020년 기준 231,823명에서 2021년에는 145,818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재적 학생 수의 증가 및 취학률의 증가를 그 원인으로 보았다(전현정, 2022). 지속적으로 학령기(6~17세) 인구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2022년의 학교 밖 청소년은 약 16만 8천여 명으로 추정되면서, 2021년에 약 3.7만 명 증가하였던 재적 학생 수는 2022년에 약 4.6만 명이 감소하였다(하형석, 2023). 규모 추정에 활용되는 통계의 차이 및 통계 산출 시점 등의 차이로 다소 차이가

10)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2023년 2월말 기준 학업중단현황. <https://kess.kedi.re.kr/index>에서 2023.09.08. 인출. 위의 링크에서 2018년부터 2022년 학업중단자 수 검색

11) 주민등록인구현황, 교육기본통계, 국제인구이동통계 등을 활용한 간접추정 방법을 활용한 것이다(하형석, 2023).

있을 수 있지만, 학령기 인구수의 감소나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큰 사회 환경적인 변화가 학교 밖 청소년의 양상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 출처: 하형석(2023). ISSUE 통계: 2022년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추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p.3에서 발췌

그림 II-2. 학교 밖 청소년 규모 및 비율(2013~2022년)

2)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학업중단자 수와 학교 밖 청소년 규모에서의 변화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서의 변화 양상도 확인할 수 있다. 성별과 교급별로 살펴보면, 2018년 학업중단자 수에서 남자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51.9%였으나, 2022년에는 48.4%로 3.5%p 감소한 반면, 2018년에 여자청소년은 48.1%였으나, 2022년에는 51.6%로 증가하면서, 여자청소년의 학업중단 비중이 커졌다(표 II-2). 또한, 2018년 초등학교생의 비율은 32.8%였으나, 2022년에는 36.6%로 3.8%p 증가하였고, 2018년 고등학생의 비율은 49.0%였으나, 2022년에는 45.3%로 3.7%p 감소하였다(2018년 중학생의 비율은 18.2%였으나, 2022년에는 18.1%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표 II-2).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학업중단자 수가 훨씬 많지만, 초등학교 단계에서의 학업중단자 비율 증가는 학업중단자 저연령화 현상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표 II-2. 학업중단자 수와 비율 추이(2018~2022년): 성별·학교급별

단위: 명, %

구 분(학교유형)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전체 학업중단자 수		50,057	100.0	52,261	100.0	32,027	100.0	42,755	100.0	52,981	100.0
성별	남	25,979	51.9	26,199	50.1	16,383	51.2	21,392	50.0	25,653	48.4
	여	24,078	48.1	26,062	49.9	15,644	48.8	21,363	50.0	27,328	51.6
교급	초등학교	16,422	32.8	18,366	35.2	11,612	36.3	15,389	36.0	19,415	36.6
	중학교	9,129	18.2	10,001	19.1	5,976	18.7	7,235	16.9	9,585	18.1
	고등학교	24,506	49.0	23,894	45.7	14,439	45.1	20,131	47.1	23,981	45.3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2023년 2월말 기준 학업중단현황. <https://kess.kedi.re.kr/index>에서 2023.09.08. 인출. 위의 링크에서 2018년부터 2022년 학업중단자 수 검색

최근 5년간 교육통계에서 초등학생이 학교를 그만두는 주요 이유였던 미인정유향 및 해외 출국은 최근 코로나19로 그 비중이 감소하면서,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의 격차가 매우 컸으며, 이외에 질병이나 기타 사유가 증가하였다(표 II-3). 고등학생의 경우도 해외 출국 비율이 감소하였고, 질병과 기타 사유가 증가하였는데, 특히 부적응이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표 II-3).

표 II-3. 학교급별 학업중단 사유(2018~2022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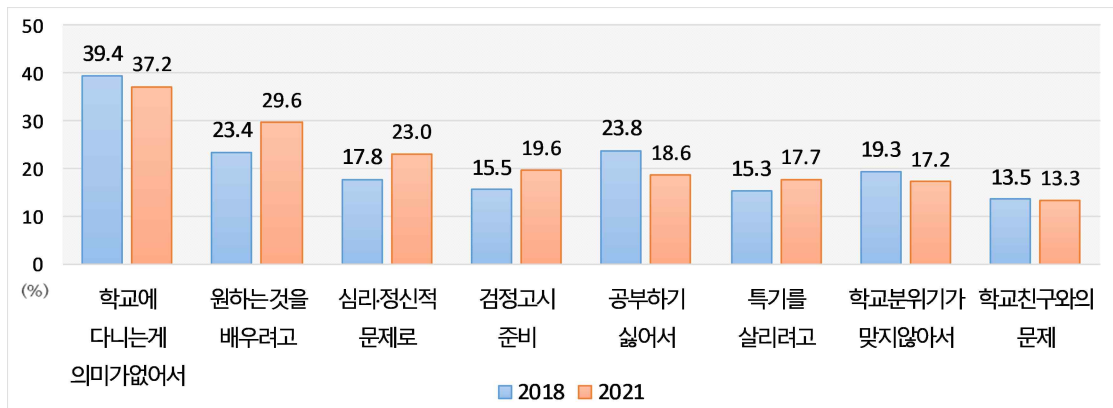
구 분		합 계	질병	미인정유향· 해외출국	장기결석	기타
초등학교	2018	17,797 (100.0)	131 (0.7)	14,118 (79.3)	5 (0.0)	3,543 (19.9)
	2019	18,366 (100.0)	146 (0.8)	14,370 (78.2)	9 (0.1)	3,841 (20.9)
	2020	11,612 (100.0)	132 (1.1)	7,074 (60.9)	10 (0.1)	4,396 (37.9)
	2021	15,389 (100.0)	108 (0.7)	9,879 (64.2)	10 (0.1)	5,392 (35.0)
	2022	19,415 (100.0)	121 (0.6)	13,255 (68.3)	5 (0.0)	6,034 (31.1)
중학교	2018	9,764 (100.0)	385 (3.9)	5,090 (52.1)	37 (0.4)	4,252 (43.5)
	2019	10,001 (100.0)	351 (3.5)	5,160 (51.6)	26 (0.3)	4,464 (44.6)

구 분		합 계	질병	미인정유학· 해외출국	장기결석	기타
	2020	5,976 (100.0)	172 (2.9)	2,464 (41.2)	17 (0.3)	3,323 (55.6)
	2021	7,235 (100.0)	274 (3.8)	2,897 (40.0)	18 (0.2)	4,046 (55.9)
	2022	9,585 (100.0)	418 (4.4)	4,210 (43.9)	16 (0.2)	4,941 (51.5)

구분		합계	자퇴					퇴학	제적·유예 ·면제
			질병	해외출국	가사	부적응	기타		
고등학교	2018	24,978 (100.0)	1,176 (4.7)	3,567 (14.3)	262 (1.0)	6,968 (27.9)	12,128 (48.6)	721 (2.9)	156 (0.6)
	2019	23,894 (100.0)	1,054 (4.4)	3,077 (12.9)	147 (0.6)	6,694 (28.0)	12,252 (51.3)	545 (2.3)	125 (0.5)
	2020	14,439 (100.0)	733 (5.1)	1,327 (9.2)	87 (0.6)	3,090 (21.4)	8,903 (61.7)	211 (1.5)	88 (0.6)
	2021	20,131 (100.0)	1,081 (5.4)	1,814 (9.0)	111 (0.6)	4,397 (21.8)	12,337 (61.3)	309 (1.5)	82 (0.4)
	2022	23,981 (100.0)	1,268 (5.3)	2,168 (9.0)	115 (0.5)	5,327 (22.2)	14,731 (61.4)	291 (1.2)	81 (0.3)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학업중단현황. <https://kess.kedi.re.kr/index>에서 2023.09.08. 인출. 위의 링크에서 2018년부터 2022년 학업중단 사유 검색

또한, 2018년과 2021년에 실시된 전국 규모의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차이가 일부 확인된다(김희진 외, 2021b; 윤철경 외, 2018b). 그림 II-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1년 조사결과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려고’, ‘심리정신적 문제로’, ‘검정고시 준비’를 사유로 학교를 그만둔 비율은 2018년 조사결과에 비해, 대체로 약 4~5%p 증가했으며, ‘공부하기 싫어서’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응답률은 5.2%p 감소하였다(복수응답).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서 수행한 정책수요조사에서 청소년들은 진학정보 및 검정고시 준비 지원, 건강검진 등 건강관련 지원, 진로탐색을 위한 체험활동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수요가 높았으나, 특히 검정고시 지원과 대학입학 지원에 대한 수요가 과거에 비해 더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김희진 외, 2021b).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제는 고등학교 학력 취득을 위한 검정고시 응시를 당연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 욕구가 과거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더해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 출처: 김희진 외(2021b).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p.44의 내용을 그래프로 재구성

주: 복수응답 문항으로 그 중 10% 이상의 응답을 보인 항목에 대해서만 그래프로 제시함.

그림 II-3.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를 그만둔 사유(2018,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이외에도, 선행연구들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은 교육 및 학력취득에서의 어려움(이경상, 조혜영, 2005), 심리적 갈등과 불안, 소외감과 같은 심리사회적 문제나 부정적 사고 및 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영희, 최보영, 2015; 명소연, 조진옥, 2016; 백혜정, 송미경, 2015). 진로준비나 진로설계 등 진로와 관련한 부분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심현아, 2020; 유진이, 신효민, 2018), 특히 어떠한 개인적 특성과 생활영역 및 환경적 차이가 궁극적으로 이들의 건강한 성인기 이행과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질적조사에서, 최근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은 구체적으로 진로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도 했지만, 여전히 진로와 관련된 고민도 많았으며, 또래 관계로 인해 더 학교를 떠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김희진 외, 2022b). 이러한 양상은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특성들이 나타나고, 또 변화되고 있으며, 현재 시점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시의적절한 지원 방향성이 재고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2.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과 자립지원에 대한 논의

1)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논의 및 연구의 범위

취약성(vulnerability)은 지리학, 자연재해, 기후변화, 생태학, 공중보건, 빈곤 및 개발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개념이다(Füssel, 2007; 황하, 한승현, 2021: 20에서 재인용). 취약성 관련 해외 선행 문헌들에 대해 분석한 정지범 외의 연구(2019)에서는 취약성을 우선적으로 “특정 사건·위험에 노출(exposure)되어 있는 정도 혹은 피해를 입기 쉬운 정도(susceptibility 또는 sensitivity)로 정의”하였다(정지범 외, 2019: 15). 한편으로, 취약성은 이렇게 재난에 노출되어 피해를 보기 쉬운 상태뿐 아니라 재난을 견딜 수 있는 역량에 따라 회복력(resilience)이라는 관점에서 취약성의 수준을 정의하기도 하며, 취약성을 재난에 노출된 위험 정도와 집단의 대처능력 등으로 설명하기도 한다(Green, 2004; Kelly & Adger, 2000; Pelling & Uitto, 2001 등; 정지범 외, 2019: 16-17에서 재인용). 발달심리학에서는 스트레스가 많은 부정적 인생경험에의 노출을 취약성으로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역량을 잘 유지하는 것을 회복력으로 보기도 하였다(Luthar, 1991).

취약성에 대한 논의를 학교 밖 청소년과 연결시켜 보면, 정규 학교교육과정을 필수적인 발달단계로 보는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 취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학교를 그만둠에 따라 발생하는 취약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동안 취약성이 주로 자연재해 등과 같은 자연과학 영역에서 주로 다뤄졌기 때문에 관련 논의를 학교 밖 청소년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일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이 제도권 공교육을 그만둔 것은 특별한 사건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학교를 그만둠에 따라 어떠한 유형의 피해나 불리함에 노출될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에 대한 대응능력이나 회복력과 관련지어서도 살펴볼 여지가 있다.

우선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은 청소년들이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음에 따라 학교체계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유·무형의 지원과 자원에서의 배제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학교 교육 목표는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교육기본법 제9조 3항)¹²⁾로 되어있어, 사실상, 인간의 성장·발달과 관련된 모든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따라서 학교

밖에서 이러한 교육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를 기준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을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 다른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건강한 성장·발달과 성인기 이행과정을 거쳐 자립을 목표로 하는 사회구성원이라고 할 때, 여기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은 자립과 관련하여, ‘학교 밖’이라는 상황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취약성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역시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립지원에 대한 내용을 법률로 정하고¹³⁾, 이에 따라 정부부처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역시 궁극적으로 자립준비를 위한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여성가족부, 2021)¹⁴⁾, 학교 밖 청소년 취약성에 대한 논의도 이 범위에서 다루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과 취약성에 대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을 취약계층 청소년, 위기청소년으로 바라보는 관점일 것이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정의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지 않거나, 제적·퇴학처분을 받은 자퇴 청소년, 또는 미진학 청소년 등으로¹⁵⁾ 법률 전반에 취약이나 위기와 같은 단어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제11조(자립지원) 제3항에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위기청소년’의 정의에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으며¹⁶⁾, 많은 연구와 정책사업 등에서 위기청소년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주관의 위기청소년관련 실태조사(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에 포함되었으며, 여러 연구들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취약계층 청소년으로 간주하여 연구가 수행되기도 하였다(예, 성윤숙, 문호영, 천정웅, 이희현, 2022; 조규필, 2011 등). 그 이유로 학교생활 부적응이나 학교에서의 불건전한 또래문화 등으로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성윤숙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기본법. <https://www.law.go.kr/LSW/main.html>에서 2023.02.14. 인출.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W/main.html>에서 2023.02.14. 인출.

14) 2009년에 시작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해밀 프로그램 이전에는, 취약청소년 대상의 자립지원 프로그램(두드림)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함께 지원하였다(여성가족부, 2021).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https://www.law.go.kr/LSW/main.html>에서 2023.02.14. 인출.

1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정의)제4항 참조(“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 <https://www.law.go.kr/LSW/main.html>에서 2023.02.14. 인출)

외, 2022).

이는 미국에서 취약(vulnerable)청소년을 위기(at-risk)청소년으로 보면서, 책임 있는, 자립하는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십대 임신, 노숙, 약물중독, 비행, 신체적·성적 학대, 학업중단의 경향을 보이는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는(Fernandes-Alcantara, 2020) 맥락과 유사하다. 미국의 연구자들은 취약청소년을 성인기로 이행하면서 부정적 결과를 경험할 위기에 있는 집단으로 보고, 가정위탁 보호종료 청소년, 가출 및 노숙 청소년, 사법시스템에 연루된 비행청소년, 이민자 및 영어능력이 미흡한 청소년,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가 있는 청소년, 정신과 질환이 있고, 특수교육을 받는 청소년을 포함시키기도 하며, 미혼모, 고등학교 중퇴자, 학교/일에서 단절된(disconnected) 청소년¹⁷⁾으로 분류하는 연구자도 있다(Fernandes-Alcantara, 2020: 4-5).

과거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 안팎에서의 일탈이나 비행으로 중도 탈락한 사례로 보고 위기청소년으로 간주하기도 했으며, 또 부모나 가정의 경제적 배경이 빈곤하여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취약청소년이나 위기청소년으로 보는 것이 동떨어진 접근은 아니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은 매우 다양한 이유와 상황, 여건에 따라 학교를 그만둔 집단으로, 조기유학·홈스쿨링을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기도 하며, 공교육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교육 철학/종교적 사유 등 여러 이유로 대안교육기관을 선택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어, 제도권 공교육을 그만두었다는 것만으로 모두 취약계층이나 위기청소년으로 판단할 수 없다. 더구나 앞의 사례들은 학교 공교육체계보다 교육의 질이나 또는 개인의 요구에 부합하여 더 낫다고 판단하여 선택한 것으로 청소년기 성장·발달과 성인기 이행, 그리고 이후의 삶에서까지 부모의 역할과 지원은 상당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책적인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어, 본 연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학교를 그만둠에 따른 취약성과 불이익은 청소년 가정의 경제적 배경, 부모의 지지와 지원 정도, 청소년의 특성과 태도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¹⁸⁾ 따라서 이

17) 미국에서는 취약청소년이나 위기청소년 등으로 지칭하기보다 청소년의 긍정적인 특성에 초점을 두어, 공식적으로는 기회의 청소년(opportunity youth)으로 지칭할 것이 권고되고 있다(Fernandes-Alcantara, 2020: 30).

18) 취약성이 개인의 특성과 가정환경적 요인에 따라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은, 일례로 최근의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되는 코로나19의 감염이나 그 결과에 있어 사회경제적 배경요인과 보건상황에 따라 차별적인 취약성을 가진다는 공중보건에 있어서의 불평등에 관한 연구의 내용(Burström & Tao, 2020)과도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성인기 이행과정을 거쳐 자립하는데 있어 필요한 내용으로써 학교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었던 지원과 자원의 결핍이나 부재에 비중을 두어 취약성을 살펴보고자 하며, 이 결과로 인해 더욱 심화된 진로미결정 등 진로와 관련된 측면과 은둔을 포함한 심리사회적 취약성과 불리함도 조명하였다.¹⁹⁾ 즉,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이나 교육적으로 취약한 상황으로(academic vulnerability, educational vulnerability) 볼 수 있으며, 학교 재학 시의 또래와 교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둔 은둔 상황의 청소년은 또래 관계가 결핍된 사회적 취약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social vulnerability). 이러한 취약성 모두 이제 학교를 다니지 않음에 따른 것으로, 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을 먼저, 제도권 공교육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년기를 보냈거나 보내고 있음에 따라, 건강한 성인기 이행 및 자립에 필요한 모든 유·무형의 적절한 지원과 자원에서 배제되면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태,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인식하는 주관적 상태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아울러, 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방해할 수 있는 모든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다소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대상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II-4와 같다. 먼저, 학교를 그만두면서 학교 안의 모든 지원, 자원에서 배제되는 학교 밖 청소년, 학교를 그만둠에 따른 결과로 물리적, 환경적 요인에 따라 불리함을 경험하는 청소년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이러한 결과로 장·단기적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욱 심화된 취약성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어려움을 조명한다. 마지막으로, 학교를 그만둠에 따른 취약성과 엄밀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학교 밖 청소년 중 심리정서적 어려움이나 빈곤과 같은 특성을 가진 취약계층이거나 위기청소년들도 상당수 있음에 따라, 연구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취약성도 함께 고려하였다.

19)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과 관련하여 또 다른 측면은 학교를 그만둠에 따른 결과로, 부정적 시선이나 낙인, 이로 인한 취업에서의 어려움 역시 취약성에 해당하지만, 기본적으로 학교의 지원과 관련된 취약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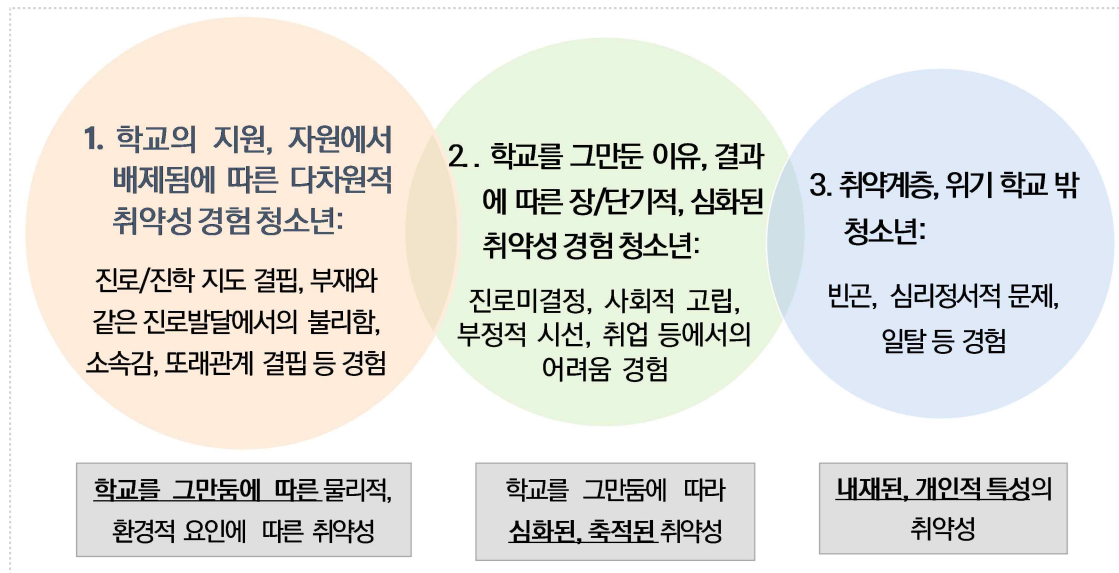


그림 11-4. 연구 대상: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경험 내용

2)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대한 논의

청소년의 자립은 주로 보호종료아동과 가정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흔히 경제적 독립과 독립생활(Independent living)이 가능한 상태로(Maluccio, Krieger, & Pine, 1990; 신혜령, 한지은, 백미진, 김진희, 2006에서 재인용) 정의되거나,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신체적, 심리정서적, 경제적으로 의지하거나 예속되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서 독립적으로 욕구를 충족시키는 상태”(김지연, 백혜정, 2017: 11)로 정의되고 있다. 성인이 아닌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러한 자립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 중 과반수 정도가 고등학교 시기에 학교를 그만두고(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2022년 2월말 기준) 성인기 이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학교체계의 교육·보호·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모든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인기 삶을 위한 자립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 지원에 대한 논의는 피할 수 없다.

성인기 이행과정의 청년 자립에 초점을 둔 최근 연구(유민상, 신동훈, 신영규, 박미희, 2022)에 따르면, 성인기 이행 청년의 자립(Independence)은 경제상황, 주거상황, 관계 특성, 주관적 특성과 관련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 자립을 위해 일자리·자산형성 등의 경제적 자립 지원, 주택·주거비 경감과 같은 주거 지원, 부모로부터의 독립·커뮤니티 형성과 같은 관계 자립지원, 진로 탐색을 통한 성인 인식·독립성 같은 주관적 자립지원

등으로 분류하였다(유민상 외, 2022: 34). 이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성인기 이행과 자립에 있어 어떠한 측면에 주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취약계층 청년을 유형화하고 이들이 경험하는 취약성에 대한 또 다른 정책연구에서는, 정책 대상자로서의 취약계층 청년의 인적 속성(장애, 이주배경 등), 관계 특성(경제적 부양 청년, 한부모 청년, 고립 청년 등), 일자리 특성(니트 청년, 실업청년, 불안정 고용 청년 등)에 의한 취약성은 그 자체로 취약하다기보다 경제력 수준과 상호작용하여 청년의 이행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하였다(김성아 외, 2021: 46). 여기에서는 정책대상자로서 취약계층 청년 집단을 특성에 따라 구분하였는데, 이 논리를 유사하게 적용한다면,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인적 속성(학습부진, 저소득 가정 청소년 등), 관계 특성(은둔, 따돌림 피해 청소년) 등에 의한 취약성은 그 자체로 취약하다기보다 학교 밖이라는 상황과 상호작용하여 이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성인기 이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은 학교를 다니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성인기 이행과정 및 자립에 있어 필요한 교육, 사회적 관계, 진로지도 등의 결핍 상태 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의 개인적 특성과 학교에서의 부정적 경험들이 누적, 심화되어 이들의 성공적인 자립을 더 어렵게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과 관련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진로와 관련된 지원이다. 청소년이 본인에게 맞는 안정적인 진로를 모색하여 직업을 얻는 것은, 경제적인 자립을 통한 생존뿐 아니라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건강한 성인기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으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을 명시하고 있다.²⁰⁾ 동 법률 제11조 자립지원에 포함되어 있는 지원들을 살펴보면, ①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②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 ③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르면, 주거 및 경제적 측면에 대한 부분은 명시되어 있으나 사회적 관계 및 독립성과 같은 주관적 자립 의식과 관련된 내용은 정서지원에 어느 정도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될 뿐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 그리고, 청소년 발달 단계를 고려한 듯한 문화공간과 문화교육지원, 의료지원 등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으나, 직접적으로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W/main.html>에서 2023.02.14. 인출.

‘진로’를 명시한 지원 내용은 진로상담과 진로상담프로그램 정도이다. 교육지원과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역시 진로지원에 해당하지만, 이 법률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는 진로상담 후 복교나 검정고시 지원, 이후 바로 직업체험과 취업지원(직업적성 검사, 진로상담프로그램, 직업체험 및 훈련 프로그램, 직업소개 및 관리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충분한 탐색과 자신에 대한 이해, 수많은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적성 탐색과 진로에 대한 다양한 준비에 대한 내용과 이를 위해 필요한 시간 등에 대해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진로를 빨리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진로 상담 후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이후 급히 대학 진학²¹⁾을 준비하거나, 아르바이트, 인턴십을 포함한 진입장벽이 낮은 취업 현장에 바로 투입되는 루트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학교 밖 청소년 역시 체계적인 진로교육과 본인의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며,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한 연구에서도 일부 확인할 수 있다(박동, 김수원, 이경상, 김미정, 장선숙, 2019). 이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학생 청소년에 비해 체계적인 진로활동 및 진로교육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진로교육법에도 학교 밖 청소년이 배제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박동 외, 2019: 106-108). 또한, 진로교육을 위해서는 자아인식,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학교 밖 청소년의 일상생활 패턴의 불규칙, 무기력감, 자기관리 능력 부족 등의 문제와 함께, 기초역량 강화를 위한 진로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박동 외, 2019: 104-105). 아울러, 진로미결정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미흡하며, 진로미결정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중됨에 따라 체계적인 진로교육과 진로지도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박동 외, 2019: 105-106).

학교 밖 청소년의 성인기 건강한 자립을 위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를 충분히 탐색하고 준비하는 기회와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는 성인기 이행이 지연되는 현대 사회의 보편적 현상 속에서 이에 대한 가치판단은 뒤로 하더라도,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학교 밖 청소년을 급히 자립으로 이끌기보다, 이에 앞서 필요한 여러 단계적 지원이 우선 필요하기 때문이다.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전제로 시간을 갖고 자신의 진로 적성에 대한 이해와 진로 및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21)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질적 연구(김희진 외, 2022a)에서도 또래와 달리 중등교육을 마치지 못했다는 불안감과 학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급히 대학에 진학하였으나, 여전히 진로미결정 상태인 청소년 사례를 관찰할 수 있다.

지원해야 한다. 또한, 학생 청소년이 진로와 관련한 교과 시간과 여러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오랜 기간 진로를 준비한다면,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도 학교 밖에서 유사한 경험과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과 관련한 선행연구 고찰²²⁾

학교 밖 청소년과 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종사자와 관련한 주제로 무수히 많은 양적, 질적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양적연구의 경우 관련 변수가 포함된 패널조사와 실태조사 등이 여러 차례 수행되면서, 2차 자료 분석이 가능했고, 또 현장에서의 지원사업이 점차 활성화되면서 이에 대한 평가 및 개선을 위한 연구가 가능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 중 학교 밖 청소년에 한정하여 살펴보면, 학교 밖 청소년의 부모와의 관계 및 심리정서적 문제(이지혜, 조은호, 박미연, 김현정, 2020; 정문경, 2022; 하여진, 2022 등), 진로준비 및 성숙도 등 진로관련(노지혜, 문성호, 2019; 송현아, 유순화, 안세영, 2016; 장정임, 2009 등), 사회적 관계 및 사회적 지지(전주희, 김혜미, 2020; 조혜정, 홍다영, 2017 등), 사회적 낙인(김지민, 이은경, 민미연, 2022; 이화명, 김영미, 2016; 최효식, 연은모, 2022 등)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었다. 또한, 스마트폰·게임 중독(문진영, 박주원, 이창문, 2020; 성경주, 2021; 이래혁, 2022; 전진호, 이성규, 2022 등) 등 일탈행동 등에 초점을 둔 연구들도 상당히 많이 발표되었다. 질적연구들은 학업을 그만둔 원인, 학교를 그만둔 이후의 경험과 생활 실태, 다양한 활동, 진로준비, 자립과정 등에 대해, 사례연구(김경숙, 김인희, 2016; 김영신, 김승희, 2022), 내러티브 연구(문동욱, 2018), 현상학적 연구(김미옥, 조아미, 2020; 이경은, 2021; 이지연, 조아미, 2021), 근거이론(조진옥, 명소연, 2016), 질적 메타분석(안태용, 임혜경, 강선모, 2019) 등의 심층적인 여러 접근법을 활용하여 탐색하였다.

이 연구들이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한 부분을 일부 다루고 있으나, 학교에 재학 중이었다면 경험하지 않았을, 또 제도적, 환경적인 취약성까지 포함하여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조명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즉, 연구의 대상을 학생 청소년이 아닌 학교 밖 청소년으로 제한한 것일 뿐 연구논문의 변수나 주제는 일반청소년과 유사하며, 학교 밖 청소년의 위기적 측면에 집중하거나²³⁾, 학교 밖 청소년들의 취약한 ‘현재의’ 행동, 태도에 초점을

22)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등 대규모 양적, 질적 연구들은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전반적인 실태를 모두 다룸에 따라, 여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수행된 학술연구들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둔 연구²⁴⁾들이 많다. 또는 학교 밖 청소년이기 때문에 더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학교를 떠남에 따른 자립과 관련한 취약성과 불리함²⁵⁾의 관점으로 수행한 연구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일부 학교를 그만둔 이후의 경험이나 실태와 관련된 연구들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지 않았다면 경험하지 않았거나, 또는 더 심각해지지 않았을 상황/문제들에 대해 보고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이들 연구들에서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둠에 따른 실질적인 학력부족과 이에 따른 선입견으로 실직이나 열악한 고용상태로 이어지게 되며(이경상, 조혜영, 2005), 교육적, 직업적 발달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 이후 심리적, 신체적, 경제적 위기까지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영희, 최보영, 2015). 또한 학교를 그만두면서 미래에 대한 막연함과 불안감이 더해져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부정적인 사고와 정서가 커졌고(백혜정, 송미경, 2015; 오혜영, 지승희, 박현진, 2011), 대인관계 경험의 결핍, 심리적 갈등, 우울, 소외, 무기력, 박탈감 등 생활부적응에 기인한 다양한 심리사회적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김영희, 최보영, 2015; 명소연, 조진옥, 2016).

드물게 학생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을 비교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은 부족한 운동, 불규칙한 식생활과 질 낮은 음식섭취로 인해 불균형적인 영양 상태를 보였으며, 학교를 그만둔 이후, ‘정보 부족’, ‘비용 부담’, ‘인식 부족’의 이유로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황순길 외, 2014). 또한, ‘생활예절’, ‘감정조절’, ‘갈등조절’ 등의 생활역량에 있어서 학교 밖 청소년이 학생 청소년에 비해 더 낮은 수준을 보였고, ‘문제상황 대처역량’ 기술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자, 서희정, 윤명희, 2019). 학생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비교한 최근의 한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우울, 불안, 자살 위험성이 학생 청소년보다 더 높은 증증도를 보여, 학교 밖 청소년의 정신건강상의 취약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최정원 외, 2021).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의 성공적인 성인기 이행과 자립에 직결되는 진로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선행연구들은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이후 가장 필요로 하는 도움은 진로관련

23) 예시: 문진영 외, 2020; 성경주, 2021; 이래혁, 2022; 전진호, 이성규, 2022 등

24) 여기에는 우울과 불안, 사회적 낙인감, 건강과 관련된 연구들을 예로 들 수 있다(예, 김영희, 최보영, 2015; 명소연, 조진옥, 2016; 박근수, 김민, 2016; 박동진, 김나연, 2019; 최정원, 문호영, 전진아, 박용천, 2021 등)

25) 불리함(Disadvantages)은 특히, 사회적 배제나 권리 박탈, 기회 불평등의 맥락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 역시 결과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자립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맥에 따라 병기하기도 하였다.

정보수집활동(윤철경, 유성렬, 김신영, 임지연, 2013)이었으며,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심현아, 2020; 유진이, 신효민, 2018)과 진로설계의 어려움(유진이, 신효민, 2018; 윤철경, 서정아, 유성렬, 조아미, 2014)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외에도, 학교를 그만둔 이후 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술, 진로 선택 등)에 대한 자각과 이로 인해 학교를 그만둔 것을 후회하는 사례도 있었다(김희진 외, 2022b).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결정, 진로준비, 진로장벽 등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성별과 연령대에 따른 분석결과에서의 차이를 보고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²⁶⁾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학교를 그만둔에 따른 교육적 취약성, 사회적 관계에서의 취약성, 신체적·심리정서적 건강에서의 취약성, 그리고 진로준비와 관련된 취약성 등은 경쟁이 심한 우리사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하여금 더욱 험난한 삶의 여정을 예고하며, 성인기 삶에서의 안정적인 자립을 더욱 요원하게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과거 연구들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 자립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진로지원을 포함한 다차원적인 측면에서의 취약성을 체계적으로 접근한 사례를 찾기 어려움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이나 결핍, 지원의 부재 차원에서 더욱 실증적인 분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리고, 이에 기초한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 전략에 있어서도 우선적으로 청소년의 권리로서의 접근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학생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당한 지원 요구와 자립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들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26) 박지현과 황미영의 연구(2017)에서는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로장벽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등학교 시기에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이 초·중등 시기에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 보다 진로장벽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결정 여부와 진로준비행동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김정숙(2017)의 연구에서는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에 비해 진로결정수준이 낮고, 진로준비행동에서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진로준비행동 증진을 위한 개입에 있어서 성별 간 차이를 고려한 지원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또한 연령에 따라 진로유형에 차이가 있었는데, 만 18세 미만 청소년집단은 '학업과 진로 유형'을, 만 19세 이상 집단은 '취업 및 직업훈련 유형'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에 따라, 검정고시 등 고등학력 취득 이후의 진로지원이 강화될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3.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분석 및 지원을 위한 이론적 접근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분석과 이에 기초한 자립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먼저 권리에 기반한 제도적 측면에서의 접근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는 청소년이 국가의 지원과 보호의 대상임에 따라, 학생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 동등 수준의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현장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회복탄력성과 역경 후 성장 등의 개념에 대해서도 다루었는데, 이는 학교를 그만두는 큰 사건(또는 역경일 수도 있는)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다시 삶을 꾸려나가고 자립을 위한 준비에 있어 필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 권리기반 접근(rights-based approach)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분석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 전략은 제도적, 환경적 차원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에 기반한 접근에 기초하였다. 청소년으로서 또래 학생과 동일한 위치인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은 권리실현차원에서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상대적으로 불리하거나 어려움에 처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기존의 청소년관련 연구분야에서 기존의 불평등에 대한 논의는 주로 청소년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이나 배경의 차이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일례로 교육성취 수준은 가정의 배경, 인종,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며, 이는 교육 불평등(Educational inequality)의 관점에서 논의되었다(Lamb, 2010). 교육적 불평등은 성별, 지역, 특히 빈곤 및 경제적 어려움과 깊이 연관성이 있는데(Delprato & Frola, 2022), 선행연구들은 학교를 그만두는 것이 이러한 가정의 경제적 수준, 이주배경, 거주지역 등 청소년의 배경 및 환경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김혜경, 어윤경, 2021; 김상현, 양정호, 2013; 정제영, 정예화, 장선희, 이슬아, 2017).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는데 있어 가정 경제의 어려움, 다문화 배경 등이 영향을 미쳤고(김희진, 장근영, 이동훈, 윤철경, 2020; 김희진 외, 2022b), 이주배경 청소년들 중에서도 취업해서 돈을 벌고 싶어서, 또는 집안 경제사정으로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사례가 많았다(양계민, 정윤미, 장윤선, 2021).

이렇게 불평등과 관련된 문제들로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의 실태와 관련 문제들뿐 아니라,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성장하면서 경험하는 취약성이나 불평등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은 국가의 지원과 보호를 충분히 받아야 하는 청소년으

로서의 권리가 있으며 이는 학생 청소년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권리기반접근(또는, 인권기반접근, Human Rights Based Approach)은 국제적인 구호 및 개발 사업을 위해 논의되었으나, 기존의 자선이나 욕구에 기반한 접근이 아닌 권리를 가진 자들(권리주체자, rights-bearer)의 권리실현을 위한 접근에 초점을 둔 것이다(Boesen & Martin, 2007; 김희진, 2014에서 재인용). 자선 접근(Charity Approach)은 시혜를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원조 개념의 접근이며, 욕구에 기반한 접근(Needs Approach)은 개인에 초점을 두고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초점이 있다(Boesen & Martin, 2007). 그러나 권리기반접근은 개인의 권리의 실현을 강조하며, 개인의 문제보다 구조적인 원인에 초점을 두고 시스템적으로도 접근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김희진, 2014). 권리 실현을 위해서는 의무이행자(duty-bearer)의 행동과 책무성이 수반되는데, 여기에서 의무이행자는 국가를 포함한 지자체, 사법기관, 경찰, 교사 등 모든 공적인 기관을 포함한다(Boesen & Martin, 2007). 아동·청소년의 권리 실현에 책임이 있는 국가 이외에, 비정부기구 및 단체, 아동관련 기관들, 지역사회서비스, 교회 등도 의무이행자에 포함된다(Blanchet-Cohen, Hart, & Cook, 2009).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기반 접근에 대한 논의를 위해 유엔의 권리기반접근 원칙을 살펴보았다. 유엔의 권리기반접근에 대한 여러 원칙들을 살펴보면(표 II-4), 보편성과 양도불가능성, 불가분 원칙, 상호의존성과 상호연관성, 평등과 비차별, 참여와 포용, 책무성과 법치주의로, 각각의 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접근에 적용해 볼 수 있다. 먼저 보편성(Universality)의 원칙과 관련해서 보면, 모든 학교 밖 청소년은 학생 청소년과 동일한 청소년으로서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들의 거주지역과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에 관계없이 모두 보편적인 지원을 받아야 한다. 또한, 불가분성(Indivisibility)과 상호의존성·상호연관성(Inter-dependence, Inter-relatedness)의 원칙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를 위해 직업교육을 받거나 대학진학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접근권이 용이해야 하며, 신체적·심리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Participation)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대학진학 준비나 직업교육을 적절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하나의 영역(학업, 직업훈련 등)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여러 권리가 두루 조화롭게 실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평등과 비차별(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의 원칙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은 재학 중인 또래 학생 청소년과 동등하게 권리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부정적 인식에 따른 낙인으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즉,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으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은 사회적 배제의 상태가 아닌 포용(Inclusion)의 대상이며, 국가와 지자체는 이들의 권리 실현을 위한 의무이행자로서의 역할을 준수해야 할 책무성(Accountability)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정부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관련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표 II-4. 권리기반접근 원칙의 주요 내용

원칙	내용
보편성과 양도불가성 (Universality and inalienability)	인권은 보편적이며, 양도불가능한 것이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으로, 자신에게 속한 권리를 임의로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이 빼앗을 수 없다.
불가분성(Indivisibility)	인권은 구분되어 질 수 없다. 시민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영역의 권리 모두 인간 존엄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 모든 권리는 동등한 위치에 있으며, 위계에 따른 순위를 매길 수 없다.
상호의존성과 상호연관성 (Inter-dependence and Inter-relatedness)	하나의 권리의 실현은 다른 권리의 전부, 또는 부분적인 실현에 좌우된다. 일례로 건강권은 교육권이나 정보접근권의 실현에 따라 좌우된다.
평등과 비차별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모든 개인은 인간으로서, 그리고 각자 인간으로서 주어진 존엄성에 의해 평등하다.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아서는 안된다(예, 인종, 피부색, 연령, 언어, 종교, 장애, 사회적 출신, 위치 등).
참여와 포용 (Participation and Inclusion)	모든 사람들은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발전에 활발하고 자유로우며 의미있게 참여하고 기여하며 향유할 권리가 있다.
책무성과 법치주의 (Accountability and Rule of Law)	국가와 다른 의무이행자들은 인권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인권 선언문에 명시된 법적 규범이나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했을 경우에 피해를 입은 권리주체자들은 법이 규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법원이나 다른 재판관 앞에서 이를 적절히 바로잡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권리가 있다.

* 출처: UNHCR (2003). *The human rights based approach to development cooperation towards a common understanding among UN agencies*. p. 2에서 주요 내용 발췌

요약하면,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재학 시 학교체계를 통해 가능할 수 있었던 여러 제도적, 실천적 지원에서 벗어나거나 미흡한 상태에 처해서도 안 되며,

이들의 거주지역이나 환경에 따라 불리한 처지에 있어서는 안 된다. 학교를 그만둔 이유와 개인이 처한 상황·환경이 어떠하든, 학생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학교 밖 청소년은 청소년의 권리로서 마땅히 필요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의무이행자로서의 공공 및 민간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2) 회복탄력성과 역경 후 성장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보는 청소년들에 대해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 인생을 다시 시작해 보고 싶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다”(김희진 외, 2021a: 237)고 밝힌 한 학교 밖 청소년의 이야기는 어떠한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었건, 이제는 이를 발판으로 새롭게 일어서고 싶어 하는 청소년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집단따돌림이나 학교폭력 피해, 교사와의 갈등이나 문제 교사로 인한 다소 극단적인 이유로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은 이러한 사건 자체를 큰 생애사건으로 꼽는다(김희진 외, 2021a). 그러나, 이렇게 심각한 사유가 아니더라도 학교를 그만둔 것 자체를 생애사건으로 언급한 청소년들 사례는(김희진 외, 2021a) 어떠한 이유에서든 학교를 그만두는 것 자체가 제도권 공교육에 익숙한 청소년들에게 큰 사건임을 확인시켜 준다. 위와 같이 비자발적인 이유가 아닌, 진로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학교를 그만두었다고 해도 수년 동안 공교육체계에 오랜 시간 머무르면서 학업이나 진로와 관련한 지원과 또래 및 교사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구축해 왔던 학교체계를 떠나는 결심은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위의 인터뷰의 청소년처럼 학교를 그만둔 이후, 이를 발판으로 다시 자신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진로를 찾고 있는 청소년들 사례를 다수 발견할 수 있다(권지성 외, 2022; 김희진 외, 2021a; 김희진 외, 2022b). 심지어 우울증이나 은둔과 같은 심리·정서·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교를 그만둔 이후 수년이 지났음에도 스트레스가 심하면 교복을 입고 교실을 찾아 헤매는 꿈을 꾸기까지 하는 사례도 있지만,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 과정을 잘 극복하고 충분히 자립에 성공하기도 하였다(김희진 외, 2022b). 그리고 여기에는 개인의 의지와 노력, 가족의 지지, 친구 및 지역사회 지인과 같은 사회적 관계 등의 지지체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무엇보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같은 지원체계의 역할이 매우 컸다(김희진 외, 2022b).

그러나, 이러한 지지체계를 통해 취약한 상황을 잘 극복하고 성공적인 자립을 이루는데 있어, 동일한 지원이 제공되는 환경에서도 그 성과가 달리 나타나는 사례들이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이후, 학교체계를 통한 성장 및 발달 대신, 두 번째 기회(a second chance)로써 여러 지원 및 지지체계로부터의 긍정적인 도움을 통해 건강한 성인이 이행과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적인, 심리사회적인 측면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인생의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다수가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그렇지 않고 잘 기능하는 경우, 회복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Luthar, 1991). 회복탄력성(resilience)은 취약성을 극복하는데 기대되는 측면이나 이에 대한 관점이 매우 다양하다. 회복탄력성은 보편적이기보다 그 맥락이나 문화적 가변성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한다거나, 개인의 심리적 특징보다는 사회적 관계의 과정, 산물로 보아야 하며, 개인이 한 측면에서는 충분히 탄력적이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여러 논란과 지적이 있다(Crivello & Morrow, 202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회복탄력성이 심각한 삶의 역경의 맥락에서 긍정적인 적응과 관련된 역동적인 과정이라고 할 때(Luthar, Cicchetti, & Becker, 2000),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이후 어떻게 긍정적으로 다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적 측면 및 진로와 관련된 실증연구들에서 탄력성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된 바 있고(예, 박하은, 김수진, 2020; 황정하, 2022 등), 진로와 관련된 탄력성에 대한 연구도 찾아볼 수 있다(박선하, 강영배, 2022 등).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역경 후 성장²⁷⁾’ 개념도 유의미하게 적용할 수 있다. 역경은 지금까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나 우울증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으며, 충격적인 관계상실과 같은 경험뿐 아니라(임선영, 2013), 외상, 위기, 스트레스 등에 따른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는 사건으로 정의되기도 한다(이옥희, 2015). 역경 후 성장은 Linley와 Joseph(2004)이 위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 이상의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현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역경을 통한 성장(adversarial growth)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임선영, 2013). ‘역경 후 성장’은 역경 경험을 긍정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건설적인 행동 가능성으로 볼 수 있으며(Rogers, 1963; 현숙자, 2017에서 재인용), “인간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매우 도전적인 환경에 대해 투쟁한 결과, 얻게 되는 주관적이고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로 정의될 수 있다(임선영, 권석만, 2013; Linley &

27) 국내에서는 ‘외상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이라는 단어도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지만, 이 경우 정신과적인 진단에 따라 생명에 위협이 될 정도의 외상 경험을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등 잘못된 함의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민지원, 2014; Linley & Joseph, 2004; 이옥희, 이지연, 2015: 112에서 재인용).

Joseph, 2004; 현숙자, 2017: 188에서 재인용). Linley와 Joseph(2004: 16-17)는 트라우마 및 역경 후의 긍정적 변화와 관련된 39개 경험적 연구 리뷰에서, 자아존중감이 높고 더 낙관적인 사람이 더 성장하는 경향을 보였고, 긍정적 재해석과 수용적 대처능력이 있는 경우 역경 후 성장 수준이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시간이 경과하면서 역경 후 성장이 유지된 경우 이후에 괴로움을 덜 경험하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Linley & Joseph, 2004: 11).

학교를 그만둔 일이 모두 역경으로 간주되지는 않으며, 일부 그에 따른 위기감이나 스트레스도 청소년 개인마다 받아들이는 정도는 매우 다르다. 또한, 이와 관련된 많은 개인적, 환경적 요인들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발달하는데 미치는 영향에도 차이를 가져온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과정에서, 또는 그만둔 이후 겪은 여러 부정적 경험과 역경 속에서도 심리사회적인 요소와 개인 및 가족의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여러 제도적 지원과 같은 기제들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은 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하고 자립에 다다를 수 있다. 실제로, 오래전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20대 중·후반이 된 한 면접조사 참여자는 학교를 그만둔 이후 현재까지의 삶의 경험을 통해 성장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김희진 외, 2022b).

요약하면, 회복탄력성은 위기, 역경에 대한 긍정적인 대처를 가능하게 하고, 역경 후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Tedeschi & Calhoun, 1995), 위기상황에서 자원이 될 수 있다(Baumgardner & Crothers, 2009; 노치경, 홍혜영, 2016: 2-3에서 재인용).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는 과정과 이후 학교 밖 경험에서의 불리함이나 역경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로서, 먼저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회복탄력성 증진과 이를 통한 성장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심층적인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²⁸⁾의 현황과 함의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과 지원 내용

2007년에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운영’으로 시작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2014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이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전국에 확산되면서(2023년 기준 222개소²⁹⁾), 큰 전기가 마련되었다(여성가족부, 202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내용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데, 특히 구체적으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에 대해 법률 조항들로 규정하고 있다(표 II-5).

표 II-5.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지원 법률 조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지원내용 관련 조항)
제8조 (상담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후략)
제9조 (교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로의 진학 3.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 (후략)
제10조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 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 (후략)
제11조 (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중략),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 을 지원할 수 있다. (후략)

* 출처: 법제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에서 2023.07.20 인출

28)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현황은 그동안의 학교 밖 연구에서 유사한 내용을 계속 다루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전체적인 현황을 반복적으로 다루기보다 본 연구의 주제인 진로 및 자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재검토했다.

29)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개소수 출처: 꿈드림 홈페이지. 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찾기. <https://www.kdream.or.kr:446/user/sub/sub02/sub020101.asp>에서 2023.10.02.인출.

이 법률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용은 그림 II-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지원 내역에 반영되어 있다. 법률 외의 내용으로 꿈드림 청소년단과 건강검진 및 급식지원 내용이 추가 되어있으며(그림 II-5), 학교 밖 청소년의 전인적인 건강한 성장·발달을 고려할 때, 이 역시 매우 중요한 지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법률 제10조의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의 내용이 실제 지원에서는 ‘진로직업지원’이라는 명칭으로 법률에서 제시한 직업적성 검사와 진로상담프로그램, 직업체험과 훈련프로그램, 직업소개 및 관리 등 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또 단계별로 제시되고 있다(그림 II-5). 궁극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히 성장하여 자립하는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처럼 바로 직업체험 및 훈련 단계로의 진입이 아닌 청소년이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진로 준비를 위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지원내용이다. 즉 진로지원은 교육지원 및 진로직업지원 이전에 충분히 시간을 두고 이루어져야 하며, 청소년들이 이에 기반하여 대학에 진학할 것인지, 취업을 준비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취업을 염두에 두고 해당 전공으로 대학입시나 직업훈련 등을 준비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출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https://www.kyci.or.kr/userSite/sub02_2_info.asp에서 2023.07.20 인출

그림 II-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에서는 진로상담 및 진로적성검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더해 자립동기 부여 및 기초기술훈련 후에는 전문직업훈련이나 취업연계, 사후관리까지 이어져 있다(표 II-6). 그러나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이미 취업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보다 더 어린 나이를 포함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장기적인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으로 볼 수 없다.

표 II-6.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프로그램 단계	기간	상세 지원내용	비고
신청		취업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15~24세)	
진로상담 및 진로적성검사	1주	상담, 진로적성검사 등을 통해 기본사항 확인, 맞춤 직업군 탐색 등 실시	
자립동기 부여	2주	프로그램의 전 과정을 잘 수료할 수 있도록 참여 동기 및 또래 관계성 강화	
기초기술훈련	4주	실제 직업체험 전 대비과정으로 필요 기술 선택하여 훈련 진행(훈련수당 지급), 참여 청소년들의 식생활, 용돈관리 등 생활관리 개선 프로그램 운영	검정고시 대비반, 자격증 취득반 병행 가능
직장체험	3개월	청소년직업장 또는 청소년우호기업 연계로 3개월 이내(1일 3시간 이내) 직장체험 진행(직장체험 수당 지급)	
		전문직업훈련 또는 취업연계	
사후관리	6개월	고충상담 등 지속적으로 청소년과 교류하며 직업훈련 및 취업 현황에 대해 관리	

* 출처: 꿈드림 홈페이지. 직업역량강화. <https://www.kdream.or.kr:446/user/sub/sub04/sub040302.asp>에서 2023.10.10. 인출

학교 교육에서는 ‘진로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오랜 기간의 교육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 학교 현장마다 차이가 있고, 또 학생들이 선호 정도는 차치하고라도 학생들이 자신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체계적인 진로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관련 법률에 제시되어 있다(표 II-7). 진로교육을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정의하였으며, 진로교육의 기본방향은 학생들의 진로개발역량 함양으로 보고, 이를 권리적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다(표 II-7). 또한,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있고,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제5조에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해야 함도 명시하고 있다(표 II-7). 무엇보다 지역진로교육센터(진로체험지원센터)와 같은 전반적인 진로교육·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을 운영토록 하여,

현재 전국 223개 센터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³⁰⁾ 진로교육의 내용적인 측면뿐 아니라 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과 진로체험지원센터와 같은 진로지원 관련 인프라에 대한 내용까지 상세히 제시되어 있어,³¹⁾ 또 이를 토대로 학교 및 지역사회 현장에서 체계적인 진로교육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한 함의가 있다.

제도권 공교육을 중도에 그만두었다고 해서 학교 밖 청소년이 학생 청소년에 비해 빨리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님에도, 많은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둔 이후 서둘러 학업이나 취업을 결정하거나, 또는 무언가를 성취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다. 그래서 진로를 빨리 결정하고, 대학입시를 급히 준비하기도 하며, 학교를 그만두는 과정에서 부모와의 큰 갈등으로, 어떠한 방식으로든 자신을 증명해야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은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선택하기도 한다. 이 경우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진로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된다.

진로교육법 제4조에는 학생들의 진로개발역량 함양을 진로교육의 기본방향으로 명시하고 있다(표 II-7).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는 바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지원현장에서는 ‘직업역량강화’)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면서 바로 자립부분으로 이어진다³²⁾. 진로교육법은 초등학생부터 대상으로 한 것이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당수가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교를 그만둠에 따라 연령대가 대부분 높은 것을 고려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학교 밖 청소년의 추이 변화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 밖 청소년의 저연령화 경향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청소년의 전반적인 발달단계를 고려한 진로관련 역량개발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표 II-7. 진로교육법에서의 진로준비 관련 조항

진로교육법(진로교육 주요 내용)	
제2조 (정의) ³³⁾	1. “진로교육”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학생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 을 말한다 (후략)
제4조	① 진로교육은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평생학습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진로를

30)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2023.05.01.).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23~2027) 발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lev=0&statusYN=W&s=moe&m=020402&opType=N&boardSeq=94877>에서 2023.07.02. 인출

31) 출처: 상동

32) 출처: 법제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에서 2023.07.20 인출

	진로교육법(진로교육 주요 내용)
(진로교육의 기본방향)	개척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 ② 모든 학생은 발달 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후략)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전략)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 하여야 한다. (후략)
제9조 (진로전담교사)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초·중등학교에 학생의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교사 (이하 “진로전담교사”라 한다)를 둔다. (후략)
제10조 (진로심리검사)	① 초·중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소질과 적성을 이해하고 진로상담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진로에 관한 심리검사(이하 “진로심리검사”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후략)
제11조 (진로상담)	① 초·중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진로 탐색 및 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진로상담을 제공하여야 한다. (후략)
제12조 (진로체험교육과정 편성·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진로체험 시간은 수업시간으로 본다. (후략)
제16조 (지역진로교육센터)	① 교육감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진로체험 운영·지원 등을 수행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후략)

* 출처: 법제처. 진로교육법. <https://www.law.go.kr/>에서 2023.07.20. 인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립지원 내용을 살펴보면(표 II-8), 근로권익 보호,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 지원, 다양한 활동 기회 제공을 통한 자기계발 프로그램 지원, 기본적인 자기관리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아우르고 있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도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에 대해 살펴보면 미흡한 부분이 확인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의 지원 없이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족의 역할과 지원 정도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통한 기본적인 지원에 이어 가정으로부터의 지원에서도 모두 배제되게 된다. 현재 지원내용은 정부 및 지자체의 복지수급 대상 여부인지 확인해주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원비 항목 내에서 직접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 내용이 매우 제한적이다. 매우 취약하거나 위기상태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직접지원을 확대해야 하나, 가족과의 갈등이나 문제로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례들을 위한 보편적인 차원에서의 경제적

33) 진로교육법 제2조에는 진로교육 다음으로 진로상담, 진로체험, 진로정보에 대한 정의가 상세히 제시되어 있다.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표 II-8.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내용

지원내용	상세 내용
• 청소년 근로 권익 등 보호	- 근로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상담 실시 -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문자상담(#1388) 등 근로권익 상담 연계 - 근로권익침해나 부당처우 사례 발견 시 청소년근로보호센터(1599-0924, 청소년전화 1388),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 3119) 연계·지원하며, 필요시 노동지청에 신고 등 지원
•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기초생활수급,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여부 확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지자체별 복지사업 수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위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자체 사례판정을 통해 직접지원 실시 ※ 직접지원비 항목 내에서 운영할 것
•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기회 향유를 위한 문화·예술, 체육, 봉사활동 등 자기계발 프로그램 지원	
• 법질서 의식, 의사소통 능력향상, 경제원리 이해, 절주·금연 교육 및 마약류 예방교육, 안전교육(심폐소생술 포함),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도박 예방교육 등 기초소양 교육 제공	

* 출처: 여성가족부(2023) 청소년사업안내 II 권, pp. 603~60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있어 최근의 큰 성과 중의 하나는 대학입학을 위한 수시전형에서 매우 중요한 학생생활기록부의 대체 서식으로 청소년생활기록부가 도입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들이 대학입시의 길이 더 확대되었다는 점이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3).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의 대학진학 수요 증가에 발맞추어, 2020년 4개 대학으로 시작하여 2023년 23개 대학으로 확대되었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3).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 원천적으로 수시전형을 통한 대학입시 기회에서 불리한 조건이었던 학교 밖 청소년에게 매우 의미있는 긍정적 변화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를 지원하는 현장에서의 부담과 함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의 대학입시를 위한 지원범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기도 하다.

또한, 취업 및 직업훈련에 관심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은 내일이룸학교를 통해 다양한 직업훈련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진출 및 자립을 위하여 맞춤형 직업훈련 기회 제공을 목표로 한 것으로, 2023년 기준 전국의 13개의 직업훈련기관에서 무료 직업훈련, 자립장려금(월 30만원 한도), 기숙사 제공 또는 교통비 지급과 같은 지원을 통해 직업훈련교육 및 자격증 취득이 가능했다.³⁴⁾ 그러나, 내일이룸학교사업

은 2024년에는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다³⁵⁾).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책무가 어디에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 조기 발견, 지원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교육복지 실현, 책무 이행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인,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방안 마련 등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표 II-9). 즉, 권리기반접근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의무이행자(duty-bearer)로서의 역할이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3. 23.>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출처: 법제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에서 2023.07.20. 인출

그림 II-6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전달체계에서 보듯이, 중앙정부와 지자체 및 기초지자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중앙지원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시·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시·군·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매칭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다. 이렇듯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있어 국가와 지원 현장과의 긴밀한 연계와

34) 꿈드림홈페이지. 공지사항_2023년 내일이룸학교 훈련생 모집 안내. 출처: https://www.kdream.or.kr:446/user/sub/view.asp?bid=bid_7&boldx=5461에서 2023.07.30. 인출

35) 이데일리(2023.09.15.). “매일같이 죽겠다고 하는 우리 아이들 어떡하나요?”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584646635740448&mediaCodeNo=257&OutLnkChk=Y>에서 2023.10.21. 인출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달되는 지원의 양과 질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관심 정도와 실제 지원 내용은 해당 시·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시·군·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역에 차이를 가져오며, 이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역시 지원에 격차를 느끼기 때문이다. 즉, 앞에서 언급한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역에서는 지역마다 또는 이용하는 꿈드림센터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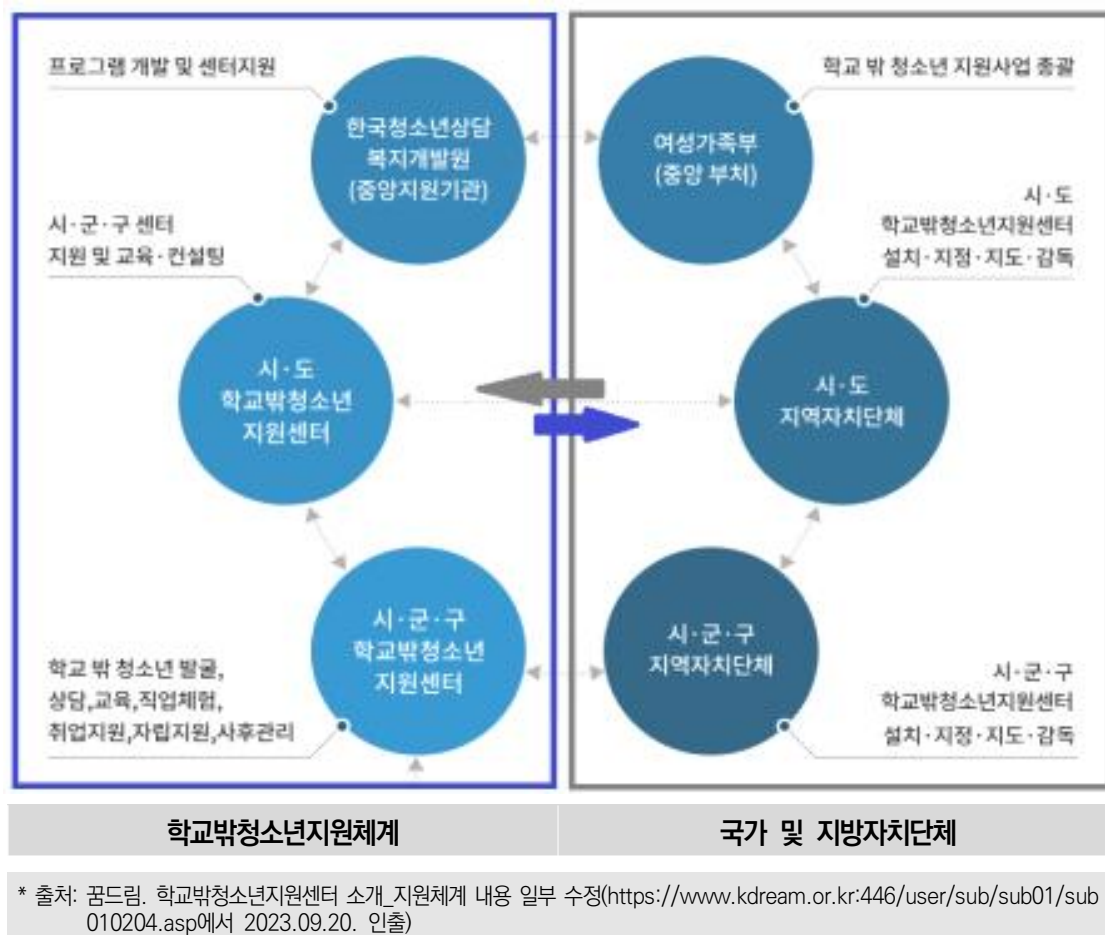


그림 II-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전달체계

대도시와 읍면지역 등 지역규모와 이에 따른 지자체 예산과 인프라의 차이는 다른 대인 복지서비스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상이다. 그러나 여기에 지자체 규모만이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며, 지역규모 및 재정적 차이 외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관심과 주목 정도에 따라 실천현장에서의 지원 내역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일례로 전라남도 학교밖청

소년지원센터에서는 등록 청소년을 대상으로(센터 프로그램 월 6회 이상 참여) 만9~12세는 월 5만원, 만13~15세는 10만원, 만16~24세는 월 2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금의 사용처는 교육 및 진로준비를 위한 교통비, 간식비, 문화활동비 등이다.³⁶⁾ 이외에도 일부 지자체(대전, 춘천 등)에서도 교통비와 참여수당의 명목으로 월 5만원이나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³⁷⁾ 이러한 지원이 전국의 모든 청소년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지원 내역에도 차이가 크다.

지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격차는 앞서의 예시처럼 단순히 지원수당에 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지원 내용과 인프라 등의 차이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은 자신의 지역에 희망하는 지원이 없거나, 또는 본격적인 취업 준비 및 구직을 위해 다른 낮은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한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교 대신 친숙한 거주지역이 활동의 장(場)으로서 미래를 준비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지원되는 내용이 지역마다 균등하게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격차와 관련하여, 또 다른 변수는 교육체계에서 최근 학교 밖 청소년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직 많은 부분에서 지원이 확산되고 있지는 않지만, 서울지역의 경우 서울특별시 차원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친구랑(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 사업의 추진으로 여성가족부를 통한 지원체계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와 매우 유사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³⁸⁾ 이 중 서울특별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는 곳으로 서울시 대안교육센터로 시작되었으며, 현재도 여러 유형의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주로 하고 있다.³⁹⁾ 지원 내용은 수업료 지원, 학업 지원, 인턴십프로젝트 지원, 위기청소년 지원, 멘토지원, 문화예술 활동 및 관람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성장 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청소년과 가족을 포함한 맞춤형 상담과 근로청소년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상담도 제공하고 있다.⁴⁰⁾

36) 출처: 전라남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보도자료(2023.04.26.) “전라남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참여 수당 최대 20만원” 지원 http://www.jnkdream.or.kr/bbs/board.php?bo_table=bbs5_3&wr_id=42에서 2023.10.22. 인출

37) 출처: 춘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023 꿈드림수당안내. http://8181388.co.kr/bbs/board.php?bo_table=su_b07_1&wr_id=177에서 2023.10.22.인출, 대전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키움사업안내. http://cumdream.or.kr/pages_t50/dream-2.php에서 2023.10.22. 인출

38)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 소개. https://friend.sen.go.kr/sub/content.do?cntId=CNT_0000000000000001&menuNo=1010000 2023.09.20. 인출

39)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센터소개. <https://seoulallnet.org/introduce/history.php>에서 2023.08.07. 인출

서울특별시교육청을 통한 친구랑(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 서비스는 여성가족부의 학교 밖청소년지원센터와 매우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그림 II-7). 2014년에 최초의 신림 ‘친구랑’센터가 개소한 이래로, 서울의 마포, 영등포, 고덕, 노원의 총 5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꿈드림센터의 자립지원에 대한 내용을 제외한 교육지원, 진로지원, 정서지원 등 비슷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⁴¹⁾ ‘친구랑’의 두드러진 지원 내용은 친구랑 프로그램에 등록후 주 2회 이상 60%(월 5회)이상 출석한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교육 참여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이다(초등단계 월 10만원, 중등단계 월 15만원, 고등단계 월 20만원)⁴²⁾.



*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 소개. https://friend.sen.go.kr/sub/content.do?cntId=CNT_00000000000001&menuNo=1010000에서 2023.09.20. 인출

그림 II-7. 서울시교육청 친구랑(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 지원 내용

40)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업소개. <https://seoulallnet.org/program/business.php>에서 2023.08.07. 인출

4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 주요사업 <https://friend.sen.go.kr/index.do>에서 2023.09.20. 인출

42) 친구랑 센터의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은 2023년 1~3월에는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 지급되지 못했으나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4월부터 다시 지급이 재개되었고, 미지급되었던 수당은 이후 월별 분할 지급예정이다(출처: 연합뉴스[2023.05.08.] '서울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지급 재개'. <https://www.yna.co.kr/view/AKR20230504131000530>에서 2023.10.21. 인출

이러한 교육참여수당은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이용률 증가에 유의미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 연구에서, 이 교육참여수당 지급은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에 효과가 매우 탁월하며, 이 수당을 지급받은 청소년의 교육 프로그램 재참여 의사도 91.2%로 높게 나타나는 등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보인 것으로 보고되었다(강명숙 외, 2019).

정리하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은 중앙부처(여성가족부)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와 서울시교육청의 ‘친구랑’센터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다. 실제로 2022년도의 학교 밖 청소년 연구에서 면접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지방의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이주한 후 꿈드림센터와 친구랑센터에서 모두 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타 지역 친구의 부러움을 받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김희진 외, 2022b). 만약 이 청소년이 서울시내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게 된다면,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지원도 가능해진다. 이렇게 지원서비스가 집중되는 문제는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 차원에서 학생 청소년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아야 함과 동시에, 같은 학교 밖 청소년인 상황에서도 격차 없는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 제3장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분석: 실태조사 2차 자료 분석

- 1. 2차 자료 분석 개요
- 2.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 및
취약성 기술분석
- 3.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에
대한 다변량분석
- 4. 요약 및 시사점

1. 2차 자료 분석 개요

본 장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 규모의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2차 자료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한 측면을 살펴보고, 또 이와 관련된 요인들, 필요한 지원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은 학교를 다니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불리함이나 어려움 등에 우선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기존의 실태조사에서 학생 청소년과의 상대적인 비교 분석이 가능한 사례가 없다. 또한, 상대적인 불리함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에게 내재되어 있는 취약성이 학교를 그만둔 이후 심화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와 취약한 측면을 살펴보는 데 있어 최근에 수행된 실태조사의 데이터는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대로 2015년부터 2021년까지는 3년 주기로 수행되었으며, 이후 관련 법 개정⁴⁴⁾에 따라 2023년부터는 2년 주기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주무부처(여성가족부)의 협조를 얻어 가장 최근에 수행된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⁴⁵⁾

이 실태조사는 2021년 6월부터 9월까지 실시되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의 주요 이용기관 및 소속 기관을 중심으로 조사 설계하여 실사를 진행하였다(김희진 외, 2021b). 당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실사 추진에 어려움이 컸으나, 최종적으로 3,291명을 조사완료하였으며, 검정고시 접수장에서의 임의 표집하여 조사한 802명을 제외한 2,489명의 데이터(김희진 외, 2021b)를 본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 2,489명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단기

43) 이 장은 유성렬 교수(백석대학교)가 집필하였다.

44) 출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924&lsiSeq=230449#0000>에서 2023.5.23. 인출).

45) 2021년 실태조사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이며, 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였다.

쉼터, 소년원, 보호관찰소, 미인가대안학교, 내일이룸학교를 이용하거나 해당 기관에 소속된 학교 밖 청소년으로, 각 기관별 조사된 인원수를 살펴보면 표 Ⅲ-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Ⅲ-1.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응답자 기관별 현황

구 분		빈도(명)	비율(%)
전체		2,489	100.0
기관유형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534	61.6
	내일이룸학교	14	0.6
	단기쉼터	23	0.9
	소년원	56	2.3
	보호관찰소	276	11.1
	미인가대안학교	586	23.5

* 출처: 김희진 외(2021).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p. 29에서 발췌

주: 이 장에서는 가중치를 적용한 2차 자료 분석결과를 제시할 것임에 따라 여기에서 제시된 수치는 모두 가중치가 적용된 것임. 따라서 실제 조사완료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

'2021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간단히 현황을 살펴보면 표 Ⅲ-2와 같다. 남자와 여자 청소년의 비율은 거의 동일하며, 연령대별로는 만 16세 미만이 21.1%, 그 이상이 78.9%로 대체로 10대 후반의 청소년들 비율이 매우 높다. 이는 실제 학업중단자 수 통계에서 고등학교 단계의 청소년의 수가 매우 높은 것을 고려할 때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표 Ⅲ-2.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응답자 일반 현황: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 분		빈도(명)	비율(%)
전체		2,489	100.0
성별	남자	1,232	49.5
	여자	1,257	50.5
연령대	만 9~12세	83	3.3
	만 13~15세	444	17.8
	만 16~18세	1,659	66.7
	만 19세 이상	303	12.2
학업중단 시 학교 성적	상	614	24.7

구 분		빈도(명)	비율(%)
전체		2,489	100.0
	중	649	26.1
	하	1,222	49.1
학교를 그만둔 기간	6개월 미만	380	15.3
	6개월 이상~1년 미만	368	14.8
	1년 이상~2년 미만	609	24.5
	2년 이상	1,132	45.5
가정의 경제수준	상	257	10.3
	중	1,942	78.0
	하	289	11.6
학교소재 지역규모	대도시	878	35.3
	중소도시	1,208	48.5
	읍면리	403	16.2

* 출처: 김희진 외(2021).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p. 29에서 발췌

주: 일부 무응답으로 빈도와 비율상의 약간의 차이가 있음.

학교를 그만둔 이후의 기간별로 살펴보면, 6개월 미만이 15.3%, 6개월 이상~1년 미만이 14.8%, 1년 이상~2년 미만이 24.5%, 2년 이상이 45.5%를 차지하고 있다. 가정의 경제수준을 ‘상’과 ‘하’로 인식한 청소년이 각각 10.3%, 11.6%로, 78.0%에 달하는 대부분의 응답자는 가정의 경제수준을 중간 정도로 인식하였다. 그만둔 학교의 소재지가 대도시(특별시, 광역시)라는 응답은 35.3%, 중소도시는 48.5%, 읍면리 지역이라는 응답은 16.2%였다. 이러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이후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에 대한 분석에서 배경변인으로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는 데 활용되었다.

이 장에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데이터 분석 결과는 크게 2가지로 제시된다. 먼저, 기술 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및 진로준비와 관련된 실태 및 취약성 결과가 제시되며, 다음으로 데이터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러한 취약성과 관련된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변량분석(multivariate analysis)결과를 제시하였다. 2차 자료분석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이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정책제언 도출에 활용하였다.

2.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 및 취약성 기술분석

1) 분석 개요

이 연구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은 기본적으로 학교를 그만둠에 따른 취약한 측면이나 불리함, 어려움 등을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이 학교 재학 시 내재되어 있던 취약성과 무관하지 않으며, 학교를 그만둔 이후 그 취약한 측면이 더욱 심화된다면 이들의 건강한 성인기 이행과 자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2021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는 이러한 측면에 초점을 두고 조사된 것이 아님에 따라, 데이터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능한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는 변수를 활용하여 2차 자료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표 III-3에는 해당 실태조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과 관련된 조사 내용 중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선별한 것이다. 유의미한 빈도수나 응답률을 보인 사례가 아닌 경우는 제외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정리된 분석대상 데이터는 지원 및 개입에 의 함의와 여러 변인별 취약성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이 가능한 범위에서 다양한 변인별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여기에는 성별, 연령대별, 경제수준, 부모의 지원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배경뿐 아니라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학교 성적, 학교를 그만둔 기간, 지원관련 정보 제공 유무(복교절차, 검정고시 준비, 꿈드림센터 등), 기관 및 서비스 이용 여부, 학교를 그만둔 후 불이익 경험 여부, 학교를 그만둔 후 어려움 경험 여부 등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환경적 측면과 학교 밖 경험 및 지원 경험 내용을 배경변인으로 함께 고려하였다. 이러한 집단 간 차이에 대한 기술 분석은 인과적 추론(causal inference)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으나, 어느 정도 지원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기 위해 실시하였다.

표 III-3.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중 취약 관련 조사내용

취약성 측면		문항 내용	문항번호	취약성 판단 근거/기준(조작적 정의)
개인적 취약성	심리 정서적 측면	학교를 그만둔 이유: 심리정신적 문제	문4	학교를 그만둔 이유로 ‘②심리정신적 문제’를 응답한 비율(복수응답)
		자아존중감(1~5번)	문27	낮은 자아존중감 수준/높은 부정응답 비율
		우울(1~3번)과 불안(4~6번)	문28번	높은 우울과 불안 수준/높은 긍정응답 비율
		자살 생각	문36	자살 생각 비율
	신체건강	비만 및 과체중률	문33	비만 및 과체중 비율

취약성 측면		문항 내용	문항번호	취약성 판단 근거/기준(조작적 정의)
측면		신체활동 실천율	문32	신체활동 실천 여부
		흡연·음주율	문34~35	흡연 및 음주 경험 유무
가정 환경적 측면		부모-자녀관계: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경제적 지원(1~6번)	문6	부모 지원의 낮은 수준/높은 부정응답 비율
		가정의 경제적 수준	배문2	낮은 경제적 수준(보통 이하 수준 응답 비율)
학업관련 측면		학교를 그만둘 당시 성적	문9	낮은 학업성적 인식(하위권 응답 비율)
		학교를 그만둔 이유: 학업성적이 잘 안나와서	문4	학교를 그만둔 이유로 '⑩학업성적이 잘 안나와서'를 응답한 비율(복수응답)
		학교를 그만둔 후 후회 이유: 지식 습득 기회가 줄어든 것	문11-1 ②	'①지식습득기회가 줄어든 것'을 응답한 비율(교육취약성)(복수응답)
사회적 측면		학교를 그만둘 당시 상담자/주 상의자	문3-1	'⑫아무도 없었다'고 응답한 비율
		학교를 그만둔 이유: 학교친구문제	문4	학교를 그만둔 이유로 '⑰학교친구들과의 문제로 인해'를 1순위로 응답한 비율
		학교를 그만둔 후 후회하는 이유: 친구사귄 기회 감소	문11-1	'①친구사귄 기회가 줄어든 것'에 대한 응답 비율(복수응답)
		학교를 그만둔 후 사회적 관계 유형	문14	친밀정도에 대한 부정적 응답률, 낮은 친밀도 수준
진로관련 측면		학교를 그만둘 당시 계획	문10	구체적인 계획 유무 응답 비율
		진로직업태도	문23	낮은 점수는 진로관련 취약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
		진로결정 유무	문24	진로미결정 응답 비율
		학교를 그만둔 후 진로결정 시기	문25	진로를 결정하기까지 소요된 학교 밖 이후 기간
환경적(제도적) 취약성, 불이익		학교를 그만둘 당시 제공받은 정보	문5	복교절차, 꿈드림 등 관련 정보 제공받은 경험 유무 비율
		학교를 그만둔 후 후회: 학생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이익 제한	문11-1	'⑥학생신분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나 이익을 못 누리는 것' 응답 비율(복수응답)
		학교를 그만둔 후 경험 실태	문13	모든 항목(대안학교, 검정고시, 복교, 진로상담, 직업기술, 심리상담)에서 경험한 적 없다는 응답 비율
		학교를 그만둔 후 불이익 경험 유무	문16	학생이 아니어서 경험한 불이익 응답 비율(입장료, 공모전 참가, 취업, 부정적 인식, 대학진학 등)
		학교를 그만둔 후 경험한 어려움	문38	부모와의 갈등, 선입견·편견·무시, 이해/이야기 들어주는 사람 없음, 진로찾기 어려움, 도움받을 곳 없음, 지낼 곳 찾기 어려움, 혼자라는 불안, 무기력, 구직/경제적 어려움, 건강문제, 비행/일탈 유혹, 교우관계 단절 등에 대한 응답률(복수응답)
		지원을 받기까지의 기간	문12	학교를 그만둔 후 지원기관/서비스 처음 이용 시기까지 기간(기간이 길수록 더 취약한 것으로 판단)
		기관 및 서비스 이용하지 않았던 기간동안의 주요 활동	문12-1	지원 및 서비스 미이용 기간 동안 주로 한 일에 대한 응답 비율

* 출처: 김희진 외(2021b)의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pp.23~24에서 문항내용과 문항번호 발췌

2) 분석 결과⁴⁶⁾

(1) 심리정서적 측면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데이터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취약성과 관련하여 학교를 그만두게 한 심리정서적 이유와 자아존중감, 우울과 불안, 자살 생각 정도에 대해 여러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학교를 그만둔 이유에 대해 인구·사회 경제적 배경과 학교 밖 경험 관련 변인에 따른 심리정서적 문제와 다른 이유 간 차이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표 III-4), 여자청소년이 심리정서적 문제로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응답률이 32.1%로, 남자청소년의 13.7%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면서 성별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연령대가 18세 이상인 경우와 경제수준 및 부모의 지원을 모두 낮게 인식한 집단에서 심리정서적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이외에도 심리정서적 문제로 학교를 그만둔 집단에서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과 기관 및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더 많았으며⁴⁷⁾, 학교를 그만둔 후 불이익과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도 유의미한 수준에서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학교를 그만둔 후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의 경우 심리정서적 문제로 학교를 그만둔 집단이(30.2%) 다른 이유로 학교를 그만둔 집단(10.4%)보다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III-4. 심리정서적 취약 측면: 학교를 그만둔 이유_심리정서적 문제

단위: %

구 분			학교를 그만둔 이유		χ^2
			심리정서적 문제	기타 이유	
인구·사회 경제적 배경	성별	남성	13.7	86.3	118.27***
		여성	32.1	67.9	
	연령대	18세 미만	21.4	78.6	7.93**
		18세 이상	26.5	73.5	
	경제수준	상	16.3	83.7	8.37*
		중	23.4	76.6	
		하	26.3	73.7	
	부모의 지원	상	13.7	86.3	71.91***
		중	23.4	76.6	
		하	32.6	67.4	

46) 분석결과 통계표에는 지면한계상 통계적 유의도가 관찰되지 않는 내용은 제외하였다.

47) 조사대상 청소년들이 모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을 통해 표집되었기 때문에 해석된다.

구 분			학교를 그만둔 이유		χ^2
			심리정서적 문제	기타 이유	
학교 밖 경험	지원관련 정보 ⁴⁸⁾ 를 제공받은 경험	있음	26.4	73.6	35.74***
		없음	15.5	84.5	
	기관 및 서비스 이용 여부	있음	25.7	74.3	39.69***
		없음	5.9	94.1	
	학교를 그만둔 후 불이익 경험 여부	있음	30.2	69.8	28.03***
		없음	20.2	79.8	
	학교를 그만둔 후 어려움 경험 여부	있음	30.2	69.8	127.93***
		없음	10.4	89.6	

* $p<.05$, ** $p<.01$, *** $p<.001$

주: 지역규모,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학교성적, 학교를 그만둔 기간, 지원받기까지 기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학교 밖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우울, 불안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는 표 III-5와 같다. 자아존중감은 여자청소년이($M=2.88$ 점) 남자청소년보다($M=3.12$ 점), 경제수준과 부모의 지원,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학업수준을 가장 낮게 인식한 집단일수록 낮은 평균치를 보였다. 자아존중감은 이외에 기관 및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고, 학교를 그만둔 후 어려움을 겪는 적이 있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더 낮게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 수준은 유사한 경향성을 보였다.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연령대가 18세 이상인 경우, 경제 수준과 부모의 지원,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학교성적을 낮다고 인식할수록 우울과 불안 성향이 높았다. 학교를 그만둔 기간에 따른 차이는 불안에서만 나타났는데 학교를 그만둔 이후 6개월 이상~1년 미만인 집단이 학교를 그만두고 6개월 미만인 집단보다 불안감이 더 높았다. 또한, 기관 및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고 학교를 그만둔 후 불이익과 어려움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집단의 우울과 불안 평균값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학교를 그만둔 이후의 불이익과 어려움이 이들의 심리정서적 취약성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으며, 불안의 경우 학교를 그만둔 기간이 길수록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8) 복교절차, 대안교육기관, 검정고시 준비방법, 꿈드림센터 정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진로/직업교육훈련 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을 의미한다.

표 III-5. 심리정서적 취약 측면: 자아존중감, 우울, 불안

단위: 평균값(표준편차)

구 분			자아존중감	우울	불안
전체			3.00(0.71)	2.25(0.89)	2.09(0.85)
인구· 사회 경제적 배경	성별	남성	3.12(0.65)	2.12(0.89)	1.93(0.79)
		여성	2.88(0.74)	2.38(0.87)	2.25(0.88)
		t/F(Scheffé)	8.69***	-7.34***	-9.54***
	연령대	18세 미만	3.02(0.70)	2.21(0.88)	2.05(0.85)
		18세 이상	2.95(0.71)	2.35(0.91)	2.18(0.85)
		t/F(Scheffé)	2.17*	-3.51***	-3.54***
	경제수준	상 ^a	3.23(0.69)	2.01(0.91)	1.89(0.89)
		중 ^b	3.00(0.67)	2.24(0.87)	2.09(0.83)
		하 ^c	2.74(0.83)	2.54(0.92)	2.31(0.91)
		t/F(Scheffé)	35.16***(a)b>c)	25.38***(c)b>a)	17.17***(c)b>a)
	부모의 지원	상 ^a	3.28(0.68)	1.98(0.91)	1.85(0.84)
		중 ^b	2.96(0.62)	2.26(0.82)	2.10(0.79)
		하 ^c	2.72(0.74)	2.56(0.86)	2.36(0.86)
		t/F(Scheffé)	124.36***(a)b>c)	79.40***(c)b>a)	66.69***(c)b>a)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학교성적	상 ^a	3.22(0.68)	2.14(0.87)	1.93(0.83)
		중 ^b	3.00(0.65)	2.21(0.85)	2.09(0.82)
		하 ^c	2.88(0.72)	2.34(0.91)	2.18(0.87)
		t/F(Scheffé)	50.54***(a)b>c)	11.34***(c)a,b)	17.11***(b,c)a)
학교 밖 경험	학교를 그만둔 기간	0~6개월 미만 ^a	3.00(0.74)	2.18(0.90)	1.99(0.88)
		6개월 이상~1년 미만 ^b	2.93(0.73)	2.27(0.92)	2.17(0.89)
		1년 이상~2년 미만 ^c	2.96(0.69)	2.27(0.84)	2.13(0.80)
		2년 이상 ^d	3.03(0.69)	2.27(0.90)	2.09(0.85)
		t/F(Scheffé)	2.70*	1.02	3.22*(b)a)
	기관 및 서비스 이용 여부	있음	2.97(0.71)	2.29(0.88)	2.12(0.85)
		없음	3.18(0.64)	2.11(0.91)	1.97(0.87)
		t/F(Scheffé)	-4.09***	2.75**	2.39*
	학교를 그만둔 후 불이익 경험 여부	있음	2.97(0.72)	2.45(0.88)	2.29(0.85)
		없음	3.01(0.70)	2.18(0.88)	2.02(0.84)
		t/F(Scheffé)	1.30	-6.86***	-6.98***
	학교를 그만둔 후 어려움 경험 여부	있음	2.85(0.72)	2.49(0.85)	2.30(0.84)
		없음	3.24(0.61)	1.85(0.81)	1.74(0.75)
		t/F(Scheffé)	14.32***	-18.20***	-16.95***

* $p < .05$, ** $p < .01$, *** $p < .001$

주: 세 개 항목 모두에서 지역규모,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 지원받기까지의 기간에서는 통계적인 유의도가 나타나지 않음.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살생각 경험과 관련하여 남자청소년보다는 여자청소년들 중 자살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가정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을수록, 부모의 지원 정도가 낮다고 인식할수록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높게 나타났

다(표 III-6). 또한 학교를 그만둔 이후 불이익이나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다만, 학교를 그만둔 이후 지원관련 정보를 받은 경험이 있거나 기관 및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살 생각 경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향후 면밀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표 III-6. 심리정서적 취약 측면: 자살 생각 경험

단위: %

구 분			자살 생각 경험		χ^2
			없다	있다	
인구·사회 경제적 배경	성별	남성	86.5	13.5	72.63***
		여성	72.7	27.3	
	경제수준	상	88.4	11.6	64.74***
		중	80.9	19.1	
		하	62.8	37.2	
	부모의 지원	상	86.5	13.5	93.37***
		중	82.6	17.4	
		하	67.1	32.9	
학교 밖 경험	지원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	있음	78.1	21.9	7.48**
		없음	82.8	17.2	
	기관 및 서비스 이용 여부	있음	78.4	21.6	7.74**
		없음	86.7	13.3	
	학교를 그만둔 후 불이익 경험 여부	있음	71.1	28.9	42.46***
		없음	82.9	17.1	
	학교를 그만둔 후 어려움 경험 여부	있음	72.1	27.9	146.44***
		없음	92.4	7.6	

** α .01, *** α .001

주: 연령대, 지역규모, 학교를 그만둔 당시 학교성적, 학교를 그만둔 기간, 지원받기까지의 기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2) 신체건강 측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신체건강 측면, 특히 비만 및 과체중률과 관련이 있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표 III-7에서는 비만 정도를 저체중, 정상, 과체중, 비만의 4단계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표 III-8에서는 저체중과 정상을 하나의 집단으로, 과체중과 비만을 다른 하나의 집단으로 구성하여 이와 관련한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표 III-7. 신체건강 취약 측면: ① 비만 및 과체중률 4개 집단 비교

단위: %

구 분			비만 및 과체중률				χ^2
			저체중	정상	과체중	비만	
인구· 사회 경제적 배 경	성별	남성	6.7	63.2	10.1	20.0	16.47**
		여성	9.2	67.3	7.9	15.6	
	연령대	18세 미만	6.4	69.4	8.9	15.3	49.10***
		18세 이상	11.2	56.1	9.2	23.5	
	경제수준	상	6.9	62.8	11.7	18.6	18.56**
		중	8.1	66.8	8.6	16.5	
		하	8.1	56.8	9.5	25.6	
	부모의 지원	상	7.2	69.2	9.2	14.5	16.81*
		중	7.3	65.7	8.6	18.4	
		하	9.9	60.2	9.1	20.7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학교성적	상	5.5	71.0	7.7	15.9	25.09***
		중	9.1	67.4	9.1	14.4	
		하	8.6	61.2	9.5	20.7	
학교 밖 경험	기관 및 서비스 이용 여부	있음	8.7	65.8	8.6	17.0	21.33***
		없음	3.5	57.0	13.0	26.5	
	지원받기까지 기간	1년 미만	7.8	67.1	8.7	16.4	13.37**
		1년 이상	12.8	59.7	7.9	19.6	
	학교를 그만둔 후 불이익 경험 여부	있음	8.0	59.9	8.8	23.4	20.56***
		없음	7.9	67.3	9.1	15.7	
	학교를 그만둔 후 어려움 경험 여부	있음	9.1	63.1	8.8	19.0	13.19**
		없음	6.0	69.0	9.3	15.7	

* $p < .05$, ** $p < .01$, *** $p < .001$

주: 지역규모, 학교를 그만둔 기간, 지원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우선 여자청소년보다는 남자청소년들의 과체중 및 비만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18세 이상 집단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 부모의 지원 정도가 낮은 집단 및 학교성적이 낮은 집단에서 비만 및 과체중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를 그만둔 이후 청소년들의 신체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심리정서적 측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교 밖 경험과 관련하여 학교를 그만두고 6개월 미만인 경우와 2년 이상 경과한 집단에서 과체중과 비만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기관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경우와 학교를 그만둔 이후 불이익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의 과체중 및 비만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기관이나 서비스

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외부활동을 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불이익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와 관련한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적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I-8. 신체건강 취약 측면: ② 비만 및 과체중률 2개 집단 비교

단위: %

구 분			비만 및 과체중률		χ^2
			저체중 및 정상	과체중 및 비만	
인구·사회 경제적 배경	성별	남성	69.9	30.1	13.72***
		여성	76.5	23.5	
	연령대	18세 미만	75.9	24.1	19.16***
		18세 이상	67.4	32.6	
	경제수준	상	69.6	30.4	14.34**
		중	74.9	25.1	
		하	64.9	35.1	
	부모의 지원	상	76.4	23.6	7.26*
		중	73.0	27.0	
		하	70.0	30.0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학교성적	상	76.5	23.5	13.79**
		중	76.5	23.5	
		하	69.8	30.2	
학교 밖 경험	학교를 그만둔 기간	0~6개월 미만	73.9	26.1	8.43*
		6개월 이상~1년 미만	77.2	22.8	
		1년 이상~2년 미만	75.4	24.6	
		2년 이상	70.5	29.5	
	기관 및 서비스 이용 여부	있음	74.4	25.6	18.06***
		없음	60.5	39.5	
	학교를 그만둔 후 불이익 경험 여부	있음	68.0	32.0	13.20***
		없음	75.2	24.8	

* $p < .05$, ** $p < .01$, *** $p < .001$

주: 지역규모, 지원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 지원받기까지의 기간, 학교를 그만둔 후 어려움 경험 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신체활동 실천율은 거주지역이 대도시인 경우와 부모의 지원 정도가 높고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학교성적이 높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9). 또한 학교를 그만둔 이후 기간이 길수록 신체활동 실천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기관 및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와 학교를 그만둔 이후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신체활동 실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9. 신체건강 취약 측면: 신체활동 실천율

단위: %

구 분			신체활동 실천율		χ^2
			없다	있다	
인구·사회 경제적 배경	지역규모	대도시	49.5	50.5	9.68**
		중소도시	56.0	44.0	
		읍면리	56.1	43.9	
	부모의 지원	상	46.8	53.2	27.78***
		중	54.4	45.6	
		하	60.6	39.4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학교성적	상	40.4	59.6	67.52***
		중	53.0	47.0	
		하	60.6	39.4	
학교 밖 경험	학교를 그만둔 기간	0~6개월 미만	57.5	42.5	12.77**
		6개월 이상~1년 미만	60.1	39.9	
		1년 이상~2년 미만	53.7	46.3	
		2년 이상	50.5	49.5	
	기관 및 서비스 이용 여부	있음	52.2	47.8	28.20***
		없음	71.6	28.4	
	학교를 그만둔 후 어려움 경험 여부	있음	56.5	43.5	12.71***
		없음	49.1	50.9	

** α .01, *** α .001

주: 성별, 연령대, 경제수준, 지원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 지원받기까지의 기간, 학교를 그만둔 후 불이익 경험 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다음으로 학교를 그만둔 이후 청소년들의 흡연 및 음주 경험과 관련이 있는 요인들을 탐색하였는데(표 III-10), 우선 여자청소년보다는 남자청소년들의 흡연 및 음주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남자청소년의 경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36.9%, 33.2%로 나타남으로써 3명 가운데 1명 정도는 흡연 및 음주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대 별로 보면, 18세 이상 집단의 흡연 및 음주 비율이 더 높았는데, 18세 미만의 집단에서 흡연 및 음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1.9%, 19.0%로, 5명 중 1명 정도가 흡연 및 음주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스러운 결과를 보였다. 거주지역의 경우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나 읍면리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흡연 및 음주 경험 비율이 높았으며,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부모의 지원 정도가 낮을수록, 학교를 그만둘 당시의 성적이 낮을수록 흡연 및 음주 비율은 높게 나타났다.

학교를 그만둔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흡연 정도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음주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이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그리고 기관 및 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는 학교밖 청소년이 경험이 있는 집단에 비해 흡연 및 음주 비율이 더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원받기까지의 시간이 길수록, 학교를 그만둔 이후 불이익이나 어려움을 경험한 학교 밖 청소년의 음주 경험 비율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게 나타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음주 경험이 생활에서의 스트레스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Ⅲ-10. 신체건강 취약 측면: 흡연·음주 경험

단위: %

구 분			흡연 경험			음주 경험		
			없다	있다	χ^2	없다	있다	χ^2
인구· 사회 경제적 배경	성별	남성	63.1	36.9	91.91***	66.8	33.2	24.73***
		여성	80.4	19.6		75.8	24.2	
	연령대	18세 미만	78.1	21.9	107.48***	81.0	19.0	251.36***
		18세 이상	58.0	42.0		49.9	50.1	
	지역규모	대도시	76.2	23.8	12.93**	75.9	24.1	13.74**
		중소도시	69.1	30.9		68.5	31.5	
		읍면리	70.6	29.4		70.0	30.0	
	경제수준	상	77.0	23.0	76.06***	76.7	23.3	12.97**
		중	74.4	25.6		71.9	28.1	
		하	50.3	49.7		63.3	36.7	
	부모의 지원	상	82.0	18.0	95.29***	81.8	18.2	96.63***
		중	72.9	27.1		72.2	27.8	
		하	58.9	41.1		58.3	41.7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학교성적	상	85.2	14.8	153.50***	78.7	21.3	48.68***
		중	80.5	19.5		76.5	23.5	
		하	60.6	39.4		65.0	35.0	
학교 밖 경험	학교를 그만둔 기간	0~6개월 미만	67.1	32.9	9.34*	75.2	24.8	12.96**
		6개월 이상~1년 미만	68.3	31.7		74.0	26.0	
		1년 이상~2년 미만	73.8	26.2		73.9	26.1	
		2년 이상	73.6	26.4		67.8	32.2	
	지원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	있음	68.3	31.7	35.39***	69.0	31.0	15.42***
		없음	79.8	20.2		76.6	23.4	
	기관 및 서비스 이용 여부	있음	76.1	23.9	228.34***	72.9	27.1	25.60***
		없음	26.1	73.9		56.2	43.8	
	지원받기까지 기간	1년 미만	76.6	23.4	1.64	74.2	25.8	8.03**
		1년 이상	73.5	26.5		67.0	33.0	
	학교를 그만둔 후	있음	69.5	30.5	2.63	62.7	37.3	34.89***

구 분			흡연 경험			음주 경험		
			없다	있다	χ^2	없다	있다	χ^2
	불이익 경험 여부	없음	72.8	27.2	1.73	74.7	25.3	21.38***
	학교를 그만둔 후	있음	71.0	29.0		68.2	31.8	
	어려움 경험 여부	없음	73.4	26.6		76.9	23.1	

* $p < .05$, ** $p < .01$, *** $p < .001$

(3) 가정환경적 측면

다음으로 가정환경적 측면에서의 취약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경제적 지원 정도와 관련이 있는 요인을 탐색하였는데, 우선,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의 나이가 적을수록,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지원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을수록, 학교를 그만둘 당시의 성적이 높을수록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경제적 지원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11). 학교를 그만둔 이후 지원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이 없거나 기관 및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 그리고 학교를 그만둔 후 불이익이나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집단의 부모-자녀 관계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학교 밖 경험과 부모-자녀 관계 간의 인과성 문제는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의 취약성을 파악함에 있어 부모-자녀 간의 관계도 고려하여야 할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표 III-11. 가정환경적 취약 측면: 부모-자녀관계

단위: 평균값(표준편차)

구 분			부모-자녀관계: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경제적 지원	t/F(Scheffé)
전체			3.08(0.75)	
인구·사회 경제적 배경	연령대	18세 미만	3.17(0.70)	8.10***
		18세 이상	2.90(0.80)	
	지역규모	대도시 ^a	3.14(0.75)	3.73* (a>b)
		중소도시 ^b	3.05(0.74)	
		읍면리 ^c	3.06(0.76)	
	경제수준	상 ^a	3.42(0.63)	109.57*** (a>b>c)
		중 ^b	3.12(0.70)	
		하 ^c	2.56(0.89)	
	부모의 지원	상 ^a	3.90(0.14)	5582.37*** (a>b>c)
		중 ^b	3.12(0.24)	
		하 ^c	2.12(0.52)	

구 분			부모-자녀관계: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경제적 지원	t/F(Scheffé)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학교성적	상 ^a	3.30(0.71)	51.11*** (a)>b)>c)
		중 ^b	3.15(0.74)	
		하 ^c	2.94(0.74)	
학교 밖 경험	지원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	있음	3.05(0.75)	3.09**
		없음	3.15(0.74)	
	기관 및 서비스 이용 여부	있음	3.09(0.75)	-2.93**
		없음	2.94(0.71)	
	학교를 그만둔 후 불이익 경험 여부	있음	2.93(0.81)	6.29***
		없음	3.15(0.71)	
	학교를 그만둔 후 어려움 경험 여부	있음	2.94(0.77)	13.91***
		없음	3.33(0.63)	

* $p<.05$, ** $p<.01$, *** $p<.001$

주: 성별, 학교를 그만둔 기간, 지원받기까지의 기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표 III-12에 따르면,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지원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학교를 그만둔 후의 불이익이나 어려움 경험 정도도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경우 더 적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III-12. 가정환경적 취약 측면: 가정 경제적 수준

구 분			가정의 경제적 수준			χ^2
			상	중	하	
인구·사회 경제적 배경	연령대	18세 미만	11.7	79.5	8.7	51.17***
		18세 이상	7.3	74.7	18.0	
	부모의 지원	상	17.6	76.9	5.5	196.94***
		중	9.3	82.7	8.0	
		하	4.0	72.0	24.0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학교성적	상	14.8	74.4	10.8	40.92***
		중	10.9	81.8	7.2	
		하	7.9	77.7	14.4	
학교 밖 경험	지원받기까지 기간	1년 미만	10.4	79.4	10.2	11.07**
		1년 이상	8.8	75.1	16.1	
	학교를 그만둔 후 불이익 경험 여부	있음	8.8	75.1	16.0	19.40***
		없음	11.0	79.1	9.9	
	학교를 그만둔 후 어려움 경험 여부	있음	7.7	78.1	14.3	54.64***
		없음	14.9	77.9	7.1	

** $p<.01$, *** $p<.001$

주: 성별, 지역규모, 학교를 그만둔 기간, 지원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 기관 및 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4) 학업 측면

학교를 그만둘 당시의 학교성적과 학업성적이 잘 안 나와서 학교를 그만두었다고 응답한 경우와 관련이 있는 요인들을 탐색하였는데, 우선 학업성적이 낮은 집단의 경우 남자청소년들의 비율이 여자청소년들에 비해 높았으며,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비율과 부모의 지원 정도가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13). 학업성적이 낮은 집단의 경우 지원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기관 및 서비스 이용 경험은 학교성적이 높은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I-13. 학업관련 취약 측면: 성적 및 학교를 그만둔 이유

단위: %

구 분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학교성적			학교를 그만둔 이유: 학업 성적이 잘 안나와서			
			상	중	하	χ^2	학업성적 문제	기타 이유	χ^2
인구· 사회 경제적 배경	성별	남성	24.7	22.7	52.6	16.54***	9.6	90.4	0.10
		여성	24.7	29.5	45.9		9.9	90.1	
	연령대	18세 미만	27.5	26.3	46.2	26.78***	10.1	89.9	0.73
		18세 이상	18.6	25.6	55.8		9.0	91.0	
	지역규모	대도시	25.4	27.8	46.9	13.49**	12.6	87.4	12.55**
		중소도시	22.4	26.2	51.4		8.4	91.6	
		읍면리	30.3	22.3	47.4		7.7	92.3	
	경제수준	상	35.3	27.5	37.2	40.92***	9.7	90.3	3.85
		중	23.5	27.4	49.0		10.2	89.8	
		하	22.8	16.3	60.9		6.6	93.4	
	부모의 지원	상	35.8	28.7	35.4	107.79***	10.0	90.0	2.52
		중	21.4	26.1	52.5		10.6	89.4	
		하	17.3	23.2	59.5		8.3	91.7	
학교 밖 경험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학교성적	상	-	-	-	-	3.7	96.3	50.17***
		중	-	-	-		8.0	92.0	
		하	-	-	-		13.8	86.2	
	학교를 그만둔 기간	0~6개월 미만	20.8	23.4	55.8	25.00***	11.3	88.7	24.54***
		6개월 이상~1년 미만	20.9	26.6	52.4		9.2	90.8	
		1년 이상~2년 미만	23.2	24.2	52.6		14.3	85.7	
		2년 이상	28.1	27.9	44.1		7.1	92.9	
	지원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	있음	23.2	24.6	52.1	18.88***	10.7	89.3	5.86*
		없음	27.9	29.4	42.7		7.6	92.4	
	기관 및 서비스 이용 여부	있음	25.6	27.9	46.5	83.23***	9.7	90.3	0.74
		없음	7.4	12.8	79.8		7.9	92.1	

* $p < .05$, ** $p < .01$, *** $p < .001$

주: 지원받기까지의 기간, 학교를 그만둔 후 불이익 경험 여부, 학교를 그만둔 후 어려움 경험 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학업성적을 이유로 학교를 그만둔 비율은 성별이나 연령대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중소도시나 읍면리 지역보다는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경우에 학업성적이 학교를 그만두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성적 문제로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에게서 지원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비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학교를 그만둔 당시의 성적이나 학업성적을 이유로 학교를 떠난 사례는 학교를 그만둔 후의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학교를 그만둔 것을 후회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그 이유를 질문하였는데, 지식습득 기회의 감소를 후회하는 이유로 응답한 청소년들의 경우 여자청소년보다는 남자청소년의 비율이 높았으며,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지식습득 기회 감소를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14). 또한 학교를 그만둔 이후 기간이 경과할수록, 지원받기까지의 기간이 오래될수록, 학교를 그만둔 이후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을 때 지식습득이 줄어드는 것을 후회하는 이유로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4. 학업관련 취약 측면: 학교를 그만둔 후 후회하는 이유

단위: %

구 분			학교를 그만둔 후 후회하는 이유: 지식습득 기회가 줄어든 것		χ^2
			지식기회 감소	기타 이유	
인구·사회 경제적 배경	성별	남성	12.9	87.1	9.01**
		여성	9.1	90.9	
	경제수준	상	8.1	91.9	8.48*
		중	10.7	89.3	
		하	15.6	84.4	
학교 밖 경험	학교를 그만둔 기간	0~6개월 미만	7.6	92.4	12.83**
		6개월 이상~1년 미만	7.6	92.4	
		1년 이상~2년 미만	12.8	87.2	
		2년 이상	12.4	87.6	
	지원받기까지 기간	1년 미만	10.3	89.7	5.96*
		1년 이상	14.7	85.3	
	학교를 그만둔 후 어려움 경험 여부	있음	13.4	86.6	25.55***
		없음	6.8	93.2	

* $p < .05$, ** $p < .01$, *** $p < .001$

주: 연령대, 지역규모, 부모의 지원,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학교성적, 지원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 기관 및 서비스 이용 여부, 학교를 그만둔 후 불이익 경험 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5) 사회적 측면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지원 정도가 높을수록 상담자나 주 상의자가 있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III-15). 또한 학교를 그만둘 당시 상담자나 주 상의자가 있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에게서 지원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으며, 기관 및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둘 당시 상담자의 존재 유무는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나 부모의 지원 여부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동시에 학교를 그만둔 이후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I-15. 사회적 취약 측면: 학교를 그만둘 당시 상담자 유무

단위: %

구 분			학교를 그만둘 당시 상담자/주 상의자 유무		χ^2
			있었다	없었다	
인구·사회 경제적 배경	경제수준	상	97.3	2.7	13.25**
		중	92.8	7.2	
		하	89.2	10.8	
	부모의 지원	상	97.1	2.9	61.08***
		중	93.8	6.2	
		하	86.6	13.4	
학교 밖 경험	학교를 그만둔 기간	0~6개월 미만	93.7	6.3	13.30**
		6개월 이상~1년 미만	93.8	6.3	
		1년 이상~2년 미만	95.4	4.6	
		2년 이상	90.9	9.1	
	지원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	있음	93.9	6.1	9.71**
		없음	90.5	9.5	
	기관 및 서비스 이용 여부	있음	93.6	6.4	11.80**
		없음	87.3	12.7	

** $p < .01$, *** $p < .001$

주: 성별, 연령대, 지역규모,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학교성적, 지원받기까지의 기간, 학교를 그만둔 후 불이익 경험 여부, 학교를 그만둔 후 어려움 경험 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학교 친구문제로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의 특징을 살펴보면(표 III-16), 남자청소년보다는 여자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이유로 학교 친구문제를 더 많이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여자청소년들이 사회적 관계에 있어 더욱 민감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가정의 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부모의 지원 정도가 낮을수록, 학교를 그만둘 당시의

성적이 중위권이나 하위권일수록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학교 친구문제로 학교를 그만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 친구문제로 학교를 그만두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학교를 그만둔 기간이 길수록 더 높았고, 지원받기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집단에서의 응답비율이 높았으며, 학교를 그만둔 이후 불이익이나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학교 친구문제를 언급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를 그만둔 당시의 사회적 관계성이 학교를 그만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III-16. 사회적 취약 측면: 학교를 그만둔 이유_학교친구문제

단위: %

구 분			학교를 그만둔 이유: 학교친구문제		χ^2
			학교친구문제	기타 이유	
인구·사회 경제적 배경	성별	남성	9.0	91.0	38.92***
		여성	17.5	82.5	
	경제수준	상	12.0	88.0	10.35**
		중	12.6	87.4	
		하	19.3	80.7	
	부모의 지원	상	7.3	92.7	44.17***
		중	13.9	86.1	
		하	19.1	80.9	
	학교를 그만둔 당시 학교성적	상	9.1	90.9	12.62**
		중	15.4	84.6	
		하	14.2	85.8	
학교 밖 경험	학교를 그만둔 기간	0~6개월 미만	7.1	92.9	18.21***
		6개월 이상~1년 미만	12.5	87.5	
		1년 이상~2년 미만	13.3	86.7	
		2년 이상	15.6	84.4	
	기관 및 서비스 이용 여부	있음	14.3	85.7	19.02***
		없음	3.4	96.6	
	지원받기까지 기간	1년 미만	13.5	86.5	4.93*
		1년 이상	18.0	82.0	
	학교를 그만둔 후 불이익 경험 여부	있음	16.6	83.4	9.05**
		없음	12.0	88.0	
	학교를 그만둔 후 어려움 경험 여부	있음	16.8	83.2	45.67***
		없음	7.2	92.8	

* $p < .05$, ** $p < .01$, *** $p < .001$

주: 연령대, 지역규모, 지원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학교를 그만둔 이후 친구를 사귄 기회가 감소한다는 이유로 학교를 그만둔 것을 후회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대도시 거주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남으로써 대도시에서는 읍면리 등과 달리 학교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장(場)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III-17). 또한 학교를 그만둔 이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그리고 기관 및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을 때 친구를 사귄 기회가 감소하는 것을 이유로 후회한 비율이 더 높았다. 기관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은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교를 그만둔 후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친구를 사귄 기회가 감소하는 이유로 학교를 그만둔 것을 후회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표 III-17. 사회적 취약 측면: 학교를 그만둔 후 후회 이유_친구 사귄 기회 감소

단위: %

구 분			학교를 그만둔 후 후회 이유: 친구사귄 기회 감소		χ^2
			친구사귄기회 감소	기타 이유	
인구·사회 경제적 배경	지역규모	대도시	27.6	72.4	10.77**
		중소도시	23.6	76.4	
		읍면리	19.4	80.6	
학교 밖 경험	학교를 그만둔 기간	0~6개월 미만	17.4	82.6	17.62**
		6개월 이상~1년 미만	22.3	77.7	
		1년 이상~2년 미만	23.6	76.4	
		2년 이상	27.7	72.3	
	기관 및 서비스 이용 여부	있음	25.1	74.9	6.18*
		없음	17.2	82.8	
	지원받기까지 기간	1년 미만	23.2	76.8	17.27***
		1년 이상	33.5	66.5	
	학교를 그만둔 후 어려움 경험 여부	있음	30.0	70.0	75.27***
		없음	14.5	85.5	

* $p < .05$, ** $p < .01$, *** $p < .001$

주: 성별, 연령대, 경제수준, 부모의 지원,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학교성적, 지원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 학교를 그만둔 후 불이익 경험 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학교를 그만둔 이후 사회적 관계 친밀도와 관련이 있는 요인들을 검토해 본 결과, 우선 18세 이상의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친밀도가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읍면리 지역보다는 대도시 거주 청소년들의 사회적 친밀도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III-18). 부모의 지원 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학교를 그만둘 당시의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사회적 친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를 그만둔 이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 보다 익숙해지고 있고, 대도시의 경우 보다 많고 다양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가정의 사회적 지지도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일정하게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지원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이 있거나 학교를 그만둔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사회적 친밀도 수준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를 그만둔 이후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빨리 지원받음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다소 편안하게 유지하게 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만 학교를 그만둔 이후 불이익을 경험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그리고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사회적 친밀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후 더욱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I-18. 사회적 취약 측면: 학교를 그만둔 후 사회적 관계 친밀도

단위: 평균값(표준편차)

구 분			학교를 그만둔 후 사회적 관계 친밀도	t/F(Scheffé)
전체			1.97(0.68)	
인구·사회 경제적 배경	연령대	18세 미만	1.94(0.67)	-3.29**
		18세 이상	2.03(0.70)	
	지역규모	대도시 ^a	1.99(0.68)	3.48* (a>c)
		중소도시 ^b	1.98(0.68)	
		읍면리 ^c	1.89(0.69)	
	부모의 지원	상 ^a	2.11(0.69)	25.87*** (a>b,c)
		중 ^b	1.93(0.63)	
		하 ^c	1.87(0.72)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학교성적	상 ^a	2.05(0.68)	8.76*** (a>c)
		중 ^b	2.00(0.65)	
		하 ^c	1.91(0.69)	
학교 밖 경험	지원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	있음	1.99(0.67)	-2.51*
		없음	1.92(0.71)	
	지원받기까지 기간	1년 미만	1.99(0.66)	2.78**
		1년 이상	1.88(0.67)	
	학교를 그만둔 후 불이익 경험 여부	있음	2.06(0.65)	-4.20***
		없음	1.93(0.69)	
	학교를 그만둔 후 어려움 경험 여부	있음	1.93(0.66)	3.93***
		없음	2.04(0.71)	

* $p < .05$, ** $p < .01$, *** $p < .001$

주: 성별, 경제수준, 학교를 그만둔 기간, 기관 및 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6) 진로 측면

학교를 그만둘 당시 계획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남자청소년들보다는 여자청소년들의 경우 계획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여자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이후의 생활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III-19). 또한 부모의 지원 정도가 높을수록, 학교를 그만둘 당시의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계획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교를 그만둘 당시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집단의 경우 기관 및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고, 지원받기까지의 기간도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를 그만둔 후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를 그만둘 당시의 계획을 갖고 있는가의 여부가 학교를 그만둔 이후의 생활에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I-19. 진로관련 취약 측면: 학교를 그만둘 당시 계획

단위: %

구 분			학교를 그만둘 당시 계획		χ^2
			없음	있음	
인구·사회 경제적 배경	성별	남성	20.5	79.5	17.12***
		여성	14.3	85.7	
	연령대	18세 미만	15.7	84.3	10.23**
		18세 이상	21.0	79.0	
	부모의 지원	상	10.6	89.4	41.09***
		중	18.5	81.5	
		하	23.1	76.9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학교성적	상	13.0	87.0	25.25***
		중	14.2	85.8	
		하	21.2	78.8	
학교 밖 경험	학교를 그만둔 기간	0~6개월 미만	10.8	89.2	24.65***
		6개월 이상~1년 미만	14.4	85.6	
		1년 이상~2년 미만	16.6	83.4	
		2년 이상	21.0	79.0	
	기관 및 서비스 이용 여부	있음	16.1	83.9	7.26**
		없음	23.5	76.5	
	지원받기까지 기간	1년 미만	15.4	84.6	3.91*
		1년 이상	19.6	80.4	
	학교를 그만둔 후 어려움 경험 여부	있음	18.5	81.5	4.02*
		없음	15.4	84.6	

* $p < .05$, ** $p < .01$, *** $p < .001$

주: 지역규모, 경제수준, 지원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 학교를 그만둔 후 불이익 경험 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직업태도를 살펴보면(표 III-20),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의 진로직업태도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지원수준이 높을수록,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진로직업태도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대부분의 취약성 관련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정의 경제적 수준, 부모의 지원 및 학교를 그만둘 당시의 학교성적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I-20. 진로관련 취약 측면: 진로직업태도

단위: 평균값(표준편차)

구 분			진로직업태도	t/F(Scheffé)
전체			2.81(0.49)	
인구·사회 경제적 배경	경제수준	상 ^a	2.94(0.53)	11.41*** (a>b,c)
		중 ^b	2.80(0.48)	
		하 ^c	2.76(0.52)	
	부모의 지원	상 ^a	2.93(0.51)	41.04*** (a>b>c)
		중 ^b	2.79(0.47)	
		하 ^c	2.70(0.47)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학교성적	상 ^a	2.94(0.48)	50.96*** (a>b>c)
		중 ^b	2.87(0.49)	
		하 ^c	2.71(0.48)	
학교 밖 경험	기관 및 서비스 이용 여부	있음	2.83(0.49)	-3.12**
		없음	2.71(0.46)	
	학교를 그만둔 후 불이익 경험 여부	있음	2.87(0.50)	-3.81***
		없음	2.79(0.48)	
	학교를 그만둔 후 어려움 경험 여부	있음	2.76(0.48)	6.18***
		없음	2.89(0.50)	

** $p < .01$, *** $p < .001$

주: 성별, 연령대, 지역규모, 학교를 그만둔 기간, 지원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 지원받기까지의 기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의 진로결정 유무와 관련이 있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표 III-21), 남자청소년들보다는 여자청소년들의 진로결정 비율이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자청소년들의 경우 진로를 결정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70% 수준인데 비해 남자청소년들은 58% 수준에 그치고 있어 남자청소년들에 대한 진로 관련 지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거주지역의 규모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나 읍면리에

비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진로결정 비율이 다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지원이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진로결정 비율이 가장 높았고, 학교를 그만둔 당시의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관 및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집단의 진로결정 비율이 66.8%인데 비해 이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집단은 44.8%로 약 22%p 정도의 차이를 보여, 기관 및 서비스 이용과 학업중단 이후의 진로결정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학교를 그만둔 이후 불이익이나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진로결정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심층적인 후속 탐색이 필요해 보인다.

표 III-21. 진로관련 취약 측면: 진로결정 유무

단위: %

구 분			진로결정 유무		χ^2
			미결정	결정	
인구·사회 경제적 배경	성별	남성	41.9	58.1	38.82***
		여성	29.9	70.1	
	지역규모	대도시	33.0	67.0	6.12*
		중소도시	38.2	61.8	
		읍면리	34.9	65.1	
	부모의 지원	상	32.2	67.8	6.39*
		중	37.9	62.1	
		하	36.6	63.4	
	학교를 그만둔 당시 학교성적	상	24.7	75.3	61.06***
		중	33.0	67.0	
		하	42.8	57.2	
학교 밖 경험	기관 및 서비스 이용 여부	있음	33.2	66.8	39.15***
		없음	55.2	44.8	
	학교를 그만둔 후 불이익 경험 여부	있음	28.3	71.7	23.53***
		없음	38.7	61.3	
	학교를 그만둔 후 어려움 경험 여부	있음	34.2	65.8	4.62*
		없음	38.5	61.5	

* $p < .05$, *** $p < .001$

주: 연령대, 경제수준, 학교를 그만둔 기간, 지원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 지원받기까지의 기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학교를 그만둔 이후 진로결정은 18세 이상의 집단에서 더 늦게 결정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부모의 지원이 높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더 빨리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22). 또한 학교를 그만둔 기간이 길수록 진로결정 시기가 지연되는 경향을 보였고, 지원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이 있거나 지원받기까지의 기간이 짧고, 학교를 그만둔 이후

불이익이나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없을수록 진로결정 시기가 앞당겨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III-22. 진로관련 취약 측면: 학교를 그만둔 후 진로결정 시기

단위: 평균값(표준편차)

구 분			학교를 그만둔 후 진로결정시기	t/F(Scheffé)
전체			2.59(1.90)	
인구·사회 경제적 배경	연령대	18세 미만	2.33(1.76)	-7.55***
		18세 이상	3.13(2.06)	
	부모의 지원	상 ^a	2.37(1.85)	5.63** (c>a)
		중 ^b	2.62(1.91)	
		하 ^c	2.79(1.92)	
학교 밖 경험	학교를 그만둔 기간	0~6개월 미만 ^a	1.19(0.39)	190.06*** (c>d>a,b)
		6개월 이상~1년 미만 ^b	1.53(0.77)	
		1년 이상~2년 미만 ^c	2.20(1.32)	
		2년 이상 ^d	3.60(2.15)	
	지원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	있음	2.52(1.84)	2.04*
		없음	2.74(2.02)	
	지원받기까지 기간	1년 미만	2.38(1.77)	-8.78***
		1년 이상	3.72(2.19)	
	학교를 그만둔 후 불이익 경험 여부	있음	2.90(2.03)	-4.26***
		없음	2.44(1.82)	
	학교를 그만둔 후 어려움 경험 여부	있음	2.66(1.91)	-2.16*
		없음	2.45(1.88)	

* $p < .05$, ** $p < .01$, *** $p < .001$

주: 성별, 지역구분, 경제수준, 학교를 그만둔 당시 학교성적, 기관 및 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7) 환경적 측면

학교를 그만둔 당시 관련 정보(복교 절차, 대안교육기관, 검정고시 준비 방법, 꿈드림센터 등 지원 기관 및 시설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과 관련하여 부모의 지원 정도가 높을수록 정보를 제공받지 않았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III-23). 이는 부모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학교에서 제공해 주는 정보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 높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학교를 그만둔 당시의 정보제공은 해당 청소년들의 배경과 관련없이 필요하지만 특히 가정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매우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학교를 그만둔 당시의 학교성적이 낮을수록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학교성적이 낮은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를 그만둔 기간이 짧을수록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를 그만둘 당시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집단이 지원받기까지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학교를 그만둔 후 불이익이나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집단의 경우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I-23. 환경적(제도적) 취약성·불이익측면: 학교를 그만둘 당시 제공받은 정보

단위: %

구 분			학교를 그만둘 당시 제공받은 정보		χ^2
			없다	있다	
인구·사회 경제적 배경	부모의 지원	상	36.2	63.8	14.68**
		중	30.0	70.0	
		하	27.2	72.8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학교성적	상	35.2	64.8	18.88***
		중	35.0	65.0	
		하	27.0	73.0	
학교 밖 경험	학교를 그만둔 기간	0~6개월 미만	23.4	76.6	43.78***
		6개월 이상~1년 미만	24.2	75.8	
		1년 이상~2년 미만	28.1	71.9	
		2년 이상	37.6	62.4	
	지원받기까지 기간	1년 미만	28.7	71.3	23.00***
		1년 이상	41.3	58.7	
	학교를 그만둔 후 불이익 경험 여부	있음	28.0	72.0	4.23*
		없음	32.3	67.7	
	학교를 그만둔 후 어려움 경험 여부	있음	29.4	70.6	5.95*
		없음	34.1	65.9	

* $p < .05$, ** $p < .01$, *** $p < .001$

주: 성별, 연령대, 지역규모, 경제수준, 기관 및 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학교를 그만둔 이후 학생으로 누릴 권리나 이익을 제한받는 것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둔 것을 후회한 적이 있다는 응답률은 나이가 많을수록, 부모의 지원이 적을수록 그리고 학교를 그만둘 당시 성적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표 III-24). 또한 기관 및 서비스 이용경험이 없거나 학교를 그만둔 후 불이익이나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학생으로 누릴 권리나 이익을 제한받는 것으로 인해 후회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학생이 아니라는 사실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어려움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24. 환경적(제도적) 취약성·불이익측면: 학교를 그만둔 후 후회

단위: %

구 분			학교를 그만둔 후 후회: 학생으로 누릴 권리/이익 제한		χ^2
			학생 권리/이익 제한	기타 이유	
인구·사회 경제적 배경	연령대	18세 미만	9.6	90.4	9.22**
		18세 이상	13.7	86.3	
	부모의 지원	상	8.2	91.8	7.97*
		중	11.9	88.1	
		하	12.2	87.8	
	학교를 그만둔 당시 학교성적	상	9.0	91.0	6.08*
		중	9.9	90.1	
		하	12.4	87.6	
학교 밖 경험	기관 및 서비스 이용 여부	있음	10.5	89.5	7.23**
		없음	16.7	83.3	
	학교를 그만둔 후 불이익 경험 여부	있음	16.6	83.4	32.44***
		없음	8.7	91.3	
	학교를 그만둔 후 어려움 경험 여부	있음	13.0	87.0	19.78***
		없음	7.2	92.8	

* $p < .05$, ** $p < .01$, *** $p < .001$

주: 성별, 지역규모, 경제수준, 학교를 그만둔 기간, 지원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 지원받기까지의 기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학교를 그만둔 이후 진로관련 경험 여부와 관련하여 여자청소년들은 남자청소년들에 비해 진로관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그 비율이 95%에 근사하고 있어 이 실태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여자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둔 이후 진로 관련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25). 거주지역의 규모를 살펴보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대도시나 읍면리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진로관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낮은 수준이었고, 학교성적이 낮은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진로관련 경험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를 그만둔 기간이 길수록 진로관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학교를 그만둔 지 1년 이상인 집단에서는 95% 내외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진로관련 경험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관 및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집단의 94.2%가 진로관련 경험을 갖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기관 및 서비스 이용의 확대가 청소년들의 진로결정 과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25. 환경적(제도적) 취약성·불이익측면: 진로관련 경험 유무

단위: %

구 분			학교를 그만둔 후 진로관련 경험 유무		χ^2
			없다	있다	
인구·사회 경제적 배경	성별	남성	11.5	88.5	30.26***
		여성	5.4	94.6	
	지역규모	대도시	6.5	93.5	10.33**
		중소도시	10.3	89.7	
		읍면리	7.2	92.8	
	학교를 그만둔 당시 학교성적	상	5.2	94.8	32.10***
		중	5.4	94.6	
		하	11.6	88.4	
학교 밖 경험	학교를 그만둔 기간	0~6개월 미만	20.3	79.7	99.61***
		6개월 이상~1년 미만	11.7	88.3	
		1년 이상~2년 미만	4.9	95.1	
		2년 이상	5.2	94.8	
	기관 및 서비스 이용 여부	있음	5.8	94.2	242.15***
		없음	37.7	62.3	
	학교를 그만둔 후 불이익 경험 여부	있음	6.4	93.6	5.36*
		없음	9.2	90.8	

* $p < .05$, ** $p < .01$, *** $p < .001$

주: 연령대, 경제수준, 부모의 지원, 지원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 지원받기까지의 기간, 학교를 그만둔 후 어려움 경험 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학교를 그만둔 이후 불이익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자청소년에 비해 여자청소년들에게서, 18세 미만보다는 18세 이상 집단에서, 대도시보다는 읍면리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게서,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부모의 지원정도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표 III-26). 남자청소년들보다는 여자청소년들이, 또 나이가 많을수록 주변의 상황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나 부모의 지원은 이러한 불이익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일종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학교를 그만둔 기간이 길수록 불이익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지원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지원받기까지의 기간이 길수록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았으며, 학교를 그만둔 후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26. 환경적(제도적) 취약성·불이익측면: 학교를 그만둔 후 불이익 경험

단위: %

구 분			학교를 그만둔 후 불이익 경험		χ^2
			없다	있다	
인구·사회 경제적 배경	성별	남성	76.5	23.5	22.82***
		여성	67.9	32.1	
	연령대	18세 미만	76.5	23.5	51.19***
		18세 이상	62.6	37.4	
	지역규모	대도시	73.8	26.2	8.16*
		중소도시	73.0	27.0	
		읍면리	66.4	33.6	
	경제수준	상	76.4	23.6	19.40***
		중	73.2	26.8	
		하	61.6	38.4	
학교 밖 경험	학원을 그만둔 기간	0~6개월 미만	83.9	16.1	65.87***
		6개월 이상~1년 미만	79.6	20.4	
		1년 이상~2년 미만	73.6	26.4	
		2년 이상	65.0	35.0	
	지원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	있음	70.9	29.1	4.23*
		없음	74.9	25.1	
	지원받기까지 기간	1년 미만	73.8	26.2	16.21***
		1년 이상	63.5	36.5	
	학교를 그만둔 후 어려움 경험 여부	있음	65.5	34.5	95.79***
		없음	83.8	16.2	

* $p < .05$, *** $p < .001$

주: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학교성적, 기관 및 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학교를 그만둔 이후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와 관련하여 남자청소년보다는 여자청소년들이,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III-27). 또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부모의 지원 정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학교성적이 낮을수록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앞의 불이익 경험에서와 같이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부모의 지원 정도, 학업능력 등은 학교를 그만둔 이후 겪게 되는 어려움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지원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집단과 기관 및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데, 이는 어려움을 경험함에 따라 도움을 얻기 위해 기관 등을 이용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두 요인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현 단계에서 학교를 그만둔 이후 어려움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에게 기관이나 서비스 등의 이용은 문제해결을 위한 중요한 통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원받기까지의 기간이 길수록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학교를 그만둔 이후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 이용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III-27. 환경적(제도적) 취약성·불이익측면: 학교를 그만둔 후 어려움 경험

단위: %

구 분			학교를 그만둔 후 어려움 경험		χ^2
			없다	있다	
인구·사회 경제적 배경	성별	남성	44.9	55.1	72.45***
		여성	28.5	71.5	
	연령대	18세 미만	38.8	61.2	11.70**
		18세 이상	31.7	68.3	
	경제수준	상	52.9	47.1	54.64***
		중	36.6	63.4	
		하	22.4	77.6	
	부모의 지원	상	50.6	49.4	145.25***
		중	37.3	62.7	
		하	19.9	80.1	
	학교를 그만둔 당시 학교성적	상	41.2	58.8	8.09*
		중	36.2	63.8	
		하	34.5	65.5	
학교 밖 경험	학교를 그만둔 기간	0~6개월 미만	43.9	56.1	11.81**
		6개월 이상~1년 미만	32.9	67.1	
		1년 이상~2년 미만	36.6	63.4	
		2년 이상	35.3	64.7	
	지원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	있음	35.0	65.0	5.95*
		없음	40.1	59.9	
	기관 및 서비스 이용 여부	있음	34.2	65.8	18.40***
		없음	49.3	50.7	
	지원받기까지 기간	1년 미만	35.8	64.2	10.93**
		1년 이상	26.8	73.2	
	학교를 그만둔 후 불이익 경험 여부	있음	21.4	78.6	95.79***
		없음	42.5	57.5	

* $p < .05$, ** $p < .01$, *** $p < .001$

주: 지역규모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지원받기까지의 기간과 관련이 있는 요인을 살펴보면, 우선 나이가 어릴수록 상대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지원받는 경향을 보였으며, 거주지의 규모가 대도시일수록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지원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성적이 중간 이상일수록 지원받기까지의 시간이 짧은 경향을 보였다(표 III-28).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이 속한 가정의 특성과 지원받기까지의 시간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교를 그만둔 기간이 길수록 지원받기까지의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지원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없거나 기관 및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집단의 경우 지원받기까지 상대적으로 더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학교를 그만둔 후 불이익이나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지원받기까지의 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불이익이나 어려움을 경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받는 것을 탐색하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표 III-28. 환경적(제도적) 취약성·불이익측면: 지원받기까지의 기간

단위: 평균값(표준편차)

구 분			지원받기까지의 기간	t/F(Scheffé)
전체			1.26(1.32)	
인구·사회 경제적 배경	연령대	18세 미만	1.10(1.24)	-7.91***
		18세 이상	1.58(1.43)	
	지역규모	대도시 ^a	1.16(1.31)	4.00* (b>a)
		중소도시 ^b	1.33(1.33)	
		읍면리 ^c	1.25(1.34)	
	경제수준	상 ^a	1.11(1.36)	9.13*** (c)>a,b)
		중 ^b	1.23(1.30)	
		하 ^c	1.57(1.40)	
	부모의 지원	상 ^a	1.11(1.29)	6.57** (b,c)>a)
		중 ^b	1.29(1.36)	
		하 ^c	1.36(1.29)	
	학교를 그만둔 당시 학교성적	상 ^a	1.16(1.37)	9.38*** (c)>a,b)
		중 ^b	1.12(1.26)	
		하 ^c	1.37(1.33)	
학교 밖 경험	학교를 그만둔 기간	0~6개월 미만 ^a	0.45(0.50)	91.90*** (d)>b,c)>a)
		6개월 이상~1년 미만 ^b	0.95(0.75)	
		1년 이상~2년 미만 ^c	1.18(1.13)	
		2년 이상 ^d	1.66(1.58)	
	지원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	있음	1.18(1.26)	3.96***
		없음	1.43(1.44)	
	기관 및 서비스 이용 여부	있음	1.12(1.26)	16.58***
		없음	2.65(1.18)	

구 분			지원받기까지의 기간	t/F(Scheffé)
	학교를 그만둔 후	있음	1.46(1.41)	-4.56***
	불이익 경험 여부	없음	1.17(1.28)	
	학교를 그만둔 후	있음	1.33(1.32)	-3.41**
	어려움 경험 여부	없음	1.13(1.33)	

* $p < .05$, ** $p < .01$, *** $p < .001$

주: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학교를 그만둔 이후 기관이나 서비스 이용 전 주요 활동과 관련하여, 남자청소년들보다는 여자청소년들이 혼자 공부, 학원, 아르바이트, 부모님 일 돕기 등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29). 아울러 부모의 지원 수준과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학교를 그만둔 이후 공부나 아르바이트 등의 활동에 참여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앞서 다른 요인들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지원 수준과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학교성적이 학교를 그만둔 이후 적극적인 활동 여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 경험이 있는 집단의 지원받기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으로 더 길었는데, 이는 여기서의 활동이 혼자 공부, 학원 가기, 아르바이트, 부모님 일을 도와드리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는바, 기관 이용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활동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즉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기관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것을 다소 지연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표 III-29. 환경적(제도적) 취약성·불이익측면: 기관/서비스 이용 전 주요 활동

단위: %

구 분			기관/서비스 이용 전 주요 활동		χ^2
			없다	있다	
인구·사회 경제적 배경	성별	남성	55.0	45.0	12.46***
		여성	45.2	54.8	
	부모의 지원	상	40.8	59.2	17.30***
		중	52.0	48.0	
		하	55.3	44.7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학교성적	상	36.0	64.0	60.65***
		중	41.0	59.0	
		하	60.0	40.0	
학교 밖 경험	지원받기까지 기간	1년 미만	55.0	45.0	30.96***
		1년 이상	36.8	63.2	

* $p < .05$, ** $p < .01$, *** $p < .001$

주: 연령대, 지역규모, 경제수준, 학교를 그만둔 기간, 지원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 기관 및 서비스 이용 여부, 학교를 그만둔 후 불이익 경험 여부, 학교를 그만둔 후 어려움 경험 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3.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에 대한 다변량분석

1) 분석 개요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과 관련된 요인을 탐색하였다. 데이터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회귀분석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어떠한 특성이 이들의 자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리사회적 및 진로관련 측면의 취약성에 관련되는지, 그리고 자립에 직결될 수 있는 진로와 관련된 지원 요구와도 어떠한 관련성을 보이는지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사용된 변수들은 표 III-30과 같다.

표 III-30. 다변량 분석에 포함된 변수 설명

독립변수(통제변수 포함)	취약성(종속변수)	
	영역	상세 내용
성별, 연령대, 가정의 경제수준, 부모의 지원, 지역규모,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학업성적, 학교를 그만둔 기간, 지원관련 정보제공 유무, 지원까지의 기간	심리사회	자아존중감, 우울 및 불안, 사회적 관계
	진로	진로결정 유무, 진로결정시기 진로직업태도
	지원 요구	학습 또는 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 진학정보 제공(검정고시, 입사정보, 대안학교 등), 검정고시 준비 지원(학습/비용 지원), 대학 진학/대학입시 상담, 진로탐색을 위한 체험, 직업교육훈련, 각종 고민에 대한 상담제공

학교 밖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배경과 학교를 그만둘 당시 경험 및 지원관련 경험을 독립변수로 하여, 이들의 심리사회적, 진로관련 취약성과 지원 요구와의 관련성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다변량분석(회귀분석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독립변수로 사용된 변수들은 표 III-31과 같이 코딩된 후 회귀식에 투입되었다.

표 III-31. 회귀분석에 사용된 독립변수

독립변수	코딩 내용
성별	0=여자, 1=남자
연령대	0=18세 미만, 1=18세 이상
가정의 경제수준	1=하, 2=중, 3=상
부모의 지원	1=하, 2=중, 3=상
지역규모1(읍면리, 대도시)	0=읍면리, 1=대도시
지역규모2(읍면리, 중소도시)	0=읍면리, 1=중소도시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학교성적	1=하, 2=중, 3=상
학교를 그만둔 기간	1=6개월 미만, 2=6개월 이상~1년 미만, 3=1년 이상~2년 미만, 4=2년 이상
지원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	0=없다, 1=있다
지원받기까지의 기간	0=1년 미만, 1=1년 이상

2) 분석 결과

(1) 심리정서적 측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심리정서적 측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자아존중감, 우울, 불안 및 학교를 그만둔 이후의 사회적 관계를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II-32와 III-33에 제시되어 있다.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성별, 가정의 경제적 수준, 부모의 지원 수준, 학교를 그만둘 당시의 학교성적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즉 여자청소년보다는 남자청소년이,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지원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를 그만둔 기간이나 지원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 서비스를 지원받기까지의 기간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은 성별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 부모의 지원 수준과 더불어 학교를 그만둔 기간이, 불안은 자아존중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별, 가정의 경제적 수준, 부모의 지원 수준 및 학교를 그만둘 당시의 학교성적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청소년보다는 여자청소년들이 우울이나 불안에 더 취약했으며,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부모의 지원수준이 낮을수록 우울이나 불안 정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울의 경우 학교를 그만둔 기간이 길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학교를 그만둘 당시의 학교성적이 낮을수록 불안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를 그만둔 이후의 주변 사람들과의 친밀도를 나타내는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앞서 우울이나 불안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선 연령대가 높을수록 주변 사람과의 친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지원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를 그만둘 당시의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친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지원 수준과 학교성적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가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읍면리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주변사람들과 더 친밀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지원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이 있거나 서비스를 지원받기까지의 기간이 짧을수록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 제공이나 서비스 지원과 관련해서 학교를 그만둔 이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는 경험은 주변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유의미한 영향

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32. 심리정서적 취약 측면(자아존중감, 우울 및 불안)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구 분	자아존중감	우울	불안
상수	1.717***	3.202***	2.927***
성별	.146***	-.123***	-.169***
연령대	.011	.026	.027
가정의 경제수준	.106***	-.078***	-.055*
부모의 지원	.250***	-.213***	-.186***
지역규모1(읍면리, 대도시)	.043	.023	.030
지역규모2(읍면리, 중소도시)	.030	-.018	.019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학교성적	.151***	-.046	-.080***
학교를 그만둔 기간	.016	.023*	.019
지원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	.034	.004	.010
지원받기까지의 기간	.007	-.013	-.018
<i>F</i>	38.6***	20.6***	21.5***
<i>R</i> ²	.155	.089	.093

* $p < .05$, ** $p < .01$, *** $p < .001$

주: 상수는 비표준화계수이며, 그 외의 값은 표준화회귀계수를 제시하였음.

표 III-33. 심리정서적 취약 측면(사회적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구 분	학교를 그만둔 후 사회적 관계
상수	1.367***
성별	.007
연령대	.103***
가정의 경제수준	.019
부모의 지원	.115***
지역규모1(읍면리, 대도시)	.076
지역규모2(읍면리, 중소도시)	.098**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학교성적	.081***
학교를 그만둔 기간	.016
지원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	.070**
지원받기까지의 기간	-.064**
<i>F</i>	8.8***
<i>R</i> ²	.040

* $p < .05$, ** $p < .01$, *** $p < .001$

주: 상수는 비표준화계수이며, 그 외의 값은 표준화회귀계수를 제시하였음.

(2) 진로관련 측면

진로결정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남자청소년보다는 여자청소년들이 진로를 결정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표 III-34). 이는 여자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더 명확한 계획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나이가 많을수록 진로계획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진로결정 여부에 있어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나 부모의 지원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교를 그만둘 당시의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진로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읍면리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진로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았고, 학교를 그만둔 기간이 길수록 진로를 결정할 가능성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4. 진로결정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구 분	진로결정 여부(Exp(B))
상수	.928
성별	.610***
연령대	1.704***
가정의 경제수준	1.161
부모의 지원	1.089
지역규모1(읍면리, 대도시)	1.420*
지역규모2(읍면리, 중소도시)	1.071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학교성적	1.493***
학교를 그만둔 기간	.850**
지원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	1.066
지원받기까지의 기간	.897
-2Log-Likelihood	2581.5
Cox & Snell R^2	.048
Nagelkerke R^2	.067

* $p < .05$, ** $p < .01$, *** $p < .001$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진로를 결정하는 시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면, 부모의 지원 정도가 높을수록 진로를 결정하는 시기가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를 그만둔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서비스를 지원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수록 진로를 결정하는 시기가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35). 즉 부모의 지원 정도가 높을수록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빨리 결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지원을 통해 진로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용이하게 획득하고 진로 결정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모의 지원이 청소년의 진로 결정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보내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부모의 지원이 진로결정 시기를 앞당기는 데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교를 그만두고 기간이 많이 지났고 서비스 지원을 받기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수록 다소 진로 결정을 서두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진로직업태도는 나이가 많을수록,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고 부모 지원 수준이 높을수록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읍면리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비해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진로직업태도 수준이 높았으며, 학교를 그만둘 당시의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더 높았으나, 학교를 그만둔 기간이 길수록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직업태도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 부모의 지원 수준,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학교성적, 도시지역 중심의 거주지 등이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학교를 그만둔 기간이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III-35. 진로관련 특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구 분	진로결정시기	진로직업태도(진로성숙도)
상수	.333	2.362***
성별	.019	-.021
연령대	.020	.065**
가정의 경제수준	.016	.056*
부모의 지원	-.085**	.157***
지역규모1(읍면리, 대도시)	.035	.088**
지역규모2(읍면리, 중소도시)	.001	.065*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학교성적	-.023	.167***
학교를 그만둔 기간	.462***	-.096***
지원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	.003	.024
지원받기까지의 기간	.103***	.007
F	51.8***	17.2***
R ²	.237	.076

* $p < .05$, ** $p < .01$, *** $p < .001$

주: 상수는 비표준화계수이며, 그 외의 값은 표준화회귀계수를 제시하였음.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 관련 지원 요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학습 또는 진로 멘토링 필요성과 관련하여 남자청소년보다는 여자청소년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36). 또한 나이가 많을수록, 부모의 지원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를 그만둔 당시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학습 또는 진로 멘토링의 필요성에 더 동의하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진학정보 제공 필요성에 대한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의 연령과 부모의 지원 정도, 학교성적은 진학과 관련하여 학업을 진행함에 있어 멘토의 필요성과 진학 정보의 필요성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에 학습 또는 진로 멘토링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정고시 준비 지원과 관련하여 남자청소년보다는 여자청소년들이 더 필요하다고 하였고, 학교를 그만둔 기간이 짧을수록, 그리고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 검정고시 준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6.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요구(학습관련)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구 분	학습 또는 진로 멘토 필요성	진학정보제공 필요성	검정고시준비 지원 필요성
상수	2.932***	3.142***	3.415***
성별	-.115***	-.111***	-.064**
연령대	.071**	.010	-.039
가정의 경제수준	-.037	-.029	-.031
부모의 지원	.077**	.082***	.039
지역규모1(읍면리, 대도시)	.055	.015	-.013
지역규모2(읍면리, 중소도시)	.039	.013	-.015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학교성적	.074**	.051**	.016
학교를 그만둔 기간	-.046	-.037	-.061*
지원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	-.050*	-.038	-.045*
지원받기까지의 기간	.020	-.006	.020
F	7.1***	5.3***	3.2***
R ²	.033	.025	.015

* $p < .05$, ** $p < .01$, *** $p < .001$

주: 상수는 비표준화계수이며, 그 외의 값은 표준화회귀계수를 제시하였음.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에 관한 지원 요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면(표 III-37), 우선 진학입시상담과 관련하여 남자청소년보다는 여자청소년들이, 나이가 많을수록, 부모의 지원수준이 높을수록, 학교를 그만둘 당시의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읍면리 지역보다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그 필요성을 더 많이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탐색체험의 경우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진로와 관련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학습관련 지원과 유사하게 여자청소년들과 나이가 많은 청소년들에게

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의 지원이나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학교성적 등이 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모의 지원이나 학교성적은 진로와 관련한 태도나 활동에 일관성 있게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37.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요구(진로 관련)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구 분	진학입사상담 필요성	진로탐색체험 필요성
상수	2.676***	2.806***
성별	-.123***	-.169***
연령대	.047*	.060**
가정의 경제수준	.018	-.041
부모의 지원	.051*	.095***
지역규모1(읍면리, 대도시)	.101**	.049
지역규모2(읍면리, 중소도시)	.054	.002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학교성적	.099***	.092***
학교를 그만둔 기간	-.020	.048*
지원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	-.021	-.011
지원받기까지의 기간	.014	.000
F	7.9***	12.6***
R ²	.036	.057

* $p < .05$, ** $p < .01$, *** $p < .001$

주: 상수는 비표준화계수이며, 그 외의 값은 표준화회귀계수를 제시하였음.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직업교육 및 고민상담에 대한 요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면(표 III-38), 우선 직업교육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남자청소년보다는 여자청소년들이, 나이가 많을수록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부모의 지원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를 그만둘 당시의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교를 그만둔 기간이 길수록 직업교육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직업교육의 필요성에 부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직업교육의 필요성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민상담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앞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자청소년보다는 여자청소년들이, 나이가 많을수록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부모의 지원 수준이 높을수록, 읍면리 지역보다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 그리고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학교성적이 높고 학교를 그만둔 기간이 길수록 고민상담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학교를 그만둔 이후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이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Ⅲ-38.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요구(직업교육·고민상담)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구 분	직업교육훈련 필요성	고민상담제공 필요성
상수	2.815***	2.616***
성별	-.133***	-.154***
연령대	.063**	.109***
가정의 경제수준	-.045*	-.005
부모의 지원	.070**	.068**
지역규모1(읍면리, 대도시)	.035	.076*
지역규모2(읍면리, 중소도시)	-.006	.004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학교성적	.062**	.075**
학교를 그만둔 기간	.070**	.049*
지원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	-.025	-.039
지원받기까지의 기간	-.013	-.028
F	9.0***	12.7***
R ²	.041	.057

* $p < .05$, ** $p < .01$, *** $p < .001$

주: 상수는 비표준화계수이며, 그 외의 값은 표준화회귀계수를 제시하였음.

4. 요약 및 시사점

1) 기술분석 결과 요약

2021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의 2차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심리적 측면에서 여자청소년과 연령대가 높은 청소년, 경제수준 및 부모의 지원이 모두 낮은 집단에게서 자아존중감이 낮고, 우울과 불안 성향은 높았으며, 자살생각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본격적인 진로 및 자립준비에 앞서 심리정서적 개입이 우선될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학교를 그만둔 이후 불이익이나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살을 생각한 적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교를 그만두고 6개월 미만이거나 2년 이상 경과한 집단에서, 기관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 과제중과 비만의 비율이 다소 높았고, 신체활동 실천율도 더 적게 나타나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지원 정도가 높았고, 학교를 그만둔 후의 불이익이나 어려움 경험 정도도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경우 더 적게 나타났다. 지식습득 기회의 감소를 후회하는 사례는 남자청소년의 비율이 높았으며,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지식습득 기회 감소를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를 그만둔 이후 기간이 경과할수록, 지원받기까지의 기간이 오래될수록, 학교를 그만둔 이후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을수록 지식습득 기회 감소를 후회하는 이유로 들었다. 학교를 그만두는 것은 무엇인가를 학습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의 감소를 의미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적인 자극과 지식 습득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분석결과는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둘 당시 상담자의 존재 유무가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나 부모의 지원 여부 및 학교를 그만둔 이후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부모의 지원 정도가 낮을수록, 학교를 그만둘 당시 성적이 낮을수록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학교 친구문제로 학교를 그만둔 비율이 더 높았다. 학교를 그만둔 이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친구를 사귄 기회가 감소하는 것을 이유로 후회한 비율이 더 높았는데, 건강한 또래관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 제공이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여자청소년이, 부모의 지원 정도가 높을수록, 성적이 높을수록 학교를 그만둘 당시 계획이 있었다는 응답이 더 많았는데, 이는 미래 방향 설정에 있어 부모의 지지가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학교를 그만둘 당시의 계획 유무는 기관 및 서비스 이용 경험, 지원받기까지의 기간, 학교를 그만둔 후 어려움 등의 이후 생활과도 관련성을 시사하였다. 경제수준과 부모의 지원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진로직업태도 수준이 높았는데, 이러한 요인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처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관 및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청소년들의 진로직업태도 수준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높으므로, 지원기관이나 서비스 이용을 더욱 독려할 필요가 있다.

진로결정시기는 18세 이상에서, 부모의 지원이 낮을수록, 또 학교를 그만둔 기간이 길수록 늦었고, 지원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이 있거나 지원받기까지의 기간이 짧고, 학교를 그만둔 이후 불이익이나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없을수록 앞당겨지는 경향을 보였다. 진로를 일찍 결정하는 것이 무조건 바람직한 것은 아니나, 진로결정 여부가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학교를 그만둘 당시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집단은 지원받기까지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고,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대도시나 읍면리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진로관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낮았다. 또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부모의 지원 정도가 낮을수록,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학교성적이 낮을수록 학교를 그만둔 이후 불리함이나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로부터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부모의 지원 정도, 학업능력 등은 학교를 그만둔 이후 겪게 되는 어려움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요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지원받기까지의 기간과 관련이 있는 요인을 살펴보면, 우선 연령대가 낮을수록, 대도시일수록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지원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성적이 중간 이상일수록 지원받기까지의 시간이 짧았다. 이는 학교를 그만두는 시점에서 가능한 조기에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의 연령대와 관계없이 지원기관과의 의무적 연계가 더욱 필요함을 시사한다.

기술분석결과는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인 경향성을 보여주며 어느 정도의 개입에서의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다만 직관적인 해석이 어려운 결과도 있었는데, 더욱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향후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필요로 한다.

2) 다변량분석 결과 요약

학교 밖 청소년들의 취약성과 관련한 요인들에 대한 다변량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우선 여자청소년들은 남자청소년들에 비해 부정적인 심리정서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부모의 지원 수준, 그리고 학교를 그만둘 당시의 학교성적은 긍정적인 심리정서에는 정적(+)으로, 부정적인 심리정서에는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의 심리정서적 측면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 우선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진로결정 여부와 진로직업태도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의 연령대와 대도시 거주 여부,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학교성적이 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학교를 그만둔 기간은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와 관련하여 연령대가 낮은 청소년과 읍면리 지역에 거주하거나 학교를 그만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청소년들에게 더 초점을 두어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III-39.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에 대한 다변량 분석 결과 요약

구 분	자아존중감	우울	불안	학교를 그만둔 후의 사회적 관계
성별	+	-	-	
연령대				+
가정의 경제수준	+	-	-	
부모의 지원	+	-	-	+
지역규모1(읍면리, 대도시)				
지역규모2(읍면리, 중소도시)				+
학교를 그만둔 당시 학교성적	+		-	+
학교를 그만둔 기간		+		
지원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				+
지원받기까지의 기간				-
구 분	진로결정여부	진로결정시기	진로직업태도	
성별	-			
연령대	+			+
가정의 경제수준				+
부모의 지원		-		+
지역규모1(읍면리, 대도시)	+			+
지역규모2(읍면리, 중소도시)				+
학교를 그만둔 당시 학교성적	+			+
학교를 그만둔 기간	-	+		-
지원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				
지원받기까지의 기간				

학업 및 진로 관련 지원 필요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남자청소년보다는 여자청소년들이 분석 대상이 된 7가지 종류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여자청소년들은 학업이나 진로 또는 고민 상담 등에 있어 적절한 지원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남자청소년들은 학업 및 진로 등과 관련한 7개 지원에 대한 필요성에 있어 예외 없이 여자청소년들보다 필요성을 덜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것이 남자청소년에게 실제 필요가 없기 때문으로 보기는 어렵다. 남자청소년들에게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의 결과에서와 유사하게 학교 밖 청소년들의 연령대, 부모의 지원 수준, 학교를 그만둔 당시의 학교성적 등은 지원 필요성과 관련한 대부분의 요인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대가 낮거나 부모의 지원 수준이 낮거나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학교성적이 낮은 청소년들의 경우 학습 및 진로 관련 지원의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관련 지원이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기 때문으로 보기보다 해당 청소년들이 처한 상황으로 그러한 지원의 필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지닌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I-40.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필요성에 대한 다변량 분석 결과 요약

구 분	학습 또는 진로멘토링 필요성	진학정보제공 필요성	점정고시준비 지원 필요성
성별	-	-	-
연령대	+		
가정의 경제수준			
부모의 지원	+	+	
지역규모1(읍면리, 대도시)			
지역규모2(읍면리, 중소도시)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학교성적	+	+	
학교를 그만둔 기간			-
지원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	-		-
지원받기까지의 기간			

구 분	진학입시상담 필요성	진로탐색체험 필요성	직업교육훈련 필요성	고민상담제공 필요성
성별	-	-	-	-
연령대	+	+	+	+
가정의 경제수준			-	
부모의 지원	+	+	+	+
지역규모1(읍면리, 대도시)	+			+
지역규모2(읍면리, 중소도시)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학교성적	+	+	+	+
학교를 그만둔 기간		+	+	+
지원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				
지원받기까지의 기간				

그 밖에 학교를 그만둔 기간이 길수록 진로탐색체험, 직업교육훈련, 고민상담 제공 등의 필요성에 더 동의하였는데, 학교를 그만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진로문제나 고민을 해결하는데 있어 더 실질적인 도움을 필요로 한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더 오래전에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은 사회 적응이나 실제 생활에서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제4장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분석: 학교 밖 청소년 질적조사

- 1. 조사 개요
- 2. 면담조사 내용
- 3. 면담조사 방법
- 4. 분석 방법
- 5. 분석 결과
- 6. 요약 및 시사점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분석: 학교 밖 청소년 질적조사⁴⁹⁾

1. 조사 개요

심층적인 질적자료 수집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분석과 이에 기초한 지원방안 도출을 위해 학교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정책이 2014년에 법률적으로 제도화된지 9년여가 지나가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어떠한 변화를 경험했는지, 또 지원 요구는 어떠한지 비교하기 위해 다양한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들을 면접조사에 포함하였다. 이를 위해 2018~2022년간 본 원의 학교 밖 청소년 질적연구⁵⁰⁾에 참여했던 질적패널과 가장 최근에 학교를 그만둔 학교 밖 청소년을 더해 총 30명이 면접에 참여하였다. 2014년 전후로 오래전 학교를 그만둔 20대 중후반 청년, 2020년 전후 학교를 그만둔 10대 후반~20대 초반의 청소년 각 10명씩을 면접조사에 참여시키고,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경험하고 가장 최근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 10명을 새로 발굴,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이 학교를 그만둔 시기와 연령대 등을 고려하여 집단A, B, C로 구분하였다(그림 IV-1). 이 중 집단A와 B는 과거 학교 밖 청소년 질적연구의 질적패널이었는데, 당시 면접조사에서 성실한 태도로 풍부하고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해 왔던 면접참여자들로서 이들이 과거 경험한 학교 밖 청소년 취약성과 대처방식 및 지원 등이 어떻게 이들의 현재 삶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대상자들이다. 집단별로 좀 더 살펴보면, 먼저 본격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학교를 그만두고 현재 20대 중후반인 집단A는 지원이 거의 없었던 상황에서 학교를 그만두고 고군분투

49) 이 장은 김희진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조혜영 교수(공주교육대학교)가 공동으로 집필하였다.

50) 2018~2022년에 본원에서 수행한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I~V :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의 연구들을 의미한다.

했던 경험과 어려움, 그리고 지금의 생활에 대해 탐색하고, 집단B는 지금 성인기 이행과정의 한가운데 있는 만큼 학생이 아님에 따라 경험하고 있는 취약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집단C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가장 최근에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로 최근의 학교를 그만두는 것과 관련된 주요 이슈와 경향을 살펴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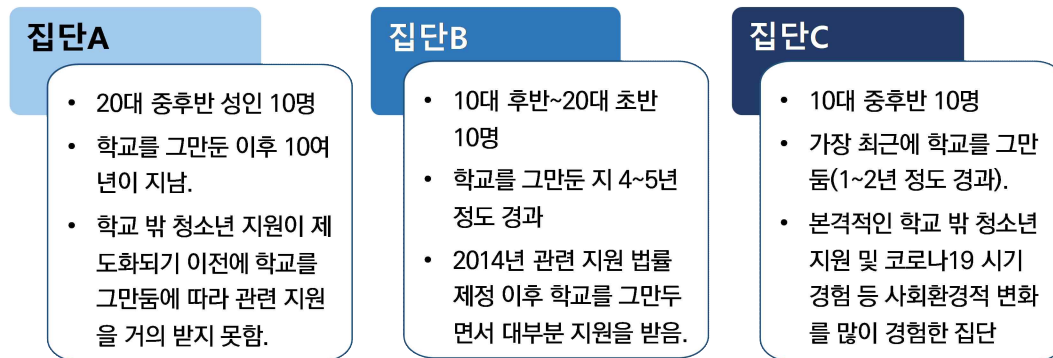


그림 IV-1. 학교 밖 청소년 면접조사 참여 대상자 개요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둔 직후와 성인기 이행과정 등을 거치면서 시간 경과에 따라 학교 밖 경험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차이는 이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 과거 질적 패널조사에 참여한 집단A와 집단B가 학교를 그만둔 이후의 취약성 경험과 주관적 인식의 차이 변화에 대해서 함의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학교를 그만둠에 따른 취약성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은 올해 연구의 면접대상자로서 의의가 크다. 여기에 가장 최근에 학교를 그만둔 집단C의 학교 밖 경험, 지원 경험 등과 관련한 응답 결과에 대해 집단 간 비교분석이 가능하다. 집단A와 B 연구참여자들은 2022년도의 학교 밖 청소년 질적 연구에서 올해 유사 연구가 수행될 경우 컨택 여부에 동의한 사례들로, 이들에 한정하여 올해 면접조사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 확인하였다. 이들 중 이번 연구에서 더욱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연구진 협의를 통해 접촉 우선순위를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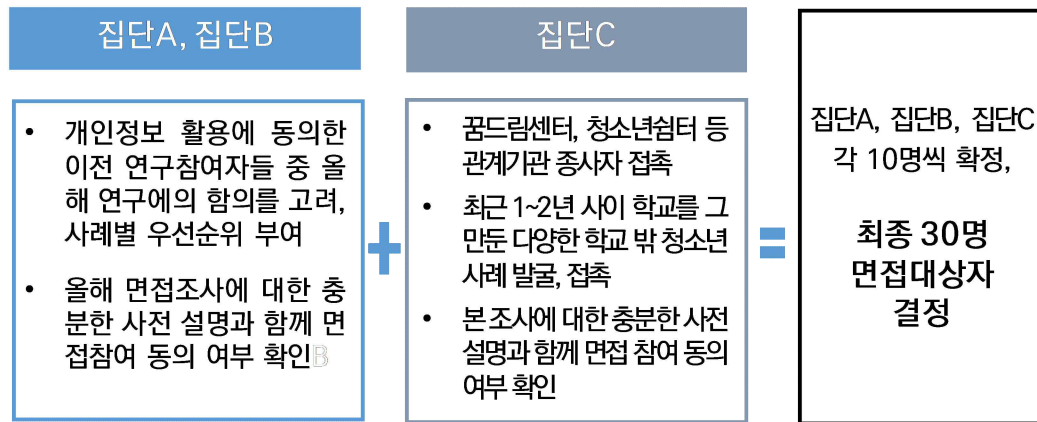


그림 IV-2. 학교 밖 청소년 면접조사 참여자 선정 과정

2023년도 학교 밖 청소년 질적조사에 참여한 집단A, B, C의 현황은 표 IV-1, 표 IV-2, 표 IV-3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집단A는 현재 20대 중후반의 성인임에 따라 대부분 취업한 상태였으며, 과거 정규 제도권 학교를 그만둔 경험이 있으나, 이후에 학업을 지속하여 대학원까지 진학한 사례도 있다. 일부는 결혼하여 육아중인 참여자도 있었다.

표 IV-1. 2023년 면접참여 학교 밖 청소년 집단A 현황

ID	이름 (가명)	성별	출생 연도	학교를 그 만둔 시기	만나이	현재거주 지역규모	현재 하는 일	비고
A1	정O우	남자	94년	고3	29	중소도시	취업	정규직으로 최근 이직
A2	안O준	남자	94년	고2	29	중소도시	취업	정규직
A3	최O연	여자	95년	고2	28	중소도시	아르바이트	육아
A4	장O이	여자	95년	고2	28	중소도시	취업	간호조무사
A5	김O성	남자	98년	고1	25	대도시	취업	정규직
A6	안O하	남자	95년	초5	28	중소도시	취업	이주 배경
A7	안O린	여자	96년	고1	27	중소도시	취업준비	대학원생, 조교
A8	조O빈	여자	97년	중3	26	중소도시	취업	간호조무사
A9	성O연	여자	97년	고1	26	중소도시	취업	정규직
A10	박O혁	남자	95년	고1	28	중소도시	취업	정규직

* 출처: 김희진 외(2022a).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자원방안 연구 V: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pp. 50-51에서 일부 내용 발췌·보완

주: 만 나이 산출은 편의상 '2023-출생연도'로 일괄 산출하였음.

집단B는 4~5년 전 학교를 그만둔 사례들로 대부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경험이 있으며, 일부는 복교하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기도 했고, 대학생인 사례도 많았다. 또한

여전히 수능준비를 하면서 대학진학을 준비하기도 했다, 집단C는 가장 최근 학교를 그만둔 사례들로 대부분 대학입시를 준비 중에 있었다.⁵¹⁾

표 IV-2. 2023년 면접참여 학교 밖 청소년 집단B 현황

ID	이름 (가명)	성별	출생 연도	만 나이	학교를 그만둔 시기	현재거주 지역규모	현재 하는 일	기타
B1	박O원	여	04년	19	고1	중소도시	대학생	과거 쉼터 거주
B2	이O원	남	04년	19	고교 미진학	대도시	대학 휴학중	정신과 치료 중
B3	박O준	남	05년	18	중1	대도시	고등학생	중학교 중퇴 후 특성화고 복교
B4	오O우	남	06년	17	중1	중소도시	고등학생	복교
B5	장O우	여	05년	18	중2, 고1	중소도시	대학입시 준비	수능 공부
B6	안예O	여	03년	20	초4	읍면지역	사설학원 수강	미술학원
B7	조O아	여	05년	18	고1	중소도시	대학생	-
B8	최O준	남	05년	18	고교 미진학	읍면지역	아르바이트	학원, 아르바이트
B9	신O영	여	05년	18	고1	대도시	수능준비	아르바이트 병행
B10	장O이	여	04년	19	고2	중소도시	대학생	검정고시 준비, 아르바이트

* 출처: 김희진 외(2022a).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자원방안 연구 V: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pp. 95~96에서 일부 내용 발췌·보완

주: 만 나이는 편의상 '2023-출생연도'로 일괄 산출하였음. 또한 학교를 그만둔 시기의 경우 청소년이 년도로 응답한 경우는 학년을 추정하여 기재함.

표 IV-3. 2023년 면접참여 학교 밖 청소년 집단C 현황

ID	이름 (가명)	성별	출생 연도	만 나이	학교 밖 유형	학교를 그만둔 시기	현재거주 지역규모	현재 하는 일
C1	서O우	남자	05년	18	학업형	고1	중소도시	대학입시 준비
C2	최O서	여자	06년	17	학업형	중3	중소도시	대학입시 준비
C3	장O규	남자	05년	18	학업형	고1	대도시	대학입시 준비
C4	민O혜	여자	06년	17	학업형	중3	중소도시	검정고시 준비
C5	송O라	여자	03년	20	학업형	고2	중소도시	검정고시 준비, 직업훈련 중
C6	홍O준	남자	05년	18	학업형	고1	중소도시	대학입시 준비
C7	황O영	남자	06년	17	무업형	중3	중소도시	직업훈련 참여 예정
C8	구O현	남자	06년	17	무업형	중3	대도시	아르바이트 예정
C9	한O울	여자	05년	18	학업형	고1	대도시	대학입시 준비
C10	이O림	여자	06년	17	학업형	중3	대도시	대학입시 준비

주: 만 나이는 편의상 '2023-출생연도'로 일괄 산출하였음. 또한 학교를 그만둔 시기의 경우 청소년이 년도로 응답한 경우는 학년을 추정하여 기재함.

51) 집단C의 10명 중 8명은 현재 대학입시를 준비 중이었는데, 이는 대학입시 준비 청소년만을 섭외한 것이 아니며, 실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받는 청소년들 중 상당수가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2. 면접조사 내용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에 대한 과거 선행연구들을 참고하되, 학교를 다니지 않음에 따라 학생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할 수 있는 측면, 특히 자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면접지 개발에 착수하였다. 선행연구와 현장전문가 자문을 통해 면접지를 1차로 개발하였고, 이에 대한 현장전문가 서면 자문과정을 거쳐 그 적절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최종적으로 기관 IRB심의를 위한 절차를 거쳐 최종 면접지를 개발 완료하였고, 이후 학교 밖 청소년 질적패널(집단A, 집단B)을 대상으로 면접에 착수하였다. 면접조사지 개발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은 그림 IV-3과 같다.



그림 IV-3. 학교 밖 청소년 면접조사지 개발 과정

면접조사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본 면접에 참여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집단마다 학교 밖 경험 및 연령대에 차이가 있음에 따라 더욱 다양한 시사점을 찾기 위해 질문 내용에 차이를 두었다. 집단A는 과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제도화되기 이전에 학교를 그만둠에 따라 당시 경험한 취약했던 부분과 현재까지 영향을 주는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주로 탐색하고, 집단B는 성인이 이행과정에서 경험하는 상대적인 취약성, 불리함을 조명하였다. 집단C는 코로나19가 끝나갈 즈음 원격교육이 해제되고 대면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가장 최근 학교를 그만둔 집단임에 따라 최근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이나 관련 이슈를 탐색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최종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경험하는 취약성과 성인이 이행 및 자립에 대한 내용에 전반적인 초점을 두되, 특히 자립을 저해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취약성과 자립에 성공했거나, 또는 취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례의 경우 이를 가능케 한 기제나 전환점 등에 대해서도 탐색할 수 있도록 면접지를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① 현재생활 및 진로관련 상황, ② 학업중단 이유와 인식 변화, ③ 취약성에 대한 인식, ④ 진로준비와 진로지원에

서의 취약성, ⑤ 진학과정에서의 취약성, ⑥ 취업에서의 취약성, ⑦ 자립준비에서의 취약성, ⑧ 심리사회적 취약성, ⑨ 환경체계에서의 취약성 등 영역별로 구분하여 해당 상세 질문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진과 면접원들을 위한 면접조사지에는 취약성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으나, 실제 면접현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취약성을 언급하기보다 학교를 다니지 않음에 따른 어려움, 상대적인 불리함 등으로 완화하여 표현하도록 하였다. 최종 개발된 면접조사지는 표 IV-4와 같으며, IRB심의에서 승인 완료되었다(IRB승인 번호: 202305-HR-고유-010).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세 면접지와 가이드라인은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표 IV-4.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면접조사내용

영역	면접내용
1. 현재생활 및 진로 상황	• 1-1. 현재 생활 탐색: 학업, 직업/취업 준비 등 청소년 상황에 따라 질문 제시 • 1-2. 최근 관심사나 고민(건강 및 경제적 어려움, 거취 문제 등 생활관련 어려움 등)
2. 학업중단 이유와 인식 변화	• 2-1. 학교를 그만둔 이유와 과정 • 2-2. 학교 밖 선택으로 기대한 것과 현실과의 차이 경험 유무(기대 충족 여부, 또는 현실과의 괴리)와 그 추정 이유, 그 차이/격차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지원 • 2-3.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후회 여부, 또는 만족도(1점~10점으로 질문)
3. 취약성에 대한 인식	• 3-1.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학교를 다니지 않음에 따른) 취약성에 대한 인식 • 3-2. (학생청소년, 또는 본인이 학생이었던 때와 비교)상대적으로 더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기회가 부족하거나, 미흡/배제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 개인 심리사회적 차원, 진로준비, 환경체계 관련, 시간 등 • 3-3. 취약성 발생의 원인 탐색 • 3-4. 그러한 인식의 시간의 흐름(연령변화, 학업중단이후 시기, 20세 전후 등)에 따른 변화 • 3-5. 학생 청소년과 유사한 수준에서 제공받는 지원에 대한 생각(건강검진, 급식지원 등)(집단B, C만 해당) • 3-7. 특별히 더 불리하거나 취약하다고 느끼지 않을 경우 이유 탐색 • 3-8. 학교를 그만두면서 취약성이 완화된 측면들, 학교를 다니지 않음에 따른 장점들과 이유 • 3-9. 취약성 극복 노력과 지원 • 3-10.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현실에서 어느 정도로 충족됐는지, 환경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 탐색
4.	• 4-1. 학교 재학 시 (공교육 제공)진로교육, 진로지도에 대한 경험

영역	면접내용
진로준비와 진로지원에 서의 취약성	• 4-2. 학교를 그만둔 이후 진로준비, 진로설계와 관련해서 고군분투했던 경험 • 4-3. 진로결정 여부 확인: 진로미결정일 경우 그 이유 • 4-4. 현재 진로준비 상황과 지원 경험, 이를 저해하는 취약한 부분: 진로준비에 있어 취약한 측면 • 4-5. 장기적인 진로설계, 진로준비 경험 유무와 그 내용 • 4-6. 여전히 학교를 다녔다면 진로준비나 자립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측면들 • 4-7. 가족포함 사적 지원 내용
5. 진학과정에 서의 취약성	• 5-1. 현재 진학관련 상황 • 5-2. 학업/진학 상황, 목적과 이유, 현재 관련 활동, 만족도 및 지원 요구 • 5-3. 진학준비 과정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 내용 • 5-4. 가족포함 사적 지원 내용
6. 취업에서의 취약성	• 6-1. 현재 취업 관련 상황 • 6-2. 취업 준비에 있어 부족한, 불리한, 취약한 측면 • 6-3. 취업준비와 그 과정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 내용 • 6-4. (취업/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경우) 현재 상태와 향후 계획, 지원 요구 등 • 6-5. 가족포함 사적 지원 내용
7. 자립준비에 서의 취약성	• 7-1. 성인기 이행과 자립: 성인 및 자립의 의미, 자신에 대한 인식 • 7-2. (20대 중후반 집단A) 아직 진로/자립이 더 불안정한 경우 • 7-3.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자립준비에 있어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지원 내용
8. 심리사회적 취약성	• 8-1. 자신에 대한 생각과 학교를 그만두는 결정, 이에 따른 심리적 어려움과 대응 방식 • 8-2. 학교 재학 당시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취약한 부분 • 8-3. 학교를 그만둔 이후의 사회적 관계
9. 환경 체계에서의 취약성	• 9-1. 가정환경의 취약성 • 9-2. 지역사회에서의 취약성 경험 • 9-3. 학생 청소년과 동등한 지원을 위한 의무이행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에 대한 생각 등
마무리	• 취약성 극복을 위한 지원에 대한 추가 보충 질문

* 출처: 김희진 외(2022a).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V: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pp. 52-53의 면접조사내용을 기초로 수정·보완함.

3. 면접조사 방법

1) 면접원 교육 및 면접 진행 방법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되었으나, 여전히 대면 면접에 부담을 느끼는 청소년들도 있어 청소년이 희망하는 방식에 따라 대면 면접과 Zoom을 활용한 온라인 화상면접조사를 병행하여 면접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진 자체적으로 모든 면접을 소화하기에는 연구 기간의 제약과 면접대상 학교 밖 청소년의 수가 많아 이전 질적 패널조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 면접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복지 전공 석사, 박사를 면접원으로 선발하였다. 또한 청소년 면접 경험이 있는 질적연구자를 추가 섭외하여 제한 기간 내 충분한 질적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도록 면접원을 구성하였다. 특히 이전 질적 패널조사에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면접원들은 이번 면접에 참여하는 질적패널(집단A, 집단B)들과 이미 라포가 형성되어 있어 충분히 깊이 있는 질적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였다.

질적자료 수집에 있어서의 면접원 역할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선발된 면접원들을 대상으로 연구진과 함께 면접원 교육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이 워크숍은 조사위탁기관의 좌담회실에서 개최되었으며, 연구진 4인, 선발된 면접원 3인, 조사위탁기관의 담당자 2인이 참석하였다. 먼저 연구책임자가 이 연구의 목적과 배경, 주요 내용에 대해 연구책임자가 설명하고, 이후 질적연구전문가인 외부 공동연구진의 주도하에 전체적으로 면접지를 리뷰하면서 구체적인 질문 내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숙지하였다.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 면접 시 필요한 사항들을 공유하였으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면접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특히, 면접조사 내용이 많음에 따라 면접 현장에서는 취약성과 관련된 경험과 인식 등에 초점을 두도록 당부하였고, 모든 내용을 질문하기 위해 애쓰기보다 현장의 분위기와 학교 밖 청소년의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면접에 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면접 시 분위기와 환경, 면접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의 비언어적 태도에도 주목하여 필드 노트(Field note) 작성을 당부하였다(그림 IV-4 참조).

무엇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청소년들이 실제 경험한, 또는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취약한 측면을 탐색하되, 직접적으로 취약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보다 유사한 단어로 대체하도록 하였다. 이전 면접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례(질적 패널)는 이전 면접조사

2) 연구 윤리 및 개인정보 보호

질적 연구의 경우 초기 기획부터 연구참여자 선정, 질적자료 수집 및 분석, 결론 도출에 이르기까지 윤리적 문제(ethical issues)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8), 연구진은 연구의 각 단계에서 연구 윤리에 대한 민감성을 갖고 임하고자 하였다. 본 질적조사 수행을 위해 기관 IRB를 통해 심의를 받고 또 승인 완료되었으나, 본 연구의 참여자 대부분이 특수한 상황인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특히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자 하였다.

면접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컨택을 위해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한 경우에만(집단A, B는 이전 연구에서, 집단C는 연구참여자 발굴을 위해 접촉한 이용기관 종사자 통해 확인) 면접참여 독려를 위해 연락하였고, 면접을 위해 참여자가 선호하는 일정 및 방법, 장소 등을 최대한 우선시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주제가 취약성에 대한 것으로 이에 기초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책과제를 제안할 목적으로 수행되는 연구이지만, 한편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이 어떻게 취약성과 어려움 등을 극복하였는지 강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긍정적인 측면도 최대한 면접조사와 결과분석에서 담아내려고 하였다. 면접을 시작할 때는 연구참여에 대한 동의 여부를 재확인하고, 면접결과는 충분히 익명화되고 블라인드 처리됨을 다시금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면접 중에라도 참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면접 시에는 가능한 취약성이라는 단어에 비해 덜 부정적인 어감을 가진 단어들로 대체하도록 하였고, 면접 시 드러나는 개인사생활, 가정의 불행했던 가정사, 트라우마 등 내용상의 심각성과 청소년의 불편한 기색 여부를 확인하여 이 경우 탐색을 중단하고 분위기를 환기하여 다음 질문으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면접 완료된 자료들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연구참여자의 실명을 모두 가명으로 대체하였고, 전사자료는 암호화하거나 비밀번호로 잠금 확인하는 등 연구참여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자료 분석시에도 질적연구의 특성상 주관성(subjectivity)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유기웅 외, 2018),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과 편향된 관점에 의해 자료를 임의로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하였고, 있는 자료 그대로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동료 연구진과 외부 질적연구 전문가와의 워크숍 등을 통한 검증 과정을 거쳤으며, 이에 대해서는 분석방법에서 다시 기술하였다.

4. 분석 방법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면접조사는 학교를 그만둔 시기와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세 집단(집단A, B, C)을 통해 수행된다. 이들은 학교를 그만둔 시기, 그리고 현재 연령대와 상황에 차이가 크며, 무엇보다 학교를 그만둘 당시 본격적인 지원과 관련하여 상이한 경험을 갖고 있다. 따라서 심층적인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분석을 위해 올해 수집된 질적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집단A, 집단B, 집단C의 면접결과를 정리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집단A의 경우 오랜 기간 질적자료가 축적되어 있으며, 과거 학교를 그만둘 당시와 그 이후에도 지원 경험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 사례와 가장 극명하게 대조되는 집단이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어떤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효과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또한 이들의 삶을 오랜 기간 추적하여 상당한 분량의 질적자료가 축적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함의를 찾는 것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하여 종단자료 분석을 시도하였다.

1) 질적 횡단자료 비교 분석: 복수집단 사례 분석

학교를 그만둔 시기와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는 세 집단을 대상으로 면접조사가 수행됨에 따라, 2023년에 수집된 질적자료에서 각각의 조사내용에 대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횡단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한 자료 분석 방법으로 복수집단에 대한 사례 비교 분석 방법(유기웅 외, 2018; Yin, 2003)을 사용하였다. 여기에서는 전반적으로 집단A, 집단B, 집단C를 각 사례 분석 단위로 보고 동일 주제에 대한 각 집단의 특수한 상황과 특성, 결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는 복수사례연구가 여러 사례 간에 공유하고 있는 특성이나 사례별로 차이가 나는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에 따른 것으로(유기웅 외, 2018: 171), 집단 내 차별화된 내용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에서 청소년 개인 사례들을 분석 단위로 하여 좀 더 면밀한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집단A는 20대 중후반의 청년층에 해당되며, 이들은 2013년 관련 종단연구(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이후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면접조사에 참여하여 왔고, 집단B는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 연령층에 해당되며 이들은 2020년 혹은 2021년부터 면접조사에 참여하여 왔다. 집단A와 집단B는 2022년까지 수행

된 학교 밖 청소년 질적연구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질적패널로 구축되어 면접조사에 여러 해 동안 참여한 경험이 있다. 집단C의 경우는 10대 중·후반에 해당하는 연령대로 이들은 가장 최근에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이며, 올해 처음으로 면접조사에 참여하는 집단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에 대한 사례 비교 분석을 통한 주요 내용 분석의 초점은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과 관련된 이슈들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업 중단의 시점과 학업 중단 원인 관련 취약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 차이, 취약성 극복 과정에서의 개인별 경험 및 극복 요인 분석 등 집단에 따른 취약성 이슈와 지원 요구들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집단 간 비교와 집단 내 개별 사례들의 독특한 경험에 대한 분석들을 시도하였는데, 구체적으로, 학교를 그만둔 동기나 배경, 학교를 그만둔 이후의 진로 추구 유형, 현재 주요 생활 패턴 등과 관련된 취약성 인식에 대한 집단별, 개인별 경험 등을 통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복수집단 사례 비교를 위해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는 가장 다른 사례(Most Different cases, Similar Outcomes)와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가장 유사한 사례(Most Similar cases, Different Outcomes)에 중점을 둘 수 있다(De Meur & Gottcheiner 2009; 유기웅 외, 2018: 180에서 재인용). 이와 관련해서 학교 밖 청소년 집단A, B, C의 면접조사 결과를 분석하는데 있어서는 학령기에 제도권 정규 교육을 그만두었다는 공통 요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계기나 이유(또는 지원이나 개입)로 차별화된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한 이들의 인식과 생각, 평가는 어떠한지에 초점을 두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이러한 집단 간 비교연구에 유용한 반복적 비교분석법(constant comparative analysis)을 참고하였는데, 이 방법은 비교분석을 통해 사례들에 대한 이해를 심층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Patton, 2002). 이를 위해 면접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집단A, B, C)들의 전사 자료를 읽으면서 개방코딩을 진행하고, 의미단위를 도출하여 범주화하였으며, 또 이러한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범주화 작업을 재검토하는 귀납적, 연역적 과정을 병행하였다. 특히 제도권 공교육을 중도에 그만두었다는 공통된 특징을 가진 집단 A, B, C의 전사자료를 통해 보고되는 각자의 경험이 어떻게 동일하고 차별화되는지를 강조하기 위해 이들이 상징으로 표현하는 은유나 비유 역시 최대한 분석에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각자 다른 시기 학교를 그만두면서 경험했던 그 맥락과 상황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종 분석결과는 외부 질적연구 전문가와의 워크숍 형태의 검증을 통해 의미해석 및 범주화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특히, 세 집단의 질적자료를 비교분석하고 결과 도출을 위한 최적의 방법에 대해 논의하여 이를 반영하였다. 이들에 대한 분석결과는 또한 과거 연구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상호 검증함으로써, 연구자의 분석에 있어 편향된 생각이나 과도한 해석에 빠지지 않도록 동료 검토과정을 거쳤다.

2) 질적 종단자료 분석: 구성주의적 근거이론 접근 분석

질적 종단자료 분석은 20대 중후반 청년층인 집단A에 속한 참여자들의 인터뷰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집단A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3년 이후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양적 및 질적 연구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왔다. 이들은 현재 20대 중후반 연령대로 학업중단 이후 10여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일 경험, 학업 경험, 군복무, 결혼, 출산, 분거(分居), 이주 경험 등 다양한 생활 사건을 경험해 왔다.

여기에서는 학교를 그만둔 이후 20대 중후반에 이르는 청년들이 그들의 생애 과정의 취약성 경험과 그 의미를 어떻게 구성하고 해석하는가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학교를 그만두고 제도권 교육 밖에서 고군분투하는 과정에서 경험해 왔던 취약성과 또 그와 관련된 인식이나 의미는 무엇인지, 이와 관련하여 학교를 그만둔 것과 관련된 의미는 어떻게 부여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개인적 대응과정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특히 이들은 과거 본격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대부분을 경험하지 못한 집단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방향성에 대한 합의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종단자료 분석은 구성주의적 근거이론 접근(강라현, 2021; Charmaz, 2006, 2014)에 기반을 두어 실시하였다. 구성주의적 근거이론은 실증주의적 접근에 근거하는 Strauss와 Corbin(1990)의 근거이론을 비판하며, 행위자들이 경험한 사건과 현상에 대한 추상적 해석과 이해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강라현, 2021). 구성주의 근거이론은 변화하는 실재를 가정함으로써 다양성, 다중성의 존재를 인정하고자 하며, 행위자의 다양한 관점과 행위 복합성을 드러내고자 한다(강라현, 2021). 그리고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공동으로 의미를 구성한다고 보았으며, 의미 구성과정은 연구자의 해석학적 관점과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간의 상호주관성을 통한 의미 생산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강라현, 2021; 유기웅 외, 2018).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의 다양한 경험과 인식에 대하여 반영적 입장(reflexive stance)을 취하며(심지경, 김미애, 2023), 일련의 분석과정에서 인터뷰 자료의

의미와 주요 주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성주의적 근거이론의 자료 분석 과정은 초기코딩, 초점코딩, 범주화 과정으로 구성된다(Charmaz, 2006). 먼저, 초기코딩을 위해 기존에 수집된 면접자료 전사본을 살펴보며 줄 단위 개방코딩을 실시하였다. 개방코딩 자료는 반복적 비교분석을 통해 유사점과 차이점을 검토하여 범주화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A 연구참여자들이 학교 밖에서 10여년 넘는 생애 과정을 보내는 과정에서 체감되었던 취약성이나 차별, 불리함 등을 중심으로 주요 범주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종단 분석의 토대가 되는 과거 인터뷰 참여를 통해 드러난 내용을 점검하며 현재적 시점에서 어떠한 경험과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였다. 그간 이루어진 인터뷰 자료들의 분량이 매우 방대하고, 연구 주제별로 강조점이 다른 인터뷰가 이루어졌기에, 모든 자료를 본 연구 주제의 분석에 활용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학력 취득과정, 구직 과정이나 취업, 일 경험, 사회 관계 형성 등 생애 주요 사건에서 경험하였던 차별경험, 어려움, 취약성 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초점코딩에 포함하고자 하였다. 초점코딩 자료는 다시 유사점과 차이점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상위 범주로 추상화하게 되며, 이는 연구결과 도출을 위한 주요 주제들로 구조화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취약성에 대한 개념화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편, 본 연구자료 분석 및 결과 도출과정에서 질적자료 분석 과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에 분석된 자료에 대한 검토, 동료 검토를 통한 편향성 보완 등 다각적 차원의 삼각검증법을 활용하였다. 이와 함께 기존 연구보고서에서 도출된 주요 결과와의 상호 비교를 통해 결과 해석의 신중을 기하고자 하였다.

5. 분석 결과

1) 학교 밖 청소년 질적자료 분석: 횡단자료 비교분석

(1) 학교 중단 이후 현재 생활 및 진로현황

① 집단A: 20대 중후반 직장인, 분거(分居), 결혼 등

집단A 참여자들은 20대 중후반 연령대에 도달한 성인기로, 두 명의 참여자(A4, A7)를 제외하고, 원가족을 떠나 분거하고 있다. 이들 중 두 명의 참여자(A2, A3)는 결혼하여 각각 자녀를 1명씩 두고 있다. 이들은 학교를 나온 뒤 대체로 고등학교 학력 취득의 필요성을 느꼈고 두 사례(A1, A2)를 제외하고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취득하였으며, 대학 이상의 학력 취득자도 세 명(A4, A7, A9)에 이르고 있다. 고졸 학력을 취득하지 못한 참여자(A2)도 미래 직업 안정성을 위해서는 대학 학력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학교 밖 청소년으로 10여년 이상 살아온 집단A 참여자들은 육아로 인해 자녀가 학교에 있는 시간 동안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례(A3)를 제외하고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대체로 생산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취업성공패키지나 직업훈련과정을 통해 얻은 자격증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A5, A6, A9, A10). 하지만,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최종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A7)도 있었으며, A7의 경우 대학원 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분야의 직종으로 진입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학교 밖 생활 과정에서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을 하였으며, 현재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저녁이나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사례도 있었다(A4, A8). 현재의 직장은 여러 차례 아르바이트나 단기 일자리 경험 후 얻었으며, 정규직이지만 앞으로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안한 상태라고 걱정을 하는 참여자들(A2, A6)도 있었다.

② 집단B: 학교 중단 후 4년 이상이 지난 청소년

집단B 참여자들은 학교를 나온 지 4년여가 지난 시점이다. 이들의 주요 생활은 대학교 재학(B1, B2, B7, B10), 고등학교 재학(B3, B4), 대학 진학을 위한 수능 준비와 아르바이트 병행(B5, B8) 등 주로 학력 취득을 위한 과정에 있었다. 예외적으로 현재, 자신의 관심분야 활동을 배우기 위해 사설학원을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하거나(B6), 자신의 일상에서 종교봉사와 제빵학원, 아르바이트 등을 병행하면서 장기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자

하는 참여자(B8)도 있었다.

대학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경우 학기 중에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으며(B1, B7, B10) 고등학생의 경우도 기숙사가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B3, B4). 이들이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결정한 시점에 부모와의 갈등이 심화된 사례도 있었지만(B2, B3, B4, B5, B7, B9), 시간이 흐르며 대체로 갈등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와의 관계 어려움 등으로 쉼터에서 거주하며 대학 입학 지원까지 도움을 받은 사례(B1)도 있었다.

③ 집단C: 가장 최근에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

집단C는 대체로 2022년에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로 가장 최근에 학교 밖으로 나온 집단이다. 이들은 학교를 그만두는 과정에서 학업중단숙려제 참여를 권유받았으나, 참여하지 않거나(C3, C4, C5, C6, C9), 참여하였지만 결국 학교를 그만두는 결정이 바뀌지는 않았다고 하였다(C1, C2, C7, C8, C10). 이들은 현재 2명의 참여자(C5, C8)를 제외하고 모두 대학 입학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결정을 할 때에 대체로 부모는 반대하였지만, 일부 참여자의 경우 어머니가 자퇴를 권유하거나(C4), 자녀의 결정에 대한 신뢰를 보이고 수용하는 사례도 있었으며(C6), 자녀가 부모를 설득하여 학교 중단을 결정한 사례도 있었다(C2, C9).

이들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인 꿈드림센터로부터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었다. 대부분 참여자들이 꿈드림센터 지원을 통해 고졸 검정고시를 통과하였으며, 급식비 지원, 건강검진, 문화생활 지원, 직업체험 지원, 교육 수당 지원, 다양한 자격증 취득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어, 이들의 학교 밖 생활에서 꿈드림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은 대체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상황이지만, 부모와의 갈등이나 부모의 질병 등 어려운 여건으로 쉼터에 거주하는 경우도 있었다(C4, C5).

(2) 학교를 그만둔 이유와 인식 변화

① 집단A

집단A 참여자들이 학교를 그만둔 이유를 살펴보면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학교에 나가지 않는 일상이 지속되고, 출석 일수 부족으로 인한 자퇴를 하게 된 사례가 다수있었다(A1, A2, A3, A6). 친구들과 간 따돌림이나 분위기에 적응이 되지 않아 그만둔 사례(A5, A7, A8)도 있으며, 학교에 나가는 생활이 귀찮고 의미가 없어 그만둔 사례(A4),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고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 상실로 그만둔 사례(A9)도 있었다. 이들은 학교를 그만둔 뒤의 진로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 없이 그만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드물게 학교를 그만두고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만둔 사례도 있었다(A10).

이들은 학교를 그만둔 이후 10여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인식은 유동적으로 변화해 왔다. 단기적 시점에서의 인식은 일 경험, 가족 형성, 주변 사람들의 진로 현황과의 비교, 이직 경험, 자신의 진로 포부 등에 따라 후회감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거나, 현재 자신의 처지를 수용하고자 하는 태도로 변화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는 자신은 학교를 그만두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특히 자녀를 둔 사례(A2, A3)는 자녀가 학교를 그만두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장기적으로 안정된 직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후회감이 커지는 사례(A2, A6)도 있었으며, 대학을 졸업하고 비교적 좋은 직장에 취업한 참여자(A9)는 이직을 염두에 두거나, 직장생활을 할 때 학교를 그만둔 이력에 대한 후회감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까지 학업을 이어갔던 참여자(A7)에게도 학교를 그만둔 생애사건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 미해결된 정서로 남아있으며, 주변 반응에 따라 수용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 사이를 오가고 있었다.

대체로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자신이 학교를 그만둔 이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고졸 학력 취득, 대학 졸업, 지속적인 경제활동 등 자신의 성실성에 대해 주변에 알리고 인정받음으로써 학교를 그만둔 것이 자신의 약점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는 참여자(A4), 학교를 그만둔 후 취업하여 지속적으로 돈을 벌어왔고, 자신의 일에 자신감이 있는 참여자(A10)도 있었다. 진로포부를 낮춤으로써, 자신은 현재 돈을 벌고 있고 주변 상황을 돌아봐도 나쁘지 않다는 태도로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해 수용적 태도를 보이는 참여자들도 있었다(A1, A8, A5).

② 집단B

이들이 학교를 그만둔 이유로는 친구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학교생활이 힘들어져 그만둔 사례들(B1, B5, B6, B9)이 다수였으며, 일부는 학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그만두었다(B2, B3, B8). 다른 사례는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진로 목표에 맞는 시간을 벌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기도 하였고(B4, B10), 코로나19 상황과 자신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사를 통한 대입 목표를 설정하

여 그만둔 사례(B7)도 있었다.

이들은 학교를 그만둔 후 학교로부터 받아왔던 스트레스나 부정적 요인이 해소됨으로써 긍정적 정서를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 밖 생활에 대한 아쉬운 점을 깨닫고 있었다. 학교를 그만둔 뒤 시간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헤매게 되었다는 점을 후회하였으며(B2, B3, B5, B8, B9), 친구관계 형성을 하지 못했다는 점(B4), 단체 운동 등을 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지적하는 참여자(B6)도 있었다. 반면에 학교를 그만두고 고졸 검정고시 취득, 대학 진학 등 원하는 것을 성취하였던 참여자(B1)의 경우 매우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학교를 그만둔 뒤에 꿈드림센터의 지원으로 힘들지 않게 생활할 수 있었다고 보고 하면서 대체로 만족감(B7, B10)을 드러내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③ 집단C

가장 최근에 학교를 그만둔 집단C 참여자들의 경우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개척하기 위해 학교보다는 학교 밖에서의 준비가 대학 진학에 더 나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학교를 그만둔 사례들이 다수를 차지하였다(C2, C6, C7, C9, C10).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 성향이나 질병, 학교 또래 관계 형성의 어려움, 학교 밖에서의 대입준비 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를 그만둔 사례도 있었다(C1, C3). 이외에, 또래 친구간의 갈등 상황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엄마가 자퇴를 권유한 참여자(C4)도 있으며, 엄마 병수발을 드는 과정에서 학교 결석이 누적되고, 아빠와 동생의 통원 치료 지원 등 부모의 역할을 도맡아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학교 출석을 못해 그만둔 사례도 있었다(C5). 그리고 뚜렷한 진로목표는 없지만 학교의 교육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만둔 참여자(C8)도 있었다.

이들은 집단A나 B에 비해 대학 입학을 위해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를 그만둔 사례가 많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꿈드림센터를 통해 검정고시 지원을 받아 모두 고졸 학력을 취득하였고, 대입 지원 서비스, 인턴십, 자격증 취득, 문화 및 교육비 지원,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아왔다. 이들의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이며, 만족도가 높다는 특징이 있었다(C1, C3, C6, C8, C9, C10). 일부 참여자는 더 빨리 학교를 그만두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C2). 하지만,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고 교류를 즐겼던 참여자(C4)는 엄마의 권유로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해 후회한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학교를 나온 후 가족 병수발과 집안일을 도맡아야 했고, 별도로 검정고시 준비까지 해야 했던 참여자(C5)는 가끔 후회감이 든다고 응답하였다.

표 IV-5. 학교를 그만둔 후 성인이 된임(집단A)

ID	이름 (가명)	성 별	출생 연도	학교를 그만둔 시기	학교를 그만둔 이유	최종 학력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기대와 현실/민족도	아르바이트경험	현재 하는 일	외부 지원 기관 /꿈드림센터	가족 관련
A1	정O우	남자	94년	고3	출석일수 부족 지퇴	고교 중퇴	대체로 민족	보안업체, 식당 등	가구배출업체 정직원	-	부모 이혼 (한부모/편부가족)
A2	안O준	남자	94년	고2	출석일수 부족 지퇴	고교 중퇴	시간 경과에 따라 후회감이 커짐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	대기업공장(정규직)	-	결혼, 자녀
A3	최O연	여자	95년	고2	출석일수 부족 지퇴	고졸 검정고시	양가직 가정	훗집 등 식당 서빙	카페 아르바이트, 육아	취업지원기관 상담 경험	결혼, 자녀 (한부모/편부가족)
A4	장O이	여자	95년	고2	학교생활 싫증	대졸	긍정적 평가와 자신감	패스트푸드, 마트, 분식 체인점 등 여러 아르바이트	간호조무사(간호대학 준비)		부모와 거주
A5	김O성	남자	98년	고1	집단 따돌림, 학교에 흥미 없음	고졸(빙송고)	긍정적 평가와 양가직 가정	물류, 지점센터 아르바이트, 트, 쇼룸물 안전관리팀	대학병원 보안업무	직업학교 병행	(한부모/편부가족)
A6	안O하	남자	95년	초5	무단결석, 친구들과 어울림	고졸(빙송고)	후회감 증가	당구장 등	물류창고업무 정규직	직업학교 병행	다문화 배경
A7	안O린	여자	96년	고1	친구관계 어려움, 적 성에 맞지 않는 공부	대학원	긍정적 수용 노력	독서실 총무, 병원 약국 등 아르바이트	대학원, 대학 조교 근무 여정	취업성공 패키지 경험	아버지도 자퇴경험
A8	조O빈	여자	97년	중3	집단 따돌림	고졸 검정고시	복잡하지만 수용하고자 노력	미용실, 매장 카운터 등 아르바이트	간호조무사	꿈드림센터 검정고시 지원	할머니가 양육 (부모 부재)
A9	성O연	여자	97년	고1	성적하락, 학교생활 흥미 상실	대졸	후회감 증가, 양가직 가정	햄버거체인점 등 아르바이트	정신관련분야 회사정규직	취업성공 패키지 경험	할머니가 양육 (부모 이혼)
A10	박O혁	남자	95년	고1	경제적 이유	고졸 검정고시	상대적 만족감	발달, 하우스일 등 다양한 아르바이트	전기설비 시공업 정규직	직업훈련기관 자격증 과정	기초생활수급가정

표 IV-6. 학교를 그만둔 후 4년 이상 지난 학교 밖 청소년(집단B)

ID	이름 (가명)	성 별	출생 연도	학교를 그만둔 시기	학교를 그만둔 이유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기대와 현실/민족도	이러바이트형	현재 하는 일	꿈드림센터	가족 관련
B1	박O원	여	04 년	고1(20년 3월)	중2시기 친구관계 영향, 들에 끼여있는 학교생활	대학 전공 관련 공부 고인, 학비 부담/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민족도 매우 높음	과거 꿈드림센터 에서 연계	대학교 1학년	교육, 취업지원	과거 쉼터 거주, 부모 세대 독립 신청, 한부모/편부
B2	이O원	남	04 년	20년 (고교미진학)	학교의 필요성 못 느낌	학교를 그만두고 후 첫 2주는 좋았으나, 그 후 무료했고 후회됨	태배 상하차	대학 휴학, 지병 치료 중	제빵 인턴십, 진로 진학 지원 등	부모님 사이 좋아짐
B3	박O준	남	05 년	18년 10월, 중1	규칙적 생활 어려움 (게임 과몰입)	학교를 그만둔 후 시간 허비에 대한 후회	없음	고등학교(특성학교)	검정고시, 학원비 지원, 고교 진학 지원	게임 몰입으로 부모님과 갈등, 한부모/편모 가족
B4	오O우	남	06 년	중1 (19년 11월)	추구할 수 있는 시간 확보	학교 그만둔 것 후회, 학교에서 친구관계 형성 못한 점 아쉬움	친구 아르바이트 다타 경험	고등학생 (기숙사생활)	체험활동, 문화활동, 검정고시	학교를 그만두는 결정시에는 부정적, 이후 지지가 역할
B5	정O우	여	05 년	중2, 고1	인간관계 어려움(중), 고등학교 적응 어려움/대학 불리 인학(고자)(고)	학교 그만둔 후 개인생활 관리 취약해짐, 그만둔 선택에 대한 후회는 없으며, 그 후 생활관리를 제대로 못한 점에 대해서 후회	주방 보조 아르바이트 중	아르바이트(주말), 수능 준비	도서관 사서 아르바이트, 대안교육기관에서 고교 학업지원	중학교 그만둘 때 고등학교는 가겠다고 부모님과 약속
B6	안예O	여	03 년	초4	학교 부적응, 친구관계	홈스쿨링으로 하고 싶은 공부를 한 점은 좋았으나, 단체 운동 등을 못하는 점 아쉬웠음	냉면집 등	시설학원 수강, 주중 아르바이트 운동	1대1케어, 검정고시 인터넷 강의, 교재, 학원/자격증	엄마와 홈스쿨링 경험, 부모 이후
B7	조O아	여	05 년	고1 (2020년)	건강상 문제, 코로나로 등교 의미 없다고 생각	학교 그만둔 후 혼자 시간보내기 어려웠으나, 꿈드림센터 연계로 도움을 받음	패스트푸드점 3개월	대학생(기숙사)	검정고시, 자격증 지원	학교 그만둔 시점에 갈등이 있었으나 심화되지 않음
B8	최O준	남	05 년	고등학교 미진학	의미있게 시간을 보내기 위해	학교친구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감소, 학교를 그만둔 후 더 부지런히 살지 못해 후회	부페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쉬는 중, 제빵 학원, 종교봉사	학원비, 교통비, 쌀 지원, 무료교육, 근로교육	학교 졸업한 형제는 진로 고민, 다른 형제 경제활동
B9	신O영	여	05 년	고1 (20년 7월)	친구 관계 어려움	내일아름학교, 자유로운 선택 등에 민족하지만, 혼자 해매던 시간에 대해서는 후회함	뽕집	수능준비 및 아르바이트	주거적 방문, 교재 지원	학교 그만둘 때 아버지 반대, 현재는 수용적 입장
B10	장O이	여	04 년	고2 (2021년)	진취적 진로 탐색을 위해	학교를 그만둔 후 꿈드림 지원으로 후회는 없음	없음	대학생	다양한 활동 참여	부모사업장 등에서 일경험

표 IV-7. 가장 최근 학교를 그만둔 학교 밖 청소년(집단C)

ID	이름 (가명)	성 별	출생 연도	학교를 그만둔 시기	학교를 그만둔 이유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기대와 현실/민족도	아르바이트경력	현재 하는 일	꿈드림센터	가족 관련
C1	서O우	남자	05년	2022년 4월	포레관계 형성 어려움	민족,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고 충분한 수면	없음	대학입시 준비, 테니스, 파아노 수강	검정고시, 급식, 문화상품권, 강의, 책, 진학상담	부모 이혼, 아버지와 거주중(아버지는 반대, 어머니는 수용)
C2	최O서	여자	06년	2022년 10월	대학 진학	모의고사 성적 상승 기대, 시간관리 어려움/더 빨리 학교를 그만두지 않은 것 후회	없음	대학입시 준비	인턴십체험, 직업체험, 검정고시, 대입 대비반 수업	모의고사 성적 도달 후 학교 그만두는 것 허락 받음
C3	장O규	남자	05년	2022년 7월	우울증으로 인한 따돌림, 진로 고민	그만둔 후 민족도 매우 높음(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전단지(2달)	대학입시 준비	책, 급식, 문화생활비, 여행, 센터에서 자습	아버지도 검정고시 출신으로 학교 그만두는 것 만류
C4	민O혜	여자	06년	2022년 5월	친구 갈등에 엄마 개입, 엄마가 지토 권유	후회	출서빙	아르바이트, 대학입시 준비	검정고시, 책, 교육비	쉽터 거주(엄마와 갈등 심화)
C5	송O리	여자	03년	2021년 하반기	엄마 간병으로 학교 출석 어려움 누적	학교 그만둔 후 어머니 병수발, 집안일 등 어려움 기중	출서빙	고졸 자격 취득, 직업훈련 중	교재, 검정고시 지원	어머니 지병, 아버지/동생 질병, 쉽터 거주(본인 트라우마 치료)
C6	홍O준	남자	05년	2022년 10년	학교에서 배울게 없음 (학교, 교사역량 신뢰 낮음)	민족도 높음, 온전히 자기 시간을 사용하는데 민족 자유로운 생활은 좋음, 학교다니면서 대입 준비도 좋은 듯	과외(검정고시 준비자 대상)	대학입시 준비, 취미활동	급식비, 바리스타 자격증, 촬영활동, 문화예술회원, 동아리	자퇴시 부모의 신뢰
C7	황O영	남자	06년	2022년 4월	학교시험에 대한 압박감		원하는 일자리 없음	수능 준비, 인터넷 강의	검정고시/수능 지원/정보 제공, 자격증 취득, 건강검진	학교 그만둘 때 아버지 반대, 어머니는 수용(부부 간 갈등 심화)
C8	구O현	남자	06년	2022년 하반기	학교 공부 무의미, 학교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음	자유로운 시간에 대한 민족감	아르바이트 중	아르바이트(편의점, 식당), 검정고시 취득	영어회화, 사진, 미디어, 검정고시 준비, 건강검진, 급식	부모님 이혼, 어머니와 거주중
C9	한O을	여자	05년	2022년 11월	국내 대학 선택을 위한 유리한 방안	자율적인 시간 관리에 민족, 친구관계 부재에 아쉬움	없음	수능 준비, 운동	검정고시 지원, 직업체험, 심리상담, 컨설팅, 건강검진, 급식 지원,	부모 설득함, 오빠도 검정고시로 대학 진학
C10	이O림	여자	06년	2022년 8월	원하는 교육 과정이 없고, 친구들과의 교류도 어려움	학교 중단 직후 우울감, 상담받은 후 심리적 안정감, 민족감, 하고 싶은 분야 독학	영상 관련	영상 편집 인턴십, 대학입시 준비	건강검진, 급식지원, 상담지원, 인턴십, 영화 동호회, 토론 동호회, 한국사 특강, 한글 엑셀 자격증 등	어머니 적극적 시교육 지원

(3) 심리사회적 취약성

① 심리적 취약성

가. 부정적 정서

○ 시간이 지나면서 커지는 후회감

학교를 그만둔 초반에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 긍정적 심리가 주도적이었으나, 점차 시간이 흐르는 과정에서 후회감과 부정적 정서가 커지는 학교 밖 청소년들도 있었다. 이러한 경우는 주로 집단A 참여자들에서 다수 드러났다. 특히, 안정적인 미래 진로 설계 과정에서 자신의 학교를 그만둔 이력 때문에 후회감이 증가하는 경우(A6, A2, A9)가 있었으며, 집단B 참여자들은 중학교를 그만둔 뒤 일정 시간을 보낸 후 다시 고등학교로 복교한 사례들(B3, B4)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초반에는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친구들이 그래요. 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고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데 지금은 아니야 그래도 학교를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남들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직도 후회 돼요. (A6)

솔직히 자퇴 했었던 그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집에 있었던 시간이 많기 때문에 솔직히 좀 다른 애들은 학교 갈 시간에 집에 혼자 있으니까 게임하거나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게 되니까 도움이 됐던 것 같진 않고 학교를 계속 다녔다면 오히려 더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B3)

○ 위축감, 불안감, 우울감 등 부정적 정서의 경험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둔 상황과 관련하여 불안감이나 위축감, 우울감 등도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부정적 정서에 대해서 집단A 참여자들의 경우 그동안 10여년의 시간이 흐르는 과정에서 어느정도 자신의 처지를 수용하면서 희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던 반면, 집단B와 집단C 참여자들은 학교 밖에서 혼자 지내야 하는 시간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할 때 학교 이야기로 소통을 시작하는데, 이 때 위축되는 경험(B3, B7, B9)을 하게 되며, 학교 밖으로 나오면서 혼자 보내야 하는 시간에는 외로움을 느끼거나(B4) 불안해지기도 하며(C3), 옆에 친한 친구들이 없어서 우울감을 느끼기도 하였다(C4, C7).

학교 밖 청소년이다 보니까 몇 년 정도 된 친구들을 만나 보면 그 친구는 학교를 다니는데 저는 학교를 안 다니고 있고 그걸 모르는 친구가 있으면 이걸 말해야 되나 애매한 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죠.** (B3)

일단 **인간관계를 다시 만들어갈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담이 있는 것 같고요.** 보통 친구를 만나면 (중략) 어디 학교 다니냐 안부 인사 겸 가볍게 던졌던 게 자퇴를 하고 나니까 어디 학교 다니냐부터 먼저 나오니까 그게 약간 어떻게 얘기하지? **여기서 학교 안 다니고 자퇴했다고 얘기하면 분위기가 약간 싸해질 것 같고 안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살짝 있지 않나 싶어요. (B9)

정규 학교를 다니는 평범한 학생들과 떨어져서 지내는 거니까 나이는 같지만 생활 환경이 다르잖아요. **가뜩이나 저는 정규 과정에 있던 학생들 무리에 있다가 떨어져 나온 상태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드는 것 같아요. (C3)

학교 다닐 때는 자신감도 많고 시끄러운 아이였는데 이제는 주변에서 **너 왜 이렇게 조용하냐** (중략) 그런 이미지로 바뀌어서 약간 갑자기 이유 없이 슬플 때도 있고 남이랑 얘기를 하는 게 **어려워졌어요.** (C4)

○ 학교를 그만둠에 따른 성취 부담감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둔 이후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심적 부담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집단A 참여자 중 일부는 학교를 그만둔 선택에 대한 후회감을 줄이고, 학교 졸업생들과 비교하여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는 부담감에 더욱 성취를 위해 노력하였다(A4, A7, A9, A10). 집단B와 집단C의 청소년들도 학교를 그만둔 이후 학교에 다니는 또래들과 비교해서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부담감을 갖게 되었고(B6, C1, C10), 학교 밖에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불안감(C2) 등을 갖고 있었다.

아무도 공부하라고 안 했고 저보고 많은 경험 하라고 안 했고 너 하고 싶은 거 해도 된다고 말을 했었는데 제가 괜히 시간을 잘 보내야겠고 너무 어른스러운 생각을 해서 (중략) 제가 갑자기 그만뒀으니까 **까딱 잘못하면 다른 애들에 비해 도태되고 뒤처질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면 괜히 조금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잘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B6)

학교 다닐 때 보다 뭔가 더 하고 싶고 잘해야 나중에 말이 안 나오니까 **학교를 그만 뒀는데 잘하는 걸 찾았어야지** 라고 말하는 분들이 **꼭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저는 피아노를 좀 배워서 잘 칩니다. 테니스를 배워서 잘 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C1)

저는 결과를 제 눈으로 실제로 봐도 불안함이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약간 학교는 안전하게 갈 수 있는데 저는 그걸 나와서 **제가 책임을 져야되니까 좀 불안한 것 같아요.** (C2)

제 친구들이 저를 제외하고 전부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인데 그 중에 인문계 학교를 다니는 친구가 저랑 가장 친한 친구예요. 예를 들어 내가 이번에 법학과를 노리는데 갈 수 있는 대학은

○○대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할 때 옆에서 듣고 있으면 저는 등급도 환산으로만 알고 수능을 볼 생각도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듣고 있으면 내가 만약에 검정고시 수시 지원에 실패하면 나는 수능도 못 보고 이대로 있어도 되는 걸까? 인턴십으로 만족하면 나는 대학도 못 가고 그냥 낙오자로 살게 되는 건 아닐까 의문이 가끔 들기도 합니다. (C10)

나. 양가적 감정, 긍정적 측면 발견과 현실 수용

학교를 그만둔 후 위축감 등 부정적 정서를 느껴왔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의 상태에 대해 사람들이 보이는 다양한 반응을 통해 더욱 가치중립적 판단(A7)을 하기도 하고, 자신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 돈을 벌었다는 또 다른 성취를 통해 긍정적 인식으로 전환하고자 노력하는 참여자(A5)도 있었다. 그리고 학교를 그만둔 직후에는 사회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했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는 오히려 스스로 한 선택이라는 자부심을 갖고자 하는 참여자(B5)도 있었으며, 학교 재학 중에는 대인관계를 기피하였으나, 그만둔 후 심리적 안정감을 찾게 된 참여자(C10)도 있었다.

애써 절 위로하지 않고 **하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스스로도 이걸 그냥 내 삶에서 뭔가 물론 중요한 사건은 맞지만 (중략)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냥 재는 저런 시간을 보냈구나 이렇게 재는 저렇구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는구나 제가 몸소 경험했던 것 같아요. (A7)

아무래도 그만뒀을 때는 나이가 17, 18살 때쯤이어서 다른 애들 고등학교 교복 입고 애들끼리 놀러 가는 걸 보면 나도 지금 저렇게 놀 때인데 잠깐 생각을 하다가 **개네들은 못 버는 돈을 내가 벌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바꾸긴 해요. 그리고 재네들이 학교 갈 시간에 나는 일을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게 있어서** (A5)

가치관도 많이 바뀐 것 같고 학교 다닐 때는 제가 친구들이랑도 잘 못 어울리고 조용히 있는 게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만두고 나서는 그냥 잘못된 게 아니라 원래 성격이 나는 이렇구나** 느꼈어요. (중략) **제 선택으로 나왔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자부심이 드는 것** 같아요. (B5)

우선 정말 **그때에 비하면 제 자신의 정신 상태가 나아졌다는 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다녔을 당시에는 이어폰을 끼지 않으면 밖을 나가지 못할 정도였고 사람 눈을 못 쳐다볼 정도로 힘들어해서 자퇴 이후에는 적당히 나갈 수도 있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건 솔직히 아직 조금 힘든데 그때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멀어지면서 점점 나아진 것 같아요. (C10)

다. 극복 방법 및 지원 요구

학교를 그만둔 후 느껴지는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무엇보다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야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청소년들도 있었다. 열심히 돈 벌고 집

사고,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는 참여자(A6), 주변 사람들 중 부정적 평가를 하지 않고, 생애 사건의 하나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담담하게 받아들이고자 노력하는 참여자(A7)도 있었다. 집단B의 참여자도 취약성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는 우선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무엇보다 심리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 돈을 벌거나 무언가를 해 냈다는 성취감을 얻는 것이 중요함을 제안하는 청소년들도 있었고(B2), 꿈드림센터 등을 통한 상담지원, 현실적 지원 서비스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됨을 제안하는 사례도 있었다(C3).

가장 중요한 건 자퇴를 하는 순간 어쨌든 홀로 떨어져 나온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학교와 안 맞았고 내가 하고 싶어서 나온 거야 이런 생각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좀 더 사랑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략) 청소년 상담에 큰 효과들보다는 자신이 뭔가를 해냈을 때 **성취감과 자신감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아까 말했잖아요. 인턴십이나 혹은 알바나 이런 것들 좀 더 많이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한 달이라도 해서 **내가 돈을 벌었어 그러면 되게 기분 좋거든요**. (B2)

심리적으로는 상담이 있었어요. 근데 그보다 저는 현실적인 조언을 많이 받았죠. 학교에 나오고 심리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어쨌든 학교 밖으로 나오게 되면 울타리가 없어진 상태가 되다 보니까 해이해지기가 쉬워요. 저도 그런 기간이 실제로 있었어요. **내가 학교 밖 청소년이 된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현실적인 조언과 도움을 많이 받았죠**. 물질적인 도움이나 정신적인 도움도 많이 받았고요. (C3)

표 IV-8. 심리적 취약성 및 극복방법

영역	범주	하위범주	구분	의미단위
심리적 취약성	부정적 정서	후회감	집단A	- 초반에는 주변의 긍정적 반응도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후회됨(A6) - 결혼하고 자녀 출생으로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더 느끼면서 학교 중단에 대한 후회감이 커지고 있음(A2) - 직장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학교 중단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힘들어 후회 경험(A9)
			집단B	- 중학교 자퇴 경험에 대해 시간 허비가 많았다는 후회감정(B3) - 학교 중단에 대한 후회감이 큼(B4)
			집단C	- 학교를 나온 것에 대해 후회함(C4)
		불안감, 위축감, 우울감	집단A	- 직장생활이 장기화되면서 더 위축감(A9)
			집단B	- 대학교에서 고교시절 에피소드를 말해야 할 때 위축됨(B7) - 친구들을 만나면 위축됨(B3) - 인간관계 시작시 대체로 학교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데 이 때 어려움을 겪으며, 위축됨(B9) - 학교 중단 후 외로움을 느낌(B4)
			집단C	- 혼자 보내는 시간이 편하지만 한편 불안감(C3) - 학교를 나온 뒤 위축되고 슬픈 감정(C4)

영역	범주	하위범주	구분	의미단위
		학교 중단으로 인한 성취 부담감		- 옆에 친한 친구가 없어서 우울함을 느낌(C7) - 대학 진학 설계에서 학생 청소년 친구와 비교시 불안감 느낌(C10)
			집단A	- 학교를 그만둔 후 더 잘해야 한다는 성취 부담(A7, A4, A9, A10)
			집단B	- 학교를 나온 뒤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B6)
			집단C	- 학교를 그만뒀기 때문에 잘하는 것을 찾아야 한다는 부담감(C1)
				- 학교 밖에 혼자 있어서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불안감(C2) - 대학 진학 설계에서 학생 청소년인 친구와 비교 시 부담(C10)
	양가적 감정, 긍정적 측면 발견 및 현실 수용		집단A	- 위축감을 크게 느껴왔으나, 근래에는 수용하고자 함(A7) - 학교를 그만둔 당시에는 후회하기도 했으나, 자신은 돈을 벌고 있다는 데에서 긍정적으로 느끼는 등 양가적 감정(A5)
			집단B	- 학교를 그만둔 직후에는 사회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했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는 자신의 선택이라는 자부심(B5)
			집단C	- 대체로 학교 밖 생활에 만족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하고 싶은 아쉬움도 있음(C9) - 학교를 그만둔 후 심리적 안정감을 느낌(C10)
	극복방법 및 지원 요구		집단A	- 앞으로 나아가야겠다, 열심히 돈 벌고 집 사고 나아가야 함(A6) - 주변 사람들 중 부정적 평가를 하지 않고, 생애 사건의 하나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담담하게 받아들이고자 노력함(A7)
			집단B	-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 심어주기, 성취감 경험 기회 제공 필요(B2) - 학교를 소재로 하는 대화 시작의 문제는 대학 입학하면 해소될 것으로 기대(B9)
			집단C	- 꿈드림 등의 상담 및 지원서비스 도움(C3) - 컴퓨터에서 알게된 동생과 언니와의 소통이 도움됨(C4)

② 사회적 취약성

가. 학교로부터 얻어지는 사회적·문화적 자본의 취약성

○ 학교 친구관계 부재

집단A 참여자들은 사회적 취약성과 관련하여 학교 친구의 부재에 대해 아쉬움을 갖고 있었다. 학교 친구가 많이 없어서 후회되고 아쉬움(A6), 학교를 그만두어서 친구가 없다고 느껴질 때 우울함을 호소하는 참여자(A9)도 있었다. 하지만, 고등학교 친구들이 없어도 사회에서 많은 지인을 만났기에 아쉽지는 않다는 사례(A4)도 있었다.

집단B 참여자들도 학교를 그만둔 뒤 친구관계가 멀어졌거나 단절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호소하였다(B4, B7, B9). 이들은 학교를 그만두면서 자신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서 알게 된 포래들과 관계를 형성하거나(B1), 포래들을 만날 기회가 적어져 향후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생기지는 않을지 염려하였다(B2, B5).

집단C 참여자들도 친구 관계 단절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며(C1, C2, C4), 새로운

친구관계 형성에 취약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이와 함께 일반적으로 성적 우수 학생들이 입학하는 특수 고등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은 자신이 형성할 수 있었던 학맥을 쌓지 못한다는 점도 보고하였다(C9).

학교를 그만두면서 또래보다는 동생이나 아니면 저보다 나이 많은 언니 이런 분들을 많이 해서 오히려 또래는 다가가기 힘든데 동생이나 언니들한테는 잘 다가가거든요. 그래서 **또래와 약간 어색하다**. (B1)

사회성이나 인간관계에 대한 것들이 큰 고민인데 왜냐하면 3, 4년 시간을 없다시피한 상태로 지내다 보니까 그때 만날 수 있는 관계나 추억이 없어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한 연습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인간관계를 찾기 어려워지는 걱정들이 있죠**. (B2)

일단 학교를 다니는 애들은 매년 계속 새로운 애들을 만나잖아요. 개네들이랑 1년을 지내고 ... 만나고 하면서 사람이라 부대낄 기회가 많은데 저는 그건 아니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도 **사람들이랑 지내는 거에 있어서 불리한 것 같아요**. (B5)

일단 확실히 이 친구들하고 연락을 끊었으니까 좀 더 어려워진 부분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애초에 **학교 밖을 나오면 또래를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단절된 느낌이 있긴 있었어요. (B7)

일반고 친구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 학교 친구들이랑 비교했을 때 확실히 **아직은 학벌이나 뭔가 학연이나 지연이 조금 있는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끊겨서 아예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C9)

○ 학교 또래문화 경험 부재

집단A 참여자들중 일부는 고등학교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학창시절 일반적으로 체험하는 소소한 일상문화의 부재에 대해 아쉬워하였다. 특히, 대학 시절 고교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거나, 현재 청소년들을 만났을 때 선뜻 이들과 학교 생활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가 힘들다는 점을 들고 있었다(A7). 집단B의 참여자 중에서도 고등학교 일상문화 체험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아쉬워하기도 하였다(B2).

아무래도 대학교 가면 고등학교 얘기하면서 친해지잖아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니까 **아는 게 없어서 그런 게 조금 불편했죠**. (중략) 제가 28살이니까 (중략) 오히려 나이 많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들을 만나면 편한데 오히려 또래를 만나거나 그때 당시 중, 고등학생들을 지금도 만나면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A7)

3년 고등학교 시간 같이 공부하고 야자 끝나고 컵라면 먹고 그런 게 되게 하고 싶더라고요. 정말 아쉽다 그때 돌아가서 그 결정을 했었겠지만 참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B2)

나. 주변의 부정적 인식 대응

학교 밖 청소년들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주변 사람들로 부터 학교 밖 청소년을 대하는 부정적인 인식을 마주해야 했고, 그 과정에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B6). 새로운 운동팀에 가입하고자 할 때 ‘불량 청소년’은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고(B4), 자신은 불량 청소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던 사례도 있었다(B7).

이와 유사하게 친한 지인들이 백수라고 놀려 상처를 받거나(C1), 지인으로부터 부정적인 이야기를 직접, 간접적으로 접하기도 하였다(C3, C9). 일반적으로 청소년은 학생이라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사회 단체에 가입할 때 소속을 쓰지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접하게 되기도 하고(C9), C10 참여자는 이러한 사회적 시선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아예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였다.

학교 안 나왔다고 처음에는 너 일진인 줄 알았다는 얘기를 농담으로 했는데 저는 농담으로 받아들이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서럽고 서운하고 (중략) 어른들도 학생이라면 학교를 다녀야지 너 그렇게 하면 인생 잘못된다고 대놓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셨고 홈스쿨링 한다고 하니깐 그렇게 대놓고 하는 건 아닌데 나는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그게 학생의 본분이라는 분도 계셨고 (B6)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에 팀 들어갈 때 중학교를 안 다니고 있다고 감독님한테 말했더니 우리는 불량한 학생은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해를 하셨던 거죠. 잘 말해서 결국 들어갔는데 (B4)

편의점에 갔다가 저를 아는 점장님이 계세요. 일부러 제가 자퇴했다는 말을 안 했거든요. 근데 사실 다 알고 계시니까 뭐라고 하진 않았는데 잘못된 길을 가는 거지 않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C3)

아직은 학교밖 청소년이나 자퇴한 학생이라고 하면 시선이 좋은 편은 아니라서 항상 뭔가 새로운 분을 특히 어른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제일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아요. (중략) 배구 처음 할 때도 왜 자퇴했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듣고 아니면 어디를 가도 어디 학교 다니고 있는 (중략) 수식어가 사라지잖아요. 소속을 쓸 때가 많은데 그게 없어지니까 자퇴라고 쓰거나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쓰면 거기서부터 질문들이 점점 그런 것들 (C9)

아예 저와 일면식이 없는 사람을 만날 때는 무의식적으로 제가 자퇴생이라는 걸 숨기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안 좋게 생각할까봐 그런 면에서는 그게 있고요. (C10)

다. 극복방법 및 지원 요구

집단A 참여자들은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인한 사회적 취약성은 사회생활 과정에서 나름대로 대안적 방안을 모색하며 극복하고 있었다. 예컨대, 회사를 다니면서 대인관계를 형성하며, 자연스럽게 적응하거나(A6), 새로운 교류집단을 형성하고 있었다(A1, A4). 여

러 사람의 긍정적 피드백을 통해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희석시켜온 A7 참여자의 경우 학교 밖에서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한편, 또 다른 참여자(A9) 넓은 인간관계 형성보다는 학교를 나온 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과정에서 혼자 혹은 한두 명의 친구만 있어도 잘 지낼 수 있음을 체감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였다.

집단B와 집단C의 청소년들은 학교 친구의 부재를 꿈드림 참여과정에서 형성된 새로운 관계를 통해 보완하고 있었으며, 더욱 활성화되기를 희망하였다(B5, B7, B10, C7). 학교 안에서는 교우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었던 참여자들은 오히려 학교를 그만두면서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새로운 친구관계를 만들기도 하였다(B9). 그에 따라 학교 밖에서도 사회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소나, 동아리 활동 등이 지원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B2, C1). 이와 별도로 학교를 그만두더라도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종교단체, 학교 밖 단체 활동 등을 통해 사회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으며(B5, B6, B8), 학교를 그만두더라도 사회성 향상을 위해 개인적으로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기도 하였다(C6).

자퇴하고 몇 년간 시간을 혼자 보내다 보니까 굳이 친구가 없어도 잘 지낼 수 있네 약간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굳이 여러 명 친구가 아니더라도 한두 명이랑 잘 지내고 혼자서 잘 지내면 그렇게 세상 사는 거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A9)

(학교 안에서는) 1년 내내 봐야 될 애들이 계속 만나게 되니까 의무감이라도 많이 친해지려고 노력했었는데 (중략) 오히려 악영향만 있진 않았고요. 친구 관계에 있어서 부담감을 안고 있거나 아니면 1년 내내 같이 봐야 되고 공동체처럼 생활하는 게 힘든 분들한테는 오히려 자유로운 분위기가 좋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B7)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죠. 일단 학교에서 해 주는 모든 것들을 혼자 해야 된다 일단 기본적인 교육도 그렇고 학교는 작은 사회라고 하는데 사회생활 같은 경험도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하는 거고 (중략) 오히려 자퇴를 하고 나서 제가 교육 봉사나 과외를 몇 개 했는데 그것도 사회성을 기르기 위한 수단이 아닐까 (C6)

표 IV-9. 사회적 취약성 및 극복방법

영역	범주	하위범주	구분	의미단위
사회적 취약성	학교로부터 얻어지는 사회, 문화적 자본 취약성	학교 친구 부재에 대한 아쉬움	집단A	- 학교 친구가 많이 없어서 후회되고 아쉬움(A6) - 재학 중 또래의 괴롭힘 등으로 학교에 다니지 못한 이유도 있음(A5) - 학교를 그만두어서 친구가 없다고 느껴질 때 우울함(A9) - 고등학교 친구들이 없다는 점 외에는 아쉬운 점이 없음(A4)
			집단B	- 또래보다 동생이나 언니들과 더 관계형성이 쉬움(B1) - 사회성이나 인간관계 형성에 어려움(B2)

영역	범주	하위범주	구분	의미단위
		학교 또래 문화 경험 부재		- 중학교 중단 후 친구관계가 멀어져 아쉬움(B4) - 사회관계 형성에 불리함 염려(B5) - 학교를 그만둔 뒤 친구관계 단절(B7) - 학교를 그만둔 후 친구가 줄어들고 관계 악화됨(B3) - 또래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인간관계가 좁아짐(B9)
			집단C	- 친구관계 단절됨(C1, C2) - 또래친구들과 단절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친구 사귀기가 힘들(C4) - 친구관계 형성에 취약할 수 있음(C7) - 학업을 쌓을 수 없다는 점과 주변의 상황을 모르는 채 혼자 공부하는 과정에 대한 불안(C9)
			집단A	- 고등학교 또래문화 대화에 끼지 못하는 어려움, 현재도 고등학생 청소년들을 만나면 대화하기 어려움(A7) - 수학여행 등 고등학교 추억 부재에 대한 아쉬움(A8, A9)
			집단B	- 고등학교 일상 체험 부재에 대한 아쉬움(B2)
			집단B	- 학교 밖 청소년을 대하는 부정적인 농담에도 상처를 받음(B6) - 주변 어른들의 시선에 맞서 자신을 증명해 내야 함(B7)
			집단C	- 친구들이 백수라고 놀림(C1) - 주변 지인의 부정적 인식(C3) - 학교 밖 단체 가입 등에서 소속을 명시하지 못하는 경우 주변의 인식에 대응하는 과정 불편(C9) - 학교를 나오는 과정에서 친구로부터 부정적인 소문을 듣게 됨(C9) - 자퇴한 이후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시 자퇴생이라는 신분을 드러내지 않게 됨(C10)
	극복방법 및 지원 요구		집단A	- 회사다니면서 대인관계를 형성, 자연스럽게 적응하게 됨(A6) -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관계 형성 지원 필요(A7) - 학교를 나온 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과정에서 혼자 혹은 한·두명의 친구만 있어도 잘 지낼 수 있음을 체감하고 그렇게 살고자 함(A9)
			집단B	- 학교에서 힘들었던 교우관계는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학교 밖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편안해 짐(B9) - 학교를 그만둔 후에도 친한 친구들과의 관계는 이어지고 있으며, 학교 밖에서의 새로운 관계 형성으로 어려움이 없음(B10) - 커뮤니티나 만날 수 있는 장소 제공 필요(B2) - 꿈드림에서 친구들과 모일 수 있는 기회 제공 확대 희망(B5) - 대안학교, 아르바이트, 교회 등을 통해 친구관계 형성(B5) - 학교 밖 홈스쿨링을 통해 만난 동생과 언니 등과 친구관계(B6) - 꿈드림에서 편안한 친구관계 형성(B7) - 지속적인 종교활동을 통해 사회관계를 만들고자 함(B8) - 꿈드림활동을 통한 사회관계 형성 제안(B10)
			집단C	-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동아리 활동 지원(C1) - 자퇴 후 사회성 기르기 위한 개인적 대처 중요(C6) - 꿈드림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관계 구축(C7)

(4) 진로 및 진로 준비 전반에서의 취약성

진로준비를 포함한 진로 관련 취약성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범주화하여 제시하면 표 IV-10과 같다. 진로와 관련한 지원 부재는 특히 오래전 학교를 그만둔 집단A 참여자들에서 매우 두드러졌다. 이들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제도적으로 본격화된 시점 이전에 학교를 그만둠에 따라 대부분 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었고 따라서 진로정보의 부재, 진로지원 부재 경험을 상당수 토로하였다.

① 진로, 진로준비에서의 취약성 측면⁵²⁾

가. 진로관련 지원 부재

먼저 집단A에서는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알지 못해 또는 관련 정보를 찾지 못하거나 지원을 받지 못한, 정보 및 지원 부재 경험을 다수 보고하였다. A5 참여자는 재학 중이었다면 학교에서의 정보를 통해 진로관련 분야를 확인 후 진로를 결정했을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은 ‘맨땅에 헤딩’을 하면서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회고하였다. 그리고 이주배경의 A6 연구참여자는 현재 회사를 다니면서 주말에는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하고 있었는데, 지금의 정규직 역시 애초 계획했거나 체계적인 진로준비를 통해 얻은 것이 아닌 여러 일들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직한 결과였다. 본인이 희망하는 더 전문적인 일은 따로 있었지만, 경제적 문제로 주중 및 주말에 두 개의 일을 하면서 원하는 직업을 준비하기 위한 학원에 다니지 못하고 있었다.

(학교를 다녔다면) 여러 분야도 확인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맨땅에 헤딩을 해보고 결정했던 거라서 (A5)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업무는 그냥 계획이 아니었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전문적으로 하고 싶은 프로그램 이런 진로는 계획 같은 건 그러니까 현재 직장은 그냥 진로를 어떻게 설계하는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흘러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간 거죠. (A6)

심지어, A2 참여자는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검정고시 준비를 어려워했고, 본인이 미래를 위해 대학 진학을 희망함에도 현실적인 다양한 관련 정보를 전혀 알지 못했다. A2는 현재 관심 있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방법을 찾을 줄 몰랐고, 포털사이트 검색에 그치는

52) 구체적인 진학이나 취업과 관련된 내용은 뒤의 해당 영역 분석에서 다루었으며, 여기에서는 진로 전반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일부 참여자들은 진로준비와 취업, 자립에 대한 내용을 함께 언급하였는데 성인인 이들에게 진로는 결국 자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도였다. 이는 학교를 그만둔 시점의 청소년 시기에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정보를 찾을 방법까지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면접자 뭐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검정고시 만약에 준비한다면?

참여자 검정고시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학교를 간다는 게

면접자 그러면 대학교도 그런 정규 대학교 아니어도 학사 학위 주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사이버 대학교나 학점은행제 그런 건 알아보셨어요?

참여자 **그런 건 처음 들어요.**

면접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참여자 네. (A2)

A9 참여자는 도움을 청하는 방법을 몰랐으며,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자신의 고민에 대해 귀 기울여 들어주는 대상이 없었다고 회고하였다. A9는 성적우수자들이 진학하는 고등학교를 그만둔 사례로 이후 본인의 말대로 현재 진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한 경험이 있었는데, 대부분 진입장벽이 낮은 요식업이나 전단지 배포 등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도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꿈이 무엇인지 공감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다른 결과가 있었을 것이며, 학교를 그만두는 문제나 이후 진로와 관련해서도 더 긍정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진술하였다. A9 참여자 사례는 학교를 그만두는 과정 및 직후에 관심과 지원도 필요하지만, 이처럼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학교 밖 청소년 사례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B4 연구참여자 역시 학교에서 진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과 달리 학교 밖에서는 혼자 준비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학교를 그만두면서는 **혼자 알아서 잘해야지 어른들한테 도움을 청해봤자 뭐해(중략)**, 왜 그만두고 싶어 하는지 네가 무슨 일이 하고 싶고 나중에 꿈은 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공감을 해주면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제 이야기에 공감해 주지 않았었고 **집에서는 무조건 너는 학교를 다녀야 된다, 학교에서도 별다른 뭐 그런 게 없었고 그냥 생각 다시 해봐라** 이런 식이어서. (A9)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 진로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든 마련해 주시는데 **혼자 하면 아무래도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뭘 해야될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B4)

나. 학교에서의 진로지원에 대한 재인식

○ 학교의 전문적 지원에 대한 생각

진로 준비과정의 애로사항과 학교를 다녔다면 기대되는 부분에 대한 질문에서 집단B와 집단C의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학교를 그만두지 않았다면 진로 준비를 하는데 있어 더욱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B6 참여자는 비록 학교 교사들 간 편차가 있겠지만, 그래도 교사들의 진로 관련 전문성을 고려할 때 상담받기가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또한 B8 참여자는 현재 아르바이트와 학원을 병행하면서 미래 직업을 생각 중이었는데, 진로준비와 관련하여 교사의 존재에 대해 언급하였고, 전문적인 내용을 물어볼 수 있는 대상으로서 그 영향이 크다고 강조하였다. B10 참여자는 학교를 그만두지 않았다면 진로준비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았고, 구체적으로 자기소개서에 대한 지도와 첨삭과 같은 부분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학교를 갔을 때 좀 더 특성화 고등학교 예를 들면 바로 공업 고등학교도 있고 예체능 계열 학교도 있으면 그쪽에서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그 직업 분야에 바로 취직을 하든 대학을 가든 **지식이 훨씬 깊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더 상담받기 좋은 것 같아요.** (B6)

면접자 (학교)선생님들의 존재는 어떤 영향이었을까요?

참여자 물어볼 수 있는 게 컸던 것 같아요.

면접자 꿈드림 센터에도 선생님이 있는데 다른 점이 있을까요?

참여자 학교에는 전문적인 분야의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좀 더 전문적인 부분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큰 것 같아요.** (B8)

아무래도 **학교에서는 받을 수 있는 게** 많고 자기소개서도 거기에서 할 수 있고 선생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첨삭 내용도 해주시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도움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B10)

집단C의 한 연구참여자는 꿈드림센터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진로 준비와 관련해서 학교 교사는 더 다양한 이해에 기초해 지원이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C1). C7 참여자는 현재 꿈드림센터를 통한 지원도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이전에 학교에서의 담임교사뿐 아니라 진로상담교사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이 진로준비에 더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진로 준비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들은 다양한 걸 알고 계시는데** 센터 선생님들은 선생님이기 전에 센터에서 아이들을 상담하는 거니까 다양한 말들을 못해 주죠. (C1)

네, 학교에 가면 **담임선생님뿐만 아니라 진로 상담해 주시는 분이 2명이나 계시기 때문에** (중략) 좋았어요. (C7)

○ 진로와 관련해서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

자신의 진로와 연결하여 학교를 그만둔 것을 뒤늦게 후회하고 학교라는 시스템을 통해 본인이 더 나은 진로를 갖게 됐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례들도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내용이 대부분 이미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집단A에게서 더 발견되었으며, 가장 최근에 학교를 그만둔 집단C 청소년에게서는 거의 찾지 못했다는 점이다. A2 연구참여자는 학교를 그만두고 결국 대학도 졸업하지 못해 안정적인 직업을 갖지 못한 것을 후회했고, A6 참여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면서도 학교를 다녔다면 진로에 도움이 되는 길이 어떻게든 보였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또 다른 참여자는 학교를 중도에 그만두지 말고 전학을 가서 졸업을 했다면 더 좋은 회사에 취업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A9). 이들은 앞서 공통적으로 학교를 그만둔 이후, 또는 그만둔 당시 진로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자신이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조언해 주는 대상이 없었음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집단B의 한 청소년도 자신이 학교를 다녔다면 진로 자체가 달랐을 것으로 진술하였다(B4). 이 청소년은 중학교 시기 학교를 그만둔 이후 검정고시를 거쳐 고등학교에 진학한 복교 사례로, 학교를 그만둔 2년간의 공백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이기도 했다.

(학생들은) 100%는 아니지만 길이 있는 거죠. **학교를 안 간 사람은 고등학교랑 중학교 졸업한 사람은 그 길 자체가 흐리잖아요.** 그렇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정상적으로 나오면 어쨌든 길이 보이긴 해서 (A6)

조금은 후회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들어간 고등학교가 공부 잘하는 애들만 가는 고등학교였는데 그냥 평범한 일반고에 갔다면 이렇게까지 압박감을 받지 않았겠다 싶어서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전학을 갔을 것 같아요. (중략) 그때 당시에는 학교 자체가 싫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거기 말고 다른 학교였더라면 자퇴까지는 안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면접자: 일반 학교를 졸업했다면~) 더 좋은 회사 갈 수 있는 폭이 넓어졌을 것 같아요. (A9)

학교를 계속 다녔다면 애초에 진로 자체가 달랐을 것 같아요. 공부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B4)

일반적으로 학교를 그만둔 직후 만족도가 크며, 본 연구의 참여자 중에서도 학교를 그만둔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응답이 많았다. 그러나, 집단A 참여자들의 이러한 후회와 아쉬움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진로 및 취업과정의 좌절을 학교를 그만둔 것에서 찾기 때문으로 보인다. 집단A 참여자 중에서도 학교를 그만둔 것과 현재 진로와 관련된

본인의 상태에 별다른 연관성이 없으며 학교를 졸업했다고 해도 큰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보는 사례도 있었다(A3).⁵³⁾ 그러나 한편으로 집단A는 본격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받지 못함에 따라 진로준비와 그 결과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이 더 컸기 때문일 수도 있다.

다. 진로준비를 위한 지원 불충분

집단A 연구참여자들이 학교를 그만두었을 시기에는 본격적인 지원이 부재하였고, 또 집단C는 가장 최근에 학교를 그만둔 집단이다. 따라서, 현재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부 정책 및 지원과 관련해서는 학교를 그만두고 4년여 정도 본격적인 지원을 받은 경험 이 있는 집단B에서 관련 내용이 다수 보고되었다. 이들은 진로를 정했지만, 더욱 구체적으로 관련 상담을 받을 곳이 없다고 아쉬워하였고(B6), 직업체험분야가 더욱 다양해져야 하며(B1, B7), 꿈드림센터에서의 지원 외에도 혼자서 해야 할 것이 많다고 애로사항이 있음을 보고하였다(B8). B8 연구참여자는 학교 안에는 물어볼 수 있는 교사가 있지만 밖에 나오면 결국 혼자 찾아봐야 한다고 진술하면서 현재의 진로준비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직업은 그때 ○○로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상태였는데 어떻게 제가 성장해서 학교를 갈지 취직을 할지 그러면서 고민이 많은 상태였는데 **마땅히 상담을 받을 창구가 별로 없는 거예요.** (B6)

보통 직업 체험 많이 하잖아요. 바리스타, 플로리스트, 향수 이런 거 하기 쉬운 거 위주로 하거든요. 근데 **직업 체험 폭을 좀 더 넓히면 좋겠어요.** (B1)

사실은 조금 더 활동이 지원해 주시는 분야가 넓어지는 게 정답이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제과제빵 이런 분야만 지원을 많이 했었고 지금은 좀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드론 쪽으로도 그래서 아예 제과제빵이나 드론 쪽으로 가지 않더라도 비슷한 거라도 경험해 볼 수 있게 많이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B7)

우선 센터에서 그런 진로 교육들을 많이 해 주시거든요. 그래도 그 진로 교육 말고 나머지는 **다 제가 찾아봐야 해서 저 혼자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게 힘들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물어볼 수 있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밖에 나오면 저 혼자 찾아봐야 되니까** (B8)

53) A3 참여자는 학교를 그만둔 후 바로 결혼 및 출산, 육아의 길을 갔으며,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다른 진로를 경험한 사례의 경우 동일선상에서의 의견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사례마다 각각의 경험에 따라 의견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진로준비와 관련된 개인적 취약성

○ 경제적 어려움

앞서 진로준비를 위한 지원관련 내용에 이어 개인적 차원의 취약성이나 어려움을 보고 하는 연구참여자들도 있었다. A6 참여자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가정의 경제적 문제로,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희망하는 직업을 위한 준비를 중단하고 당장 소득을 위해 다른 일을 하고있는 상태였다. 그는 학교를 계속 다녔다면 전문적인 일을 선택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는 과거 여러 일들을 전전하면서 다다른 결론으로 보인다.

일단 집안일 때문에 돈도 마친가지이고 작년에 잠깐 3개월 동안 ○○에 도전하려고 학원까지 다녔다가 집안이 조금 악화돼서 **하고 싶은 걸 잠깐 멈추고 돈을 벌어야돼서** 그거 때문에 이직을 ○○쪽으로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있어요. (A6)

면접자 (○○ 직업으로) 희망하고 있으시군요. 그런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고민이 학교를 계속 중단하지 않고 다녔더라면 상황이 나아졌을까요?

참여자 **학교를 다녔으면 전문적으로 하나는 선택했을 것 같아요.**

면접자 지금보다 나아진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참여자 네. (A6)

○ 불안 또는 기대와 다른 생활 관리

학교를 그만둔 이후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에 비해 한 일이 없고, 미래에 대해서도 불투명하다고 느끼거나(B2), 학교를 그만둔 직후의 기뻐던 감정과는 달리 뭘 해야 할지 몰랐고 검정고시 준비에서부터 막막함을 느꼈던 사례도 있었다(C1). 학교를 그만두기 전 계획과는 달리 스스로가 게으르다고 평가하거나(B8) 수면시간 등 주요 생활패턴의 변화로 원활한 진로준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C10).

면접자 그러면 비슷한 질문일 수 있는데 학교를 다니지 않아서 좀 더 신경 써야되는 부분이 있어요?

참여자 **제일 큰 건 지난 3년간 내가 뭘 했는지 불투명한 것도 되게 마음이 안 좋아요.** (B2)

참여자 **생각보다 자퇴를 하고 기쁘긴 기뻐는데 그다음부터 뭘 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또 검정고시에서 가장 막혔어요.

면접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몰라서?

참여자 네, 준비는 잘하고 있었는데 하기 전에 이게 진짜 될까 싶었어요. 통과는 될까 잘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너무 많았어요.** (C1)

면접자 진로준비를 하면서 학교를 그만둔 게 방해가 되었던 적은 뭔가요?

참여자 **방해가 되었던 점은 저의 게으름** (B8)

(부족한 것으로) 일단 가장 큰 점은 생활패턴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리 학교가 가기 싫어도 결과적으로 몇 시까지 등교를 하고 얼마까지 공부를 하고 생활패턴이 있는데 솔직히 저는 학교를 그만두면서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고 배우고 싶은 걸 배우고 싶고 마음대로 시간표를 짤 수 있다는 점에서 좋았으나 그걸 강제하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계속 수면 시간이 늦어지다 보니 가끔은 오후 2시에 잠들어서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짓도 해봤거든요. 역시 수면 패턴이 망가진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C10)

표 IV-10. 진로 준비 관련 취약성

영역	범주	하위범주	구분	의미단위
진로 준비에 서의 취약성 측면	진로 관련 정보 및 자원 부재		집단A	- 학교를 다녔다면 여러 (진로)분야도 확인할 수 있었을 것 같음(A5) - 진로설계랄 것도 없이 여러 일들을 경험하다가 우연히 흘러가듯이 직업을 갖게 됨(A5) - 검정고시 준비도 어렵고 대학 학점은행제 등 관련 내용도 모르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음(A2) - 꿈이나 미래에 대해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음(A9) - 정보 부족으로 뭘해야 될지 모르고(B4)
	학교에서의 진로지원 에 대한 재인식	학교의 전문적 지원에 대한 생각	집단B	- 교사들은 취업이나 대학이나 지식이 훨씬 깊다 보니 더 상담받기 좋을 듯(B6) - 학교의 전문적인 담당 선생님 통한 지원 가능(B8) - 학교에서였다면 전문적인 진로 준비(자기소개서 등) 가능(B10)
			집단C	- 학교 교사는 다양하게 알고 있지만, 센터에서는 그렇게 못함(C1) - 학교의 담임, 진로상담교사가 진로 준비에 도움이 되었을 듯(C7)
		진로와 관련해서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후회/아픔	집단A	- 학교를 그만두고 대학 진학도 못해 희망하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지 못하는 것 후회(A2) - 학교를 다녔다면 길이 어땠든 보였을 것(A6) - 자퇴가 아닌 전학을 가서 졸업했다면 더 좋은 회사 갔었을 듯(A9)
			집단B	- 학교를 다녔다면 진로 자체가 달랐을 것(B4)
	진로준비를 위한 지원 불충분		집단B	- 진로는 정했는데 구체적으로 상담받을 창구가 별로 없었음(B6) - 직업 체험을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음(B1)(B7) - 센터 진로교육 외에 혼자서 해야하는 것이 많음. 학교에는 물어볼 교사가 있지만(B8)
	진로 준비와 관련된 개인적 문제	경제적 어려움	집단A	-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학원 등 희망하는 진로준비를 못함. 학교를 계속 다녔다면 지금보다 나아졌을 듯(A6).
		불안 또는 생활관리 의 문제	집단B	- 다른 친구들은 학교를 다녔는데 아무것도 안한것 같고 불투명한 느낌(B2) - 게으름, 촘촘한 계획이나 프로그램 제공 필요(B8)
			집단C	- 자퇴는 기뻐했는데 그 다음부터 뭘 해야 할지 몰랐음, 검정고시에서부터 막혔음: 이게 될까 걱정이 많았음(C1) - 생활패턴이 문제 수면패턴 망가진 문제가 큼(C10)

② 특별히 문제가 없거나 극복함

가. 원인 문제 해소

진로 또는 진로준비에서의 어려움이나 취약한 측면과 관련하여 오히려 학교를 그만둔 이후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면서 특별한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A10 연구참여자는 학교 밖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다는 점에서 학교 밖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는 학교를 다니면서 시간을 버리기보다 빨리 일을 시작하려고 했고, 이와 관련된 기회도 더 많았기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면서 진로, 진로준비와 관련된 아쉬움을 찾아볼 수 없었다. 또 다른 청소년은 학교를 그만뒀던 경험을 아쉬워했으나 이제 복교한 것에 만족한 사례로 취약성 극복을 위한 별다른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B4).

(학교를 그만둔 이후) 일을 하고 돈을 벌다 보니까 그게 엄청 좋았던 것 같아요. 학교를 다닐 때는 현장에서 하는 일들을 거의 주말이나 이럴 때밖에 없거든요. 아무래도 시간이 안 되니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나서 좋았던 것 같아요. (중략) 학교를 계속 다니다가 시간만 버린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중략) 학교를 그만두고 바로 경제활동을 시작했으면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에게 기회가 더 높다고 보거든요. (A10)

지금 학교 다니면서 충분히 할 거 다 하고 공부하면 갈 수 있으니까 지원 딱히 필요 없는 것 같아요. (B4)

나. 어려움 극복과 그 요인: 지원기관의 도움

진로준비에 있어 애로사항을 호소하거나, 또는 애초에 그다지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 연구참여자 중에는 진로준비에 도움이 되었던 요인으로 상당수가 꿈드림센터, 내일이룸학교, 친구랑(서울시교육청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과 같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기관들과 해당 지원프로그램을 꼽았다. B2 연구참여자는 진로 선택, 대학 진학을 위한 학교 탐색 등에서 친구랑과 꿈드림센터가 도움이 되었다고 하면서, 학교 재학시절 교사들보다 더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하였다. 또 다른 청소년도 학교안에서 라면 불가능했을 진로와 관련된 결정을 하는 데 있어 꿈드림센터와 내일이룸학교 관계자의 도움이 컸다고 보고하였다(B9).

이러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진로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그러한 과정이 심리적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지적한 청소년도 있었다. B7 참여자는 꿈드림센터에서의 검정고시 준비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지원뿐 아니라, 학교를 그만둔 이후 자존감이 낮아졌

을 때 이러한 경험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 지원기관을 이용해 볼 것을 권유하였다.

친구랑, 꿈드림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잘해주요. 그래서 **진로 선택이나 학교 찾는 거나 이런 것들이 열정적으로 해 주셔서** 일반 학교 선생님들보다 더 잘해 주셨던 것 같아요. (B2)

뭔가 학교 밖으로 나오면서 여러 경험을 하면서 이 분야가 좋겠다고 결정한 거라서 **학교 안에 있었으면 아마 이것보다는 조금 더 결정하기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중략) 꿈드림 선생님이 한 분 계셨고 내일이룸학교에서 가르쳐 주시던 교수님이랑 담당 실장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세 분께서 상담도 많이 해 주시고 도움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B9)

꿈드림센터에서 제일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중략) 검정고시 지원도 그렇고 자격증 지원도 굉장히 많이 해 주시거든요. 실질적으로 꿈에 다가가는 자격증이 아니더라도 **다들 자퇴를 하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진 상태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따면서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많이 들어요.** (중략) 일단 꿈드림 센터는 한 번쯤은 꼭 방문을 했으면 좋겠고요. (B7)

특히 이러한 지원을 경험하면서 학교 밖에서 생활하는 것에 ‘행복’을 느꼈다고 보고한 사례도 있었다(C3). 이외에도 교육참여수당을 받아 생활에 도움이 된 C9 청소년의 사례는 비록 용돈 수준이지만 아르바이트와 병행하지 않고 대학진학 준비에 더 집중하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유사 직종 취업을 준비하거나 인턴십이 아닌, 특히 어떠한 지원 없이 학교를 그만둔 이후 진로준비뿐 아니라 생활비나 용돈을 취해 당장 취업을 준비하거나 아르바이트를 전전한 사례가 많았던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경제적 지원이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준비에 매우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같은 맥락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은 아니었지만, 취업성공패키지의 일환으로 참여한 직업기술훈련 중 제공받은 적은 금액의 수당도 큰 도움이 되었음을 보고한 사례도 있었다(A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경험) 엄청 많이 했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교 안에 있었을 때보다 밖에 있었을 때 너무 속 편하게 생활했을 정도로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도 될까 싶은 정도로** (C3)

○○은행에서 XX계좌를 하나 만들면 거기로 입금을 해 주시는 시스템이고 **꿈드림 센터 프로그램 한 달에 5번 이상 출석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수당**이에요. (C9)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C10 청소년은 막상 자신이 학교를 그만두게 되면서 ‘인생 망한 거 아닌’가라는 절망과 우울을 경험했다. 이로 인해 정신과 치료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의뢰되어 상담을 받았었으나, 실제 이 청소년의 욕구는 자신의 미래, 진로에 대한 것이었고, 결국 꿈드림센터로부터 진로에 대한 상담을 받으면서 만족하게 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이 청소년은 진로에 대한 욕구가 컸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

의 심리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을 깊이 파악하고 다차원적으로 개입할 필요성과 함께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적절한 지원이 필요함을 잘 보여준다.

솔직히 자퇴생은 인생 포기한 애들이나 어디 잘못된 애들만 자퇴를 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자퇴한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앞으로 어떡하지? 인생 망한 거 아닌가 우울해 미칠뻔했거든요. 근데 막상 상담해 보니까 자퇴라는 게 그렇게 인생 망할 것까지 없는 일이라구요 (중략) 청소년상담센터 쪽으로 연결해 주신 걸로 기억합니다. 상담을 받았었는데 (중략) 저는 당장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대학을 갈 수 있고 이런 얘기가 하고 싶었는데 거기서 진행해 준 상담은 많이 힘드니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들어주려고만 해서 솔직히 귀찮았거든요. (꿈드림으로) 선생님 바뀌고 미래에 대해서 얘기도 해 주셔서 지금은 결과적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C10)

면접에 참여한 일부 청소년은 학교를 그만둔 이후에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학생 청소년, 또는 학교 밖 청소년인 것과 관계 없이 개인 차이라고 보았다(C2, C6). 즉 진로를 준비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은 학교의 진로교육과 같은 지원시스템보다 각자 자신의 진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의 개인의 역량에 따른 결과로 생각했다.

참여자 학교를 다니는 친구 중에서도 아직 꿈이나 학과, 대학을 못 정한 친구들도 많고 각자 힘든 것 같아요.

면접자 어떻게 보면 개인의 역량이지 학교 밖이나 안이나 그런 차이는 없는 것 같다?

참여자 네, 개인의 차이인 것 같아요. (C2)

면접자 오히려 학교 안에서 진로 교육은 시간때우기이고 의미가 없고 나는 밖에 있어서 시간 확보가 되어서 충분하다?

참여자 학교 밖, 안 이런 거랑 상관 없이 개인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C6)

표 IV-11. 진로 준비 관련 문제가 없거나 극복함

영역	범주	하위범주	구분	의미단위
문제가 없거나 극복함	원인 문제 해소	경제적 어려움 해소	집단A	- 학교 가는 것 대신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어서 좋았음. 학교 다니면 시간만 버림. 경제활동을 해서 기회가 더 많다고 생각함(A10)
		복교	집단B	- 복교후 충분히 할거 다하고 공부할 수 있어서 더 필요한 것 없음(B4)
	어려움 극복과 그 요인	지원을 통한 극복	집단B	- 친구랑센터, 꿈드림센터에서 진로 선택을 도와주고 대입 지원도 해줌(B2)
				- 꿈드림센터의 지원이 많아 부족한 점 없었음(B4)
				- 내일이룸학교, 꿈드림센터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 것이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되었음(B9)
			집단C	- 꿈드림센터가 검정고시 통과, 자격증 취득, 성취감 향상 등에 기여하였음(B7)
				- 급식, 교재, 진학관련 상담, 프로그램 상품권 등 꿈드림 지원이 많았음(C1)
				- 꿈드림센터에서 직업체험, 금융, 검정고시 등 입시 대비반 수업까지 지원받음(C2)
				- 꿈드림센터의 교육, 식비, 문화생활비 지원으로 학교 밖 생활이 행복했음(C3)
				- 꿈드림에서 교육참여수당을 받음(C9)

영역	범주	하위범주	구분	의미단위
				- 인턴십, 진학관련 꿈드림센터 상담이 도움이 됨(C10)
		개인역량	집단C	- 진로문제는 학교 안팎이 문제가 아닌 개인의 차이(C2) - 진로는 스스로 결정하는 개인 역량에 따른 것임(C6)

③ 극복을 위해 도움이 되는 지원, 또는 필요한 지원

가. 복교 지원 필요

앞에서 학교를 그만둔 이후 경험하는 진로와 관련한 어려움이나 취약성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있어서의 접근 방식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에게 본인들의 경험에 기초하여, 진로와 관련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생각되는 내용들에 대해 직접 청취함으로써 보다 직접적으로 지원 수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A6 연구참여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복교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학교를 그만둔 것을 후회하고, 현재 복교하여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B4 청소년 사례도 있지만, A6 참여자는 직접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보다 우선적으로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지원보다는 다시 학교로 갈 수 있게 이끌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학교를 안 갔던 사람들도 저처럼 나중에 후회를 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누가 뭐 어디 와서 뭘 도와주겠다고 해도 그때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도와준다고 해도 제가 안 갔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비슷할 것 같고 그래서 그것보다 학교를 다시 갈 수 있게 이끌어갈 수 있는 방향을 하는 게 지원이 나올 것 같아요. (A6)

나. 수요 맞춤형 지원 방식으로 개선

상당수의 연구참여자는 학교 밖 청소년이 희망하는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더욱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해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이야기하기도 하였으며(A6), 정책수요 대상인 학교 밖 청소년들의 흥미와 관심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접근해야 하고(A5), 나아가 개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하기도 하였다(B6). 특히 과거 직업전문훈련 제공 프로그램이었던 취업성공패키지를 경험한 A5 참여자는 이때 적은 금액의 수당도 함께 지원받은 경험이 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었음을 보고하였다.

본인한테 맞는 관심이 있는 게 있으면 여러 가지를 해보고 거기에서 더 자기한테 맞는 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략) 제가 직업학교 다니는 동안에 수당 같은 게 나와서 한 달에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중략) 왜냐하면 자취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지원 같은 게 있으면 좋겠네요. (A5)

다시 뭔가 한 가지 분야나 직업으로 정해지지 않고 최대한 다양한 것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중략) 그래서 학생들(청소년들) 개인 개인의 가장 베스트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B6)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직업선택이나 대학 진학 등 진로와 관련된 상담과 안내,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A6, A7, B2). 혼자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경험하면서 이들은 진로결정을 위한 자신에 대한 이해, 직업이나 대학의 학과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관련 기관 연계, 상담, 컨퍼런스 개최·참여 등 여러 방안을 제안하였다. 청소년쉼터에서 생활했다가 대학 진학 후 자취 생활 중인 B1 참여자는 진로준비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시료와 같은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희망했다. 이는 가족의 지지나 경제적 지원을 전혀 기대할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 경제적 지원이 확대될 필요성을 시사한다.

진로센터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도와주는 지원이라고 하면 그런데 이런 거 결정할 때 혼자 해야된다고 하니까 진로 상담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A6)

일단 뭔가 어렸을 때 자퇴했을 때는 정보가 너무 없었던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학교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뭔가 대학교 진학하고 싶다고 할 때 좀 더 명확하게 해 주거나 물론 직업을 갖겠다고 해도 정보를 안내해 주거나 이런 걸 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A7)

정보의 구체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직업 컨퍼런스도 가서 보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좀 더 구체적으로 자주해서 취업이나 아니면 잘 설명해 주는 세미나가 많아지면 좋겠어요. (B2)

학원비가 아니더라도 자격증 응시료 정도만 해도 훨씬 편할 것 같아요 (면접자: 응시료라든지 교재비나 재료비라도) 그 정도라도 좋으니까 그런 게 있으면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B1)

다. 다양한 진로직업 프로그램 운영, 제공

현재 꿈드림센터에서도 다양한 직업체험을 포함한 인턴십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이 여러 분야를 체험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사회에 나와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한 경험에 기초해서, 또는 관련 지원 경험을 토대로 진로직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조하였고(A6, A10, B6), 단기

적 체험이 아닌 더욱 장기적으로 지원이 되는 방식과 프로그램의 확대에 대해 제안하였다 (B8, C2).

직업훈련이 몇 가지 있긴 있었는데 (중략) 엄청 적었어요. 현장 쪽에서 일하고 싶었는데 바리스타나 다른 제과제빵 그런 부분밖에 없어서 다른 현장 교육, 훈련이 있었으면 하지 않았을까 생각은 해요. (A10)

내일배움카드 이런 거 말고 일반 학원 이렇게 전문적으로 학원 등록비가 되게 비싸요. (지정된 곳 말고) 내가 (일반 전문적인 학원을) 선택해서 하고싶은 (A6)

아무래도 여러 가지 체험을 다 해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이 아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지금도 있는데 큰 직업군 몇 개로 3, 4가지 뽑아서 소규모로 하는 경우다 보니까 완전히 그 직업에 대해서 알아가기가 어렵고 애들이 이거 괜찮을 것 같다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한두 개만 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B6)

우선 어떤 교육을 받는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끌고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 1일 체험은 많은데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건 많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요리 체험이 있으면 하루 가서 배우는데 그 뒤로 더 배우고 싶다고 하면 개인 사비를 써야되는 (B8)

표 IV-12. 진로준비 취약성 극복을 위한 지원 요구

영역	범주	하위범주	구분	의미단위
필요한 지원	복교 지원 필요		집단A	- 복교를 지원해야 함(A6)
	수요 맞춤형 지원 방식으로의 개선	지시/독려	집단A	- 계속 전화하고 독려할 필요가 있음(A6)
		흥미, 관심에 맞춘 지원	집단A	- 관심있는 걸 해보도록 하면서 본인에게 맞는 걸 찾도록 해야 함(A5)
			집단B	- 학생 개인에게 맞춤형 진로를 찾아주어야 함(B6)
		진로지도, 상담과 정보 필요	집단A	- 진로센터, 진로상담 필요(A6) - 대학진학이나 직업에 대해 명확하게 정보 안내 필요(A7)
			집단B	-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직업관련 컨퍼런스나 세미나 통해 모두가 지원을 잘 받았으면(B2)
		경제적 지원	집단B	- 진로준비를 위한 학원비, 자격증 응시료 등 지원 필요(B1)
	다양한 진로직업프로그램 운영, 제공		집단A	- 선택의 폭이 넓은 직업훈련 필요: 바리스타 제과제빵만 말고(A10) - 좀 더 다양하고 본인이 선택하는 전문적인 학원 지원이 있었으면(A6)
			집단B	- 다양한 분야 직업 등 경험하면 좋을 것. 지금은 너무 소규모임(B6) - 단기 체험이 아닌 장기적인 지원 필요(B8)
			집단C	- 진로관련 프로그램이 좀 더 많아졌으면(C2)

(5) 대학 진학 준비(대학입시 및 학업)에서의 취약성

① 대학 진학의 이유

앞에서 진로준비 전반에 대해 취약한 측면이나 어려움 등에 대해 다루었다면 여기에서는 본격적인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취약한 부분에 초점을 두었다. 최근 들어 학교 밖 청소년들의 대학 진학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대학입시전형이 다양해지면서 제도권 학교와는 다른 방식으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연구참여자 집단 중 특히 집단C에서 이러한 경향성이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이, 그래서 과거 학업중단 청소년으로 불리웠던 이들이 왜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먼저 살펴보았다. 각 집단별로 대학을 졸업했거나 재학중인 사례, 또는 구체적으로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연구참여자들 중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들을 정리하면 표 IV-13과 같다.

가. 가족의 기대 또는 자퇴 조건

A7 연구참여자는 대학원까지 진학한 사례로, 학교를 그만두는데 있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부모님이 내건 조건이었고, 점차 전공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대학원까지 진학한 사례이다. A9 참여자 역시 아버지와 조모에게 대학을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첫 단계인 검정고시를 준비했다. A9는 이후 대학에 진학했고 졸업 후 안정적인 취업을 한 상태였다. C10 연구참여자는 현재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먼저 어머니와 조모가 ‘강경하게’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점차 학벌 중심의 사회 분위기에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대학에 진학해야겠다는 강박을 갖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부모님과 자퇴를 한 조건이 무조건 대학교에 가는 거라서 갔었고 (A7)

아빠랑 할머니한테 꼭 대학 가겠다는 걸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어떻게든 검정고시라도 따려고 했던 것 같아요. (A9)

가장 큰 이유는 저희 집 어머니와 할머니가 강경하게 제가 대학을 가길 원하십니다. 개인 사정도 개인 사정인데 솔직히 저도 자퇴하기 직전까지 지금도 어렵듯이 대학 안 가면 뭐 해서 먹고 살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중략) 대학이나 학벌이 아직 중요하다는 인식이 남아 있다 보니까 저도 그런 편견이나 인식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서 어디서 불이익을 당하지도 않은 불이익이 무서워서 학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대학을 가야 한다는 강박도 있는 것 같습니다. (C10)

나. 자신의 의지, 더 나은 삶을 위한 대학 진학 선택

비록 제도권 공교육을 그만두었지만, 이후 자신의 의지와 더 나은 미래의 삶을 위해 대학에 진학했거나, 이를 준비하는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B5 연구참여자는 학교 재학시 또래관계에 어려움이 컸고, 이로 인해 학교 생활 자체를 많이 힘들어함에 따라 오히려 학교를 계속 다녔다면 대학 진학을 고려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았다. 학교를 그만둔 이후 그동안 힘들었던 인간관계 등에 대해 신경쓰지 않고 자신의 진로를 위해 대학진학을 준비한 사례였다. 학교를 그만둔 이후에 처음부터 대학진학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사례도 있었고(C1), 본인의 진로와 꿈을 이루기 위한, 또는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 등 현실적인 이유로 대학진학을 준비하기도 하였다(C3).

제가 학교를 계속 다녔으면 대학을 갈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중략) 저는 학교 자체가 힘들다고 할까 잘 안맞는 것 같고 거기서 일어나는 인간관계가 있잖아요. 그것도 저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는 그런 것만 신경 쓰느라 진로나 꿈 이런 건 신경을 못 썼는데 그만두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거든요. (B5)

그냥 뉴스를 봐도 중졸이면 딱히 할 게 없을 것 같아서 고졸 따고 대학교 가야 그래도 어디 회사에 가도 월급이 다르니까 그래서 처음 나올 때부터 대학에 가려고 생각했어요. (C1)

처음에는 대학 진학보다는 따로 진로가 있어서 진로 쪽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너무 현실적으로 대학을 가지 않으면 꿈을 이루기가 어려운, 만약 이루더라도 내가 그런 직업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가 대학을 나온 사람보다 더 힘들겠다고 느낀 거죠. (C3)

표 IV-13. 대학 진학의 이유

영역	범주	구분	의미단위
대학 진학의 이유	가족의 기대 또는 자퇴 조건	집단A	- 자퇴 조건이 무조건 대학에 가야 하는 것이었음. 부모님과의 약속(A7) - 아버지와 할머니에게 꼭 대학가겠다고 약속해서, 책임감으로 검정고시부터 열심히 함(A9)
		집단C	- 모의고사 일정 등급이 나오면 부모님도 자퇴 허락(C2) - 어머니와 할머니가 강경하게 대학 진학을 원함, 불이익 무서워서 대학 진학 강박 있음(C10)
	자신의 의지, 더 나은 직업을 위해	집단B	- 학교 그만두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 진학하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된 것. 자퇴안했으면 대학을 갈 생각도 안 했을 듯(B5)
		집단C	- 중졸·고졸로 어디 회사에 가도 월급이 다르니까 자퇴 때부터 대학진학 생각(C1) - 처음부터 대학진학은 아니었지만 현실적으로 꿈 이루기 어렵고 안정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대학 진학 준비(C3) - 일자리 지원할 것도 많고 고졸보다는 대졸이 더 뭔가 있어 보이니까(C4)

② 대학 진학 과정, 준비에서의 취약성

가. 정보 부재/고군분투

연구참여자들이 대학에 이미 진학했거나, 또는 대학진학을 준비하면서 경험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먼저 대학입시에 관한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경험하고 결국 혼자서 준비한 사례들은 과거 학교 밖 청소년들의 대학 진학 관련 지원이 거의 부재했던 시절에 학교를 그만둔 집단A에게서 더 두드러졌다. 대학입시 제도, 입시요강, 검정고시 점수 환산, 대학 학과와 직업 등에 대한 정보 부재로 혼자서 대학입시 준비를 했고, 당시 입시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없어 실제로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던 유료 컨설팅을 받기도 했다(A4, A7, A9). 특히, A9 참여자는 학교에 다녔다면 교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었던 대학 유형, 학과 및 입시 정보가 없어 혼자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면서 혼자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고 어려움을 보고하였다.

검정고시 점수가 어떤 학교에서는 이렇게 환산이 되고 저기 학교에서는 저렇게, 학교별로 환산되는 값이 달라서 그런 것도 그렇고 내 점수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까다롭다, 그런 것들이 어려운 것 같아요. (중략) **아무래도 뭔가 당시에는 제가 정보를 얻을 수 없잖아요.** (중략) 저는 검정고시 점수를 수시로 해서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제가 이걸 해서 뭘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전혀 제가 찾는 거 외에 알 길이 없었어요. (A7)

(정시 준비) 부족하겠네 그래서 **컨설팅을 알아보고 (유료) 결제해서 했죠.** 컨설팅 도움을 받는데 저는 도움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저희 친오빠한테 물어보면서 하고 있어요. (A4)

대학 종류나 어떤 대학교가 어디에 있고 이런 걸 오로지 제가 찾아서 해야 되니까 그게 막... 학교를 다니면 선생님들이 너 정도 성적이면 여기 정도 넣을 수 있다고 해 주잖아요. 저는 오로지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로만 찾고 어디에 어떤 학교가 있고 다 찾아서 스스로 혼자 해야 돼서 (A9)

이미 본격적인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경험했고, 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학 입학 지원이나 제도가 상당히 개선된 상황의 집단C의 사례들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에서 아쉬움을 보고하였다.

(대학)입시 **요강을 보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수시로만 검정고시 성적으로만 갈 수 있다고 해서 알아보는데 어떻게 알아봐야 될지도 모르겠고(C4)

(입시에서) **생기부 쪽이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학생부 대체 서식이 있긴 하지만 개네는 기본적으로 3년간 다니면서 쌓이는 게 어느 정도 있는데 **솔직히 저는 아직도 대체 서식에 뭘 넣어야 할지 감도 안 잡혀서** (중략) 대체 서식에 대한 제대로 된 안내도 없고 이게 들어가냐? 싶은 활동,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활동을 골라서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까지도 저는 제가 한 활동 중에 뭐가 대체 서식에 들어갈 수 있고 뭐가 해당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C10)

나. 구체적인 진학지원 부족

○ 진로계획, 설계에서의 어려움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 중에는 진학준비를 위해 구체적인 목표가 없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청소년도 있었고(B3), 혼자서 대입준비 계획이나 구체적인 입시전략을 짜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하였다(B9, B10). B9과 B10 참여자는 학교에 다녔다면 진학을 위한 계획이나 대학입시 준비가 구체적으로 가능했을 것으로 보았다. 특히 B10 청소년은 학생이었다면 담임교사와의 대학 입학 상담을 통해 대학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입시전략을 설계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자신은 혼자서 이러한 과정을 수행해야 함에 따라 더 어려웠던 경험을 호소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목표가 원래부터 있었으면 그걸로 달려가려고 준비하는 게 있으니까 그걸 계속 할 텐데 저는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총동적으로 자퇴를 한 거라 그래서 좀 뭘 해야 할 게 없었어요. (중략) 시간을 많이 낭비한 것 같아요 (중략) 그래서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혼자 자퇴하면 뭘 해야 할지 모르니까** (B3)

지금은 어차피 곧 대학 될 거라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별로 그런 게 없었는데 차라리 학교에 있었다라면 **솔직히 혼자서 하려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시킬 때 보다 더 안 하게 될 때도 있었거든요. **차라리 학교에 있었다면** (중략) 일단 학교는 여러 활동들도 그렇고 시간이 짜여져 있잖아요. (중략) 그래서 계획 세우는데 살짝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B9)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을 예를 들면 담임 선생님과 대화를 통해서 대학을 정하고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전략적으로 입시를 하잖아요. 저희는 아무래도 그런 경험을 해 줄 수 있는 분이 없다 보니까 스스로 알아보고 해야 되는 부분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B10)

○ 전문적, 체계적인 지원 부족

진학관련 정보 부재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지원을 받을 기회가 없었던 집단A 참여자에게서 많이 언급되었다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내용은 꿈드림센터를 통해 관련 지원을 어느 정도 받는 경험이 있는 집단B에서 여럿 나타났다. B5 연구참여자는 재학 중이었다면 학교에서 대학입시와 관련된 시험이나 원서작성 등에 대한 방법을 알려줄 수 있었겠지만, 학교를 그만둔 지금은 혼자 준비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B6 참여자는 학교 교사들이 입시준비에 대한 내용을 잘 알 수 있는 것과는 달리 꿈드림센터 종사자의 경우 직무상 검정고시 지원 이상의 것을 기대하기 힘들에 따라 구체적으로 입시준비를 하는데 지원받기가 어려웠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B6 청소년은 본인이 진로, 대학입시 등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있어 부모 역시 적절한 수준의 관여를 하지

않아 방임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망망대해에 빠진 느낌이라고 회고하였다. 이외에도 꿈드림센터에서 검정고시까지는 지원이 충분히 되고 있지만, 대학진학을 위한 수능 준비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례도 있었다(B7, B9). 집단C의 한 청소년도 위의 B5, B6 참여자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다면 학교 교사들이 도와줬을 것으로 진술하였다(C4).

학교를 다니면 학교에서 다 알아서 해 주잖아요 (면접자: 어떤 거죠?) **시험을 볼 때도 원서 쓰는 법 알려주고** 밥도 주고 이것저것 다 알려주는 곳이 학교인데 나오고 혼자 해야 되니까 그게 어려웠죠. (B5)

(꿈드림센터)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처럼 입시하는 학생들 많이 만나서 그런 걸 잘 아시는 분들이 아니고 (중략) **제가 입시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어떤 공부를 더하고 어떤 걸 더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지 상담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중략) (부모님이 터치를) 안 하셨던 게 저한테는 방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스트레스가 컸거든요. 어느 정도는 터치를 해 주면 좋겠는데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오히려 망망대해에 빠진 느낌이었거든요.** (B6)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다 도와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들이 알아봐주고 그러는데 저는 옆에서 알려주는 선생님 아무것도 없고 그나마 저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찾아보고 (C4)

○ 대입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전략 미흡

학교를 그만둔 이유나 목적이 대학입시가 대다수였던 집단C의 연구참여자들은 보다 구체적인 입시 준비나 전략이 부족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C2, C3, C9 같은 연구참여자들은 희망 전공과 관련된 대회 참여 정보 제공, 학생생활기록부 작성 등이 학교 재학 중이었다면 대학입시에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현재 학교에서의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혼자서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였다. C10청소년도 학생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인 청소년생활기록부 작성에 대해 어떻게 내용을 기입할 것인지 알지 못해 막막한 소감을 전했다. 특히, C3 참여자는 검정고시로 응시할 수 있는 수시 전형의 한계(이에 대해서는 B10 참여자도 같은 의견을 제시함)와 수시 전형에 도움이 될 활동이나 프로그램도 혼자서 다 찾아봐야 해서 참여가 어렵다는 이유로, 그리고 C10 청소년은 청소년생활기록부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 제한 등으로 학생 청소년에 비해 실제로 대학입시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교 자체에서 하는 대회나 아니면 공모전을 선생님들이 알려주시거나 이런 것도 ○○ 대회나 콘테스트에 참여해서 도움이 되는 건 있었을 것 같아요. (중략) 저희 제가 있던 반에 저랑 똑같이 ○○ 학과 진학을 원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실제로 그 선생님이 알려주신 공모전에 지원해서** 입상을 해서 생기부에도 넣고 (C2)

실제로 입시에서 불리함이 있어요. 어제 수시 상담을 다녀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검정고시 출신자는 일반 학교를 다닌 학생들보다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없고 (중략) 학교 같은 경우는 자기 입시를 위해서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대회나 거기에 참여하는데 더 어려워요. (중략) 학교 밖 청소년은 그거 하나하나 모두 스스로 찾아야 돼요. (C3)

생기부 쪽이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학생부 대체서식이 있긴 하지만 개네는 기본적으로 3년간 다니면서 쌓이는 게 어느 정도 있는데 (중략) 자퇴를 한 제 책임일 수도 있지만 (중략). 아직까지도 저는 제가 한 활동 중에 뭐가 대체서식에 들어갈 수 있고 뭐가 해당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C10)

표 IV-14. 대학 진학 과정, 준비에서의 취약성

영역	범주	하위범주	구분	의미단위
대학 진학 과정, 준비에서의 취약성	정보 부재/고군분투		집단A	- 입시제도를 잘 몰랐고, 검정고시 점수 환산 등 입시 정보를 얻을 수 없어서 입시 준비가 어려웠음(A7) - 늦게 대학준비를 하면서 부족한 것 같아 유료 컨설팅 받음(A4) - 학교를 그만두고 대학교 과와 직업에 대해 잘 몰랐고, 학교 교사가 해줄 수 있는 일을 혼자 인터넷 찾아보면서 하느라 어려웠음(A9)
			집단C	- 검정고시 성적으로 수시로 대학가려고 입시 요강을 봐도 모르겠음(C4) - 검정고시와 대체 서식으로 진학할 수 있는 학교와 방법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막막함(C10)
	구체적인 진학 지원 부족	진로지도, 설계에서의 어려움	집단B	- 목표 없이 충동적으로 자퇴해서 혼자 뭘 해야 할지 모름(B3) - 학교에 있었다면 괜찮았을텐데, 혼자서 계획 세우는데 힘들음(B9) - 대학입시를 위한 구체적인 설계나 전략적 입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스스로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어려움(B10)
		전문적, 체계적인 지원 부족	집단B	- 학교에서는 시험을 보고 원서 쓰는 법도 알려주지만, 지금은 혼자 해야 되니까 어려움(B5) - 학교 교사처럼 전문적으로 입시를 잘 아는 것이 아니어서 입시 준비가 어려움(B6). 부모의 적절한 관여도 없어서 망망대해에 빠진 느낌. - 검정고시 이후 수능이라 대입과 직접적 연결고리가 없는 편. 수능준비가 되게 열악했음(B7) - 대학진학 준비 및 지원 부족(B9)
			집단C	- 학교를 다녔다면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다 도와줬을 거라고 생각, 알아봐 주고 찾아보고 (C4)
		대입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전략 미흡	집단B	- 대학입시에서 검정고시 성적으로 안되는 학교가 있어서 아쉬움(B10)
			집단C	- 학교 교사를 통해 희망하는 전공관련해서 ○○ 대회나 콘테스트 참여 도움 등 받았을 듯(C2) - 검정고시 출신자는 일반 학생들보다 입시 불리함. 대입에 도움되는 프로그램이나 대회를 혼자 찾아서 참여해야 함(C3) - 학교에서 생기부 작성에 교사의 도움이 있는데 혼자하려니 어려움(C9): - 생기부 작성에 어려움이 있음(C10)
	경제적 문제/가족의 지원		집단A	- 대학을 가고 싶지만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없을 것 같아 진학 안함(A6) - 어차피 집에서 대학 진학 준비를 도와주지 못함(A9)
			집단B	- 자취생활, 입시준비를 위한 교통비도 부담됨(B1) -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약한 과목 과외 등을 받지 못함(B5)
			집단C	- 대학 진학과 관련하여 금전적인 문제 등록금이 걱정이라서 진학 고민(C5)

다. 경제적 문제/가족의 지지 등

기본적으로 가정 배경, 즉 경제적 문제나 가족의 지원이 없어 대학 진학에 어려움을 경험한 사례가 모든 집단에서 관찰되었다. A6 연구참여자는 대학 진학을 희망했지만, 일과 학업을 병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여 진학하지 않았고, A9 참여자는 과거 학교 재학 시에도 학원에 다니지 못했던 가정환경이었음을 볼 때, 대학 진학을 위한 준비가 불가능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집단B의 사례들은 다소 양상을 달리하였는데, 집을 나와 청소년쉼터 생활을 했던 B1 참여자는 대학등록금, 자취 생활, 교통비와 같은 전반적인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부담을 호소하였고, B5 청소년은 대학진학과 관련하여 본인이 취약한 과목 보충을 위한 과외나 학원 등을 가정의 경제적 이유로 받지 못했다고 토로하였다. C5 청소년은 대학등록금에 대한 부담으로 대학진학을 고민하기도 하였다.

학교를 가도 어차피 제대로 진짜 열심히 안 할 거면 영원히 졸업 못한다고 얘기를 해서 지금은 내가 일하면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을까 해서 그거 때문에 안 갔던 것 같아요. (A6)

(등록금을) 제가 부담해야 되는데 아예 못 받게 되면 300만 원 가까이 제가 다 내야 되는 거죠 (중략) 혼자 살아가야 되니까 쉼터에서는 의식주나 교통비 다 지원됐는데 혼자 살아보니까 교통비가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식비도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서 새삼 깨달았습니다. (B5)

③ 취약성이 없거나 극복함

가. 오히려 대학입시(준비)에 도움이 되었음.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정규 제도권 학교를 그만두고 일찍 진학 준비를 시작한 것이 대학 입시나 입시 준비에 더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현재 대학생인 B1 연구참여자는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위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학교를 그만둔 큰 장점으로 생각하였고, B2 참여자는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대학진학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C1 청소년은 학교에서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것이 더 어려우며, 경쟁 없이 학교 밖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또 다른 청소년은 학교를 다녔던 과거로 돌아간다면 학교를 더 일찍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일찍 마친 후 대학 진학준비를 해서 또래보다 더 일찍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C2).

일단 정규 학교에 들어가면 제가 관심이 없는 것도 들어야 되잖아요. (중략) 제가 먼저 하고 싶은 걸 찾아서 제 시간에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장점인 것 같아요. (B1)

(대학진학에 학교 밖이) 오히려 유리한 것 같아요. 엄청 높은 학교만 아니면 지방에 있는 그냥 그런 대학교는 생각보다 검정고시가 쉽게 들어가더라고요. 장학금 받긴 힘들겠지만 (B2)

(대학진학은) **학교에서 가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학교는 조별 과제도 있고 모둠 수업도 있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제가 노력한 만큼 점수가 나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C1)

나. 개인적 차원의 지원

가족과 친구, 그리고 직장 동료들의 대학진학관련 정보 제공 등 개인적 차원의 지원이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된 사례들이 있었다. A4 연구참여자는 뒤늦게 취업과 직결된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 유료 컨설팅을 받은 경험도 있었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다. 결국 친오빠인 가족과 직장 동료의 조언을 통해 대학 결정과 학점은행제와 같은 진학과 관련된 준비를 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B10 참여자는 개인의 역량 외에 친구 소개 등 사회적 관계를 통해 지원기관을 찾을 수 있었다.

(대입 준비에서) 일단 저는 **개인의 역량이란 사회적인 관계가** 가장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 기관도 제가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됐고 이런 식으로 관계를 통해서 정보를 얻은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B10)

다. 공적지원 도움

대학진학을 준비하면서 꿈드림센터와 같은 공적 지원의 도움이 컸다고 보고한 사례들은 본격적인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경험에 있는 집단B와 집단C에서 다수 관찰되었다. B1 연구참여자는 혼자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대학입시를 준비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학교 대신 청소년쉼터와 꿈드림센터의 도움이 있어 많이 어렵지 않았다고 하였고, B4와 B7 참여자들도 대학입시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검정고시 준비 지원부터 꿈드림센터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회고하였다. 대학진학과 관련해서 더욱 본격적인 지원을 받은 집단 C의 청소년들은 검정고시 교재 지원과 인터넷 강의 지원뿐 아니라 수시입학 등 진학상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이로 인해 경제적 부담도 덜었고(C1, C3), 시·도센터에서 주관한 입시컨설팅도 받을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C10).

(대학 진학 방법) 직접 찾아야 되는데 학교에 있으면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면서 좀 더 편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학교 선생님이 없는 대신, **쉼터 선생님이랑 꿈드림 선생님이 있어서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B1)

그냥 진로, 수시 그런 거 해 주고 있고 **검정고시 도와줄 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진로를 위해서 검정고시를 쳐야 되니까 (중략) 지금도 하고 있지만 **진학 상담도 도와주시고** (C1)

표 IV-15. 대학진학 준비에 취약한 부분이 없거나 극복함

영역	범주	구분	의미단위
취약성이 없거나 극복함	오히려 대학입시 (준비)에 도움이 되었음	집단B	- 학교에서 모든 수업을 듣기보다 하고 싶은 것만 찾아서 할 수 있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 좋았음(B1) - (입결이) 아주 높은 학교만 아니면 오히려 대학 진학이 더 수월하고 유리한 것 같음(B2)
		집단C	- 학교 다니면 대학진학이 더 어려운 것 같음(C1) - 과거로 돌아가면 더 빨리 자퇴할 듯. 남들보다 빨리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C2)
	개인차원 지원	집단A	- 가족(오빠)의 조언, 직장 동료의 정보 제공으로 대학준비에 도움 받음(A4)
		집단B	- 개인적 역량과 친구 등 사회적 관계가 도움이 됨(B10)
	공적 지원 도움	집단B	- 혼자 검색하면서 진학준비했으나 그래도 센터와 꿈드림 덕분에 어렵지 않았음(B1). - 꿈드림에서 검정고시 포함 큰 지원해줌(B4) - 꿈드림에서 제일 많이 도움을 받음(B7)
		집단C	- 꿈드림의 수시입학 등 진학상담, 검정고시 교재, 인강 등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없어짐(C1) - 아빠가 괴롭히지 않고 꿈드림의 지원(꿈드림 종사자)덕분에 어려움 극복함(C3) - 꿈드림 입시컨설팅: 대체 서식이 힘든 것 말고 불평등 없다고 생각(C10)

④ 대학진학관련 지원 요구

가. 진로적성탐색 및 상담 지원, 인력 확대

대학진학과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지원에 대해 연구참여자들은 학교에서와 같이 전문적인 진로상담교사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꿈드림센터에서도 학교 교사와 같은 역할을 해 줄 인력을 필요로 했다(B6, B10). 또한 학교에서처럼 외부 강사를 통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확대를 희망하기도 했다(C2). C10 참여자는 대학관련 상담을 위한 인력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꿈드림센터에 방문하여 진학상담을 하려고 할 때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체감된 것으로 보이며, ‘맡아줄 선생님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꿈드림에서 이런 지원(대학진학 관련)을 다 할 수 있게 학교 선생님처럼 이런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B10)

센터에 들어서서 상담 요청을 드릴 때마다 선생님이 너무 힘들게 일하시는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맨날 갈 때마다 서류 정리를 하고 계시고.. 선생님 저 상담하러 왔어요. 그러면 하급지급 와서 상담을 하고 끝나면 또 상담이 있고, 프로그램 진행도 하시고... 자주 상담을 요청하기가 죄송한 경우가 있어요 (중략) 저희를 맡아줄 선생님들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C10)

다. 구체적, 실질적인 입시지원 필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경험이 있는 집단B, 집단C의 청소년들은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학진학 지원을 희망했다. 수능준비를 위한 개별적인 교과목 지도나(B5), 교재 지원 및 관련 수업 등의 프로그램 확대와 대입상담 및 설명회나 박람회 개최에 대해서도 언급하

였다(B9). B5 청소년이 언급한 내용은 과거 학교 재학 시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특정 교과목에 대해 개별 학습 지도를 해준 경험을 회고한 것이었는데, 이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개별적인 역량을 고려한 눈높이 지원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수능대비반이나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간의 필요성과 학교에서와 같은 수준의 인터넷 강의 제공을 희망하는 사례도 있었다(C7), 한편으로, 이러한 내용은 마치 입시학원을 연상시킬 수 있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과 꿈드림센터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대학진학과 관련된 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주요 서비스전달체계인 꿈드림센터의 당초 역할에 더해 학교 밖 청소년의 변화하는 욕구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범위의 대학 진학을 위한 지원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필요성도 함께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냥 학교에서는 학원 같은 사교육 말고도 학교 안에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2학년 선배가 수학을 도와주거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다녔으면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B5)

대입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검정고시 대비반처럼 수능 대비반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중략) 약간 좀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처럼 어떤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공간이 있긴 있는데) 약간 문화 공간 청소년들이 쓸 수 있는 큰 교실이나 아니면 밴드 연습실이나 이런 게 붙어 있어서 뭔가 조용한 그런 공간은 아닌 것 같아요. (C2)

표 IV-16. 대학진학을 위한 지원 요구

영역	범주	구분	의미단위
대학 진학 관련 지원 요구	진로적성 탐색/상담/ 지원 인력 확대	집단B	- 학교처럼 전문 진로상담교사가 있었으면(B6) - 꿈드림에서 이런 지원들을 다 할 수 있게 학교 선생님처럼 이런 역할을 해줄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좋을 듯(B10)
		집단C	- 학교에서처럼 더 외부 강사들이 방문하여 진로와 관련된 체험을 하게 해주거나 프로그램이 더 많았으면(C2) - 꿈드림에서 진학상담 종사자가 부족함(C10)
	구체적, 실질적인 입시지원 필요	집단B	- 학교에서 선배들이 수학 도와주거나 하는 것처럼 개별 학습지도 필요(B5) - 교재와 수업 등 프로그램 추가되면 좋을 듯, 대입상담 및 설명회, 박람회 등(B9)
		집단C	- 수능 대비반,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와 같은 학습 공간 필요(C2) - 학교에서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의 인터넷 강의가 많았으면(C7)

(6) 취업과정에서 경험하는 취약성

많은 청소년들이 대학에 진학했거나 대학진학을 염두에 두고 입시준비를 하고 있어 취업과 관련된 내용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사회에 조기 진입하면서 상대적으로 아르바이트를 많이 경험하였고, 연령 특성상 상당수가 취업한 집단A와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은 집단B의 사례들이 대부분이었다.

① 취약성 경험

가. 취업상황에서의 불편함, 불리함

○ 이력서 작성 시 경험하는 불편함

집단A 사례들은 취업을 준비해 본 경험이 많았고, 이에 따라 이력서 작성에서부터 불편함을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전했다. A7 연구참여자는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것 때문에 학교를 그만둔 것을 숨기고 싶어했다. 이 참여자는 “여전히 좀 자퇴를 하는 게 제 생각에는 이상한 일이잖아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고등학교를 다니고 평균적인 삶이잖아요”라고 진술하였고, 본인이 그에 속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고등학교 학력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이력서의 경우 기회 자체를 만들지 않으려 했다고 회고하였다. A9 참여자 역시 이력서에 고등학교부터 기입하도록 되어 있는 이력서 양식이 약점으로 느껴진다고 하였다.

근데 저는 뭔가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학력란에 저는 어차피 대학교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왔으니까 대학교부터 적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부터 적혀 있는 이력서가 있었어요. 올려주신 이력서가 그러면 안 쓰게 되더라고요. 여기는 후보지가 있으면 배제하고 대학교부터 적어도 되는 곳으로 적고 뭔가 제가 한 고민이 학교랑 뭔가 취업적인 고민이라면 뭔가 아예 자퇴한 거랑 관련이 없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마다 요구하는 이력서가 다르잖아요. **고등학교 라인이 있으면 안 쓰게 되더라고요. 우선순위에서 일단 배제시켜놓고 한 번도 고등학교를 적으라고 한 곳에 이력서를 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A7)

취업할 때 (이력서에) 고등학교까지 다 적는 회사가 있는데 넣는 자원하는 양식 자체 고등학교를 검정고시 졸업 이런 식으로 적는 게 없는 회사도 많아요. 그런 게 약점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A9)

집단B의 한 청소년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한 이력서 작성에서 고등학교 학력을 기본적으로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 본인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외감을 느꼈고, 또 검정고시로 기재했을 경우 편견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B6). 심지어 서류만으로 본인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었던 경험(비행청소년으로 오해받음)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문구점이나 다○소에서 파는 이력서를 사서 (작성)했었는데 거기는 학력이 무조건 들어가 있잖아요. 신경이 쓰여서 검정고시 졸업했다고 그러면 사실 아직 편견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중략) 이력서 자체가 회사나 사람들 받을 때 제일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을 해 주는 건데 거기에 어떤 한 가지는 제가 해당이 될 수 없는 것들 기본적으로 항상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고 (중략) 서류만 보면 그냥 저를 보는 편견을 갖지 않을까 검정고시를 봤으니까 옛날에 일진이었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B6)

○ 면접상황에서의 불리함

취업 시 반드시 필요한 이력서 작성에서부터 불편함을 느꼈던 학교 밖 청소년들은 면접에서도 불리할 것으로 예상하여 긴장하거나, 실제로 불편한 경험을 하였다. B5 연구참여자는 아르바이트를 위해 면접을 여러 차례 경험했지만, 대부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채용이 되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비속어를 들으면서 일탈 청소년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또 다른 청소년 역시 나이 제한으로 아르바이트를 찾기 어려웠지만, 아르바이트 면접 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부정적이었다고 회고하였다(B8).

면접을 여러 군데 많이 봤거든요. 거의 대부분 미성년자라서 안 써주셨고 학교를 안 간다고 하니까 양○치냐고 물어보신 분도 계셨어요. (B5)

저는 일단 알바 구할 때 나이 제한이 크다는 점 그리고 가끔 만나시는 분들께 학교를 안 다니고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했을 때 소수의 분 들이긴 했지만 표정이 썩 유쾌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말로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않는데 바라보는 시선이 좋진 않았어요. (B8)

또 다른 청소년은 검정고시 보기 전에는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것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했지만, 이후에는 어려움이 없었다고 보고하였다(C8). 이 청소년은 아르바이트 구하는데 있어 불편함 등에 대한 질문에서 “그냥 중퇴라서 잘 안 뽑아서”라고 답했다.

나. 희망과 다른 기술훈련

A6 참여자는 일반 정규 학교를 그만둔 이후 대안교육기관 형식의 직업학교에서 기술훈련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당시에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본격적인 지원이 부재했고 특히 현재의 내일이룸학교와 같은 취업을 위한 지원도 없었고, 종교재단의 직업기술학교에서 취업을 위한 기술훈련을 받았다. 그러나, 제공된 훈련프로그램이 상당히 제한적이었고 당장 경제적인 필요 때문에 열심히 참여했지만 희망하는 일은 아니었다고 회고했다.

○○(기술)학교는 제가 원했던 진로도 아니었어요. 일단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어찌어찌 들어가서 열심히 하고 취업한 건데 **하고 싶은 진로는 아니었죠**. 선택지가 많으면 고민하고 내가 관심이 있으면 재밌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선택지가 딱 2개밖에 없어서 심지어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돈은 벌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열심히 했죠**. 근데 원하는 건 아니었죠. (A6)

② 극복요인

가. 개인적 차원의 극복 요인

○ 노력과 자신감

취업준비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한 참여자들과 또 취약점을 극복한 사례들을 살펴본 결과, 개인적 차원에서의 여러 요인과 지원체계 연계를 통한 이점이 도출되었다. A9 참여자는 학교를 그만둔 것이 취업에 있어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을 통해 대처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다행히 취업에 도움이 되었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B8 참여자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면서 경험한 부정적인 시선들에 대해서 예상했던 일로 생각했고 신경쓰지 않으려 노력했다.

뭔가 나는 **자격증으로 승부해야겠다** 이런 것들 (중략) 내세울 수 있는 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중략) 저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A9)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좋지 않은 시선) **신경 안 썼던 것 같아요** (중략) 이미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안 가기로 결정하면서 이럴 거라고 예상했고 워낙 원래부터 성격이 그런 거 크게 신경을 안 써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고 변하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B8)

○ 시간과 경험

A5 연구참여자는 학교를 중도에 그만두었지만, 사회에 일찍 나와 경제적 소득과 함께 기술을 배우면서 먼저 적응하고 더 빨리 성장한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A10 참여자는 학교를 그만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고 했고, 여러 다양한 경험들이 축적되어 취업하는데 별다른 문제를 경험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일단 돈을 먼저 벌 수 있고 뭔가 기술이나 이런 걸 배울 시간이 많아지고 사회에 먼저 적응하게 되니까 어린 나이여서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사회에 먼저 적응하니까 그런 부분은 남들보다 빨리 성장하지 않을까** (A5)

(학교를 그만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됐어요. 아무래도 이것 저것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경험들이 쌓여서 다 비슷하게 연결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취업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A10)

나. 지원체계 연계의 장점

B1 연구참여자는 기관에서 연계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편견을 경험하거나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꿈드림센터를 통한 지역 내 아르바이트 연계 사례를 통한 것으로 이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단순한 일자리 제공 이상의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구하면서 불편한 경험을 했던 사례들과 비교할 때, B1 참여자의 경험은 이러한 지역 내 아르바이트 연계 필요성을 더욱 잘 조명해준다.

면접자 그러면 과거 꿈드림에서 연계된 데서 아르바이트하셨는데 일자리를 구하거나 이럴 때도 느껴지는 어려움은 없었나요?

참여자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저 혼자 제가 만약에 학교 밖인데 혼자 자리를 구했으면 편견 있는 시선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기관에서 연계를 해 주는 거니까 저보다 기관을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힘들었던 적은 없었어요.** (B1)

③ 지원 요구: 청소년이 일할 수 있는 기회 제공

B5 연구참여자는 미성년자들의 취업 기회 확대, 즉 청소년들이 기관 연계를 통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B8 참여자도 나이 때문에 아르바이트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보고했는데, 앞서 이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희망하고 있어도 쉽게 기회를 얻지 못하고, 또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을 경험한 것을 살펴본 바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것과 관련된 심리적 부담을 갖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내 꿈드림센터와 지자체, 또 해당 업체와의 연계 및 협력이 매우 필요하다.

나라나 시에서 어떤 업체들이랑 협력을 해서 미성년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어요. (B5)

사실 알바 구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나이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정말 적구나(후략) (B8)

취업에서의 취약한 측면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집단A의 경우 진로준비와 자립지원 요구와 관련하여 대부분 언급함에 따라 다음에서 다루었으며, 집단C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표 IV-17. 취업과 관련된 취약성 경험 유무 및 내용, 지원 요구

영역	범주	하위범주	구분	의미단위
취약성 경험	취업상황 에서 불편함, 불리함	이력서 작성 시 불편함	집단A	- 고등학교 학력을 적어야 하는 이력서는 쓸 생각도 하지 않고 배제시킴(A7) - 이력서에 고등학교부터 적는 양식→약점으로 느껴짐(A9)
			집단B	- 아르바이트 이력서 쓸 때 양식에 고등학교 학력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음(B6)
		면접상황에 서의 불리함	집단B	- 면접을 여러 군데 봤는데 학교 안다니라고 양○치냐고 했는데, 현재 알바 는 학교 안다니니 더 많이 일할 수 있다고 좋게 봐줌. 아이러니(B5) - 알바구할 때 표정이 썩 유쾌하진 않았음. 시선이 안좋았음(B8).
	직업훈련의 한계 (희망/적성과 다른)	중퇴가 이유	집단C	- 중퇴라서 잘 안 뽑는다고 생각(C8)
			집단A	- 원하는 진로는 아니었지만 진로(직업기술) 선택지가 제한적이어서 어쩔수 없이 관련 기술을 배워서 취업함(A6)
극복 요인	개인적 차원의 요인	노력과 자신감	집단A	- 자격증으로 승부, 취업준비 어려움 없었음.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있었음 (A9)
			집단B	- 부정적 시선을 신경쓰지 않는 것으로 극복하려함(B8)
		시간과 경험	집단A	- 사회생활(직업, 기술) 경험과 이른 사회생활을 통한 조기 적응(A5) - 이것 저것 경험을 많이 해서 취업에 어려움이 없었음(A10)
	지원체계 연계의 장점		집단B	- 기관연계 아르바이트를 통해 편견을 경험하지 않음(B1)
지원 요구	청소년이 일할 기회 제공 희망		집단B	- 지자체-업체 협력을 통해 미성년자 일자리 기회를 주면 좋을 듯(B5)

(7) 자립, 자립준비에서의 취약성

① 자립의 의미

학교 밖 청소년이 우리 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을 강조하기에 앞서 먼저 이들이 생각하는 자립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각 집단별로 연령대와 학교 밖 경험, 지원 경험, 성장 과정에 큰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이들이 자립에 대해 연상하는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혼자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서 집단A는 현재 모두 성인이어서 대부분 취업한 상태로 스스로 자립했다고 생각하였는데, 예를 들어 A5는 생활비를 벌어서 혼자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A6 참여자는 직장도 있고 이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립했다고 보고하였다. 집단B와 집단C는 연령을 포함한 여러 여건이 자립하기에 이른 상황이지만, 역시 취업해서 경제적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거나(B4, B6, B8), 부모님 도움 없이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C6, C9).

(자립은) 일단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도움 없이 혼자 처리할 수 있을 때 자기가 한 상황을 책임질 수 있는 (A10)

일단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자기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여야 자립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자기가 저축을 하든 소비를 하든 어디 돈을 쓰든 자기가 직접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중략) 흔들림이 없을 정도로 마음이 단단해야 되고 그런 상태를 자립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B6)

여기에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는 심리적 요인을 함께 자립의 조건으로 언급한 사례도 다수 관찰되었다. A7 연구참여자는 집세 등 경제적으로도 모든 일을 혼자 처리해야 하지만 여기에 정신적인 독립도 함께 포함된다고 하였고, 다른 참여자들도 어떤 지원도 없이 혼자 살 수 있어야 하며,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A8, A9, A10). 집단B의 청소년들도 자립에 대해 경제적, 심리적, 정신적인 독립을 이야기했으나(B1, B2), 이와 관련하여 B5 참여자는 자립은 직접 판단할 수 있고, 마음이 단단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심리적인 독립을 강조하였다. B10 참여자는 스스로 자기 길을 준비하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집단C의 참여자들도 비슷한 맥락으로 자립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경제적인 활동에 더해 스스로 책임지고 혼자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언급하였다(C2, C7, C8). C10 참여자는 자립은 홀로서기이지만 책임도 져야 한다고 하였다.

자립과 관련하여 다소 예외적으로 이야기한 사례도 있었다. 집단A의 한 연구참여자는 주택구매와 같은 경제적인 독립 때문만이 아니라 가족과 자녀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립했다고 보고하였다(A2). 전통적으로 자립 및 성인의 조건에 포함되는 결혼 및 자녀와 관련된 내용에 부합하는 거의 유일한 진술로, 이외에는 가족구성, 자녀 유무에 대한 내용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표 IV-18. 자립의 의미

영역	범주	구분	의미단위
자립의 의미(또는 자립했다고 생각한 다면 그 이유)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혼자 생활할 수 있는 것	집단A	- 자립은 스스로 독립하는 것으로, 생활비를 벌어서 혼자 생활하고 있으므로 자립했다고 생각함(A5)
			- 집도 있고 직장도 있어 자립했다고 생각(A6)
		집단B	- 취업을 해서 제 스스로 돈을 버는 게 가장 중요(B4)
			- 자립은 경제적으로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여야(B6)
			- 자립은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스스로 살아가고 돈 벌고(B8)
		집단C	- 혼자 먹고 살 수 있는 것(C6)
			- 경제적으로도 부모님 도움 없이 혼자, 스스로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C9)
	경제적 독립에 더해 스스로	집단A	- 자립은 혼자 모든 걸 다 하는 것, 집세도 내고 경제적·정신적 독립이 되어야(A7)
			- 자립은 내가 한 일에 책임지는 것. 자신은 자립했다고 생각(A8)
			- 어떤 지원도 없이 혼자 살 수 있으면 자립임(A9)

영역	범주	구분	의미단위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함		- 자립은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 없이 혼자 처리하고 책임질 수 있는 것(A10)
		집단B	- 경제적, 정신적으로 독립해야 성인(B1) - 자립은 경제적, 심리적 자립을 의미(B2) - 성인은 미성년자 제한은 없어지지만 책임을 져야 함(B3) - 자립은 혼자서 살아갈 수 있고, 직접 판단할 수 있으며, 흔들림 없이 마음이 단단해야 됨(B5) - 자립은 본인이 독립을 하고 스스로 혼자가 자기 길을 준비하는 것(B10)
		집단C	- 자립은 돈을 직접 벌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C2) - 자립은 부모님 영향 받지 않고 스스로 행동하는 것(C7) - 혼자 살 수 있는 힘이 있어서 혼자 나가서 사는 것(C8) - 자립은 홀로서기 속박 없이 그러나 책임도 져야(C10)
	가족과 자녀가 있음	집단A	- 스스로 자립했다고 생각(A2): 가족도 있고, 집도 샀고 아이도 있고.

② 자립에서의 취약성

A집단은 대부분 자립했다고 생각했고, 또 실제 진로와 자립 과정을 모두 경험함에 따라 진로준비에서 자립관련 내용까지 연결 지어 응답함에 따라 여기에서는 집단B와 집단C의 연구참여자 소수가 이야기한 내용들을 제시하였다. 먼저 B7 참여자는 보편적 지원 없이 혼자서 진로 및 자립을 준비하는 것이 부담이 되었으며, 또 다른 B10 청소년은 자립에 있어서의 불리함이나 취약성은 개별 학교 밖 청소년 삶의 태도에 따라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집단C 청소년들의 응답은 앞에서 집단A와 집단B에서 진로준비와 관련한 이야기와 유사한 내용을 자립에서의 불리함으로 보고하였다. C3 연구참여자는 다양한 또래 교류가 불가능하고, 정보 및 인맥 부재를 꼽았고, C10 참여자는 최종학력이 고졸 검정고시에서 그친다면 자립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자립과 관련하여 불리하거나 어려운 점들에 대해 취약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서 몇몇 집단B와 집단C의 청소년들은 이에 대해 별도로 느끼지 못하거나, ‘없다’고 응답하였다.

아무래도 다수가 있는 공간에서는 보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고등학교를 다니다 보면 사실 고등학교 졸업 자체는 그 커리큘럼을 따라 가다 보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걸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면에서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B7)

또래를 다양하게 만날 수 없는 것이 어렵죠. ... 정보를 얻는 게 정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보다 어려움이 있고요 (중략) 정규 학교를 다녔을 경우에는 거기서도 노는 친구들이 있지만 대부분 다 어쨌든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지식도 교환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인맥을 얻을 수 있는 반면에 학교 밖 청소년들은 그렇게 공부에 뜻을 둔 학생들이 많은 편이 아니에요. (C3)

표 IV-19. 자립관련 취약성에 대한 생각

영역	구분	의미단위
자립에서의 취약점	집단B	- 보편적 지원 없이 혼자서 감당해야하는 부담(B7) - (삶의 태도에 따라) 개인마다 다름(B10)
	집단C	- 또래를 다양하게 만날 수 없고, 정보 부재, 인맥 부재(C3) - 최종학력이 검정고시라면 불리할 듯(C10)
취약한 면이 없거나 잘 모르겠음	집단B	- 아르바이트 하는 정도여서 특별히 느끼지 못함(B6) - 없음(B8) - 모르겠음(B9)
	집단C	- 학생과 다르지 않음(C1)(C2) - 없음(C6)

③ 취약한 측면 극복 방법

자립과 관련하여 특별히 취약한 점을 언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각자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을 언급하였다. 먼저 개인의 노력과 의지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또 필요한 부분이라는 범주가 도출되었다. 집단A에서는 열심히 적금을 들면서 꾸준히 일하고 노력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였다고 하였고(A5, A6), 특히 A10 연구참여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히려 더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 수 있게 해주었고 학교를 그만두면서 빨리 자립할 수 있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외에도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다고 언급하거나(B10), 스스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사례도 있었다(C3). 개인이 아닌 지지체계의 도움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 부모님이나 사적인 지지체계의 도움(B6)과 국비를 통한 자격증 취득 지원(A10) 및 연계된 지원 기관들의 도움으로 자립할 수 있었다고 보고한 참여자들도 있었다(B1). 특히 B1 청소년은 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었는데, 청소년쉼터와 꿈드림센터와 같은 기관들의 도움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 서도 진로를 준비하고 자립에 이를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일단 자립하는데 있어서 제가 살고 있는 환경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집도 구해야 되고 돈도 모아야 되고 생활비도 나가야돼서 적금을 많이 해서 (중략) 일단 배운 것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한 가지를 하게 되면 한 번 하면 끝까지 하는 것 같아서.. 거의 노력파라서 (A5)

일단 어릴 때 환경이 그 상황 덕분에 오히려 사람이 부지런해지고 더 그래서 열심히 살게 돼서 꼭 나쁜 것 같진 않아요. 가난이라는 게 오히려 좋은 케이스로 바뀐 것 같아요 (중략) (학교를 그만둔 경험) 오히려 더 빨리 자립할 수 있게 도와줬다고 봐야죠. (A10)

일단 지금 쉼터에 있으면서 의식주나 교통비 지원 받았었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 교육 부분이랑 아니면 취업 같은 거 다른 거 활동 같은 거 지원받았었고 그리고 예전에 문화의 집 거기에서 ○○○청소년단 들어가서 활동 같은 것도 했고 (중략) 연계된 기관이 많아서 여기저기서 지원금을 많이 받아서 완전히 아빠로부터 독립을 한 거 같아요. (B1)

표 IV-20. 자립관련 취약성 극복 방법

영역	범주	구분	의미단위
취약성 극복 방법	개인의 노력과 의지	집단A	- 노력하고 배우고, 돈을 열심히 모으고 있음. 열심히 적금 들고(A5) - 꾸준히 일하고 버티고 노력하였음(A6) - 가난 때문에 더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게 되었고, 학교를 그만둔 경험이 더 빨리 자립할 수 있게 도와줌(A10)
		집단B	- 자신이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중요함(B10)
		집단C	- 스스로 의지가 있어야 함(C3)
	사적 지지체계	집단B	- 부모님의 지지와 스포츠 동아리(B6)
	공적 지지체계	집단A	- 국비 지원으로 자격증을 취득함(A10)
		집단B	- 연계된 기관의 여러 지원을 통해 독립이 가능했음(B1)

④ 자립에서의 취약성 극복을 위한 지원

가. 결국 진로준비와 취업지원이 중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진로지원, 대학 및 취업 지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자립이다. 면접조사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때로는 이 내용을 복합적으로 이야기 했는데, 특히 집단A는 자립에 있어서의 필요한 지원에 대해 진로와 취업관련 이야기를 주로 보고하였다. 이는 성인이 된 집단A에게 자립은 결국 취업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자립의 시작은 진로를 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여러 진로탐색 및 직업훈련 등 다양한 체험에 대한 강조가 많았고(A4, A5, A6, A9, A10), 청소년 개인이 희망하는 진학이나 취업관련 지원을 잘 연결해 줄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기도 했다(A7). 진학 및 취업 등 여러 경험을 통해 성인으로 상당수 자립한 집단A 참여자들은 결국 다양한 진로준비, 직업체험 및 훈련에 대해 집중적으로 언급하였고 이를 위한 기관과 시스템에 대해서도 강조하였다.

면접자 그러면 ○○님 경험을 봤을 때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이 자립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참여자 일단 여러 가지 직종이나 분야 같은 경우나 그거에 대해서 갈 수 있는 방법 아니면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기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A5)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걸 잘 가이드라인을 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진학하고 싶은 애한테는 그런 진학 서비스를 잘 연결해 주거나 아니면 뭔가 취업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런 취업을 잘할 수 있게 연결을 잘해 주거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A7)

나. 주거지원의 필요성

연구참여자들 중에는 주거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현재 LH 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B1 참여자는 가족의 지원 없이 지자체의 자립지원금으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월 40만원으로는 공과금을 지불하기 어렵다고 토로하였다. 이외에도 장차 청년 주택과 같은 명목으로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희망하는 사례가 관찰되었다(B2, C9).

일단 시에 받고 있는 자립지원금이 월 40만 원 정도 들어오거든요. 40만 원으로는 턱도 없어요. ... 지원받아서 들어가는 거긴 하지만 공과금도 만만치 않고 공과금이 왜 이렇게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B1)

다. 지원방식 재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방식과 관련하여 언급한 참여자들도 있었다. A10 연구참여자는 지원을 받는 당사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을 고려하여 이에 부합하는 지원을 선호했고, 또 다른 참여자는 실제 생활인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주거와 관련된 내용과 주식 등 투자와 관련된 금융 지식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B6). 또한 그 방식에 있어서도 지하철 광고와 같은 공익광고와 같은 형식을 제안하였다.

의지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맞춰서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A10)
(자립을 잘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월세나 공과금, 생활비 요즈음에는 주식 같은 위험성이나 하게 된다면 어떻게 안전하게 해야 되는지 그런 교육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세면대가 막혔을 때 (중략) 가르쳐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런 건 어디서 가르쳐 주지 않아도 지하철 광고로 나와도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B6)

표 IV-21. 자립에서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내용

영역	범주	구분	의미단위
극복을 위한 지원 내용	결국 진로 준비와 취업 지원이 중요	집단A	- 진로를 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야 함(A4) - 여러 직종, 분야 경험할 수 있는 기관 필요(A5) -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더라도 원하는 진로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A6) - 진학, 취업 등 잘 연결해 줘야 함(A7) - 직업훈련, 직업체험 등 필요(A9) - 직업 체험, 관찰아하는 분야 직업훈련 지원시스템(A10)
		집단B	- 지자체의 자립지원금(월 40만원)이 너무 부족함(B1) - 학교 밖 청소년, 청년 자립을 위해 셰어하우스 같은 것도 좋을 듯(B2)
	주거지원의 필요성	집단C	- 청년 주택 등 주거 지원 필요(C9)

영역	범주	구분	의미단위
	지원 방식 재고	집단A	- 당사자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의지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맞춰서 지원해주는 방식 필요(A10)
		집단B	- 월세, 공과금, 생활비 등 주식 위험 등 이런 교육 필요. 공익광고처럼 생활 속 틈을 지하철 광고 등으로 알려줬으면(B6) - 본인의 판단능력, 행동 능력이 필요함(B8)

(8) 환경체계에서의 취약성

① 가족환경

A집단 참여자 중 다수는 가족 구조에 있어 부모의 이혼이나 부모 중 한 명의 사망 등으로 한부모 가정에서 성장하였다(A1, A3, A5, A6, A8, A9). A6 참여자는 어머니가 외국인으로 10세 때 한국에 이주하여 한국어 습득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부모 이혼으로 인하여 지방에서 아버지와 살다, 수도권으로 이주하여 어머니와 사는 등 초등학교부터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족 때문에 자신이 빨리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학교를 그만둔 사례(A10)도 있었다. 집단A 참여자들의 경우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례들(A2, A3)도 있으며, 이들 중 A2 참여자는 가장으로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고, 더욱 안정적인 가족을 꾸려야 한다는 심적 부담이 컸다.

B집단 참여자 중, 한부모 가족의 경우는 B1, B3, B6에 해당되었으며, B6의 부모는 이혼을 했지만 어머니가 홈스쿨링을 담당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었다. 학교 중단 시점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간 사이가 좋지 않았으나 자신이 대학 진학 후 가족 관계가 많이 개선되었다는 사례(B2)도 있었다. 학교를 그만두는 결정 시 아버지는 심한 반대를 했으나, 이후의 생활을 보고 자녀의 행보를 지지해 주고 있는 사례(B9)도 있었다.

C집단 참여자 중에서는 부모가 이혼하여 아버지와 거주 중이거나(C1), 어머니와 거주 중인(C8) 청소년이 있었으며, 부모가 있음에도 적절히 부모 역할을 하지 못해 자녀가 부모의 병시중과 집안일을 도맡아 하느라 학교를 그만둔 참여자도 있었다(C5). 그리고 어머니의 진로 요구와 자신의 관심사가 맞지 않고, 친구들과의 갈등 상황에 어머니의 개입으로 학교생활이 힘들어져 어머니가 자퇴를 권유했으며, 결국 어머니와의 지속적인 갈등으로 쉼터에 거주하는 청소년(C4)도 있었다.

엄마가 제가 알바를 하면 (중략) 저는 언니들이랑 놀고 싶기도 하고 하루에 놀면 3, 5만 원 쓰는데 계좌 검사하고 돈 몰래 쓰면 계좌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저는 몰래 쓰게 되는 거고

엄마한테 충분히 말을 했는데 **엄마가 알바한 돈을 싹 가져가니까 집도 나가야 하니까 그 언니 집에서 지내는데 생활비가 없잖아요. 알바비를 엄마가 다 가져갔는데 그래서 또 알바하고 또 돈 받으면 언니랑 노는 데 쓰고 밥 사먹고 월세도 그 언니랑 자취를 같이 해서 제가 다 돈을 벌어서 해야 된다는 게 힘들었어요.** (C4)

② 지역자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와 관련해서 서울이나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에 대해 지적하는 참여자들도 다수 있었다. 학교 밖 청소년 중 지역에 따라 이용 가능한 자원에 한계가 있어 수도권으로 이동해서 취업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례도 있었으며(B1), 농어촌 지역에 사는 경우 꿈드림센터 서비스 이용을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했던 사례(B6)도 있었다. 대체로 서울이나 수도권의 지원 기관은 규모가 크고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양하지만, 읍면 지역의 경우 관심있는 분야의 자격증이나 취업 지원에 있어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B1, B9). 마찬가지로 지방으로 갈수록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이나 예체능 활동 등 다양한 활동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있음을 언급한 청소년들도 있었다(B7, C2).

아무래도 서울에 있는 센터들은 보통 이렇게 작은 단위이거나 살짝 큰 규모로 알고 있거든요. 시설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편하게 쉬고 그런 청소년들을 위한 센터에 그런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시골이다 보니까 살짝 미흡하거든요. 리모델링을 작게 준비는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경험하고 놀러 가는 것들은 시골이라 소규모라서 추억 쌓기도 좋고 어디 가고 지원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B9)

③ 일반 사회 인식

연구참여자들은 대체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임을 체감하고 있었으며(B3, B4, B9, C1, C4, C8, C10), 부정적 시선으로 인해 불편함이나 위축감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비행이나 일탈청소년이라는 인식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자신들을 지원을 받아야 하는 “불쌍한” 대상으로 보는 사회적 시선에 대해서도 속상하거나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B7, B10).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학교를 그만둔 선택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여 해명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오길 바라고 있으며,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토로하였다(C2, C7, C9).

특성화고도 인식이 이렇게 안 좋은데 **학교 밖은 얼마나 인식이 안 좋을지 인식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B3)

확실히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감정고시를 봤다, **중학교를 자퇴했다고** 그러면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더라도요. 선입견에 가득 찬, 불량 학생인 줄 알고, 그 이미지를 바꾸느라 엄청 힘들었어요. (중략)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B4)

너는 학교를 안 다녀서 그런 것 같다는 말을 가끔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식이 좀 없는 것 같다는 지식이 부족한 것 같다는 얘기들 그런 거 들을 때 괜히 (B6)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이게 조금 옛날에는 자퇴생이 반항아 같은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좀 고치면서 오히려 자퇴생을 불쌍하게 보는 시선이 많이 늘었어요. 학교 폭력 피해자라든지 잘 적응을 못해서 나왔구나라는 시선들이 있는데 시선이 속상할 때가 있어요. 역차별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B7)

전체적으로 자퇴생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 사회적 시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턴십 나갔을 때 처음 들었던 말이 여기 면접 장소가 학교였는데 교내니까 담배는 피우면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혹시 몰라 주의를 주셨겠지만 자퇴생이다 보니까 흡연을 하거나 불량학생이라는 시선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영 좋지 않구나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C10)

④ 극복방법 및 지원 요구

가. 꿈드림센터 등 지원체계 개선

환경체계에서의 취약성 지원방안에 대해, 먼저 집단A 참여자 중에는 다문화 배경으로 한국어 습득에 어려움이 있어 지역사회 이주민지원센터에서 한국어 학습 및 중졸 검정고시 지원을 받은 참여자(A6)가 있으며, 국비 지원으로 지역 직업훈련기관에서 전기관련 자격증 등 민간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약성을 극복하고 취업을 한 참여자(A10)도 있었다. 꿈드림센터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한 집단A 참여자들과 달리, 지원 경험이 있는 집단B와 C 참여자들은 꿈드림센터 서비스의 개선 등에 대한 제안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집단B, C의 참여자들은 꿈드림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였으며, 특히 개별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소속감 형성을 위해서 꿈드림센터 연계가 즉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을 제안하였다(B7). C9 참여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쉼 공간으로서의 꿈드림센터도 의미가 있으므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장소 제공의 기능도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지역적 편차에 따른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B10), 찾아가는 강사 프로그램 등을 통한 지역 격차 해소를 희망하는 사례도 있었다(C2).

처음 자퇴를 하면 잡아주는 것들이 사라지는 거니까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고 집에서 혼자서 보내는 시간이 많거든요. 초반에는 그렇게 하다가 꿈드림센터도 다니게 되면서 다시 되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혼자서 시간을 보내기 보다는 조금이라도 사회랑 연결고리가 있어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B7)

꿈드림센터처럼 학생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좀 더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특히 저는 학교에 있던 사람으로서 혼자 어쨌든 가족과 멀어진 공간과 있을 수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은 보통 집밖에 없잖아요. 나가도 갈 곳이 없고 가봤자 독서실밖에 없고 갈 수 있는 공간이 정말 없는데 가족과 마찰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 조금 오전 시간이라도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고 저희 센터는 프로그램이 많은 편이라서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딱 공간적인 것만 (C9)

나. 인적 자원 지원 및 편견개선 방안 모색

학교 밖 청소년들의 취약성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개별적인 인적 자원을 확충하여 밀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제안되었다(B7). 학교 밖 청소년들은 자신이 힘들 때 주변 지인의 조언과 위로가 큰 도움이 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는데(B8, B9), 이러한 맥락에서 개별 멘토 지원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집단A 참여자의 경우 자신의 삶의 궤적에 대하여 비슷한 처지에 있는 후배들에게 조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멘토링 서비스 참여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A4).

만약에 한다고 하면 멘토링이 있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의 경우에는 그 친구들한테는 약간 나쁘지 않은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중략)그런 친구들을 만나볼 수 있는 게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견해를 넓힐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A4)

학교 밖 청소년이었다가 청년이 돼서 자립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학교를 그만 뒀고 어떤 식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장하고 자립을 했고 학교 밖 청소년들 잘살고 있고 행복한지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공공장소에서 틀어 놓는 것만 해도 도움이 될 것 같고 (B6)

학교 밖 청소년들을 담당하는 어른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외부 위험에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직접 꿈드림 센터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른들을 만날 수 없고 그렇게 위험을 혼자 감수해야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할당을 하는 식으로 어른들을 배치를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B7)

표 IV-22. 환경체계 취약성 및 극복방법

영역	범주	하위범주	구분	의미단위
환경 체계의 취약성	가족환경에서의 취약성과 어려움	집단A		- 어머니가 외국인으로 10세 때 한국 이주하여 한국어 습득에 어려움을 겪었음. 이혼가정으로 거주지 변경 등으로 초등학교부터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음(A6) - 현재 결혼하여 자녀 양육 중으로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크게 있음(A2) - 현재 결혼하여 자녀 양육 중이며, 자녀가 학교에 가 있는 시간 동안 아르바이트 중임(A3) -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교를 그만두고 취업을 결심함, 일하는 과정에서 학교를 그만둔 것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담은 질문에 접하게 됨(A10)

영역	범주	하위범주	구분	의미단위
			집단B	- 학교를 그만둔 시점에는 부모님 사이가 좋지 않았으나 가족 관계가 많이 개선됨(B2) - 큰누나는 학교를 졸업했지만, 진로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작은누나는 학교를 그만두었지만 경제활동에 보다 수월하게 참여함(B8) - 학교를 그만두는 결정 시 아버지는 심한 반대를 했으나, 이후의 생활을 보고 자녀의 행보를 지켜봄(B9)
			집단C	- 엄마와의 갈등 지속으로 심터 생활(C4) - 어머니의 지병, 아버지와 동생의 질병 등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에 다니는데 어려움을 겪다 고등학교 때 자퇴,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 중(C5)
		지역자원의 한계	집단B	- 관심있는 분야의 취업지원제도 자격증 취득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없고 수도권에는 있다는 한계(B1) - 농어촌 거주지역에 꿈드림 서비스가 없어서 장거리로 이동하여 서비스를 받아야 했음(B6) - 지역사회 봉사활동이나 예체능활동 지원이 부족함을 체감(B7) - 학교를 나온 후 서울의 내일이룸학교에서 취업 준비(B9) - 꿈드림센터 규모나 시설 여건 면에서 서울과 읍면의 차이를 체감함(B9)
			집단C	- 지역적 한계로 다양한 활동 참여 기회 제한(C2)
		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변화	집단A	- 여전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이 있음(A5, A7, A9, A10)
			집단B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느낌(B2)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며, 바뀌어야 함(B3)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체감(B4, B5, B6, B9)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비행 청소년 이미지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지원을 받아야 하는 불쌍한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도 속상함(B7)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시선(측은한 눈빛) 때문에 당황함(B10)
	극복 방법 및 지원 요구	꿈드림 센터 등 지원체계 개선 및 보강	집단A	- 지역사회 이주민지원센터에서 한국어 학습, 중졸 검정고시 지원(A6) - 국비 지원으로 전기관련 자격증 등 민간자격증 취득(A10)
			집단B	- 학교 밖 청소년들의 소속감 형성이 중요하며, 꿈드림 연계가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B7) - 꿈드림 지원 서비스 수준에서 지역적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하게 지원해야 함(B10)
			집단C	- 찾아가는 강사 프로그램 등을 통한 지역 격차 해소 희망, 보다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 보완 희망(C2) - 꿈드림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 제공 필요(C9)
		인적 자원 활용/충원을 통한 지원 및 편견개선	집단A	- 멘토링 서비스 제안(A4)
			집단B	- 사회적 편견개선 방안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성공 사례 홍보·확산 방안 모색(B6)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인력 확충 필요(B7) - 서울·수도권에 비해 지역사회의 자원이 취약한 점이 보완되어야 함. 힘들 때 도움이 되는 자원은 주변 지인들의 조언과 위로(B8) - 주변 지인들의 조언과 상담이 도움됨(B9)

2) 학교 밖 청소년 종단자료 분석: 취약성 경험의 궤적과 학교를 그만둔 것의 의미 변화⁵⁴⁾

(1) 진학, 진로, 구직과정에서 경험한 취약성

① 구직 시 서류 및 면접 과정에서의 부딪혔던 불리함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취약성 중 일부 참여자들이 우선 체감하는 것은 구직과정에서 경험하는 불리함을 들 수 있었다. 이들은 입사 지원 서류 작성과정에서 자신의 고등학교 이력을 채워 넣어야 하는 곳에 서류 제출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심적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서류 심사 과정에서 학교를 떠난 이력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주변의 조언은 구직과정에서 자신이 불리하다는 인식을 강화시키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 중 안○린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재학 중이지만, 고등학교를 그만둔 이력에 대해서는 선뜻 드러내지 못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학력을 요구하는 취업처에 대해서는 이력서 작성 시 우선순위에 배제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2018년부터 이어져 왔고 2023년에도 여전히 구직과정에서 이러한 취약성에 대한 체감도는 낮아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안○린: 차별이라고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 이력서 작성할 때 고등학교 대학교 쓰잖아요. 그런데 저는 대학교부터 쓰라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별로 창피하지도 않고 보통 고등학교부터 기입하니까 그렇게 기입을 해서 보여 드리면 이거는 빼는 게 좋겠다 라고 (중략) 첨삭지도 해주시는 분, (중략) 그분들이 저한테 비난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좀 속상해요. (2018)

안○린: 고등학교부터 적혀 있는 이력서가 있었어요. (중략) 고등학교 라인이 있으면 안 쓰게 되더라고요. 우선순위에 일단 배제시켜 놓고 한 번도 고등학교를 적으라고 한 곳에 이력서를 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2023)

연구참여자 성○연도 역시 대학 학력을 취득하였음에도 여전히 취업을 위한 이력서 작성 과정에서 졸업한 고등학교를 적시해야 하는 경우 심리적으로 위축감을 느낀다고 토로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2018년이나 2019년에 비해 구체적으로 이직을 준비하던 시기인 2021년부터 더 크게 체감되고 있었다.

성○연: 근데 거의 고등학교 중퇴, 자퇴 이렇게 체크하는 데도 있고 아예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같은 경우는 저는 적을 게 사실 자퇴인데 이거를 어떻게 적어야하지 라는 고민도 들고 그럴

54) 본 질적분석에 제시된 2018-2022년의 일부 인터뷰 직접인용 부분은 해당연도에 수행된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I~V: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의 연구에서 수집되어 해당 연구보고서에도 활용된바 있는 동일 질적자료(인터뷰 전사자료)에서 발췌하였다.

때 조금 힘들고 고등학교를 자퇴했다는 게 나한테 되게 큰 흠이 될 수도 있구나 해서 그래서 그러면서 좀 생각이 변한 것 같아요. 막상 현실을 겪고 이제 준비를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2021)

성○연: 뭔가 제가 그냥 느낌상 제 생각인데 고등학교를 적고 이력서를 낼 때랑 고등학교 안 적고 이력서를 낼 때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연락오는 게. **확실히 고등학교 자퇴하고 검정고시 봐서 그런 것까지 상세하게 적는 경우에 더 연락이 안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대학교만 적는 데는 연락이 잘 왔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저도 뭔가 저 스스로도 고등학교 자퇴까지 적고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만약에 보게 되면 그때 제 자신감이랑 모르는 상태로 **제가 면접에 임하는 자신감이랑 좀 다른 뭔가 위축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2022)

성○연: 취업할 때 고등학교까지 다 적는 회사가 있는데 넣는 **지원하는 양식 자체 고등학교를 검정고시 졸업 이런 식으로 적는 게 없는 회사도 많아요.** 그런 게 **약점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2023)

고등학교를 그만둔 후 다양한 일 경험을 하고, 돈을 버는 일에 주저함이 없이 뛰어든 경험이 있었던 안○준은 보다 안정적인 직장 취업을 위해 면접에 응하는 과정에서 학교를 그만둔 배경이 다른 면접 응시자와는 다른 상황을 초래하고 있음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다. 2018년에 결혼을 하고, 2019년부터 보다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자 노력하며, 생산직 공장을 찾아 구직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면접 응시과정에서 자신은 다른 사람에 비해 면접 질문의 내용과 시간에서 차이를 느꼈음을 토로하였다.

안○준: 공장 면접 2번 봤는데 2번 다 떨어지고(중략) 하청이라 될 줄 알았는데, 면접을 같이 보러 오는 사람들이 3~4명씩 있더라고요. 2번 다, (중략) 그 사람들한테 밀리는 거죠. (중략) 어떤 분이 자동차 전공이라고 했는데 공장에서 엔진 부품 만드는 것까지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점수에 들어가나 봐요. (중략) 애초에 **그 사람이 학교에 대해서 써 버리니까 관련된 얘기하면서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2021)

면접자: (중략) 학교를 다닌 친구들에 비해서 어떤 부분에서 좀 더 불리하거나 어렵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안○준: 일자리 구할 때 면접 볼 때 면접 자체가 (중략) 똑같은데 **질문 양이 달라요.** 뭐 용어 같은 거 배웠냐...(2023)

② 진학 정보 취득과정에서의 취약성

학교 밖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경험하는 취약성으로 대학 진학 준비과정에서 적절한 도움을 얻지 못하는 점을 들고 있었다. 학교 재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입시 지도나 적절한 진로 조언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과 함께 대입 지원 시에도 학교생활기록부를 활용하지 못하여 입시 전형 선택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보고하였다.

안○린: 제가 경험해 보니 혈혈단신으로 뭔가를 하기가 너무 어렵고요, 정보라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보가 수집이 안 되고 정보의 결핍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무언가를 하는 것 자체가 (2018)

안○린: 저는 검정고시 시험을 봤으니까 대학교를 가야 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어떤 과가 있는지, 어떤 정보가 있는지 이런 걸 전혀 몰랐었으니까 내가 이게 맞는 건지 이런 걸 좀. 그냥 여기 가야겠다. 약간 이런 경험이라서 정보를 잘 알 수 있었으면 그 당시에는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2021)

안○린: 학교에 있으면 담임선생님이 해 주잖아요. 입시 상담도 해 주고 이 정도 점수면 어디 갈 수 있다고 해 주고 제 친구는 오히려 선생님이 이런 과는 어때? 이렇게 해줬다고 하는데 저는 없으니까 (중략)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이 없었어요. 너무 적었고 오로지 점수로 해야 되니까 뭔가 학교에 있었으면 생기부나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데 그때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검정고시 성적으로 가거나 수능 공부를 하는 것밖에 없어서 그런 점들이 불리한 것 같아요. (2023)

③ 미래 진로 설계상의 취약성

집단A 연구참여자들은 장기적으로 미래 진로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안정성이나 전문성 있는 직업으로 진출하는 데 불리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학교를 그만둔 뒤에 직업학교 및 방송통신고를 거쳐 고졸 학력을 취득한 안○하는 어린 시절부터 일을 하고 월급을 모아 저축을 하였고, 거주지도 마련하였다. 현재까지 자신의 상황을 살펴본다면 또래에 비해서 삶의 기반을 얻었다고 여기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일에 대해 한계가 있을 것 같다고 걱정하였다. 만약에 자신이 학교를 그만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다녔더라면 전문적인 진로를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대학을 진학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있었다.

안○하: 옛날 어릴 때는 학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취업할 때도 마찬가지로 학력이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낮으니까 (2021)

안○하: 생각해 보면 옛날부터 공부를 조금씩 했으면 내가 어떤 일이 하고 싶고 이런 걸 정해서 이렇게 하나만 했을 텐데 지금은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되대로 회사 있으면 가자 그렇게 해서 여기저기 돈 되는 몇 군데 가서 괜찮은 데 가고 거의 지금 이 일을 별로 재미는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다른 것도 해보고 싶은데 할 수 없어서 (2022)

안○하: 나중에는 제가 좀 더 불리해질 것 같아요. (중략) 일 전문성 때문에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개네들은(정규학교 졸업자) 시간이 지나면 나는 그대로 있는데 그 사람들은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걱정이 있죠. (중략) 학교를 안 간 사람은 고등학교랑 중학교 졸업한 사람은 그 길 자체가 흐리잖아요. 그렇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정상적으로 나오면 어쨌든 길이 보이긴 해서 (2023)

또 다른 연구참여자들도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대학 졸업 학력이 전제되어야 함을 알고 있으나, 현재 처지에서는 대학 학사 취득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쉽게 도전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일 경험에 있어 단순 아르바이트 등을 할 때는 학력 취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지만, 보다 안정된 직업을 얻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학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동안 검정고시를 통해 고졸 학력을 취득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을 얻어 일하고 있지만, 미래 진로를 간호사로 설정한 조○빈은 대학 학력이 필요함을 체감하고 있지만, 대입 지원과정에서 검정고시를 통한 지원이 쉽지 않음을 토로하고 있었다.

조○빈: 앞으로 뭘 해야 할지 감이 아예 안 잡히고, 검정고시로 한다 해서 시작은 잡았지만 직업을 뭐가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중략) 경찰도 하고 싶었다가 상담사도 하고 싶었고요. 좀 제가 갖기엔 어려운 직업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현실을 알았으니까 경찰이 못 된다는 거랑 부사관도 힘들 것 같다는 그런 거랑 상담사도 힘들 것 같다는 거에 직면해서 (중략) **현실 가능성을 두고 본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2018)

조○빈: 저는 그때 간호사가 하고 싶었으니까 그 부분에서 걸리는 건 있었죠. 그래서 학점은행제도 했던 거니까 (중략) **그건 대학을 무조건 가야하고, 그래야 시험을 볼 자격을 그렇게 주는 건데 대학 들어가는 거 자체가 검정고시를 보고 들어가도 거의 만점에 가까이 들어가야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점은행제를 해서 신입생으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좀... (2023)

안○준은 학교를 그만둔 이력에 대해서 자신이 하는 일의 장애요소는 아니지만, 앞으로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에는 취약한 요소임을 체감하고 있었다.

안○준: 돈으로만 따지면, 재들보다 제가 더 벌 수 있어요. 돈은. 그런데 안정적이니까. 지금은 많이 벌 수 있어도. 어디 중소기업 다니는 거 보면 중소기업보다 **제가 월급 더 뛰는 만큼 높게 받을 수 있지만 안정적이지 못해요.** (2019)

안○준: 제 친구들을 보면, 대학 간 애들을 보면 (중략) 일단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구해 주니까, 추천도 해 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거기에서 일을 시작하면 저는 뽀 물을 때까지 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언제 어떻게 가게가 닫을지도 모르고, 언제 어떻게 그만둘지 모르니까 그때 저한테 패닉이 올 수도 있죠. 돈을 갑자기 못 벌게 되니까 (중략) 제가 이제 열심히 공부만 하고 마무리 했으면 그냥 편하게 주는 일,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먹으면 되는데, 안정적인 직장을 (2021)

안○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안정적인 (직업을)... 지금은 어딜 가서 일하다가 갑자기 잘리면 또 구하고 구해야 되는데 평생직장을 못 잡아서 (중략) 제가 하고 싶은 거에 자격증이, 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2023)

한편, 미래 진로 설계 시 느껴졌던 취약성이 최근까지 이어지지 않는 사례들도 있었다. 과거 인터뷰에서 한때 자신의 학교 중단 이력이 진로 설계에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 같다는 우려를 보였지만, 추후에는 현실적 여건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며 자신의 형편에 맞추어 일을 하면 된다는 긍정적 사고로 전환한 참여자들도 있었다. 2022년 인터뷰에서 자신이 다녔던 특성화고등학교의 애완동물 관련 학과를 졸업했다라면 관련 분야에서 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표한 참여자(최○연)도 있었고, 2018년 인터뷰에서 미래 진로 전망에 대해서 자신은 더 힘든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부정적인 전망을 하였던 참여자(정○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여건에 맞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학력과 관련된 차별 경험이 없음을 밝히고 있다.

(2)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의 취약성

① 사회관계 형성과정에서의 취약성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의 경우 진로 설계 및 취업 측면 외에 사회관계 형성과정에서 취약성을 경험하고 있었다. 안○하는 학교를 그만두어서 학창시절 형성되는 친구관계가 많지 않다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다. 그는 학교생활 경험을 통해 친구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등 상호작용 경험을 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회가 적어 사회생활 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하였다.

안○하: 학교 나온 애들을 보면 친구도 많고 남자친구도 많고 여자친구도 많고 고등학교도 사귄 수 있고 중학교도 대학교도 사귄 수 있고 되게 많잖아요. 저는 고등학교도 안 나왔고 중학교도 안 나왔고 대학교도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애들 보면 많이 부러워요. 그런 애들을 보면 많이 밝아요. 그런 면에서 부러워요. (2019)

안○하: 친구들도 많이 만들 수 있었는데 그런 것도 못해 보고 많이 아쉽죠. (2021)

안○하: 후회되는 것도 친구가 많이 없어요. 남들 학교 나오면 동창 막 하잖아요. 모여서, 저는 그런 게 없어서 친구에 대해서 달라진 건 없지만 친구가 많이 없다 이게 조금 아쉬워요. (중략) 저는 친구보다는 직장 사람 친한 사람 형이나 친구가 더 많아요. 일반 학교 친구보다는 사회에서 맺은 친구가 더 많고 만약에 학교를 정상적으로 나왔다면 친구가 더 많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아쉬워요. (2023)

성○연은 학교를 그만두면서 고등학교 친구 관계가 부족하였고, 자신이 소속할 수 있는 집단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하고 있다. 고등학교 시절 친구관계

형성의 부재가 향후 직장 생활에서도 인간관계의 폭이 좁아지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었다.

성○연: 친구관계, (중략) **고등학교 친구가 제일 많이 만났다고 하는데 저는 중간에 그만뒀서 친구관계가 가장 아쉬웠던 것 같아요.** (2019)

성○연: 남들이 학교 갈 때 저는 집에 있고 남들 수학여행 가거나 친구들과 뭐 하고 할 때 저는 혼자서 계속 집에 있고 뭔가 나는 다른 느낌. 나는 사회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되고 뭔가 사회적인 왕따 같은 느낌. (중략) 소속감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중략) 그런데 **자퇴를 하고 나면 그런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깐 일단. 어디 소속되어 있지 않으니깐 되게 불안정한 것 같아요.** (2022)

성○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저는 고등학교 친구도 많이 없고 대학생 때도 그렇고 사람들하고 잘 못 지내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변 사람들이 점점 떠나가는 느낌이라 회사 안에서도 불편한 사람이 있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요. (중략) 주변에 사람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되게 인간관계가 좁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2023)

② 학창시절 또래 문화로부터 소외

일부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사회생활 과정에서 지인들과 일상 대화를 나눌 때 등장하는 학창시절 에피소드들을 공유하지 못하고 대화에 끼지 못할 때 소외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고등학교 생활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일과나 이벤트, 체험 활동 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슷한 연령대 지인들과의 대화나 교류 과정에서 위축감을 일으키는 배경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시절 동년배들이 경험하는 수학여행이나 대부분이 경험하는 입시 준비 과정에 대해 공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적극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히 있을 것으로 생각될 때 더욱 입을 다물게 된다고 하였다.

성○연: 대학교 다닐 때 대학 동기들은 친한 친구들 보면 다 고등학교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이 보면 되게 많이 남더라고요. (중략) 얘기 나누다 보면 **제주도 같으면 수학여행 때 제주도 다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저는 수학여행 같은 거 고등학생 때 간 경험이 없으니깐 그럴 때 좀 와 닿는 것 같아요.** (2022)

성○연: 사람들이랑 고등학교 얘기 나오면 그런 거에 말 잘 섞지 못하는 거...(수학여행도) 되게 많이 인상 깊다고 하더라고요. 제주도로 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끼지 못하는 거 (2023)

조○빈: 공동체생활을 해야 되고 그런 데서 많이 이것 저것 배울 수 있는 기회인데 그게 조금 아쉽기도 하고 **흔히 말하는 학창시절 학생 모습일 때 추억이 없는 건 아직도 아쉽긴 해요.** (2021)

조○빈: 학교에서 공동생활이나 그런 걸 또 배우잖아요. 그런 걸 뭔가 못 배운 게 아쉽고, **학창시절에 애들 또래 친구들한테 같이 그럴 수 있는 추억이 없는 것도 좀 아쉽고.** (2022)

조○빈: 애들하고 학창시절 추억이 없고 제가 제주도 이런 데도 못 가보고 비행기도 사실 한 번도 안 타봐서 애들이 수학여행 갈 때 비행기 타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듣고 이럴 때는 예전에는 그랬는데 그리고 그때는 그 친구로 내가 재 때문에 학교를 그만 뒤서 그런 학창시절이 없는 게 아깝고 짜증난다 (2023)

고등학교 생활의 경험 부재는 동년배 지인들과의 대화 소재에 대한 위축 뿐 아니라, 현재 고등학생들을 만나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도 은연중에 영향을 미쳐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배경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김○성: **고등학교 생활을 제가 접해보지 못했잖아요,** 3년 동안. 그리고 전 그때 돈을 벌었으니까 사교성 같은 것도 없고 문화생활 같은 거 못 즐겨보고 어디 놀러 가지 못하고 계속 일만 하고 그랬으니까 그런 쪽으로는 좀...(중략) 너무 부럽더라고요. 고등학교 생활들이. (2018)

김○성: 아무래도 **또래들이 하는 걸 잘 못하고** 나는 그 시간에 일을 하고 기술을 배우고 있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 문화생활도 못하는 그런 게 조금 (중략) **학교 끝나고 애들이랑 놀거나 아니면 지금도 모를 수 있어요.** 저도 모르는 것도 많고 (2023)

③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으로부터 경험하는 취약성

분석결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으로 체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은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자퇴’ 이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었으며, 과거에 학교를 그만둔 생애사건 때문에 현재의 삶까지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느낌을 갖고 있었다. 학교 졸업생들이라면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에 대해 자신들은 하나씩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귀찮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특히 대체로 비행이나 일탈 청소년으로 오인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을 하거나, 아예 학교 밖 이력을 드러내지 않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안○린은 학교를 중도에 그만둔 일이 지속적으로 미해결된 정서로 자리잡고 있었으며, 2018년 면접부터 2023년 면접 때까지 계속 부정적인 주변의 인식과 사회적 편견에 힘겹게 대응하고 있음을 토로하였다. 특히 안○린은 일반적인 사회적 시선뿐 아니라, 친한 친구로부터도 부정적인 반응을 경험하고 충격을 받았다. 주변 지인들의 부정적 인식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생애사건에 대해 일반적인(평균적인) 삶을 살지 못하였다는 인식은 여전히 불편함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시간이 흘러도 긍정적 전환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안○린: 제 상황을 다 아는 친구가, 전 제가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학교 가서 정학을 당하고 퇴학을 당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딱히 나쁜 짓을 해서 자퇴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친구가 대가리 비어서 자퇴한 거 아니냐고, 너무 깜짝 놀라고 상처를 받아서 사람을 너무 믿으면 안 되겠다. 친구가 다 갈리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중략) 착잡하고 슬프고, (2018)

안○린: (엄마가) 네가 자퇴했다고 하는 게 평생 너의 주홍글씨가 될 거라고 네가 책임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중략)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쁜 시선을 견뎌야 되잖아요. 평생 그럴 자신이 없으면 그만두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2019)

안○린: 사실 제가 어쨌든 고등학교를 안 다녔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좋은 학력을 갖추고 싶다 이런 마음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중략) 고등학교 자퇴한 걸 좋은 학교에 가서 상쇄하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2021)

안○린: 자퇴를 하게 된 계기를 설명해야 될 것만 같아요. 나는 사고를 친 게 아니고 내가 담배를 피거나 술담배 이런 거 한 게 아니고 나는 그냥 적응을 하지 못해서 자퇴를 했을 뿐이라고 꼭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야 될 것만 같은. 항상 그런 느낌에 시달려요. (2022)

안○린: 약간 저한테 선입견을 가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이 없어질 때까지는 먼저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중략) 뭔가 자퇴했다고 말하면 그러니까 그냥 뭔가 그렇게만 말하고 그냥 저도 넘길 수 있으면 상관없는데 구구절절 말을 해야 될 것만 같은 것들이 저는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말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나갈 사이라면 별로 지나가라 이런 느낌으로 여전히 생각하는 것 같아요. (2023)

학교를 그만둔 직후에 검정고시를 통한 고졸 학력 취득,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관련 자격증 취득, 그리고 대학 재학 중 2019년에 세무사 사무실에 취업하여 직장생활을 하던 성○연은 직장생활을 지속하는 중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더 많이 접하게 되었다. 사회생활 과정에서 자신의 선택에 대한 설명과 학교를 중도에 떠났다고 모두 일탈이나 비행 청소년은 아니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증명해야 했다. 이러한 개인적 대응과정에서 피로감이 누적되었으며,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후회감이 증가하게 되었다. 궁극적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을 비행청소년으로 바라보는 주변이나 사회적 시선이 바뀌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성○연: '나 학교 자퇴했어'라고 말했을 때 '전에 양○치였어? 놀았어?' 이렇게 말을 할 때도 나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었는데 나는 학교에서 양○치도 아니었고 나는 원래 공부도 잘 했었고 이렇다라고 변명하는 것도 이제 너무 귀찮고 사실 '나는 원래 양○치가 아니었어, 나 정말 그런 애 아니었어' 이 말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까지 남들이 물어봤을 때. 근데 그 말을 하는 것도 이제 사실 싫어요. (2021)

성○연: 그렇게 불이익이나 차별은 안받았었는데 뭔가 **학교를 자퇴했다라고 하면 되게 사고 친 애들이 한 것 같은 그런 인식**. 재는 학교 자퇴했으니까 어렸을 때 놀았겠다 양○치였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인식. 어른들이 그렇게 생각. 학교 관뒀었다고 하면 왜 뭐 문제 있었어 어렸을 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중략) 내가 자퇴하게 된 게 제 탓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같아서 그냥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2022)

성○연: **학교 밖 청소년 자퇴를 했다고 학교에서 사고 친 애가 아니라 공부를 잘했던 애도 학교가 싫어서 자퇴할 수 있다는 식으로라도 바뀌면 좋겠어요.** (2023)

박○혁은 학교를 그만둔 후 검정고시로 고졸 학력을 취득하고 직업훈련 과정으로 전기 관련 자격증 취득 후 바로 일을 시작하였고, 자신의 선택에 대해 일찍 돈을 벌 수 있었다는 장점을 부각시키며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사례자였다. 그러나 그 역시 때로는 주변의 부정적 시선에 대응해야 했던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박○혁: 친구들,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주위에서 **시선이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중간에 중퇴했으니까. 학교를 그만 뒀으니까. (2018)

박○혁: **저는 검정고시 나왔다고 하죠. 그러면 둘 다 무안해져서** 아무 말도 안 하긴 하더라고요.(2022)

박○혁: 설명하는 게 좀 아까 보시면 검정고시 졸업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학교는 왜 그만 뒀냐 그런 쓸데없는... 그게 하나씩 다 설명하기가 귀찮죠. (중략) 뭐했나부터 어떤 일을 해봤냐. 그러니까 **딱 검정고시 졸업 자체가 인식이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일일이 하나씩 다 설명해야 되니까 그게 엄청 귀찮은 거죠. (2023)

중학교 졸업 후 직업학교를 병행하며 방송통신고에서 고졸 학력을 취득한 김○성의 경우에도 자신의 과거 이력이 주변의 일방적 시선에 의해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음에 대해 우려하였다. 자신은 어린 시절부터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열심히 살아왔고, 현재도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회 인식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김○성: 아무래도 상견례나 그런 쪽으로 부모님들이 만나면 알게 되면 왜 이걸 이렇게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 안 나왔냐고 물어보면 따로 보기에는 안 좋을 수 있어도 저는 당당하게 얘기하려고요.** 학교 다니고 있을 때 이런 시절이었고 과거 좋지는 않았다.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해드리면 만약에 이해를 못해 주시면 어쩔 수 없이 안 된다고 하면 저도 어떻게 할 수 없죠. (2022)

김○성: 아무래도 뭔가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거나 아니면 뭔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알아봤으면 이해를 해줬으면 **마냥 놀고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지금은 열심히 돈을 벌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나쁘게 안 보면 좋겠어요. 억울하잖아요.**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2023)

(3) 학교를 그만두면서 가중되는 어려움

① 학교 졸업자들에 비해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의 경우 “일반적인” 학교 졸업 청소년들에 비해 자신이 뒤처지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며, 잘살고 있음을 보여야 한다는 심적 부담이 큼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경제적 자립을 위해,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는 부담감을 더 크게 느낀다고 표현하였다. 자신이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한 동년배들에 비해 취업과 자립을 더 먼저 하는 것이 뒤처지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성○연: 제가 자퇴하고 나서부터 계속 시간에 쫓기면서 살아와서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빨리 해야겠다, 검정고시 봤을 때도 그렇고 대학 진학 했을 때도 그렇고 이걸 해야 된다 이게 너무 강해서 지금도 취업을 빨리 해야 되는데 집에서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으면 시간이 아까워 보이고 그러는 것 같아요. (2018)

성○연: (고등학교 자퇴가) 큰 파장을 일으킨 거고 뭔가 어느 정도 그런 상처를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뭔가 그것 때문에 좀 더 촉박한 것 같아요. 보여줘야 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제가 잘 돈 벌고 사회생활을 잘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강박, 압박감이 있는 것 같아요. (2019)

성○연: 내가 한 선택에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뭔가 계속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는 것 같고 영향이 있으면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내가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계속 뭔가 잘 살아야 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2022)

② 연소 근로자로서 겪는 부당 처우

연구참여자들이 학교를 그만둔 사안은 학교를 그만둔 그 자체로 인한 것뿐 아니라, 학교를 떠난 시점과 관련된 개인적 요건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다. 학교를 이른 시기에 떠나 일터로 진입한 경우 성인 근로자에 비해 연소자이므로 부당한 처우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동일한 업무를 하더라도 임금에 차별을 받게 되거나, 진급과정에서 어린 나이로 인해 경력산정에 불리함을 경험하게 된다(검정고시를 통해 고졸학력이었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적절한 전략이나 대응방안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대안없이 일을 그만두는 사례도 있었다.

박○혁: (전략) 나이 때문에 제한을 조금 받았었죠. 왜냐하면 똑같은 일을 해도 옆에 사람은 성인이고 저는 학생이니까, 그리고 그때가 아마 시급이 4,500원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옆에서 같은 일을 하던 분은 일이 끝나면 8만 원 정도 받고, 저는 한 4만 원, 나이가 어려서 기본 시급보다도 더 많이 주는 거라서 따로 말하지는 못하고, 그런 거 (2021)

박○혁: 일단 아까 임금 차별 같은 경우랑 성인이 아니어서 17살에 나와서 성인이 아니어서 하지 못한 제약이 많긴 했었어요. (중략) 아무래도 경제 활동을 빨리 남들은 보면 고등학교 졸업하거나 대학 나와서 성인 때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미성년자일 때 시작하는 거랑 제약이 다르긴 했어요. (2023)

김○성: (전략) 그 사람들은 1년도 안됐는데 바로 진급이 되고, 저한테도 뭐가 온 게 고졸에다가 군대 미필이면 대리 올라가기 힘들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중략) 이력서만 보고 판단하니까 제가 어떻게 일하는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걸 보고만 판단하니까 그냥 떨어뜨려 버렸어요. 생산 쪽은 다 저한테 과장을 해도 손색이 없다고 밀어줬는데도.. (2018)

김○성: 인사처에서는 계속 저를 누군지 모르고 일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니까 서류상으로만 확인하고 학벌도 고졸에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왜 애를 심의에 올리냐고 (중략) 일단 월급보다는 그런 걸로 자존심이 망가지고 사람을 약 올리는 것 같고 도저히 사람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그래도 나는 나이가 17살이지 사람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닌데 사람이 인권이라는 게 있는데 장난식으로 그러면 더 이상 못 참는다. (후략) (2019)

김○성: 제가 공장을 그만둔 게 너무 억울해서 그만둔 게 있어서 (중략) 일단 학력이 고졸이었고 군대도 그때는 안 다녀온 상태였고 그런 거 때문에 잠깐 고민했어요. 내가 대학 졸업장이 있으면 조금 나았을까 이런 생각에 (중략) 진급하는 과정에서 대학 학력이나 그런 게 중요하다고 빨리 생각을 했었으면 아마 괜찮았을 것 같은데 제가 그걸 생각을 했을 때가 19살, 20살 때라... (2023)

③ 경제적 취약성으로 인한 어려움 가중

연구참여자들은 학교를 그만둔 이력을 넘어서기 위해 진학이나 취업 훈련을 받고자 하는 희망이 있지만, 당장 생계를 해결해야 하는 경제적 취약성으로 인하여 장기적인 진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안○하는 원하는 직종으로 이직을 하고 싶지만, 학교를 그만둔 배경과 함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은 이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안○준도 자신이 원하는 직업훈련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재 하는 일을 그만두서는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으며,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배경은 이를 더 가중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안○하: 일단 집안 일 때문에 돈도 마찬가지이고 작년에 잠깐 3개월 동안 프로그래머 도전하려고 학원까지 다녔다가 집안이 조금 악화돼서 하고 싶은 걸 잠깐 멈추고 돈을 벌어야 돼서 그거 때문에 이직을 프로그램 쪽으로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있어요. (중략) 학교를 다녔으면 전문적으로 하나는 선택했을 것 같아요. (2023)

안○준: 저 같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기술을 따는데 그 기술을 따는 금액 같은 거 있죠. 예를 들어서 학원에서 알려 주면 그 기술을 배우고 따는 금액이 있으니까, 그것만 지원해 준다고 해도 저랑 똑같이 사는 사람들은 절대 못하죠. **지원해 준다고 해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때려 치면서까지 못하죠.** 잠깐 그거 한다고 (중략)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버는 돈까지 지원을 해 주면 배워 볼 만하는데, 나라에서는 불가능하니까 그거는 지금에 만족하고 일을 해야죠. 저는 **일해서 버는 돈을 포기하면서까지 배울 수는 없죠.** 저 같은 경우는 (2021)

(4) 취약성에 대한 대응과정

연구참여자들은 진로를 찾는 과정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인생 경로에서 취약성에 대응하는 나름대로의 방안을 강구하며 대처하고 있었다.

① 열심히 돈 모으기

먼저, 안○준은 자신들의 처지가 일반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졸업한 사람들에 비해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방법은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버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돈을 벌고 저축함으로써, 이를 무기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정○우 역시 세 차례 면접에서 모두 돈이 가장 중요하며 많은 돈을 통해 안정감을 갖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 두 사례는 모두 경제적인 충족을 통해 학교를 중도에 그만둔 것으로 인한 취약성을 만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안○준: 제가 지금 이거를 포기를 못하는 게, 금액대가 조금 세요. 제 학력 수준에 벌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 (중략) 지금 이 상태로 안 쓰고 모으면, 한 6년, 7년만 모아도, 이 상태로 진짜 모아서 37~38 되면 그때 자격증 준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략) **계획이라는 것도 없고 그냥 돈만 죽어라 모으자. 쓸 건 쓰되, 살 건 사되 남는 돈은 허튼 데 안 쓰고 그냥 죽어라 모으자. 이런 생각 밖에 없고 계획은 따로 없어요.** (2021)

안○준: 저는 항상 마인드가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나중에 할 게 없으니까 돈 모아 놔야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어서** 경제적인 생각을 아예 계속 갖고 있었어요. (중략) 대학 나왔으면 재밌게 놀기만 했을 것 같아요 (2022)

안○준: 뭐든 해서 돈 벌어라, 쓰는 건 참고 조금씩 저축해라 (중략) **일단 저희처럼 학벌도 안 되는 사람들은 돈이라는 무기가 있어야지** 나중에 갑자기 뭐가 일이 안 잡힐 때 여유라는 게 있으니까 면접자: 학벌이나 어떤 학위 이게 없으면 돈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안○준: 네, 안정적인 직장을 못 잡고 여기저기서 일해야 되니까 (2023)

정○우: **아무래도 돈이 있어야지.** 이제 돈이 있어서 한 칸씩 올라가는 게 그래야지 좀 더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중략) 성취도 있고 뭔가 마음이 편안해요. (2019)

정○우: **신경 쓰이는건 돈이죠 뭐.** (중략) 생활에 제일 필요한 게 돈이니까. 돈을 안벌면 삶이 유지가 안되니까 제일 큰거죠. (2021)

면접자: 그러면 ○우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정○우: **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중략) 돈이 많으면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2023)

② 선별적 취업 전략

연구참여자들은 구직 과정에서도 나름대로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우선, 취업 시 사회적 편견이나 은연중에 겪어온 불리함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일부 참여자들(안○린, 성○연)은 고등학교 학력을 요구하지 않는 직장에 지원서를 내는 전략을 택하고 있었다. 또 다른 연구참여자들은 일하는 분야에 따라 학교 중퇴 이력이 전혀 장애 요소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학력을 고려하지 않는 직종에서 일을 하거나,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 일자리의 경우 학력에 따른 차별이나 취약성을 체감하지 않고 있었다. 더욱 안정적이고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일자리를 염두에 두기 전에, 안○하는 단순한 직종의 아르바이트를 구하며 생계를 유지했던 경험이 있었으며, 이때는 차별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역시 조○빈도 고졸 학력 수준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현재 근무하는 자리에서 특별히 차별을 경험하지 않았다. 전기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장직 일을 하고 있는 박○혁도 자신이 종사하는 분야에서 차별을 경험하지 않았고, 오히려 경력이 쌓이면서 대우를 받게 되는 것 같다고 말한다.

안○하: 차별 받은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알바나 그런 것만 지원했죠.** 너무 높은 건 제가 지원하지 않았어요. (중략) 최대한 간단한 일? 서빙, 당구장, 주유소?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중략) 알바 개념 식으로만 찾았죠. (2018)

조○빈: 지금은 제가 **조무사를 따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잘된, 제가 생각했을 때 잘된 케이스 같아요.** 아직까지는 (중략) 페이도 크게 나쁘지 않고 (중략) 지금 병원 사람들도 다 괜찮고 그래서 (2021)

조○빈: 엄청 어려운 느낌은. 제가 물론 진짜 대기업이나 일반적인 회사 같은 데에 들어가려면 **자격증도 아예 없고 그렇다 보니까 벽을 많이 느끼는데 사실 간호조무사로 병원에 들어가는 건 크게 어려움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2022)

박○혁: 기술직만 해서 그런지 그런 건(불이익이나 차별) 없어요.

면접자: 그러면 기술직이 아니라 일반 회사였다면 확실히 불이익을 겪었을 것 같으세요?

박○혁: 아무래도 그렇죠. 보면 회사는 전형이 여러 개 있잖아요. 대학 전형 뭐 이런 수준의 학업자 아니면 고졸 수준 이런 식으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중략)

□□ 쪽은 아무래도 굵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2022)

③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대처, 현실을 받아들이기

학교를 그만두고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학교를 그만둔 이력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과거였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러한 자신의 과거 사건에 대해 어느 정도 편안한 수준에서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안○린의 경우 학교를 그만둔 생애 사건은 심리적 트라우마 수준으로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기억이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을 만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염두에 두었던 부정적 선입견이 아닌, 개인적 생애 사건의 일부라는 일상적 반응을 여러 차례 경험하면서 자신의 과거 학교를 그만둔 사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었다. 또 다른 연구참여자들도 현재 비교적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의 영향도 있으나, 자신의 현재 상황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자세를 갖게 되었다.

안○린: 그래도 마음은 편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런 말을 하면 큰일이 날 거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고 오히려 나는 이런 상처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도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냥 이게 나지 아니면 그럴 수도 있지 그냥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해야 스스로도 마음이 편안하고 (중략) 주변 사람들이 ○린이 진짜 힘든 시간을 겪었네, 어쨌든 그런 걸 잘 견뎌서 대학원까지 잘 왔다고 얘기해 준 경험도 있었고 (중략) 애써 절 위로하지 않고 하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2023)

진로 설계나 사회적 인식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했던 어려움에 대한 주변의 자연스럽고 편안한 반응들로 인한 인식 변화 외에도 연구참여자들 중 일부는 담담히 과거의 사안으로 수용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학교를 그만둔 것은 크게 장애 요소로 작용하지 않거나,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종에 어느 정도 만족감을 느끼며, 과거의 사건에 대해 수용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연구참여자들도 있었다. 이러한 연구참여자들의 태도와 노력은 앞서 살펴본 ‘역경 후 성장’ 개념과 같이 학교를 그만둔 사건에 대한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조절하려고 노력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를 수용하면서 일면 성장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성: 일단 좀 저는 처음에는 안 좋게 생각했는데 고등학교, 대학교도 체육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중략) 나중에 돈도 많이 벌다 보니까 딱히 중학교 때는 좋은 게 없어서 고등학교 가도 똑같은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중략) 다시 17살로 돌아가도 다시 일할 것 같아요. (중략) 몇 년 전까지 그 생각밖에 안 들었는데 남들 놀 시간에 나는 일만 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는데 지금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하면 그때는 아마 일을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2019)

조○빈: 거창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간호조무사로 나이 들어서도 할 수는 있는 일이라서 딱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략) 의지가 박약해서 지금 당장은 돈을 우선으로 벌고 싶은 것도 있고 (2023)

성○연: 그냥 받아들이고 있어요. (중략) 제가 잘 됐으니까 (중략) 지금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회사에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도 알 사람은 이름 대면 아는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잘 됐으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안 됐으면 계속 후회했을 것 같아요. (2023)

④ 주변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전략 터득

연구참여자들은 학교 밖의 일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나름대로 더 열심히 노력하는 방법을 터득하였다. 박○혁은 학교 재학 중에도 진로에 대한 안내나 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이 혼자 대응하는 과정을 익히게 되었으며, 이러한 적응 과정은 일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항상 30분 전에 일터에 도착하여 준비를 하는 습관을 길렀다. 역시 조○빈의 경우도 사회생활 과정에서 스스로 적응하는 방식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순발력있게 대응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주변의 인정을 받게 되었다. 김○성의 경우도 일을 시작할 때 어려움과 긴장으로 힘들었지만, 시간이 가면서 되도록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선배로서 여유를 갖게 되었다.

박○혁: 실제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지금은 안 좋게 봤던 사람들도 지금은 좋게 봐요. 부지런하고 (중략) 부지런하고 그렇다고. (2019)

박○혁: 일단은 제가 잘 모르는 그때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자재 이름도 다 모르고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서 많이 혼나기도 했었거든요. 저는 항상 일을 하는 30분 전에 갔던 것 같아요. (2023)

조○빈: 사회생활을 일찍 하니까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제 또래 말고 더 나이가 있는 사람들을 상대하게 되면서 파악을 진짜 많이 하게 되고 눈치도 빨라지고 이런 게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작용이 많이 돼서 지금 인정을 받고 그 사람이 나를 높게 평가하는 게 뭔지 찾아내서 하게 되고 이런 게 노력했다면 그런 것 같아요. 눈치 있게 행동하는 (2023)

김○성: 현재로서 아직은 사회라는 큰 벽을 부수고 있는 느낌, 요즈음 많이 힘들어서 사회라는 존재에 벽을 많이 느껴서 밑에서부터 부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중략) 아마 제가 **일반학교를 다니고 똑같이 취업**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성장은 못했을 것 같아요. (중략) 남들보다 **일찍 취업해서 사회에 발을 들인 게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2022)

김○성: 아무래도 시간인 것 같은데 처음에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들어갔을 때도 막내부터 시작해서 선배들이 뭘 얘기할 때도 낮가려서 되게 긴장하면서 배우고 있었는데 (중략) 일단 **립보**이지 않게 열심히 일하는 거 **설령 실수를 하더라도 최대한 덜하는...** (2023)

연구참여자 장○이는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이 학교를 그만둔 이력에 대응하고 있었다. 차별이라고 여겨지는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의제기하였고, 학교를 그만둔 이력과 관련해 자신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학력을 취득하고 씬 없이 살아온 삶의 궤적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주변의 인정을 얻어내고 있었다.

면접자: 본인은 별로 차별 받는다는 생각은 안 하신 거예요?

장○이: (차별받을 때) **같이 따졌으니까. 내가 만약 따지지 않았다면 차별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따지고 나서 할 말 다 하고 와서 굳이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2018)

장○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을 때도 **나는 고등학교를 자퇴는 했지만 검정고시를 봤고 대학을 갔다** 왔고 **나는 너희들이랑 다르지 않다**. 다른 길을 왔다고 한들 똑같이 행동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걸 인정받으려고 좀 더 많이 노력하게 됐던 게 있기 때문에. (2021)

장○이: 제가 자퇴를 한 걸 모르니까 얘기를 하면 너 자퇴했었니? 이런 느낌이 많이 강하거든요. 그래도 너는 모난 부분이 없다는 얘기를 하세요. 저는 18, 19살 때 돈을 벌어서 대학 등록금비를 한 학기는 직접 냈어요. 그걸 얘기하니까 많이 다르게 보시더라고요. **너는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검정고시로 대학을 따로 들어갈 생각을 했니** 이런 식으로 그런 걸 바꿀 때 (중략) 그런 게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를 나쁘게만 보지 않는 게 있죠. (중략) ...저는 제가 얘기하고 다녀요. 나 학교 안 나왔는데, 근데 대학은 나왔어, 이런 식으로 (2022)

(5)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의미 변화

① 훌가분한 기분에서 복잡한 심경으로 변화

학교를 그만둔 사건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인식은 시간에 따라 달라지고 있었으며, 그에 대한 판단도 단순하지 않고 여러 차원의 해석을 덧붙이고 있었다. 우선, 연구참여자 조○빈은 학교를 떠난 당시에는 학교를 다니면서 경험했던 어려움을 해소했다는 차원에서 단기적으로는 만족감을 느끼기도 하였으나, 그 배경이 자의에 의한 적극적 결정이 아닌,

방해 요인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선택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쉬운 결정이라는 후회도 있었다. 그리고 최○연은 장기적인 계획이나 진로 구상 없이 단편적인 결정으로 학교를 그만둔 것을 ‘철이 없었다’고 인식하기도 하였다.

조○빈: 지금은 또, 학교 다니고 교복 입고 버스 타고 다니는 그런 친구들 보면 다시 교복도 입어보고 싶고, 다시 저러고 다녀보고 싶고 그래요. (2018)

조○빈: 돌아가면 그만두기는 할 것 같아요. 아니. 안 그만둘까? 모르겠어요. 안 그만두지 않을까요? (중략) 그럼 학교생활도 놓치지 않고 이 친구들을 만나는 기회도 안 놓치고 그런 거잖아요. (2019)

조○빈: 학교를 그만두면서 그냥 학교를 그만두서 그 순간의 행복함 있죠. 학교 안 나가도 된다 그런 것만 있었고 오히려 저는 그때 당시에 왕따를 당했다는 그런 것들이랑 그런 걱정은 없었어요. (중략) 지금은 괜찮은데 가끔 옛날을 생각하면 아까운 부분도 있어서 엄청 큰 후회는 아니지만 그때와 같은 선택을 할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가 다른 타인에 의해서 제 멘탈이 흔들려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진 않아야겠다 이런 생각... (2023)

최○연: 살짝 후회하는데, 가끔씩 자퇴한 친구랑도 얘기하는데, 교복 입고 싶다, 학교 다닐 때 좀만 더 다닐 걸. 친구는 1학년 2학기 때 했거든요. 그런데 별로 학교가 재미있진 않았어요. 그때도. 그런데 학생들 지나면서 보면 다시 다니고 싶긴 해요. 애들 동창회하고 할 때 못 가니까 그건 좀 있어요. (2018)

최○연: 좋은 거는 그냥 자유로워진 거? 학교에 안 나가도 된다. 하고 처음엔 좋아했어요. 그러고 이제 안 좋은 거는 이제 계속 놀다 보니까 이제 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아, 일 해 야지. 그러다가 이제 알바, 알바 구하면서 일하는 게 힘들었죠, 이제. 그러고 나서 학교, 어, 이제 그만두고 후회한 거는 이제 거의 성인 되고 후회했던 것 같아요. 학교 애들 다니는 거, 학생들 지나가는 거 보고 ‘아, 나도 학교 가고 싶다.’ 생각했어요. 근데 딱히 막 안 좋은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두고. (2019)

최○연: 처음에는 되게 신났고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철이 없었어요. (2023)

② 커지는 후회 감정

학교를 그만둔 이후 단기적 시점에서는 별다른 아쉬움을 느끼지 못하였으나, 장기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아쉬움과 후회를 느끼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여러 차례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매번 후회된다는 반응을 하는 안○하의 경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선택에 대해 지속적으로 후회 감정을 일으키고 있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두게 된 안○준은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며, 현재 보다 안정적인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학력이 필요함을 체감하며 과거의 선택에 대해 후회를 하고 있었다.

안○하: 옛날 어릴 때는 학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취업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학력이 있더라고요. (2019)

안○하: 과거에는 그냥 학교 안 나와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돈만 벌면 되지 아무거나 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필요하고 과정이 있어야 어느 정도 내가 과정도 있으면 내가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고등학교도 그런 거 때문에 있는 것 같고 (2022)

안○하: (학교 그만둔 것) **항상 인터뷰할 때마다 되게 후회해요.** (중략) 만족이 거의 0인데 (중략) 남들은 하나라도 전문성이 있는데 이게 학교를 안 가게 되면 거의 전문성이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중략) 미래를 걱정하는 거죠. (중략) 나중에 늙어서 어떻게 먹고 살지? 그런 생각이...(2023)

안○준: 집에서 아무 생각 없이 있을 때 **학교나 다녔으면 하다가. 힘들 때는 그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사는 거죠.** (중략) (학교는) 편한 곳이죠. (중략) 앉아서 그냥 공부만 하면 되니까. (중략)그 당시는 편하죠. 가면 점심 주고. 공부 하고. (2019)

안○준: 아무래도 애가 중학교 정도만 돼도 물어볼 것 같아요. 아빠 어디 나왔냐고 (중략) 애들이 빠르니까, 거짓말할 수는 없고 이게 (중략) **고등학교까지 밖에 안 나왔다고 거짓말 칠 것 같아요.** (2022)

안○준: 지금 이 나이 먹고 생각하면 후회 되죠. (중략) 좀 대학교 못 나온 게 (중략) 제가 안정적인 걸 찾으려고 지금 정규직이 아니다 보니까 □□자격증 2급 같은 걸 따려고 하더라도 제한된 게 많더라고요. (2023)

학교를 그만둔 결정에 대하여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만두기보다 전학을 갈 것 같다고 한 참여자도 있었다. 성○연은 학교를 그만둔 후 검정고시 합격, 수시 대입 합격 등으로 학교를 그만둔 선택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하였지만, 직장 생활을 하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학교를 중퇴했다는 생애사건을 드러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주변 지인이나 남자친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비밀처럼 여기는 측면도 보였다.

성○연: (검정고시 및 대학 합격) 되게 좋았어요. 우선 가족들이 제가 합격했다고 하고 나서, 가족들이 가장 기뻐했어요. 다행이다 싶었고, 저는 그런 믿음을 보여준 거가 가장 기뻛고. 또 저를 믿어준 가족들한테도 고마웠고 **저 스스로 뿌듯했던 것 같아요.** (2018)

성○연: 뭔가 사실 **최근에 학교를 관둔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2019)

성○연: (전략) 그때 어떻게 혼자서 자퇴를 하고 자립을 할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지금이라면 무서워서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그런 선택을, **남들이 봤을 때는 정말 큰 선택인데 이거를 확고하게 결심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라고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2021)

성○연: **조금은 후회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들어간 고등학교가 공부 잘 하는 애들만 가는 고등학교였는데 그냥 평범한 일반고에 갔다면 이렇게까지 압박감을 받진 않았겠다 싶어서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전학을 갔을 것 같아요. (중략) (부정적 느낌) 좀 더 심화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람들한테 말하고 이런 게 아무렇지 않았는데 점점 저도 나이가 들고 주변 사람도 많이 만나고 그러면서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중략) 제가 좀 뭔가 고등학교를 자퇴했다는 말을 회사 사람들에게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심지어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한테도 ... 말을 하면 공부 못했나? 예전에 놀았던? 양○치였나? 이렇게 생각할까 봐 이걸 나만 알고 싶은 비밀이 된 것 같아요. (2023)

③ 사회생활 경험에서 얻어지는 긍정적 평가

연구참여자들이 학교를 그만둔 생애 사건에 대한 인식은 일방향적으로 전개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아쉬움이나 후회가 심화되기도 하고, 과거 후회나 아쉬움은 또 긍정적인 정서로 변화하기도 하였다. 과거 사건에 대해 후회와 아쉬움을 이야기하였던 조○빈은 학교를 그만둔 배경에 대해 괴롭힘이라는 외적 여건으로 자신이 의도치 않게 그만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기도 하였지만 현재 위치에서 인정을 받는 경험이 누적되면서, 자존감 상승을 경험하였고 자신이 어려운 역경에서도 잘 버텼다는 평가를 하였다.

조○빈: 제 주변에 다른 저와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보다는 제가 더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 말고 제 주변에서 제가 보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리고 제가 그만두고 저는 제가 운이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안 했는데 검정고시를 붙었던 거였고 간호조무사도 솔직히 말하면 준비를 그렇게 엄청나게 힘들게 공부하진 않았어요. (중략) **제가 학교를 다녔으면 그런 생각도 안 했을 것 같아요**. 나는 어차피 학교에서 성적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고 공부를 많이 안 했으니까 아예 간호 쪽 보건의료 쪽으로 갈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이렇다 할 계기도 없었을 것 같아요. (2021)

면접자: 그럼 학교를 계속 다녔었다면 본인의 모습이 지금과는 달라졌을 것 같으신가요?

조○빈: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는데 별로 그렇게 크게. 오히려 뭔가 일을 더 많이 하고 그리고 사회 경험을 좀 더 많이 한 느낌이어서 그냥 별로. (2022)

조○빈: (전략) 오히려 대학 나온 다른 직원들보다 제가 인정을 받고 있다 보니까 내가 진짜 학력만 떨리고 딱 간호조무사라는 타이틀이 부끄러울 뿐이지 이 직장에서 인정받을 사람한테 인정을 받는다고 하니까 자존감도 좀 올라가고 (중략) 아까 말씀 드렸던 팀장님한테 인정을 받은 거에 제 가정환경 자체도 좋지 않고 부모님이 계셔서 그런 가정도 아니고 학교도 그만두고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잘 해왔다 이 부분에서 팀장님한테 더 플러스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지금 제 직장에서는 그게 더 뭔가 내가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다 오히려 이득을 받은 셈이죠. (2023)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 학교를 그만둔 정○우는 학교를 그만둔 직후 아쉬움과 후회를 느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일 경험에 대해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보다 더 낫다는 평가를 하게 되었다.

정○우: 1년만 더 다닐걸. 몇 개월 더 다니면 졸업장 나왔을 텐데 (중략) **그건 좀 후회돼요. 몇 번만 더 가면 되는데 그걸 안 가서...(중략) 고등학교 졸업할 걸 이런 생각했어요.** (2018).

정○우 굳이 내 사는데 별로 뭐 불이익 받는 게 없으니까. 저는 (불편함)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중략) 그냥 대학을 나왔다. 아니면 고등학교를 나왔다. 안 나왔다. 그 정도? **대학가도 딱히 취업 못하는 애들도 있어서. 전공이 만약에 어떤 전공을 하는데 그 전공을 안 하고 공장 다니는 애들도 있고. (중략) 제 경험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중략) 학교에선 지식밖에 안주잖아요. 저는 이제 몸으로 부딪히는 거잖아요. (2019)

정○우: 달라진 건 딱히 없는 것 같은데요. **학교 중단한 것에 대해서 후회는 없어요.**

면접자: 그럼 좋았다든가. 혹시 오히려 중단해서 좋았던 점이 있으세요?

정○우: **좋은 건 일단은 다른 애들보다 많은 일을 경험해봤다는 거.** 그거 하나만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도 없고 딱히 나쁜 점도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2021)

④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얻어지는 상대적 만족감

연구참여자들이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해 오히려 만족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만족감이나 긍정적 정서는 절대적인 정서는 아니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 우위를 경험할 때 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혁은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만족감의 정도를 만점 수준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이는 주변 사람들이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을 지켜봤고, 군대에서 만난 지인들의 경우 대학 진학 시 적절한 전공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학을 그만두거나 과를 바꾸는 사례들을 접하면서 자신의 경우는 안정된 일을 하고 경제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박○혁: 친구들 보면 얘기 들어보니까 차라리 저처럼 나와서 일을 했으면 자기가 뭐 지금보다는 낫겠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2019)

박○혁: 저는 오히려 그만 뒤서 더 다행이다 라는 생각도 하고 있기는 해요. (중략) 보통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거나, 이러는데 지금 와서 보면 다들 후회하기는 하더라고요. 대학까지 나오기는 했는데도 가서 하는 것도 없고, 왜 갔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했고, (2021)

박○혁: 일단 지금 와서 보면 아직도 놀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다 학교를 나왔다고 일을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게으른 애들도 많고 제 주변에서 저랑 비슷한 시기에 학교를 그만 뒀던 친구들을 보면 다 일을 하고 있긴 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빨리 일하려고 그만둔 케이스들이라서 학교를 계속 다니다가 시간만 버린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일단 졸업만 하고 대학도 가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다 빈둥빈둥 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학교 중단 만족도)10점을 쳤어요. (2023)

비슷한 사례로 안○준도 자신의 상태에 대하여 상대적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결혼하고 자녀를 두었으며 자가 주택을 마련하였고, 현재 생산직에 종사하고 있다. 안○준의 경우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주변에 대학을 나온 지인들도 자신과 비슷한 일을 하고 있어서 크게 다른 점을 찾지 못하겠다고 말하였다. 특히 친구들에 비해 자신은 돈도 모았고, 집도 마련했다는 점에서 상대적 우위를 느끼고 있었다.

안○준: 지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 게 대학 나온 애들도 일 안 하고 있고 집에서 놀고 있고. (2019)

안○준: 제 주위의 (대학 나온) 친구들이 그렇게 잘 됐다는 친구가 없어서, 재보다는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중략) 돈 빌려 달라고 할 때, 그럴 때 그래도 잘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2021)

안○준: 제 친구들은 부러울 게 없어요. (중략) 거의 다 똑같이 살더라고요. (중략) 대학을 나왔어도 공장 다니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저보고) 대단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어떤 면에서?) 술 먹다가 돈 2, 3,000만 원도 없는데 집 사고 하니까...(2023)

연구참여자 장○이도 자신은 일반적인 학교를 그만둔 사람들과는 다르며, 자신은 검정고시와 대학 학력 취득, 스스로 대학 등록금 납부, 심 없는 경제생활 등 나름대로 성취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의 이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점에 대해서 상대적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장○이: (학교를 그만둔 것이) 큰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일반적인 아이들처럼 다르게 나와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런 애들이 경험하지 못한 걸 전 많이 했잖아요. (중략) 지금 난 잘 살고 있으니까 행복하니까 (2018)

장○이: 일단 자퇴를 했다는 게 선입견이 생기잖아요. 근데 선입견을 갖고 일단 봤는데 저의 스토리를 들었을 때 저는 공부를 해서 검정고시를 따고 그걸로 수시 준비를 해서 대학교에 붙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일을 해서 돈 벌어서 등록금을 제가 냈으니까 그리고 그거까지 열심히 다 했고 그런 얘기를 하면 어린 나이에 19, 18살이잖아요. 그 나이대에 그렇게 벌어서 부모님한테 최대한 손 안 벌리려고 하는 걸 보면 진짜 대단하다고 그런 얘기가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2023)

⑤ 마음 한구석에 자리잡은 양가적 감정

연구참여자들은 학교를 그만둔 결정에 대해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등 복합적이고 양가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다. 나아가 자신의 자녀나 주변 지인의 학교를 그만두는 결정과 관련해서는 보다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특히 자녀를 둔 경우 자녀가 학교를 그만두는 선택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학교를 떠나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하고 경제활동을 통해 돈을 모을 수 있었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학교를 계속 다녔더라면 또 다른 배움과 이득이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

조○빈: (학교를 그만둔 결정에 대해) (전략) 그래도 **학교 그만두고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해서 사람들 보는 그런 게 조금 생겨서 그런 부분은 좋은 것 같은데 또 학교를 잘 나왔으면 다른 부분에서 득을 보지 않았을까 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2023)

연구참여자 김○성도 또래들이 학교에 나갈 시간에 자신은 기술을 배우고 돈을 벌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또래 문화에 대해서 모르는 점을 아쉬워했다. 구체적으로, 교복을 입고 또래들과 어울리며 같이 놀지 못했다는 부분을 언급하였다.

김○성: 일단 **중학교 졸업하고 제가 이제 취업을 먼저 한 것에 대해서는 만족을 해요.**

면접자: 그러면 혹시 후회한 적도 있으세요?

김○성: (전략) 취업을 성공해서 직장을 다니고 나서부터 보니까 나의 여가 시간이 없어지고, 퇴근하면 집에 와서 얼른 씻고 자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출근해야 되고, 약간 좀 기계 같이 그냥 출근, 퇴근, 잠, 출근, 퇴근, 잠, 이게 그냥 반복되는 것 같아서, **다른 애들은 다 그냥 나랑 같은 또래들인데 다 놓고 있을 때, 나는 내일 출근 해야 되네, 약간 이런 생각하면서 잠깐 후회한 적은 좀 있었어요.** (2020)

김○성: 아무래도 그만 뒀을 때는 나이가 17, 18살 때쯤이어서 **다른 애들 고등학교 교복 입고 애들끼리 놀러 가는 걸 보면 나도 지금 저렇게 놀 때인데 잠깐 생각을 하다가 개네들은 못 버는 돈을 내가 벌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바꾸긴 해요.** 그리고 재네들이 학교 갈 시간에 나는 일을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게 있어서 (2023)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은 학교를 그만둔 경험이 있지만, 이에 대해 고민하는 후배나 지인에게는 학교를 그만두는 것을 권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자신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경제활동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고등학교 졸업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성○연: 그래도 남들보다 1년이라는 시간을 벌었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평범하게 잘 직장 다니고 살고 있으니까 그때 자퇴한 거에 대해서는 만족은 해요.

면접자: 좋아요. 그러면 만약에 주변에 나 학교 그만두고 싶다고 고민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성○연: **그만두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2023)

정○우: 저는 **그냥 고등학교 나오라고 할 것 같은데** (전략) 고등학교는 기본으로 졸업해야 될 것 같아서 (전략) 학교가 제일 편해요. 학교 다닐 때가 제일 편해요. 그런 것 같아서 (전략)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혼자 살면 의식주도 제가 해야 되고 뭐든지 제가 책임져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책임을 쳐주잖아요. 잘못을 하더라도 (2023)

현재 가족을 이루어 자녀를 두고 있는 연구참여자들은(최○연, 안○준)의 경우 자신의 자녀가 학교를 그만둔다고 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다녀야 한다고 설득하겠다고 말한다. 자신이 학교를 그만둔 것은 되돌이킬 수 없지만 자녀가 학교를 그만두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면접자: 만약에 나중에 딸이 엄마 나 학교 가기 싫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최○연: **항상 생각해봤는데 무조건 가라고 그럴 것 같아요.** (중략) 그때 살짝 방향할 때 제 애기를 해 주면서 학교 가라고 설득하지 않을까요? 좋게 좋게 (중략) 저는 상관없는데 나중에 제 아이가 그렇게 되면 거짓말도 보태면서 학교는 가야 된다고 가르칠 것 같아요. (중략) **저보다 좀 더 나은 삶이 되지 않을까** (2023)

면접자: 본인(자녀)이 학교 다니기 싫다. 학교 재미없다 라고 하면? 받아들일 거 같아요?

안○준: **살지 말라고 할 거 같아요.** (2019)

표 IV-23은 집단A의 질적종단자료 분석을 통해 확인된 학교를 그만둔 것과 관련된 취약성 경험의 궤적과 의미를 정리한 것이다. 이들은 2018년부터 총 4~5차례 면접조사에 참여하였고, 누적된 방대한 분량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들의 학교를 그만둔 이후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 어떻게 성인기 이행을 거쳐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비록 학교를 그만둘 당시 대부분 제도권의 본격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그들은 고군분투하며 어려움을 극복하였고, 현재에 이르렀다.

표 IV-23. 집단A의 학교 밖 취약성 경험의 제적과 의미

※ 주: 각 표시의 의미는 다음과 같음: ● 진학, 진로, 구직과정에서의 취약성 ◇ 주변 시선, 포래 문화, 사회관계 관련 취약성 ● 학교를 그만둔 것과 관련된 의미

번 호	이름 (성별, 생년월일)	'13년 학교 밖 유형	고졸 취득 방법	최종 학력	근로 현황 (2023)	2018년	2019년	2021년(2020년)	2022년	2023년	대응과정
1	안O준 (남, 94년)	직업형	-	고교 중퇴	대기업 공장 (정규직)	◇ 부정적 사회 시선 ● 학교 다니고 싶었음 ● 학교는 편한 곳 ● 이수율, 후회됨	● 안정적 직장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느꼈음 ● 구직정보 취득과정에서 안내처가 불안정적	● 구직 면접과정에서 질문 내용이 다름을 경험함 ● 구직정보 취득과정에서 안내처가 불안정적	● 구직 면접 질문 내용과 시간이 다름 ● 현실 수용, 이수율, 오히려 좋음, 후회, 만족	● 구직 면접 내용/양이 다름 ● 안정적 직장을 구하는데 필요한 자격증 취득 조건 미충족으로 인한 어려움 체감	열심히 돈 모으기
2	최O연 (여, 95년)	무임형	검정 고시	고졸	카페 아르바이트	- ● 가끔은 후회 ● 가꿈은 후회	- ● 후련함, 자유로움, 후회 ● 가꿈은 후회	- ● 양기적 감정, 상대적 만족감	● 학교를 제대로 다녔다면 보다 나은 진로 및 직장 선택이 가능했을 것임 ◇ 부정적 주변 시선 ● 후회감 커짐	별다른 경험 없음 ● 긍정적 평가, 복잡한 심경, 양기적 감정	아르바이트와 육아
3	조O빈 (여, 97년)	무임형	검정 고시	고졸	간호 조무사	● 불확실한 미래 진로 ◇ 부정적 주변 시선 ● 후회	◇ 부정적 주변 시선에 대응 ● 후회, 복합적 감정	◇ 부정적 주변 시선 ◇ 공동체생활 체험 부재	● 검정고시 후 대학 준비 관련 정보 취득의 취약성 ◇ 학교 공동생활 체험 부재 ● 후회, 양기적 감정	● 원하는 자격 취득에서 학력 부제로 인한 어려움 ◇ 고교생활 공통 경험의 부재 ● 복잡한 심경, 긍정적 평가, 양기적 감정	선별적 구직 시도, 자신의 차이에 대한 수용적 태도, 더 열심히 노력

번 호	이름 (성별, 출생년도)	'13년 학교 밖 유형	고졸 취득 방법	최종 학력	근로 현황 (2023)	2018년	2019년	2021년(2020년)	2022년	2023년	대응과정
4	박O혁 (남, 95년)	직업형	검정 고시	고졸	전기설비 시기업	◇ 부정적 주변 시선	-	-	◇ 부정적 주변 시선	● 정규 학교 졸업자에 비해 이른 자립에 대한 부담감 ◇ 부정적 주변 시선	선별적 구직, 주변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전력(더 열심히 노력하기)
5	안O하 (남, 95년)	무임형	초, 중졸 검정 고시, 방송 통신고 통신고	고졸	물류창고 업무	● 스펙이 필요없는 아르바이트만 지원 ● 구직과정에서 자격증 부족, 학력 부족 체감 ◇ 학교 친구관계 형성의 취약성	● 긍정적 ● 대학진학에 대한 고민	● 긍정적	● 긍정적(때로는 열등감), 하지만 만족감	● 긍정적, 양가적 감정, 상대적 만족감	열심히 돈 모으기
6	장O이 (여, 95년)	학업형	검정 고시	대졸	간호 조무사 (간호대 준비)	◇ 동료로부터 무시당함 ● 무시 경험, 만족감, 적극적인 대응	-	-	-	◇ 고등학교 친구집단 부재 ● 긍정적 평가와 자신감, 양가적 감정	주변의 인정받기 위한 전략 (더 열심히 노력하기), 지속적 적인 자기계발
7	안O린 (여, 96년)	학업형	검정 고시	대학 원	대학원, 대학 조 교 근무 예정	● 이력서 작성 시 지퇴사실 노출 말리는 조언 ● 진학정보 취득과정에 서 고군분투 ◇ 학업중단자에 대한 친구의 비하 발언 상처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주변의 편견에 심리적 어려움 ◇ 학교를 그만둔 선택에 대한 개인적 책임감으로 스트레스 기증	● 검정고시 후 대학준비 과정에서 취약	◇ 자퇴에 대한 심리적 스트레스 ◇ 지퇴 경우에 대한 주변 의 인식 ● 취업에 대한 불안감	● 이력서 작성시 고등학교 이력을 적어야 하는 것은 바체 ● 검정고시 후 대학 준비과정에서 취약 ◇ 고등학생 문화 체험 부재 ◇ 부정적 사회 시선에 대응	선별적 취업 서류 접수, 자 신의 처지에 대한 수용적 태도 갖기

번 호	이름 (성별, 출생년도)	'13년 학교 밖 유형	고졸 취득 방법	최종 학력	근로 현황 (2023)	2018년	2019년	2021년(2020년)	2022년	2023년	대응과정
						고교 중도에 대한 후회는 없지만, 대학 선택에 대한 아쉬움	주변의 편견 체감, 적극적 대응 하지 않음, 공황장애, 양극성장애	부정적, 부끄러움, 아쉬움	결핍감에 대한 보충 노력, 후회 증가	심리적 트라우마, 긍정적 수용과정	
8	성○연 (여, 97년)	학업형	검정 고시	대졸	정산관련 분야 회사 정규직	자퇴 후 검정고시, 대입, 취업에 대한 압박감 느낌	- 자퇴 후 검정고시, 대입, 취업에 대한 압박감(주변의 시선) - 친구관계에 대한 아쉬움 - 고등학교생활 경험 부재에 대한 아쉬움 - 부정적 사회 인식	- 이직 준비 과정에서 느끼는 한계 - 친구관계에 대한 아쉬움 - 고등학교생활 경험 부재에 대한 아쉬움 - 부정적 사회 인식	- 이직과정에서 느끼는 리스크, 면접과정에서 느끼는 위축감 - 부정적 사회적 시선 - 학교생활경험 부재, 학교 친구 집단 소속감 부재	- 이력서 작성과정 - 대인관계 형성이 어려움 - 고교생활 경험의 부재 - 부정적 사회 인식	선별적 취업 서류 접수, 자신의 처지에 대해 수용적 태도 갖기
9	정○우 (남, 94년)	직업형	-	고교 중퇴	가구배출 업체 정직원	- 불확실한 미래 진로 - 아쉬움, 후회	아쉬움, 후회, 생각하지 않음	-	(인터뷰 참여자 아니었음)	- 후회하지 않음/차별경험 없음 - 긍정적 평가와 양극적 감정	열심히 돈 모으기
10	김○성 (남, 98년)	직업형	방송통신고 (D 직업학교)	고졸	대학병원 보안업무	- 고등학교 생활 경험 부재에 대한 아쉬움 - 고등학교생들에 대한 부러움, 학교를 그만둔 것 후회	- 구직 시 대졸 요건에 필요하지 않은 곳으로 지원 - 학업에 대한 아쉬움 없음	- 대인관계 형성이 사고성 부족 - 부정적인 주변인식	- 대인관계 형성에서 사고성 부족 - 부정적인 주변인식 - 현실 수용, 양극적 감정	- 대인관계 형성과정의 어려움 체감 - 포레 학생 문화 부재 - 부정적 사회 인식 - 긍정적 평가, 양극적 감정	더 열심히 노력하기, 현실을 수용하기

6. 요약 및 시사점

1) 조사 및 분석 개요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한 취약한 부분들과 극복 요인, 그리고 지원 요구들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학교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 연구참여자 3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학교를 떠나고 이미 성인이 된 20대 중·후반의 청년 10명(집단A), 4~5년전 학교를 그만두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경험한 청소년 10명(집단B), 가장 최근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 10명(집단C)을 대상으로 하였다. 심층면접은 연구참여자가 온라인/오프라인 중 선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면접내용은 학교 밖 경험과 심리사회적 어려움, 진로준비, 진학/취업, 자립에서의 어려움, 환경체계에서의 취약성 등 여러 차원에서의 취약성/불리함/어려움 등을 파악하였다. 아울러 어떠한 극복요인이 있었는지, 그리고 필요로 하는 지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면접조사하였고, 조사결과는 세 집단에 대한 횡단비교분석에 활용되었다. 집단A는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의 지원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현재 성인으로서 상당수 자립의 길을 가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전 학교 밖 연구에서 2018년부터 4~5차례 가장 오랜기간 면접에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이들의 축적된 자료를 활용하여 질적종단분석을 수행하였다. 면접조사 기획과 실행, 결과분석에 이르기까지 기관 IRB승인뿐 아니라 연구윤리 및 개인정보보호 등에 주의를 기울이고자 하였다. 세 집단 횡단자료분석은 복수집단 사례 분석과 반복적 비교분석법을 통해, 집단A의 질적종단자료분석은 구성주의적 근거이론 접근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2) 횡단자료 비교 분석 요약

집단A는 20대 중·후반의 직장인이 다수였고, 대부분 원가족과 분리하여 생활하고 있었으며, 일부 결혼하여 자녀도 있었다. 집단B는 연구참여자 4명은 대학 재학 중이었으며, 2명은 복교하여 고등학교 재학 중이었으며, 나머지는 자격증 학원을 다니거나, 아르바이트를 병행하였다. 집단C는 최근 1~2년전에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로 2명을 제외하고 모두 대학 입학준비를 하고 있었다. 집단별로 학교를 그만둔 이유를 살펴보았을 때, 집단A의 경우 대체로 결석이 잦아지면서 자퇴를 권유받아 학교를 그만둔 사례가 많았으며,

친구 간 갈등이나 학교 분위기 문제 등으로 그만두기도 하였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진로 모색을 위해 그만둔 경우는 1명에 불과하였다. 집단B의 경우는 친구관계의 어려움이나 학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그만둔 사례들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3명은 대안적인 진로 모색을 위해 그만두었다. 집단C는 학업중단숙려제가 정착된 시기에 학교를 그만두었기에 학교를 그만두는 것에 대한 의지가 강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중 대다수는 대입준비를 염두에 두고 학교를 그만두었으며, 또래 및 가족문제로 학교를 그만둔 사례도 있었다.

심리적으로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회, 불안감, 위축감, 우울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가 집단A, B, C 모두에서 나타났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서 후회감이 커지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주로 안정적인 미래 진로 추구 과정에서 학교를 그만둔 이력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체감하는 집단A 참여자들 중 일부에서 나타났다. 세 집단 모두 학교를 그만둠에 따른 성취 부담감을 갖고 있었는데, 집단C에서 부담을 토로한 사례가 더 많았다. 한편, 학교를 그만둔 뒤 느끼는 부정적 정서는 시간이 흐르고 여러 가지 경험이 쌓이는 과정에서 보다 가치중립적이거나 수용적 태도로 바뀌기도 하였다. 심리적 취약성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이들은 스스로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제안했으며, 심리 상담, 사람들과의 소통,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집단C의 경우 꿈드림센터의 상담이나 지원서비스가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사회적 취약성과 관련해서는 학교 친구 부재나 또래 문화 경험을 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등 학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 문화적 자본 취약성이 도출되었다. 세 집단 모두 학교 친구가 없다는 점에서 아쉬워했으나, 학교 또래 문화를 경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오래전 학교를 그만둔 집단A, B에서 아쉬움이 보고되었다.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인한 주변의 부정적 인식도 상당히 많이 경험하고 있었으며, 특히 학교를 그만둔 지 얼마되지 않은 집단C의 경우 익숙하지 않은 이러한 인식에 더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 중에는 학교를 그만둔 사건에 대해 비행이나 일탈로 여기는 시선을 마주해야 하고 그때마다 자신은 그렇지 않음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으로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집단A는 직장생활을 통해 대인관계를 잘 형성하기도 노력하였으며, 집단B는 꿈드림센터 등을 통해 또래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진로준비에서의 취약성으로 먼저 진로관련 정보 및 지원부재가 도출되었는데, 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거의 받지 않은 채 사회생활을 시작한 집단A에게서 특히 더 두드러

졌다. 또한 진로준비와 관련해서 집단B와 C는 학교의 전문교사와 정보제공 등 전문적인 지원을 다시 재인식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고, 집단A와 B는 학교를 다녔다면 더 나은 진로가 펼쳐졌을 것으로 생각하고 학교를 그만둔 것을 후회하기도 하였다. 집단B에서는 진로준비를 위한 지원이 학교를 그만둔 이후 불충분했고 혼자서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진로준비와 관련하여 경제적 어려움이나 불안감, 수면시간 불규칙 등 생활관리의 문제도 도출되었다. 일부 경제적 문제가 해소되었거나 복교하면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였으며, 꿈드림센터와 친구랑센터, 내일이룸학교와 같은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가 많았는데, 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경험한 집단B와 C에 한정된 이야기였다. 일부 집단C의 청소년들은 취약성 극복요인으로 개인역량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진로준비에서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흥미와 관심에 맞춘 수요 맞춤형 진로지도 및 상담과 같은 지원방식의 개선과 다양한 진로직업프로그램 운영이 제안되었다.

대학준비와 관련된 취약성에 대해서는 청소년생활기록부 등 대학진학을 위한 지원을 경험한 집단B와 C에서 관련 보고가 많았다. 대학진학의 이유는 먼저 가족의 기대나 희망 때문이기도 했고 자퇴 조건이기도 했으며, 더 나은 직업을 위한 선택이기도 했다. 대학진학 준비에서의 취약성과 관련하여 특히, 지원을 받을 기회가 없었던 집단A는 진학관련 정보 부재에 대해서 언급했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부족에 대해서는 관련 지원을 어느 정도 경험한 집단B에서 여럿 나타났다. 또한 집단B와 C는 진로 설계에서의 어려움, 전문적, 체계적인 지원 부족, 대입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전략 미흡에 대해 언급하였지만, 일부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둔 것이 오히려 대학입시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으며, 상당수 꿈드림센터에서 입시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진학 준비에서의 취약성 극복을 위해 집단B와 C는 진로적성 탐색 및 상담, 지원 확대에 대해서, 또 실질적인 입시지원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집단C는 개별적인 역량을 고려한 눈높이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스터디 카페와 같은 공간 제공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이는 꿈드림센터가 변화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대응하되, 어느 정도 범위에서 제한된 자원/지원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기도 하다. 한편으로 이렇게 많은 수가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양상은 오래전 학교를 그만둔 집단A와 상이함에 따라 이들이 대학에 진학한 이후 어떤 모습으로 성인의 삶을 살아갈지 예측하기 어렵다.⁵⁵⁾

55) 현장실무자 FGI에서 최근 대학에 진학한 사례들 중에 휴학이나 자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꿈드림센터의 제한된

취업이나 아르바이트 과정에서의 취약성은 대체로 집단A 참여자 중에서 많이 나타났는데,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이력서 작성 시 불편함과 제한적인 직업기술훈련 선택지에 대한 아쉬움을 피력했고,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을 통한 대처 등 개인적인 노력도 수반되었다. 집단B에서도 아르바이트 면접에서 불리함을 경험한 사례도 있었고, 부정적 시선을 신경쓰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기도 하였다. 기관 연계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었던 사례도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립의 의미를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혼자 생활하는 것뿐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는 심리적, 정신적 독립을 함께 언급하였다. 자립했다고 생각하는 집단A의 한 사례자는 취업, 주택구입, 가족 및 자녀와 같은 전통적인 의미의 자립을 이야기 하기도 했다. 자립 관련 취약성에 대해서 집단B와 C는 혼자서 준비해야 하는 부담, 정보부재 등을 언급했지만 특별히 어려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참여자들은 개인의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가족의 지지와 같은 사적 지지체계와 국비 지원을 통한 자격증 취득과 같은 공적 지지체계 도움 사례도 있었다. 자립과 관련된 지원 요구에는 진로준비와 취업지원, 주거지원, 그리고 지원대상자의 의지를 고려하거나 구체적인 생활 속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식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

환경체계에서의 취약성으로는 한부모 가족이나 조손 가족인 사례가 상당히 많았으며, 부모가 존재하나 적절히 지원하지 못하는 기능상의 문제를 가진 가족환경에서 성장하는 사례들도 존재하였다. 이러한 여건이 학교를 그만두는 과정에서 부정적으로 개입하기도 하였으며, 부모 입장과의 견해 차이로 가족 간 갈등이 심화되기도 하였다. 극단적인 경우는 가족을 벗어나 청소년쉼터의 지원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가족환경에 대한 보완재로서 지역사회 자원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집단A의 경우 학교 중단 시점에 적절한 지역자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개별적으로 직업훈련서비스를 찾아 지원받는 정도였으나, 집단B와 C는 꿈드림센터를 통해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연계 받고 있었다. 이러한 환경체계가 보다 더 적절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그만둔 직후 바로 서비스 연결이 이루어져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역 간 편차로 서비스의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촘촘한 지원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그림 IV-5는 본 분석결과를 간략히 정리한 것으로, 취약성에 초점을 둔 보다 상세한 내용은 표 IV-24와 같다.

인력 상황으로 이들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주: *표시는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평가, 감정에 대한 보고 내용

그림 IV-5. 연구참여자 집단A, B, C 주요 분석결과 비교

표 IV-24.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취약성과 지원 요구 등 집단 간 비교 세부 내용

영역	하위영역	주요 내용(범주, 키워드)		
		집단A(20대 중후반)	집단B(10대 후반~20대 초)	집단C(10대 중후반)
심리적 취약성 관련	부정적 정서	• 후회감 - 시간이 지나면서 후회감 증폭 - 결혼/자녀출생으로 책임감 - 직장생활하면서 더 후회함 • 위축감 - 직장생활을 오래하면서 심화 • 학교를 그만두면서 더 잘해야 한다는 성취 부담	• 후회감 - 시간허비가 많아 후회 - 학교를 그만둔 것 후회 • 위축감, 외로움 - 학교시절 에피소드 대화 시 - 외로움 느낌 • 학교를 나온 뒤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	• 후회감 - 학교를 그만둔 것 후회 • 불안감, 슬픈 감정, 우울함 • 학교를 그만두면서 성취부담 - 잘하는 것을 찾아야 함 - 스스로 책임져야 함 - 대학진학에서 재학생인 친구와 비교되어 부담
	양가적 감정 긍정적 측면 발견	• 위축감을 수용하고자 함 • 처음에는 후회했지만 돈을 벌고 있어 긍정적으로 느낌	• 처음에는 사회적 문제가 있다고 걱정했지만, 자신의 선택에 대해 자부심 가짐	• 대체로 만족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하고 싶은 아쉬움 • 심리적 안정감 느낌
	극복방법 및 지원 요구	• 열심히 경제활동 • 담담하게 받아들이려는 노력	• 자선에 대한 긍정인식 갖도록 노력 • 대학입학	• 꿈드림 상담 및 지원서비스 • 청소년쉼터에서의 소통 도움
사회적 측면 취약성 관련	학교로부터 얻어지는 사회, 문화적 자본 취약성	• 학교 친구 부재 아쉬움 - 학교 친구가 많이 없어 후회, 아쉬움, 우울함 • 학교 또래 문화 경험 부재 - 고등학교 또래문화 부재로 대화에 끼지 못함 - 수학여행 등 추억 부재	• 학교 친구 부재 아쉬움 - 사회성 발달, 인간관계 형성 어려움, 불리함 우려 - 친구관계 소원, 단절, 악화 - 인간관계 좁아짐 • 학교 또래 문화 경험 부재 - 고등학교 일상 체험 부재 아쉬움	• 학교 친구 부재 아쉬움 - 친구관계 단절, 이로 인한 어려움 - 친구사귀기 힘들 - 학연 없이 혼자 학업 중 불안감
	주변의 부정적 인식	—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농담에 상처 • 부정적 시선에 자신을 증명해야 함	• 부정적 시선 - 백수라고 놀림 - 소속 기댈 수 없는 시선 불편 - 부정적 소문 - 자퇴생 신분 드러나지 않음
	극복방법 및 지원 요구	• 회사에서 자연스럽게 대인관계 형성/적응 • 한 두명의 친구로도 충분히 만족	• 학교 밖 청소년 만나면서 편안 • 친한 친구들과의 관계 이어지고 있고 학교 밖에서의 새로운 관계 형성 어렵지 않음 • 꿈드림, 대안학교, 아르바이트, 홈스쿨링에서 친구 만남	• 꿈드림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
	지원 요구	• 좋은 관계 형성 지원	• 장소 및 기회 제공 - 커뮤니티/만남 장소 제공 - 꿈드림에서 친구 모임 기회 제공	• 동아리 형성 지원 • 사회성 향상위한 개인적 대처 방법 필요
진로 및 진로 준비에서의 취약성	정보 및 지원 불충분	• 진로 관련 정보 및 지원 부재 - 진로설계 없이 흘러가듯이 취업 - 정보부족으로 뭘해야 할지 모름 • 진로관련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	• 학교에서의 전문적인 진로지원에 대한 재인식 - 취업, 대입상담, 전문적 지원 가능했을 듯 • 학교 다녔다면 다른 진로였을 듯 • 진로준비를 위한 지원 불충분	• 학교에서의 전문적인 진로지원에 대한 재인식 - 학교 담임, 진로상담교사가 진로준비에 도움되었을 듯 • 진로준비 관련 개인적 문제 - 자퇴는 기뻐하나 막막함, 망가

영역	하위영역	주요 내용(범주, 키워드)		
		집단A(20대 중후반)	집단B(10대후반~20대초)	집단C(10대중후반)
		- 안정적인 직업 갖지 못해 후회 - 자퇴가 아닌 전학을 가서 졸업했다면 더 좋은 회사 취업 가능 • 진로준비 관련 개인적 문제 -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망 진로 준비 못함	- 상담창구가 없음 - 직업체험이 다양하지 않음. - 혼자서 해야 하는 것이 많음 • 진로준비 관련 개인적 문제 - 아무것도 안한 느낌, 불투명, 게으름	진 수면패턴
	문제없거나 극복(요인)	• 원인 문제 해소 - 이른 경제활동 시작으로 돈, 시간, 기회를 얻음	• 원인 문제 해소: 복교 후 만족 • 어려움 극복과 그 요인 - 자원통한 극복: 꿈드림, 친구랑, 내일이룸학교에서의 대입지원, 진로결정, 자격증 취득 지원	• 어려움 극복과 그 요인 - 지원을 통한 극복: 꿈드림에서의 상담, 직업체험, 수당, 인턴십 등 여러 지원 - 개인 역량의 문제
	필요한 지원	• 복교 지원 필요 • 맞춤형 지원 방식으로의 개선 - 지지 및 독려 - 흥미, 관심에 맞춘 지원 - 진로지도, 상담과 정보 필요 • 선택의 폭이 넓은 직업훈련, 본인 선택 전문 학원 지원	• 맞춤형 지원 방식으로의 개선 - 흥미, 관심에 맞춘 지원 - 진로지도, 상담과 정보 필요 - 학원비, 자격증 응시료 등 경제적 지원 • 다양한 직업체험, 장기적인 지원 필요	• 진로관련 프로그램 확대
대학	대학 진학 이유	• 가족의 기대 또는 자퇴 조건 - 가족과의 약속으로 열심히 준비	• 자신의 의지, 더 나은 직업위해 - 자퇴안했으면 대학 진학 생각 없었을 듯	• 가족의 기대 또는 자퇴 조건 • 자신의 의지, 더 나은 직업위해 - 안정적 생활과 대졸이 있어 보임
	대학진학 준비과정에서의 취약성	• 정보 부재/ 고군분투 - 입시제도도 대학의 학교도 몰랐고 혼자 인터넷 검색 • 경제적 문제/가족의 지원 부재: 일과 학업 병행 못해서 진학 하지 않음	• 구체적인 진학 지원 부족 - 진로설계부터 어려움: 학교에 있었다면 관찰했을텐데 혼자 계획세우기 힘들 - 전문적/체계적인 지원 부족: 원서작성 등 입시 준비 어려움 • 대입 제도 아쉬움: 검정고시로 대학진학이 안되는 학교가 있음. • 경제적 문제: 자취생활, 입시준비위한 교통비도 부담, 과외 받지 못함	• 정보 부재/ 고군분투 - 입시요강을 봐도 모르겠음. - 대체서식 준비 정보부재 막힘 • 구체적인 진학 지원 부족 - 전문적, 체계적인 지원 부족: 학교에서라면 교사 지원 가능 - 대입 위한 구체적인 준비/전략 부족: 대회 혼자 준비, 생기부 대체서식 작성에 어려움 • 경제적 문제: 등록금 걱정으로 진학 고민
	대학 진학에서의 취약성			
	문제없거나 극복(요인)	• 가족/주변의 지지 - 가족과 직장 동료 정보 제공	• 대학 진학에 도움 - 효율적 시간 사용, 높은 입결이 아니면 더 수월하고 유리 • 개인적 역량과 친구 등 사회적 관계 도움 • 공적 지원: 청소년쉼터와 꿈드림센터 도움	• 대학 진학에 도움 - 남들보다 더 빨리 대학 진학을 위해 더 빨리 자퇴할 듯 • 공적 지원: 꿈드림센터 지원 - 진학상담, 검정고시 교재, 인강 등으로 경제적 부담 없어짐, 입시컨설팅 도움
	지원 요구	-	• 진로적성 탐색, 상담, 인력 관련 지원 확대 - 학교 전문진로상담교사처럼 • 구체적, 실질적 입시지원 필요 - 개별학습지도, 교재/수업 추가,	• 진로적성 탐색, 상담, 인력 관련 지원 확대(진로체험, 진학상담 위함) • 구체적, 실질적 입시 지원 필요 - 수능 대비반, 독서실, 스터디 카

영역	하위영역	주요 내용(범주, 키워드)		
		집단A(20대 중후반)	집단B(10대후반~20대초)	집단C(10대중후반)
			대입상담, 설명회, 박람회 등	폐와 같은 학습공간
취업에 서의 취약성	취약성 관련	- 취업상황에서 불편함, 불리함 - 이력서 작성 시 불편함 - 희망이나 적성과 다른 직업훈련의 한계	- 취업상황에서 불편함, 불리함 - 이력서 작성 시 불편함 - 아르바이트 면접상황에서의 불리함	중퇴로 아르바이트 기회를 얻지 못함
	극복요인	- 개인적 차원의 요인 - 노력과 자신감 - 시간과 경험	- 개인적 차원의 요인 - 노력과 자신감 - 지원체계 연계의 장점	—
	지원 요구	—	청소년이 일할 기회 제공 희망	—
자립 관련 취약성	자립의 의미	-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혼자 생활 할 수 있는 것: 집, 직장 있음 -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함: 정신적 독립, 부모 도움 없이 - 가족과 자녀가 있음	-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혼자 생활 할 수 있는 것 -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함: 정신적, 심리적 독립, 직접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책임감	-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혼자 생활 할 수 있는 것 -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함: 본인이 책임지고, 스스로 행동하고 홀로서기
	자립에서의 취약점	—	- 혼자서 감당 - 삶의 태도에 따라 개인 차이 - 특별히 느끼지 못함, 없음/모르겠음	- 정보 부재, 인맥 부재 - 학생과 다르지 않음, 없음
	극복요인	- 개인의 노력과 의지 - 노력하고 배우고, 돈 모으고, 버티고 - 가난 때문에 더 열심히 살고, 학교를 그만두고 빨리 자립 - 국비지원 자격증 취득	- 개인의 태도 - 부모님의 지지 - 공적 지지체계: 연계된 기관의 여러 지원으로 독립	개인의 의지
	지원 요구	- 결국 진로준비/취업지원 중요 - 진로결정위해 다양한 경험 - 원하는 진로 선택 지원, 연결 - 직업훈련, 직업체험 시스템 - 지원 방식 재고: 맞춤형 지원	- 주거지원 필요 - 지자체 지원 부족 - 지원 방식 재고 - 생활 관리(월세, 생활비 관리 등) 포함한 다양한 지원 - 본인의 판단/행동 능력 필요	주거지원 필요
환경 체계 에서의 취약한 측면	가족환경의 어려움	- 이주배경으로 학교 적응의 문제 - 본인 가정에 대한 책임감 - 가정형편으로 취업 결심	- 가족관계 갈등 - 학교를 그만두는 문제로 부모와 갈등	- 부모와의 갈등 - 부모 및 동생 질병에 따른 돌봄 문제로 학교를 그만둠
	지역자원의 문제	—	- 관심 자격증 수도권만 가능 - 농어촌 지역 꿈드림 지원 부족 - 지역의 봉사/예체능 지원 부족 - 서울에서 취업 준비 - 꿈드림 지원의 대도시/읍면 격차	지역적 한계로 다양한 활동 참여 제한
	일반 사회인식	여전한 부정적 인식	- 사회적 편견이 줄어들 - 여전히 부정적 인식 체감 - 지원대상으로 보는 것에 대한 불편함	부정적 시선

영역	하위영역	주요 내용(범주, 키워드)		
		집단A(20대 중후반)	집단B(10대후반~20대초)	집단C(10대중후반)
	극복방법 및 지원 요구	- 지역의 이주민센터 지원 - 국비지원으로 자격증 취득 - 멘토링 지원	- 꿈드림 지원에서의 격차 없도록 지원 필요 - 사회적 편견 개선을 위한 성공사례 홍보 및 확산	찾아가는 강사 프로그램으로 지역 격차 해소 희망

3) 집단A 종단자료 분석 요약

종단 분석을 통해서 학교를 그만둔 후 10여년 이상의 생애과정을 거쳐 온 20대 중후반 참여자들이 겪은 취약성 경험과 학교를 그만둔 의미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이들이 참여해 온 면접 전사자료를 기반으로 구성주의적 근거이론 접근(Charmaz, 2006, 2014)을 통해 주요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성주의적 근거이론은 행위자들이 경험한 사건과 현상에 대한 해석과 이해를 중요시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연구참여자들이 학교를 그만둔 이후 차별이나, 불리함, 어려움 등 취약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 그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분석의 초점을 두고 초점코딩을 하였으며, 그에 따른 범주화 과정을 거쳤다.

주요 결과를 제시하면, 우선 연구참여자들은 진학, 진로, 구직과정에서 취약성을 경험하였다. 특히 구직 과정에서 이력서 등 서류 접수시, 면접과정에서 대졸자와 경쟁시 상대적 불리함을 경험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대학 진학을 위한 정보 취득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다. 검정고시를 통한 고졸 학력 취득 후 대입 지원 과정에서는 어느 대학에 어떠한 전형을 통해 지원을 해야 하는지 적절한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미래 진로 설계 과정에서도 안정성과 전문성 있는 직업을 계획하는 데에는 학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현실에 부딪히고 있었다.

다음으로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 취약성을 경험하고 있었다. 고등학교 친구들과의 교우관계 형성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사회관계 폭이 좁거나 이후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고등학교 생활 경험의 부재로 비슷한 또래가 경험하는 학창시절 문화를 공유하지 못하였고, 이는 향후 사회생활에서 학창시절에 대한 대화가 나올 때 소외감을 느끼는 배경으로 자리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주변 지인이나 일반적인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부정적이라서 겪는 어려움도 있었으며, 이에 대해 개별적 해명이나

설명을 해야 하는 과정에서 피로감과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결국 자신이 학교를 그만둔 이력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생애 사건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이들의 학교를 그만둔 생애 사건은 ‘일반적인’ 청소년들이 하지 않는 선택지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실패자나 낙오자라는 낙인을 부여받지 않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 하고, “잘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살아야 함을 토로하였다. 이와 함께, 학교를 일찍 떠나 일을 하는 과정에서 연소자이기에 성인 근로자에 비해 부당한 처우를 받기도 하였다. 또한 학교를 그만둔 일은 가정의 경제적 취약성과 맞물리면서 이들이 미래 진로 설계에도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이들이 성인기 이행 과정에서 자신의 미래 설계과정에 보다 나은 직장 및 직업 안정성을 추구하는 정도(진로 포부)와 그 과정에서 경험하는 취약성 인식 정도에 따른 참여자별 삶의 궤적 유형은 그림 IV-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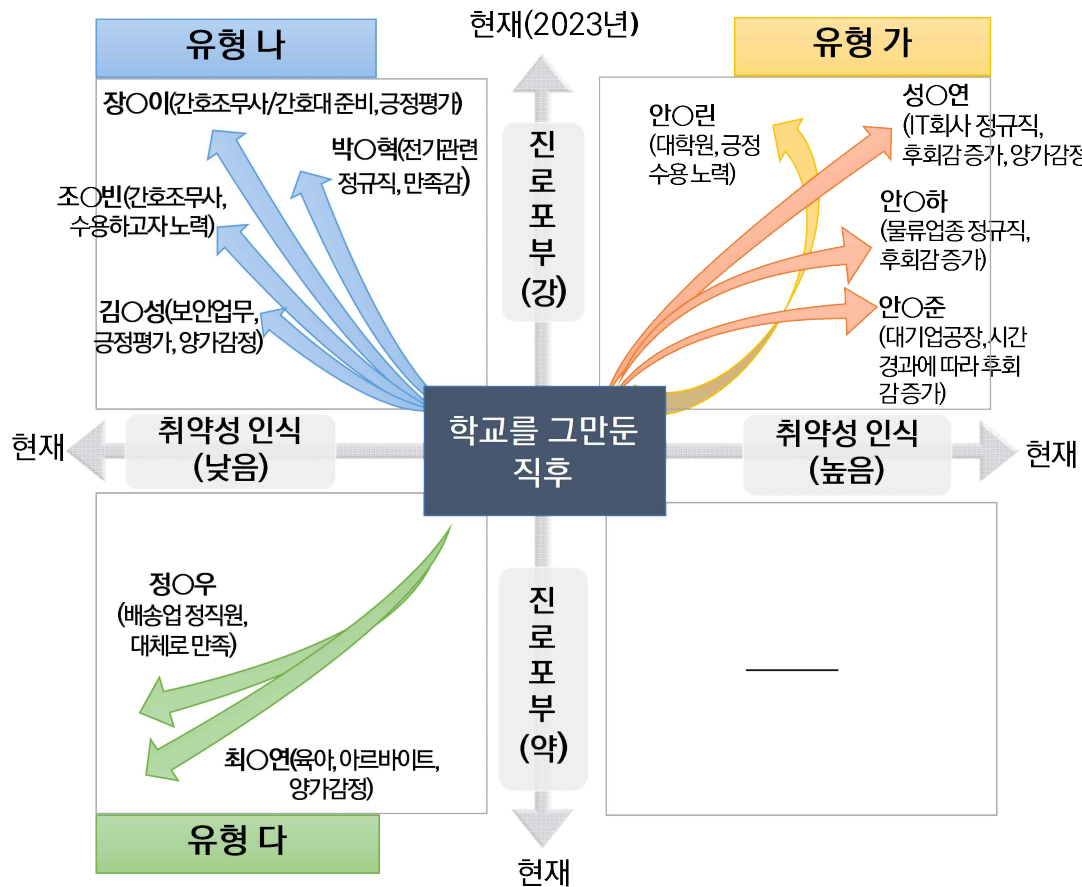


그림 IV-6. 집단A 연구참여자들의 진로포부와 취약성 인식의 궤적 유형

○ 유형 가: 진로포부(강) + 취약성 인식(높음)

먼저 진로를 위해 대학을 진학하고 나름대로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성○연의 경우 직장생활 과정에서 학교를 그만둔 일에 대한 후회감과 취약성 인식 정도가 더 커지는 상황이다. 유사한 안○린의 사례는 대학 학위와 대학원 과정을 수학하는 과정에서 학교를 그만둔 일이 심리적 트라우마 수준이었으나,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과정에서 자신의 인생사건 중 하나로 가치중립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태도를 갖게 되었다. 즉 앞에서 기술했듯이 이 연구참여자의 태도는 결국 이러한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조절하려는 노력이며, 이를 수용하면서 역경 후 성장하는 과정을 경험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다음으로 안○준의 경우 진로 안정성에 대한 욕구는 새롭게 가족을 형성하면서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으며 자신이 학교를 그만둔 이력이 구직과정에서 취약하다는 것을 체감하게 된다. 안○하는 현재 하는 일 수준이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다지 뒤떨어지는 않지만, 장기적 전망에서 자신의 일에 대한 전문성과 안정성이 약하다고 생각하며, 학력 취득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 유형 나: 진로포부(강) + 취약성 인식(낮음)

다음으로 자신의 진로설계 과정에서 학력이나 자격증 등을 취득하여 현재 일자리에 정착하고 있는 참여자들의 경우이다. 이들은 구직 과정에서 학교를 그만둔 이력의 취약성 인식 수준이 비교적 높지 않았으며, 대체로 자신의 일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다. 장○이는 학교를 그만둔 이후 고졸 및 대학 학력 취득,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 후 다양한 일 경험을 하는 와중에도 간호대학 진학을 구체화하고 있었다. 박○혁은 고등학교를 그만둔 뒤 직업 훈련을 통해 여러 개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현재 하는 일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었고, 조○빈은 중졸, 고졸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취득하였고, 다양한 일 경험 이후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었다. 김○성의 경우도 직업학교 졸업 이후 관련 기술을 사용하는 생산직 공장에서 경력을 쌓아가던 중, 승진 차별 등 부당한 처우로 퇴직한 뒤 보안관련 직종에 정규직으로 종사하고 있으며, 어느정도 만족하며 현재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 유형 다: 진로포부(약) + 취약성 인식(낮음)

현재 하는 일에 대하여 큰 불만이 없으며, 주변 지인들과의 상대적 비교에서도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는 시각으로 살아가면서 좀 더 장기적인 시각으로 특별한 미래를 설계하지

않는 사례들도 있다. 정○우는 현재 △△배송관련 업체 일에 정규직으로 종사하고 있으며, 그런대로 괜찮은 일자리라고 평가하고 있다. 최○연의 경우도 육아와 카페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큰 불만 없이 살고 있다. 이들은 자신이 학교를 그만둔 이력이 크게 문제시되지 않는 수준에서 일자리를 찾았으며, 취약성 인식 수준도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형에 상관없이 이들은 학교를 그만둠에 따른 취약성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나름대로의 전략을 택하고 있었다. 우선, 열심히 돈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으며,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미래를 위해서는 돈을 모아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구직 과정에서 직접적인 차별을 우회하기 위한 전략으로 고등학교 학력을 표기하지 않는 이력서를 제출하는 직장을 찾거나 학력이 주된 고려 요소가 아닌 취업처를 선택하게 된다. 또한 개인적으로 학교를 그만둔 일이 심리적 어려움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과거에 이루어진 선택이기에 담담히 받아들이고자 하였다. 이들은 직장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학교를 그만둔 이력이 흠결이 되지 않도록 성실성과 대인관계 기술을 발달시켜왔고, 이를 통해 나름대로 주변의 인정을 얻고 있었으며 개인적 성취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었다.

10여년 이상 장기간의 삶의 궤적에서 이들의 청소년기 생애사건인 학교를 그만둔 일의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화하기도 하고 이들 주변의 상황에 따라 다른 평가가 내려지기도 하였다. 또 개인에 따라서는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를 동시에 내리기도 하였으며, 자신의 선택은 받아들이지만 주변이나 자녀의 미래 선택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거나 반대 입장을 보이기도 하였다. 특히 학교를 그만둔 선택이 미래의 진로 방향과 관련해서는 후회의 감정을 증폭시키기도 하였고, 현재의 직업에 대해 만족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감정 없이 긍정적 평가를 내리기도 하였다. 결국, 취약성 인식과 대응 과정에서 학교를 그만둔 것의 의미는 부정과 긍정, 주변 상황에 따른 상대적 평가, 과거 생애 사건에 대한 성찰과 수용 등 삶의 궤적에서 유동적으로 출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제5장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분석: 전문가·현장종사자 조사

- 1. 전문가 의견조사
- 2. 현장실무자 면접조사:
초점집단면접(FGI)
- 3. 요약 및 시사점

1. 전문가 의견조사

1) 조사 개요

전문가 의견조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에 대해 진단, 분석하고 건강한 성인기 이행 및 자립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조사결과는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추이 변화 등 트렌드를 파악하고,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경험하는 주요 취약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책 등을 도출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학, 교육학, 심리상담, 사회복지 분야의 학교 밖 청소년 관련 학계 전문가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현장 전문가 총 2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해당 분야 전문가 선정은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 연구를 수행하면서 DB화한 전문가 명단을 활용하였고 해당 전문가에게 추천을 받아 최종적으로 명단을 정리한 후, 직접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조사협조를 요청하여 섭외 완료하였다. 학계 전문가로는 정책적 함의를 고려하여 국책연구기관과 지자체 연구기관의 연구자도 포함하였으며, 현장 전문가 중에는 충분히 학계로 분류할 수 있는 전문가도 있었으나 현직을 중심으로 분야를 구분하였다. 또한, 지자체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경험이 있는 공무원 등은 현장전문가로 구분하였다. 최종적으로 조사에 참여하기로 섭외된 전문가 명단은 조사위탁기관에 전달하여 1차 조사와 2차 조사 모두 조사 링크를 통해 응답하는 웹조사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당초 20명을 대상으로 섭외하였으나 전문가 추천을 통해 최종적으로 21명이 1차 조사와 2차

56) 이 장의 1절은 김희진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으며, 2절은 한지형 전문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초고를 작성하고, 김희진 선임연구위원이 일부 수정·보완하였다. 3절은 공동으로 작성하였다.

조사에 모두 참여하였으며, 본 전문가 의견조사에 참여한 학계 및 현장전문가 명단은 표 V-1과 같다.

표 V-1. 조사 참여 전문가 현황

번호	이름	소속기관 및 직위	비고
1	김○○	□□여자대학교 교수	학교 밖 청소년, 취약/위기청소년 분야 학계전문가
2	김▽▽	□□대학교 교수	
3	방○○	□□대학교 교수	
4	유○○	□□대학교 교수	
5	이○○	□□대학교 교수	
6	김△△	□□대학교 교수	
7	전○○	□□대학교 교수	
8	정○○	□□여자대학교 교수	
9	조○○	□□대학교 교수	
10	이△△	□□대학 교수	
11	김○○	□□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	취약/위기청소년 학계 및 현장전문가
12	김○○	□□청소년쉼터 소장	
13	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장	
14	곽○○	□□□□□□학교 교장	교육 정책 및 현장전문가
15	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장	청소년상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장전문가
16	유○○	□□시·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	
17	고○○	□□시·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팀장	
18	김○○	□□시·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	
19	윤○○	□□시·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	
20	박○○	□□시·군·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	
21	신○○	□□시·군·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팀장	

2) 조사 내용

(1) 1차 조사

1차 조사에서는 먼저 급변하는 사회환경적 변화 속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 특성과 변화 추이에 대해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학교를 다니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취약성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주요 내용으로, 이와 관련된 질문들을 제시하고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개방형 응답을 하도록 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취약성과 관련해서는 그 유형과 이유, 특히 학교를 그만둠에 따라 또래 학생 대비 취약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두었고, 나아가 성인기 이행 및 자립 과정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을 무엇으로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이 이러한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자립과 관련한 지원정책과제를 조사하기 위해 먼저 현 지원정책의 주요 성과를 모색하고, 이에 대한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방안도 함께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과 관련한 지원방안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내용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과 궁극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정책적 변화와 사회환경적 흐름 속에 향후 지원정책의 방향성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1차 조사의 내용은 표 V-2와 같으며, 세부 사항은 부록 2-1에 제시하였다.

표 V-2. 전문가 의견조사 내용: 1차 조사

구분		조사내용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급변하는 사회환경적 변화속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변화양상에 대한 의견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취약성 유형	- 학교를 그만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취약한 분야 - 학생 청소년 대비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성인기 이행과 자립과정에서의 취약성	- 성인기 이행과 자립과정에서의 취약성 양상 - 학교를 그만둠에 따른 성인기 이행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불리함, 지원을 위한 중점과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주요 성과와 한계 -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보완점, 추가 지원 내용
	취약성 관련 우선순위 지원정책	- 학교 밖 상황을 고려한 취약성 관련 우선순위 지원 - 취약성 극복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취약성 관련 개입 방향	- 학교 밖 청소년 취약점에 대한 개입 방향 - 지원 시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방안	-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 - 자립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원정책 영역(분야) - 가장 시급한 지원
	향후 정책추진 방향	- 향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추진방향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향후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의견 등

(2) 2차 조사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개방형 응답들에 대한 내용 분석을 통해 이를 범주화한 후 주요 영역과 주제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정량적인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조사지를 작성하였다. 구체적으로 1차 조사결과에 대해 정량화된 조사에서는 전문가들에게 동의 정도, 정책의 현재 수준 및 중요도와 우선순위 등을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평균값을 산출하거나 AHP방식 및 Borich 요구도 분석 등이 가능하도록 조사지를 개발하였다. 다만, 1차 조사내용 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에서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부분은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평가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이 내용은 제외하였다. 전문가들의 응답 내용을 범주화하는 과정에서 같은 맥락의 질문임에도 도출되는 영역과 주제가 다소 상이한 사례도 있었으나, 별도의 수정은 거치지 않고 그대로 2차 조사지 개발에 활용하였다. 1차 조사결과를 활용한 2차 조사지 개발 및 조사방법은 표 V-3과 같으며, 정책과제 중요도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조사지와 Borich 요구도 산출 등을 위한 예시는 표 V-4, 표 V-5와 같다(세부 조사지는 부록 2-2 참조).

표 V-3. 전문가 의견조사 내용: 2차 조사내용 및 방법

구분		1차 조사내용	2차 조사내용 및 방법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급변하는 사회환경적 변화속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변화 양상	1차 조사결과에서 도출된 내용에 기초하여 전반적 특성, 심리사회적 측면, 진로관련, 인식, 환경적 측면 영역으로 구분하고, 총 17개 주제로 범주화하여 중요도에 대한 평균값 산출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취약성 유형	학교를 그만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가장 취약한 분야	1차 조사결과를 정리하여, 도출한 심리사회, 진로/진학, 혜택/복지, 기타 영역 등 총 19개 주제로 취약한 분야를 정리하여 각 주제에 대한 동의 정도에 대해 평균값 산출
	가장 취약한 영역에 대한 개입	가장 취약한 영역에 대한 개입(지원)을 위한 중점과제	1차 조사에서 도출된 중점과제들에 대한 중요도 측정 및 평균값 산출 - 중요도가 높은 중점과제 영역에 대한 상대적 AHP 중요도 산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및 개선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주요 성과/한계/보완점, 추가지원 내용	조사결과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 등 산출이 적절치 않은 내용임에 따라 1차 조사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하였음. 2차 조사내용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취약성 관련 우선순위	학교에 다니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취약성	1차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심리·사회, 교육·활동, 진로·자립, 지원방식 전달체계의 5개 영역, 19개 주제

	지원정책	을 고려한 지원 우선 고려 사항	도출 • 이에 대해 2차 조사결과에서 중요도 조사와 평균값 산출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방안	•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원	• 1차 조사결과에서 가장 중요한 지원으로 조사된 결과를 심리·사회, 진로, 자립·직업, 경제적 지원, 기타로 구분하여 15개 주제로 정리 • 2차 조사결과에서 중요도-현재수준을 조사하여 그 차이를 산출하고 Borich 요구도 분석 실시
		•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시급한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시급한 지원으로 도출된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심리·사회, 교육, 진로, 자립, 기본권, 경제적 지원, 전달체계, 기타 영역의 총 20개 주제 도출 • 20개 주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조사하여 평균값 산출
	향후 정책추진 방향	• 향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추진방향	• 수렴된 의견들을 범주화하여 심리·정서·사회적·신체적 건강지원 강화, 진로지원 정책 초점, 자립역량강화 및 체계적인 자립지원 등 9개 영역의 26개 내용으로 정리 • 가장 빈도수가 높은 5개 중점 영역에 대한 상대적 우선순위 조사(AHP조사)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향후 역할·기능 변화에 대한 의견	• 1차 조사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정리한 총 13개 주제에 대해 중요도 조사 및 평균값 산출

표 V-4. 2차 전문가 의견조사지: 지원정책 중점과제 중요도(AHP 분석)(예시①)

중점과제 영역	《《 왼쪽 영역이 더 중요 》》								동등	오른쪽 영역이 더 중요 《》》								중점과제 영역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1. 심리적 지원																		2. 사회성 향상 기회 제공
1. 심리적 지원																		3. 진로/학업 지원
1. 심리적 지원																		4. 서비스 전달체계 및 지원 방식 개선
2. 사회성 향상 기회 제공																		3. 진로/학업 지원
2. 사회성 향상 기회 제공																		4. 서비스 전달체계 및 지원 방식 개선
3. 진로/학업 지원																		4. 서비스 전달체계 및 지원 방식 개선

표 V-5. 2차 전문가 의견조사지: 자립지원 정책 중요도 및 현재수준(보리치 요구도 분석)(예시②)

	자립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원	중요도					현재수준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매우 낮다	낮다	보통	높다	매우 높다
1	심리적 안정감 및 성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자아정체성 형성 및 자신감 향상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또래관계(사회성/소속감 향상)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맞춤형 멘토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학력취득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조사 및 분석 방법

1차 전문가 의견조사는 개방형 정성조사 방식으로 웹조사를 위한 프로그래밍 과정을 거쳐 전문가들에게 웹조사 링크를 전달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1차 조사는 2023년 8월 16일부터 25일까지 9일에 걸쳐 실시되었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개발된 의견조사지를 활용한 2차 조사는 9월 12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되었다.

표 V-6. 전문가 의견조사 기간 및 방법

구분	조사기간	조사방법	조사내용	분석방법
1차 정성조사	2023.8.16.~8.23.	연구진 연락 섭외 후 문자 안내, 조 사를 위한 웹링크 전달 및 응답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취약성, 지원정책에 대한 개방형 응답을 위한 정성 조사	• 개방형 정성조사 결과 내용을 범주화하여 주 요 내용 결과 도출 • 주요 의견 빈도수 산출
2차 정량조사	2023.9.13.~9.21.	전화 및 문자 안 내, 2차 조사 웹 링크 전달 및 응 답	1차 조사결과에 대한 정 량평가를 통해 학교 밖 청 소년 특성, 정책과제 중요 도 및 우선순위 등 도출	• 조사지 개발 • 평균값 산출 • AHP 분석 • Borich 요구도 분석

1차 조사에서 수렴된 의견들은 먼저 영역별로 구분하고 해당 내용들을 범주화하였는데 중복되는 내용들의 경우는 그 빈도를 산출하였다. 전문가들의 답변이 간혹 다른 질문에 더 부합할 경우 해당 질문에 대한 의견에 통합하여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이 응답한 빈도수에 따라 주요 내용을 선별하였고, 이렇게 정리된 1차 조사결과와 2차 조사지

개발에 활용하였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결과에서 도출된 주요 영역과 주제들을 정리하여 2차 조사지를 개발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웹조사를 위한 프로그래밍 후 전문가들에게 링크를 전달하여 조사지의 각 항목들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2차 조사결과는 데이터 코딩을 거쳐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에 대한 평균값 산출을 기본으로 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한 영역 지원을 위한 중점과제 우선순위와 향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방향성 설정 등을 위해서는 AHP(계층분석적 의사결정 방법, Analytic Hierarchy Process)방식을, 정책과제의 중요도와 수요도 도출을 위해서는 Borich 요구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AHP 방식은 요인 간들의 체계적인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 방식을 통하여 여러 대안 중 최선을 선택하기 위한(Rabinowitz, 1992: 87)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식이다. 따라서 비교하는 선택항목이 많을 경우 모든 쌍대비교의 경우의 수가 많아지고, 논리적인 일관성을 갖고 상대평가를 하기에 매우 복잡하다. 이러한 이유로 본 조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중점과제 우선순위나 지원 방향성 등에만 제한적으로 활용하였다. 전문가들의 응답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즉 일관성 있게 쌍대비교가 수행되었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 C.R.)이 대략 0.1(10%)을 넘어서는 안 된다(Saaty, 2008: 265). 본 조사의 해당 문항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중점과제 AHP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결과 C.R.은 0.00189, 또 향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향성에 대한 AHP 우선순위 분석결과에서 C.R.은 0.00073으로 모두 0.1에 못 미침에 따라 전문가들의 응답결과는 신뢰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이에 따른 AHP 분석결과는 표 V-9, 표 V-17에 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극복 및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지원방안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Borich 요구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Borich 요구도 분석(The Borich Needs Assessment Model)은 당초 전문적인 훈련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모델로 개발된 것으로(Borich, 1980), 주로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이나 정책요구도 분석에 활용되고 있다(김윤희, 남정민, 2023). 앞서 AHP분석의 경우, 제한된 쌍대비교로 응답자들이 많은 수의 항목들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Borich 분석에서는 제안된 항목들에 대한 중요도와 현재수준에 대한 5점 척도 응답을 활용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중요도와 현재 수준을 확인하고 중요도에 가중치를 두어

계산된 결과 값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법으로(MWDS, Mean Weighted Discrepance Score Calculation), 구체적인 산출식은 아래와 같다.

$\text{Borich 요구도 산출 (MWDS)} = \frac{\sum (RL - PL) \times \overline{RL}}{N}$	• RL: 중요도 • PL: 현재수준 • $\overline{RL}$: 중요도 평균 • N = 전체 표본수(응답자 수)
---	--

* 출처: Borich, 1980, Garcia & Ozogul, 2023:21, 김윤희, 남정민, 2023: 9 재인용 및 수정

그림 V-1. Borich 요구도 분석을 위한 산출식

이 방식을 활용하여 분석한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극복 및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지원방안의 우선순위는 표 V-14와 같다. 이외의 다른 2차 조사 항목에 대한 응답결과는 평균값을 기준으로 중요도를 제시하였고, 이외 추가적으로 수렴된 기타 의견들도 함께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1차 조사결과에서 여러 전문가가 중복하여 강조한 내용이 2차 조사결과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하고, 1차 조사에서 드물게 제시된 의견에 대해 2차 조사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도출되기도 하는 등 1차 조사와 2차 조사 방식의 차이에 따라 흥미로운 결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1차 및 2차 조사를 통해 분석된 결과는 정책제언 도출에 활용하였다.

4) 결과 분석

1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토대로 2차 전문가 의견조사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1차 조사결과 내용과 2차 조사결과 제시를 위한 조사항목이 동일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지면의 한계와 가독성을 고려하여 함께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1)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변화 양상

급변하는 사회환경적 변화 속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변화양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아래 표 V-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반적 특성, 심리사회적 측면, 진로, 인식, 환경적 측면과 관련한 매우 다양한 의견들을 제안하였다. 먼저 1차 조사결과에서 전문가들이 응답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유사한 의견을 제시한 내용을 합하여 빈도를

산출한 결과, ‘학교 밖 청소년 특성 다변화’(N=6)와 ‘학교 교육과 학교를 그만두는 것에 대한 청소년, 부모, 사회의 인식 전환’(N=6)과 관련된 의견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신의 진로에 대한 목표/계획을 갖고 학교를 그만두는 사례 증가’(N=4)와 ‘은둔, 고립 성향 증가’(N=3)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2차 조사에서 주목해야 할 내용으로 동의하는 정도, 즉 중요도에 대해 평가는(5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임에 따라 전문가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변화 양상 중 5가지는, ‘사회적 관계 역량 증진 기회 부족’(M=4.52), ‘정신건강 문제 증가’(M=4.52), ‘학교와 가정에서 모두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문제’(M=4.52), ‘학교 밖 청소년 특성 다변화’(M=4.52), ‘은둔, 고립 성향 증가’(M=4.33)였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로부터 수렴된 의견들의 상세 내용이나 그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학교에서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관련 기술 습득 기회가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에게 부족하며, 또 우울, 불안, 자살 시도와 같은 문제가 증가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1차 조사에서 언급이 많지 않았던 가정환경적 문제로 가정의 보호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에 대해서는 2차 조사에서 그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이주배경을 포함한 가정환경적 여건, 경제적 상황이 더욱 다양해졌다는 점에서 학교 밖 청소년 특성 다변화가 주목해야 할 변화로 높게 평가되었다.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와 단절된 성향이 점차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러한 성향이 청소년기부터 발생하기 쉽다는 점에서, 또 공적 서비스체계가 접근하기 어려운 대상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비록 2차 조사에서는 중요도가 높지는 않았지만, 1차 조사에서 여러 전문가가 언급한 학교 교육의 중요성과 또 학교를 그만두는 것에 대한 인식에서 청소년과 부모, 그리고 사회의 인식이 변화되었다는 점과 자신의 진로에 대한 목표/계획을 갖고 학교를 그만두는 사례가 증가한 점도 주목할 만한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변화로 볼 수 있다.

표 V-7. 분석결과: 주목해야 할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변화 양상

단위: 명, 점

영역	주목해야 할 학교 밖 청소년 특성과 변화 양상에 대한 전문가 의견		1차 조사 결과 ^{주)}	2차 조사결과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전반적 특성	1	학교 밖 청소년 특성 다변화	6	4.52	0.60	3	5
	2	저연령화	1	4.10	0.63	3	5
	3	청소년 문화의 개인주의화	1	3.62	0.59	3	5
심리 사회적 측면	4	은둔, 고립 성향 증가	3	4.33	0.97	1	5
	5	사회적 관계 역량 증진 기회 부족	1	4.52	0.51	4	5
	6	정신건강 문제 증가	2	4.52	0.68	3	5
	7	무기력과 낮은 동기 수준	2	4.19	0.75	2	5
	8	생활 습관 및 집단 규칙 부적응	1	3.95	0.81	2	5
진로 관련	9	자신감 증가, 사회적 낙인 두려움 감소	1	3.76	1.14	1	5
	10	자신의 진로에 대한 목표/계획을 갖고 학교를 그만두는 사례 증가	4	3.76	0.99	2	5
	11	다양한 교육 선택 욕구 증가(홈스쿨링, 대안교육 등)	2	3.62	0.74	2	5
인식	12	대학입시 목적으로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 증가	1	3.38	0.97	1	5
	13	학교 교육과 학교를 그만두는 것에 대한 청소년, 부모, 사회의 인식 전환	6	4.00	0.78	2	5
환경적 측면	14	다양한 폭력에 노출(가해/피해)	1	3.90	0.89	2	5
	15	무분별한 정보 노출	1	3.67	0.86	2	5
	16	학교와 가정에서 모두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문제	1	4.52	0.68	3	5
	17	향후 주거 문제	1	3.57	1.03	1	5

주: 전문가들의 의견 빈도수

이외 2차 조사의 정량적 평가 질문 외에 개방형 질문으로 추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전문가들은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생계형 학교 밖 청소년과 경제적으로 취약한 학교 밖 청소년 증가, 학교를 그만둘 것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 감소, 수시전형으로 대학에 진학 후 휴학·자퇴 사례 증가, 남자청소년의 사이버 도박 이용 증가 등에 대한 추가 의견을 제시하였다.

(2)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가장 취약한 분야

학교 밖 청소년이 가장 취약한 분야는 무엇인지에 대해 수렴된 의견과 2차 조사에서의 정량적 평가결과는 표 V-8과 같다. 1차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심리사회적 문제, 진로/진학, 학생 대상 혜택/복지 소외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사회성 발달 부족과 인간관계 기술 부족(N=11)를 가장 많이 언급하였고, 공동체 의식 부재 및 단체생활/집단활동 부적응 등(N=8)에 대해서도 다수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V-8. 분석결과: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분야

단위: 명, 점

영역	가장 취약한 분야에 대한 전문가 의견	1차 조사 결과 ^{주)}	2차 조사결과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심리 사회적	1 자존감 및 정서적 측면 취약성	2	4.24	0.77	2	5
	2 제한된 사회적 경험과 대인관계로 인한 사회성 발달과 인간관계기술 부족	11	4.67	0.48	4	5
	3 공동체 의식 부재, 단체생활/집단활동 부적응 등	8	4.29	0.72	3	5
	4 소속감 부재	2	4.52	0.51	4	5
진로/ 진학	5 진로 체험, 진로계획 및 준비, 지원 미흡	4	4.24	0.63	3	5
	6 학업(대학 진학)에 있어서의 제약	2	3.95	0.50	3	5
혜택/ 복지	7 부적절한 정보 과다 노출, 필요한 정보(학습, 다양한 경험 등) 부족	2	4.14	0.66	3	5
	8 제도권 공교육을 통한 모든 보편적 복지에서의 소외(보호, 교육, 적절한 급식, 학습, 건강 등)	3	4.38	0.60	3	5
기타	9 학교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보호,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4	4.48	0.68	3	5
	10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낙인과 차별	1	4.29	0.56	3	5

주: 전문가들의 의견 빈도수

2차 조사에서 5점 척도로 전문가들이 평가한 결과, ‘제한된 사회적 경험과 대인관계로 인한 사회성 발달과 인간관계기술 부족’(M=4.67)이 가장 취약한 측면으로 나타나 1차 조사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면서 타인과의 소통이나 타인을 이해하는 방식, 즉 대인관계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았고, 여기에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언급도 함께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학교를 그만둔 이후의 학교 밖 청소년의 ‘소속감 부재’(M=4.52)를 취약한 측면으로 보았고, ‘학교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보호,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M=4.48) 역시 가장 취약한 대상으로 보았다. 학교를 그만두면서 전반적으로

‘제도권 공교육을 통한 모든 보편적 복지에서의 소외(보호, 교육, 적절한 급식, 학습, 건강 등)’(M=4.38)되는 문제에 대한 평가도 높았는데, 한 전문가는 결국 이는 학생과 동일한 수준의 사회적 지원 부족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하였다.

1차 조사를 통해 2차 조사 시 제시된 내용 외에도 전문가들은 학생 청소년 대비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이 취약한 부분으로 문화체험의 기회 감소(여행, 다양한 교류활동, 취미동아리 활동), 운동 및 체육 분야의 접근 미흡, 디지털에 대한 접근성 및 지원 부족과 추후 진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문화체험과 운동과 관련한 부분은 학생 청소년 대비 가장 취약할 수 있는 부분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3) 가장 취약한 영역에 대한 개입(지원)을 위한 중점과제

전문가들에게 위에서 언급한 취약한 영역과 관련하여 어떠한 개입(지원)이 필요한지, 또 이를 위한 중점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1차 조사한 결과,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심리지원, 사회성 향상, 진로/학업, 미디어관련, 전달체계 및 지원 방식, 보편적 지원 확대, 취약 가정 청소년 지원 등 다양한 영역의 과제들이 제안되었다. 그 중 ‘또래 청소년들 간 교류 기회 제공(단체활동, 취미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N=10), ‘대인관계, 의사소통기술 훈련 및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 제공’(N=4), ‘공동체 경험 기회 제공’(N=3), ‘학생 청소년과 동등한 보편적, 전반적인 지원 제공 확대’(N=3)와 관련하여 다수 전문가가 의견을 제시하였다.

1차 조사결과에서 도출된 중점과제들의 중요도에 대해 2차 조사에서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지원체계 및 인프라에 대한 내용이 함께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특히, 소소한 차이지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M=4.76)에 대한 중요도가 그 중 높게 나타나 상당히 의미있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내용뿐 아니라 지속성 역시 중요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지원 네트워크 및 안전망 강화’(M=4.67),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에 대한 상담·치료 등 지원’(M=4.62), ‘진로상담 및 맞춤형 진로지원’(M=4.62),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역량 강화’(M=4.52), ‘정부 부처 간 연계·협력 강화’(M=4.52) 등이 주요 과제로 평가되었다.

표 V-9. 분석결과: 취약한 영역 지원을 위한 중점과제

단위: 명, 점

영역	취약한 영역 지원을 위한 중점과제에 대한 의견	1차 조사 결과 ^{주)}	2차 조사결과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발굴	1 학교 밖 청소년 발굴(홈스쿨링, 은둔형 청소년 등)	1	4.33	0.58	3	5
심리지원	2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에 대한 상담·치료 등 지원	2	4.62	0.59	3	5
사회성 향상	3 또래 청소년들 간 교류 기회 제공(단체활동, 취미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10	4.38	0.59	3	5
	4 대인관계, 의사소통기술 훈련 및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 제공	4	4.48	0.68	3	5
	5 공동체 경험 기회 제공	3	4.38	0.59	3	5
진로/ 학업	6 진로상담 및 맞춤형 진로지원	1	4.62	0.59	3	5
	7 학교에서와 같은 다양한 진로체험 제공	2	4.24	0.54	3	5
	8 학업 및 진학 지원(학습 멘토 및 입시 컨설팅 등)	1	4.38	0.67	3	5
미디어	9 디지털/미디어 과의존 예방	1	4.10	0.63	3	5
	10 건강한 정보 선별 기술 필요	1	3.90	0.77	3	5
전달체계 및 지원 방식	11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역할 재정립	2	4.33	0.73	3	5
	12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역량 강화	2	4.62	0.59	3	5
	13 정부 부처 간 연계·협력 강화	1	4.62	0.50	4	5
	14 지역사회 지원 네트워크 및 안전망 강화	2	4.67	0.48	4	5
	15 차별 및 낙인감 해소	1	4.38	0.59	3	5
	1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1	4.76	0.44	4	5
보편적 지원 확대	17 학생 청소년과 동등한 보편적, 전반적인 지원 제공 확대	3	4.48	0.75	2	5
취약가정 청소년 지원	18 가족에 대한 지원	1	3.76	0.77	2	5
	19 경제적 지원	1	4.00	0.84	2	5

주: 전문가들의 의견 빈도수

AHP 분석은 상대적으로 중요한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합리적인 방식이지만 비교대상 항목이 많을 경우 쌍대비교 경우의 수가 매우 많아지고 이 경우, 응답자들이 일관성있고 논리적으로 평가하기 매우 어렵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위한 중점과제의 영역에 대해서 상대평가를 통한 우선순위 선정을 시도하였다(조사표 예시는 표 V-4 참조). 1차 조사결과 중점과제 영역 중 상대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집중된 심리적 지원, 사회성 향상 기회 제공, 진로/학업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및 지원방식 개선에 대해 각각의 항목 간 쌍대비교를 통해 우선순위 값을 도출한 결과는 표 V-10과 같다.

표 V-10. 분석결과: 중점과제 영역 우선순위

영역	세부 중점과제 내용	2차 조사결과	
		중요도	순위
1. 심리적 지원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에 대한 상담·치료 등 지원	0.265	1
2. 사회성 향상 기회 제공	또래 청소년 간 교류 기회, 대인관계기술 프로그램, 공동체 경험 제공 등	0.253	3
3. 진로/학업 지원	맞춤형 진로지원 및 진로상담,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 제공, 학업·진학 지원 등	0.259	2
4. 서비스 전달체계 및 지원방식 개선	학교밖청소년진로센터 역할 재정립 및 역량 강화, 부처 간/지역사회 내 연계·협력 강화, 차별 및 낙인감 해소 등	0.223	4

주: C.R.(Consistency Ratio) = 0.00189<0.1

위의 분석결과에서 보듯이 세부 중점과제 내용이 아닌 영역에 대한 우선순위 평가에서는 심리적 지원에 대한 중요도가 1순위로 도출되었다. 다음으로 진로/학업 지원, 사회성 향상 기회 제공, 서비스 전달체계 및 지원방식 개선 영역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중점과제 영역 모두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심리적 지원을 통한 개인적인 우울 및 불안과 같은 심리적 문제에 대한 개입이 전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 심리에서의 병리적 문제와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치료 지원 확대와 사회적 관계에서의 좌절이나 불안 등에 대한 대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서의 주요 성과

1차 조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있어 주요 성과를 보인 정책 및 지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응답에 참고하기 위해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내용을 표 V-11과 같이 제시하고, 전문가들에게 주요성과 세 가지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수렴된 의견들은 통합 정리하여, 빈도수와 함께 정리, 제시하였다.

표 V-11.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역(전문가 의견조사 내용)

영역	지원내용
상담지원	1:1 대면상담,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필요시) 찾아가는 상담
심리·정서 지원	꿈드림 멘토링 정신건강 지원(필요시 전문상담기관 연계)
교육지원	학업동기 및 학습능력 증진 프로그램 지원 검정고시 등 학력취득 지원 대학입시 지원(대입설명회 제공, 청소년생활기록부 작성 등) 재입학, 편입학 등 복교 지원
진로·직업지원	직업적성검사 지원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직업훈련 및 창업 연계 지원(내일이룸학교, 청소년비즈쿨 등)
자립지원	자기계발 프로그램 지원(문화예술, 봉사활동 등) 근로권익 등 기초소양교육 지원 꿈드림 청소년단 참여를 통한 정책 제안활동 문화활동 및 전용공간 지원 생활지원(기초생활수급,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건강지원	건강검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 청소년에게 무상 급식지원

* 출처: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안내서.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2&bbtSn=704824에서 2023.07.20. 인출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주요 성과로 가장 많이 조사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첫째, 검정고시 등 학력취득 지원으로 이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주요 성과로 꼽은 전문가들이 21명 중 15명이었다. 그 이유로 전문가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우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필요한 학력 취득 지원으로 보았다. 또한, 이를 통해 다시 학업에 복귀하거나 대학진학을 가능케 할 수 있고, 또 이 과정에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다른 도전이나 시도를 가능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고 언급하였다.

표 V-12. 분석결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주요 성과

영역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주요 성과	조사결과 의견 빈도수
심리·정서 지원	심리정서 및 정신건강지원(상담 포함)	8
	꿈드림 멘토링(의미있는 타자와의 관계형성 기회 제공)	1
교육지원	학업동기 및 학습능력 증진 프로그램 지원	1
	검정고시 등 학력취득 지원	15
	대학입시지원	2
	복교지원	1
	다양한 교육 지원	1
진로·직업지원	진로/직업지원	5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4
	직업훈련과정 연계 등 지원	2
자립지원	자기계발 프로그램 지원	3
	사회 진입	1
	자립지원	1
	위기청소년 생활지원	1
	취약청소년에 대한 복지	1
활동지원	다양한 주제와 영역의 활동 지원	1
	전용 공간 및 프로그램 제공	2
	꿈드림 청소년단 참여를 통한 정책 제안 활동	1
건강지원	무상 급식지원	4
	건강검진 등 건강지원	9
기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전달	1

다음은 건강검진 등 건강지원으로 전문가 9명이 주요 성과로 응답하였다. 전문가들은 건강검진이 학생들과 동일하게 지원되는 것으로, 정책성과가 명확하고 확산에 용이한 항목이며, 건강지원에서 사각지대였던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으로 보았다. 심리정서 및 정신건강 지원 역시 주요 성과 중 하나로 나타났는데(N=8), 그 이유로 먼저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자신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향후 진로계획 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언급하였다. 특히 이러한 심리정서적 문제는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가 될 수 있으며, 학교를 그만두는 과정에서 우울, 불안, 소진 등을 경험하거나 정신과적으로 더 취약할 수 있어, 상담이나 정신과적 치료를 통한 심리적 지원 부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이외에도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과 같은 진로/직업 지원과 급식 지원을 주요 성과로 꼽은 전문가들도 많았다.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서의 아쉬운 점과 보완점

1차 조사에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취합한 그동안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에서의 아쉬운 점이나 한계에 대한 의견과 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안을 정리한 결과는 표V-12와 같다. ‘상담 전문성 부족’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는데(N=10), 특이점은 앞서 전문가들이 주요 성과로 꼽은 내용 중 세 번째로 빈도가 많았던 ‘심리정서 및 정신건강지원’과 유사한 맥락이라는 점이다. 이는 실제 상담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지원에 큰 성과가 있지만, 한편으로 더욱 심화된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현재의 인력은 사례관리에 집중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전문상담인력 배치, 꿈드림센터 종사자에 대한 상담역량강화 연수 의무화, 전문 상담프로그램 개발, 외부 전문기관과의 긴밀한 연계와 같은 전문성에 초점을 둔 의견들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전문가들이 아쉬운 지원으로 지목한 내용은 ‘직업훈련 및 창업연계 내실 부족’으로 나타났다(N=7). 이와 관련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직업훈련 및 창업연계 확대 및 관련 프로그램 다양화, 연계과정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의 보완점들이 제시되었고, 사회적응을 위한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과 같은 구체적인 의견도 있었다. 대학입시 지원, 자기계발 프로그램 지원, 문화활동 및 전용공간 지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아쉬운 지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한 보완책으로 수능준비를 위한 학습지원, 실질적인 대입지원을 위한 전문적 지원과 이를 위한 교육 및 인력 필요성, 자기 계발을 위한 장기적인 다양한 체험기회 제공과 자기계발비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전용공간 마련, 바우처 카드나 교육활동 수당 지급 등이 제안되었다.

표 V-13. 분석결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서의 아쉬운 점과 보완책

영역	아쉬운 점/한계	조사 결과 ^{주)}	보완점
대상자 발굴	고등학교 단계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의 어려움	4	-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개인정보 동의없이 연계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 시급 - 검정고시 접수장 및 고사장 아웃리치 - 학교장 및 교사 등에게 꿈드림 소개를 위한 교육청 및 학교와의 협업 강화 - 발굴 지원 인력 보강 - 학교 밖 청소년 정보의 시스템적 연계 - 꿈드림센터로 정보연계되는 청소년이 필수적으로 지원·관리 받도록 제도화
	상담 전문성 부족	10	- 꿈드림 내 전문상담인력 배치 또는 채용조건 변경을 통한 전문 상담인력 채용(현재 인력은 사례관리에 집중) - 꿈드림 종사자의 상담역량강화 연수 의무화 - 전문적인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 기회 제공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외부상담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지원 노력, 인력충원 및 메뉴얼 보급 - 욕구파악 및 목표달성, 실질적인 자립까지 확인을 위한 상담영역 강화
심리· 사회	고위기사례 대응위한 전문 기관과의 연계 미흡	2	- 고위기 사례 대응 인력 마련, 혹은 전문기관연계 활성화 방안 마련 -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전문적 치료 연계 강화(전문가 혹은 전문기관, 예, 의사, 병원 등)
	멘토링 지원 제약	2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꿈드림 동반자" 상시 배치(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심리정서적 안정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멘토링 실시) - 멘토링 실행 및 성과에 대한 체계적 연구 필요
	팀워크 역량 개발 미흡	1	- 팀별 활동을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의 특성 고려하여, 팀워크, 리더십 개발을 위해 개인 혹은 소수의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기획 필요
교육 지원	교육지원 질적 수준이 낮음	3	- 검정고시 지원의 질적 수준 제고 -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 이외에 다양한 지적 자극 프로그램 운영 필요 - 안정적 전문인력 확보
	재입학, 편입학 등 복교지원 미흡	3	- 재입학·편입학 등 복교관련 내용과 사전 학교적응 교육매뉴얼 보급·정보 제공 - 학교의 대책 미비로 다시 그만두지 않도록 복교 학교와의 사전 협력 필요 - 복교 청소년에 대한 교사의 인식 전환 필요
	검정고시 외 학력 취득 방법 취약	1	- 교육부의 의무교육단계 학력취득 시범사업을 고교졸업학력까지 확대, 향후 제도적 보완
	학업동기·학습 능력관련 지원 부족	2	- 학교 밖 청소년의 상황/특성에 맞는 학업동기·학습능력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시스템 마련, 학업 동기 영향 요인 반영 개별서비스 제공
진로· 진학· 자립 지원	고정된 제한된, 진로지원	2	- 학업, 진로, 자기계발이라는 고정된 목표를 정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보다 많은 탐색 기회 필요(결과/과정을 모두 중시하는 참여 프로그램 기획) - 직업적성검사 등을 활용하여 장기적으로 계획할 필요
	대학입시 지원 미흡	5	- 대입상담 활성화 입시전문가 멘토링 체계 구축 - 청소년생활기록부에 대한 홍보 필요.

영역	아쉬운 점/한계	조사 결과 ^{주)}	보완점
			- 수능준비를 위한 학습지원(학습, 교재지원 등) 근거 마련 필요 - 생활기록부 작성/대학입시 설명/정보 제공 등 전문영역에 대한 꿈드림센터 내 정보 부족 보완 및 종사자대상 훈련/교육 필요(또는 별도 인력 등 대책)
	직업훈련 및 창업연계 내실 부족	7	- 창업역량 증진을 위한 사업체/단체와 연결(사회적응을 위한 인큐베이팅 지원) - 수요가 낮아 대상자 모집이 어려움,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고용노동부 인프라 연계 - 청소년이 희망하는 직업훈련 및 창업연계의 내용을 확대 - 서비스 수혜 청소년 규모 확대 - 지역의 직업훈련프로그램 다양화, 현실화 및 연계과정 강화 - 연계프로그램 실시, 직업훈련기관 모니터링 및 효과성/효율성 평가 강화
	자기계발 프로그램 지원 부족	5	- 학교 밖 청소년 맞춤 자기계발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기관 프로그램 제공 - 학교를 그만둔 기간에 따른 수요를 고려하여 장기적 접근 필요 - 꿈드림센터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 다양한 체험/교류 기회 마련 필요 - 1인당 자기계발비 산정 후 자기계발 계획이 수립된 경우 체계적으로 지원
건강 지원	급식지원 미흡	3	- 중앙 예산 확대/지자체 예산 확보 등 공교육 수준의 급식지원 단가 마련 - 현재의 인스턴트식품 지원이 아닌 적절한 급식 제공을 위한 인력 확보와 물리적 공간 마련 필요(전용공간 마련 시 급식실 포함 필요)
	건강검진 규모	2	- 적극적인 홍보 및 전달체계 개선 등을 통한 건강검진 수혜 청소년 규모 확대 방안 필요
활동 지원	문화활동 및 전용공간 지원 부족	5	- 학교 밖 청소년이 소속감을 갖고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써 시 군구 단위 최소 1개소 이상의 문화활동 및 전용공간 마련 필요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공간분리, 공모사업 신청보다(업무 부담) 실질적 방안 모색 - 자유로운 문화활동 참여를 위해 바우처카드나 교육활동수당 지급 필요
	주체성, 주도성 향상 기회 부족	2	- 스스로 탐색하고 해볼 수 있는 기회 제공 -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화하기보다 주체성을 인정하여, 주도적 참여 기회 제공
경제적 지원	낮은 참여 동기/ 경제적 지원 한계	3	- 교육참여수당과 같은 경제적 지원 지속 필요 - 자립 활동을 전제로 하는 자립지원수당 확대
	교육급여 미해당	1	- 교육급여 지급 대상의 확대를 위한 제도 보완(경제적 문제로 아르바이트 병행 시 학업 지속이 어려움)
지원 인프라	종사자에 대한 낮은 처우	3	- 높은 이직률 고려한 종사자 처우개선과 지자체규모에 따른 다양한 운영모델 필요 - 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실무자들의 성취감 고취를 위한 지침과 예산 필요
	평가지표 현장성 반영 미흡	1	- 현장의 상황/여건을 잘 반영한 평가지표 필요(전임센터장, 예산 및 공간확보 등)
지원 다양성	상담에만 치중	1	- 꿈드림센터의 업무 영역 전반에 대한 업무 효율화 필요
	근로권익 등 기초 소양교육 참여 미흡	1	- 청소년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구안
	가족에 대한 지원 부재	1	- 가족 배경에 따른 불평등이 심화되는 사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가족의 어려움에 대한 지원 필요

주: 전문가들의 의견 빈도수

위의 질문과 같은 맥락에서 현재 정책 외에 추가적으로 더 지원해야 할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 그중 다수 전문가는 “추가 지원보다는 현재 정책의 내실화(다양한 사업들의 정착 및 전문가 활용 등), 질적 수준 제고 필요”에 대해 지적하였다(N=4). 이외에도 개별 의견들로,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지원, 학교 교육 방향성에 맞춘 디지털역량개발 지원, 학교 밖 청소년 경험자 멘토-현재 학교 밖 청소년들 멘티 프로그램 활성화, 스포츠를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권역별 전용 공간 확보, 현장실무자의 적극적인 지원 및 성취감 고취 등을 위한 다양한 교육 기회와 꿈드림 센터의 인력·예산·보수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지원 필요성 등이 제시되었다.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있어서의 우선 고려사항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다니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취약성과 관련하여, 이들의 성인기 이행과정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우선 고려사항을 묻는 1차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사회성 발달 기회 제공 및 소속감 제공’에 관한 내용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N=6). 전문가들은 학교에서의 공동생활을 통해 청소년들이 사회성을 발달시키고 사회에 적응하는 방법을 습득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에는 이러한 기회가 부재함에 따라 궁극적으로 자립을 위해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기술을 배우고 또 소속감과 함께 사회적 관계의 장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개별적이고 다양한 특성(적성, 재능)과 상황에 대한 이해 및 맞춤형 지원’(N=5)과 ‘진로 선택에 있어서 다양한 기회 제공’(N=3)에 대한 의견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제시되었다. 특히 진로지원과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진학 지원과 같이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피력하였다.

1차 조사결과 내용을 정리한 우선 고려사항들에 대해, 2차 조사에서 5점 척도로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 1차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성 발달 기회 제공 및 소속감 제공’(M=4.67)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 다음으로 ‘꿈드림센터의 인력, 예산, 공간 제약 개선’(M=4.62), ‘심리적 지원 및 정신건강 지원’(M=4.52),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M=4.52), ‘진로 선택에 있어서 다양한 기회 제공’(M=4.52)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1차 조사에서 관련 의견이 많이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꿈드림센터의 인력, 예산, 공간 제약 개선’과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 관련 내용이 2차 조사의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도출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V-14. 분석결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서의 우선 고려 사항

영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있어 우선 고려 사항	1차 조사 결과 ^{주)}	2차 조사결과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심리· 사회	1 심리적 지원 및 정신건강 지원	2	4.52	0.51	4	5
	2 위축감 극복, 자아정체성 형성 지원	2	4.14	0.66	3	5
	3 사회성 발달 기회 제공 및 소속감 제공	6	4.67	0.58	3	5
	4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	1	4.52	0.68	3	5
교육· 활동	5 최소한의 교육 기회 제공	1	4.24	0.77	2	5
	6 학생 대비, 부족할 수 있는 자기관리, 기초소양교육, 경제교육, 법교육 등 지원	2	4.14	0.57	3	5
	7 학교에서와 같이 다양한 활동(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경험 제공	1	4.33	0.48	4	5
	8 안전한 활동공간 마련	1	4.38	0.59	3	5
진로· 자립	9 학교에서의 진로진학 지원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적극 지원	1	4.43	0.51	4	5
	10 진로 선택에 있어서 다양한 기회 제공	3	4.52	0.60	3	5
	11 안전한 생활공간, 의식주 보장 등 기본적 지원 제공	2	4.10	0.70	3	5
지원 방식	12 자아실현 욕구 지원	1	3.90	0.63	3	5
	13 학교 밖 청소년의 개별적이고 다양한 특성(적성, 재능)과 상황에 대한 이해 및 맞춤형 지원	5	4.48	0.60	3	5
	14 프로그램 참여 동기 강화 및 지속적인 참여 유도 필요	1	4.29	0.64	3	5
	15 서둘러 직업을 갖거나 자립을 유도하기 전 충분한 준비가 가능하도록 지원 제공(심리적 지원, 직업 기술 등)	1	4.43	0.60	3	5
	16 사회적응·자립을 위해 꿈드림센터 등 안전한 곳에서의 실패/성공 등 성장경험 제공	2	4.48	0.60	3	5
	17 비행청소년 또는 취약청소년으로 바라보는 인식 개선	1	4.24	0.63	3	5
전달 체계	18 꿈드림의 기능과 실효성에 대한 분석 및 점검	1	4.24	0.70	3	5
	19 꿈드림센터의 인력, 예산, 공간 제약 개선	1	4.62	0.59	3	5

주: 전문가들의 의견 빈도수

(7) 학교 밖 청소년 자립을 위해 중요한 지원 및 요구도

1차 조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 지원 중 가장 중요한 지원에 대해 먼저 조사하였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2차 조사에서 중요도와 현재수준을 파악하여 자립 지원에서의 우선순위 도출을 위해 요구도를 산출하였다. 먼저 1차 조사에서 자립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원으로, 심리사회, 진로, 자립/직업, 경제적 지원 등의 영역에서 총 15가지의 주요 지원들이 도출되었다. 전문가들이 관련 응답을 범주화하여 살펴본 결과, 심리적 지원(N=3), 자아정체성 형성 및 자신감 향상(N=3), 진로/직업관련 자기 이해(N=3), 진로 모색(N=3) 등이 그 중 많이 언급되었다. 특히 전문가들은 심리적 안정이 확보되어야 다음 단계의 지원이 가능하며 자아정체성 형성은 청소년기 매우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맞춤형 지원 이전에 청소년들의 진로 및 직업과 관련된 자기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그 이유를 제시하였다.

이렇게 자립을 위한 주요 지원 내용들을 유목화하여 2차 조사에서 그 중요도와 현재수준을 5점 척도로 조사하고, 앞서 기술한 Borich 요구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중요도와 현재수준 간의 t-검정 결과, 학력취득 지원을 제외하고, 모든 지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V-15에서와 같이 Borich 요구도 값을 산출한 결과, 가장 높은 1순위 요구도를 보인 자립지원 내용은 ‘심리적 지원(심리적 안정감과 성장)’이었다.

2순위는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교육수당 지급’이었는데, 특히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1차 조사에서 교육수당 지급은 교육권 보장 차원에서 필요하며, 학생청소년 1인당 교육비를 고려할 때 충분히 재고되어야 하는 지원으로 강조하였다. 3순위는 ‘주거지원 및 안정적 환경 제공’이었는데,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1차 조사에서 청소년들이 다수의 주변 인적, 물적 위험 요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러한 위험에서 먼저 분리되어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공적인 자립이 가능할 것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 4순위는 ‘프로그램 참여 동기를 강화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으로 프로그램 참여 수당을 의미한다. 이는 2순위와 유사한 내용으로 전문가들은 이 내용이 중요도에 비해 현재 지원 수준을 상당히 낮게 평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5순위는 ‘다양한 직업 체험 기회 제공’에 대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다양한 직업을 알고 체험하는 기회를 통해 자신의 적성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에 기반한 진로지도가 가능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V-15. 분석결과: 학교 밖 청소년 자립을 위해 중요한 지원_Borich 요구도 분석 결과

영역	자립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원 ⁵⁷⁾	1차 조사 결과 주)	2차 조사결과					
			중요도	현재 수준	중요도 - 현재 수준	t-value	Borich	
							요구도	순위
심리· 사회	1 심리적 지원 (심리적 안정감 및 성장)	3	4.48	3.19	1.29	4.151***	5.76	1
	2 자아정체성 형성 및 자신감 향상	3	4.33	3.33	1.00	4.583***	4.33	9
	3 또래관계(사회성/소속감 향상)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1	4.48	3.52	0.95	4.074**	4.26	11
	4 맞춤형 멘토 지원	1	4.29	3.29	1.00	5.123***	4.29	10
진로	5 학력취득 지원	1	4.24	3.86	0.38	1.630	1.61	15
	6 진로/직업 관련 자기 이해, 진로 모색	3	4.48	3.62	0.86	4.076**	3.84	13
	7 적성을 고려한 진로지도	1	4.43	3.33	1.10	4.256***	4.85	6
	8 다양한 직업 체험 기회 제공	1	4.29	3.14	1.14	3.873**	4.90	5
자립/ 직업	9 자립 준비를 위한 단계적인 지원체계 구축 - 진로/학업계획을 포함한 자립목표 설정 → 사례관리로 연결	2	4.38	3.38	1.00	3.623**	4.38	8
	10 실질적 자립준비도 점검을 통한 맞춤형 개입 - 경제적, 심리적 상황 점검과 개입	1	4.33	3.29	1.05	3.440**	4.54	7
	11 직업 연계 및 창업 역량 강화	1	4.05	3.05	1.00	4.019**	4.05	12
	12 현장성이 반영된 직업교육/경험 기회 제공 - 내일이룸학교와 같은 실무경험과 사회적 응력 고양 기회 확대	1	4.14	3.29	0.86	3.177**	3.55	14
경제적 지원	13 프로그램 참여 동기 강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2	4.05	2.81	1.24	5.433***	5.01	4
	14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교육수당 지급 - 학생 청소년 1인당 교육비 고려	1	4.10	2.81	1.29	4.151***	5.27	2
기타	15 주거지원 및 안정적 환경 제공	2	3.90	2.62	1.29	4.052**	5.02	3

* $p < .05$, ** $p < .01$, *** $p < .001$

주: 전문가들의 의견 빈도수

57)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 지원에 대해 전문가들은 몇 가지 추가 의견을 제시하였다. 청소년기본법 상 24세까지 청소년임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취업을 한 사회 초년생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며,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수당처럼, 경제적으로 취약한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준비를 위한 교육비 및 생활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미래 산업사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IT에 기반한 직업체험 기회 확대 및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있으며, 지역사회 특성에 맞도록 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아닌, 청소년문화의집 등 다양하게 허브기관을 지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 및 진로지원이 더욱 효율적인 방식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안하였다.

앞에서 기술한 가장 높은 자립지원방안 요구도를 포함한 전체 지원방안들의 요구도 산출 결과를 산점도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 V-2와 같다. 가로축(x축)은 ‘중요도’이고, 세로축(y축)은 ‘중요도-현재수준’을 의미하며, 오른쪽 위에 위치한 1사분면의 지원방안들은 중요도와 현재수준이 모두 높은 유형으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하는 부분으로 심리적 지원이 1순위로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사분면의 지원방안들은 중요도는 높지만 현재 수준이 낮아 개선이 요구되는 방안들로, 앞서 기술한 교육수당 지급을 포함한 재정적 지원과 관련된 내용들이 위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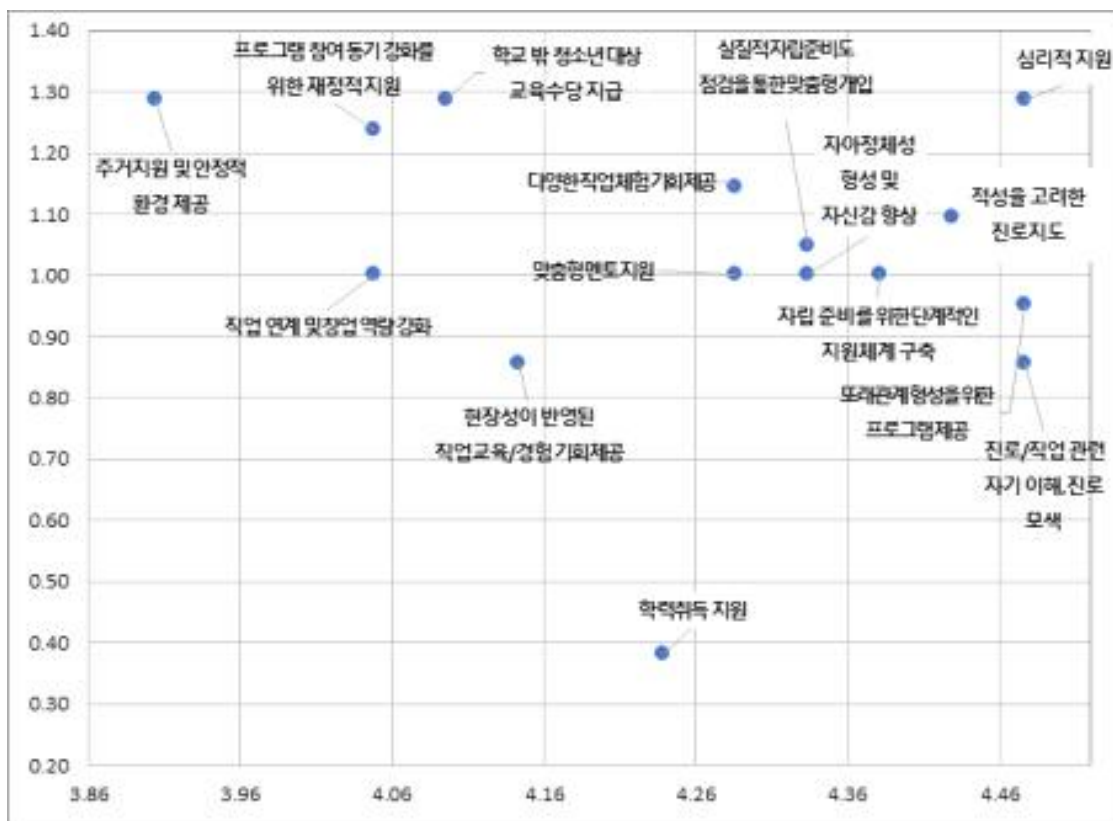


그림 V-2.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방안들에 대한 Borich 요구도 결과 도식

(7) 학교 밖 청소년 자립을 위해 시급한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가장 시급한 지원에 대한 1차 조사결과에서는 정신건강, 심리정서적 지원(N=4)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다. 전문가들은 앞서 제시한 의견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지원서비스 이전에 심리적 건강과 안정을 가장 시급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심리정서적 안정을 토대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 맞는

진로설계를 할 필요가 있으며, 또 심리적 문제나 정신건강적 문제가 자립에 장애가 되기 때문으로 응답했다. 이외에 사회성과 관계형성기술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및 자원 제공, 학교안팎 청소년에게 공통된 학습권과 경험 기회 제공, 진로지원 강화(진로상담, 진로체험처 확대 등), 일 경험 프로그램 확대(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규모 확대),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 준비 지원(관련 매뉴얼 개발 등에 대해 복수의 전문가들이 각각 응답하였다.

표 V-16. 분석결과: 학교 밖 청소년 자립을 위해 시급한 지원

영역	자립을 위해 가장 시급한 지원		1차 조사 결과 ^{주)}	2차 조사결과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발굴	1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연계를 통해 사회안전망 내 자립 지원	1	4.43	0.51	4	5
	2	정신건강, 심리정서적 지원	4	4.57	0.51	4	5
심리· 사회	3	자신감 향상 프로그램 지원	1	4.24	0.42	4	5
	4	사회성과 관계형성기술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자원 제공	2	4.52	0.68	3	5
	5	은둔, 고립형 청소년에 대한 개입 모형 개발	1	4.38	0.81	2	5
교육	6	학력취득 및 검정고시 지원	1	4.00	0.84	2	5
	7	학교안팎 청소년에게 공통된 학습권과 경험 기회 제공	2	4.10	0.77	3	5
진로	8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1	4.24	0.77	3	5
	9	대학진학 지원 강화(대입상담 확대 등)	1	3.95	0.81	2	5
	10	진로지원 강화(진로상담, 진로체험처 확대 등)	2	4.19	0.75	2	5
	11	일 경험 프로그램 확대(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규모 확대)	2	4.19	0.60	3	5
자립	12	자립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	1	4.24	0.63	3	5
	13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 준비 지원(관련 매뉴얼 개발·보급)	2	4.29	0.56	3	5
기본권	14	안전과 생존 등 기본권 보장(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성장 보장)	1	4.10	0.70	3	5
	15	건강지원(건강한 급식 제공 등)	1	4.14	0.66	3	5
경제적 지원	16	교육 급여 등 경제적 지원	1	4.05	0.87	2	5
	17	주거지원	1	3.67	1.11	1	5
전달 체계	18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서비스 제공 기관의 전문성 강화	1	4.48	0.51	4	5
	19	지원기관 인력 충원	1	4.48	0.75	3	5
기타	20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	1	4.19	0.60	3	5

주: 전문가들의 의견 빈도수

1차 조사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급성에 대한 양적 평가를 하였고, 그 결과는 표 V-16과 같다.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인 ‘정신건강, 심리정서적 지원’(M=4.57)이 1차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장 시급한 지원이었고, 다음은 ‘사회성과 관계형성기술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및 자원 제공’(M=4.52)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문성 강화’도 그 중 시급성이 높았는데(M=4.48),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1차 조사에서 현재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서비스 전달체계에 있는 기관들이 대부분 열악한 상황에서 운영됨에 따라 수준 높은 서비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지원기관 인력 충원’(M=4.48)과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연계를 통해 사회안전망 내 자립 지원’(M=4.43)도 비교적 높은 시급성을 나타냈다.

(8) 향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방향성

향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방향성에 대한 1차 전문가 조사에서 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복교, 학력취득, 자격취득, 취업 등)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및 프로그램 제공(N=6)이 가장 많이 제안되었다. 즉,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도 다양하며, 이에 따라 욕구와 특성이 더욱 다양해짐에 따라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맞춤형으로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함을 피력하였다. 다음으로 여전히 심리정서, 정신건강 지원 강화(N=3)를 향후 방향으로 언급한 전문가 수가 많았는데, 전문가들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업 및 취업지원이 필요하지만 심리적인 안정이 전제되어야 하며, 또한 청소년기 특성상 심리사회적인 돌봄이 꼭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부연하였다.

표 V-17. 분석결과: 향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방향성

영역	상세 내용	1차 조사결과 빈도(중복)
심리·정서·사회적·신체 적 건강 지원 강화	심리정서, 정신건강 지원 강화	3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교류의 중요성 인식	1
	학교 밖 청소년의 주도성, 주체성 강화 방안 (정책 개발, 실행, 평가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 유도)	1
	신체적 건강 지원	1
진로지원 정책에 초점	진로지도를 통한 자립	1
	진로지원 정책에 중점	1
	충분한 교육 및 진로지원 보장	2

영역	상세 내용	1차 조사결과 빈도(중복)
자립역량강화 및 체계적 인 자립지원 초점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역량에 초점	1
	개인의 특성, 자립준비도에 맞는 단계적 개입 필요 (사례관리 중심, 다양한 프로그램 접목)	1
학교안팎 청소년의 동일 한 권리 향유(교육권, 진 로지원 등)	학생 청소년과 같은 수준의 교육권 보장	1
	학교안팎 청소년들 모두 동일한 권리 향유	1
	사회적 배제가 아닌 통합의 방향	1
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 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서비스 대상의 연령 범위 검토 및 연령대에 맞는 진로지원(초등/중등/고등/고등 이후)	1
	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복교, 학력취득, 자격취득, 취업 등)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및 프로그램 제공	6
	학교를 그만둔 요인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방향 모색	1
지원수준에서의 전문성 제고	양적 성장외에 지원 서비스 수준 향상	2
	전문적인 지원을 위한 인력 충원, 처우개선, 전용공간 예산 증액	2
지원체계 개선 (부처간 협력 강화 등)	교육부-여가부-지자체 협력 강화	2
	정부부처에서의 지원체계 일원화	1
꿈드림센터 운영 개선	지역특성과 인프라를 활용한 특성화 꿈드림센터 운영	1
	거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정을 통한 인근 센터와의 연합 프로그 램 제공 및 인프라 공유	1
	학교밖청소년센터의 독자적기능 활성화(예, 상근센터장 채용)	1
기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홍보 강화(꿈드림센터 포함)	1
	학교밖 청소년의 체계적인 발굴	1
	청소년 발달에 있어서의 학교의 역할/의미 재고	1
	독립공간 확보 필수	1

2차 조사에서는 향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방향성으로 1차 조사에서 전문가들이 많이 언급한 영역 중 상대적으로 중요한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해 AHP조사를 실시하였다. 적절한 쌍대비교가 이루어지도록 그중 응답이 많았던 5개의 영역에 대해 해당 상세 내용을 함께 제시하고 전문가들로 하여금 일관성 있고 논리적으로 평가하게 하였다(조사 표는 부록 2-2참조). 이렇게 도출된 우선순위 선정 결과는 표 V-18과 같다. 1순위로 도출된 영역은 1차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특성 및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이었으며, 2순위는 ‘사회적·신체적 건강 지원 강화’, ‘꿈드림센터 운영 개선’이었다. 특히, 꿈드림센터 운영개선이 높은 우선순위를 보인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V-18. 분석결과: 향후 지원정책 방향성 우선순위

향후 정책방향 영역	상세 내용	2차 조사결과	
		중요도	순위
1. 심리·정서·사회적·신체적 건강 지원 강화	심리·정서, 신체적 건강 지원 강화,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 중요성 인식	0.209	2
2. 진로지도, 진로지원, 자립지원 정책에 초점	진로지도와 진로지원 정책에 중점, 자립역량 강화 및 체계적 자립지원 초점 필요	0.19	4
3. 학교안팎 청소년의 동일한 권리 향유	학생청소년과 동일한 수준의 학교 밖 청소년 권리 향유 (교육권, 진로지원, 사회적 배제가 아닌 통합 등)	0.181	5
4. 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의 연령, 특성 및 욕구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0.212	1
5. 꿈드림센터 운영 개선	지역특성과 인프라 고려한 특성화 꿈드림센터, 거점 꿈드림센터 지정, 꿈드림센터의 독립성 등	0.209	2

주: C.R.(Consistency Ratio) = 0.00073<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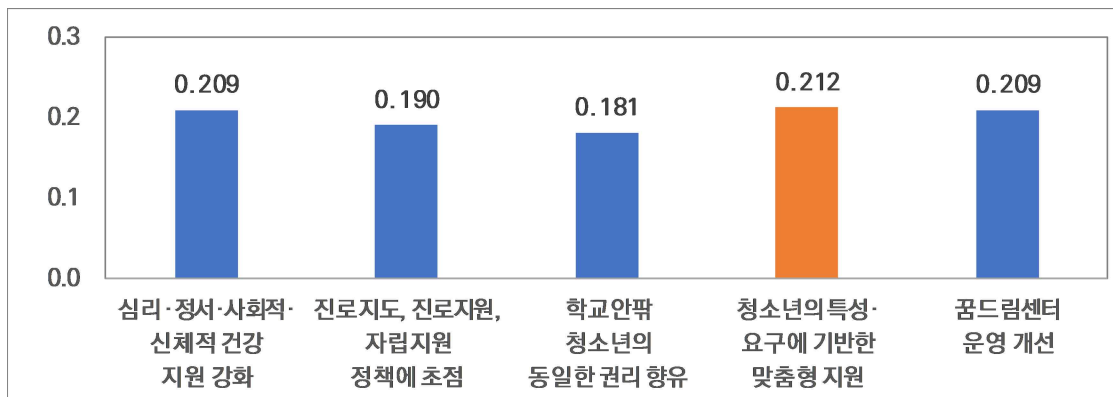


그림 V-3. 향후 지원정책 방향성 우선순위

(9)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향후 역할과 기능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주요 지원체계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임에 따라 향후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앞서 향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향성에 있어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개선에 대해 전문가들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1차 조사결과에서 전문가들로부터 수렴된 구체적인 향후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의견들을 정리한 결과, '다양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영역에서의 전문성 강화, 고도

화’(N=8)와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지원과 관련하여, 은둔·고립 청소년을 포함한 심리정서 지원 및 사회적 교류활동과 더불어, 학업, 복지, 상담(정신건강), 취업, 진로준비, 문화체험 등의 지원에서의 전문성 및 고도화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였다.

다음으로 앞선 조사에서와 유사한 맥락에서 ‘청소년의 연령/특성,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에 초점’(N=7) 내용이 다수 언급되었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중심기관으로서 지역 네트워크 기능 확대, 지역자원 연계/협력 강화’(N=5)에 대한 의견들도 다수 제안되었다. 이 부분은 앞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화된 서비스 지원 필요성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지원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기관들과의 연계 및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전문적 서비스 전달을 위한 역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향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기능이 더욱 전문화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고, 이를 위한 방법으로 자체적인 전문성 함양뿐 아니라 지역사회내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킹 등 다양한 전략 필요성도 함께 시사한 것으로 이해된다. ‘학교 밖 청소년이 편하게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마련·제공’(N=4)에 대해서도 여러 전문가가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진로 탐색뿐 아니라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을 조명하는 것이다.

2차 조사에서는 이렇게 1차 조사를 통해 정리된 내용에 대해 5점 척도로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표 V-19),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사례관리 기능 강화’(M=4.62)가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는데, 이는 1차 조사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결과였다. 즉, 전문가들은 향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이 목표를 갖고 진로를 준비하며 향후 사회에 적응하기까지의 사례관리 역할에 더욱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에 높이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중심기관으로서 지역 네트워크 기능 확대, 지역자원 연계/협력 강화’(M=4.57), ‘청소년의 연령/특성,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에 초점’(M=4.48)이 뒤를 이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습득 지원’(M=4.43)이 그 다음의 중요도를 보였는데, 전문가들은 구체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심리적 성장, 대인관계 능력, 기초생활역량까지 포함하여 언급하였다. 이어 ‘학교 밖 청소년 적극 발굴 및 관리 강화’, ‘다양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영역에서의 전문성 강화, 고도화’가 동일한 수준의 중요도를 나타냈다(M=4.43).

표 V-19. 분석결과: 향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꿈드림센터의 향후 역할과 기능 변화		1차 조사 결과 ^{주)}	2차 조사결과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습득 지원 - 학업, 심리적 성장, 대인관계 등 역량	3	4.43	0.51	4	5
2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사례관리 기능 강화 - 목표 성취, 진로준비 및 사회 적응까지 사례관리	3	4.62	0.50	4	5
3	청소년의 연령/특성,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에 초점	7	4.48	0.60	3	5
4	학교 내 학습지원(기초학력 유지 등)을 충족할 수 있는 교육지원(연계)기관 역할	2	3.81	0.60	3	5
5	학습/학업 위주의 지원 지양	1	3.43	0.75	2	5
6	단계별 다양한 운영모델 개발 및 제공 - 대인관계 프로그램, 기초생활역량 강화 등 기본 프로그램에서 전문 프로그램(분야별 특성화 프로그램 제공 등)까지	1	4.29	0.46	4	5
7	학교 밖 청소년이 편하게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마련·제공 - 진로 탐색 및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공간	4	4.38	0.67	3	5
8	학교 밖 청소년 적극 발굴 및 관리 강화	2	4.43	0.60	3	5
9	다양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영역에서의 전문성 강화, 고도화 - 은둔, 고립 청소년 포함 심리정서 지원 및 사회적 교류활동 - 학업, 복지, 상담(정신건강), 취업, 진로준비, 문화체험 등	8	4.43	0.87	2	5
10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중심기관으로서 지역 네트워크 기능 확대, 지역자원 연계/협력 강화	5	4.57	0.51	4	5
11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전문적인 지원기관으로서의 독립성 강화	2	4.19	0.98	2	5
12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정책적 서비스 전달체계의 허브 역할 수행	3	4.38	0.74	3	5
13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세분화	1	4.10	0.77	2	5

주: 전문가들의 의견 빈도수

2. 현장실무자 면접조사: 초점집단면접(FGI)

1) 조사 개요

(1) 조사대상자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과 지원 요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주요 지원체계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학교 밖 청소년을 현장에서 지원하는 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3~4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종사자로, 지역별 균등 안배하고 기관특성, 지역규모별 기관 수와 학업중단율을 고려하여 시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4명(집단1), 시군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3명(집단2), 시도·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명(집단3), 총 10명을 섭외하였다. 세 집단으로 비슷한 경력과 지역 단위 운영방식을 고려하여 구성함으로써 면접 참여자가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면접조사는 2023년 7월 24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202305-HR-고유-010)을 받아 수행하였다.

표 V-20. 현장실무자 FGI 면접참여자 정보

일시	그룹	번호	구분	성별	연령	사업유형	비고
8월 17일(목) 16:00-17:30	집단1	1	실무자A	여	30대	시단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실무 경력 3~4년 팀장
		2	실무자B	여	50대	시단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3	실무자C	여	40대	도단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4	실무자D	여	50대	도단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8월 18일(금) 14:00-15:30	집단2	5	실무자E	여	50대	시단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6	실무자F	남	40대	군단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7	실무자G	남	30대	구단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8월 18일(금) 10:30-12:00	집단3	8	실무자H	남	30대	도단위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	
		9	실무자I	여	50대	시단위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	
		10	실무자J	여	50대	구단위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	

(2) 면접내용

본 면접조사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실무자들의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취약성에 대한 통찰을 통해 실질적인 자립지원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내용으로 면접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주요 질문 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변화,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지원사업의 주요 성과와 한계,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유형과 수준, 취약성 극복을 위한 현장의 지원 실태와 청소년들의 요구,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인기 이행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등 5개 영역으로 구성하였고, 세부내용은 표 V-21과 같다.

표 V-21. 현장실무자 FGI 주요 면접 내용

조사 영역	세부내용
I.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경향성	• 센터 이용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 학교 밖 청소년 특성 중 주목할 변화와 추이
II. 지원사업의 주요 성과와 한계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있어서의 주요 성과 • 지원의 한계와 개선 및 보완되어야 할 점
III.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둠에 따라 경험하는 어려움과 취약한 분야 • 또래 학생과 비교 시,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더욱 취약한 분야
IV. 취약성 극복을 위한 주요 지원과 청소년의 요구	• 취약성 극복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 •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원 요구
V. 지원정책의 방향	•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인기 이행과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지원

세 집단 FGI 모두 5개 영역의 질문 내용은 유사하게 유지하되, 시간적 제약과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였다. ‘집단1’은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극복을 위한 주요 지원사업과 한계, 지원정책의 개선방향과 관련된 질문에 초점을 두어 진행하였고,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시군구 꿈드림센터를 통해 접하게 되는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취약성 유형, 변화 추이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직접 지원을 제공하는 ‘집단2’는 현장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직접 접하면서 수집한 더욱 구체적인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변화 추이, 학교를 그만둠에 따라 경험하는 취약성과 불리한 측면,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요구, 지원 방향과 개선점들을 중심으로 질문하였다. 통합적인 심리·상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집단3’은 센터로의 유입 경로와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불리함과 어려움, 또래집단에 비해 취약한 분야,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요구, 시급한 지원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FGI는 반구조화된 면접지를 사용하여 온라인 비대면 집단면접으로 진행하였다. 당초 FGI는 대면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면접참여자 간의 일정과 장소 조율의 어려움과 면접참여자들이 Zoom을 통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을 선호함에 따라 실시간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였다. FGI는 면접시간 내 충분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집단 당 3~4명으로 구성하였고, 면접시간은 한 집단 당 약 90분가량이었다. 면접에는 전체 연구진이 참여하였으며, 본격적인 면접 시작 전 연구참여자에게 연구 목적과 조사 개요, 조사 내용 활용 방법, 면접 내용 녹취, 비밀 보장 등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에 한하여 FGI를 실시하였다. 녹취된 내용은 전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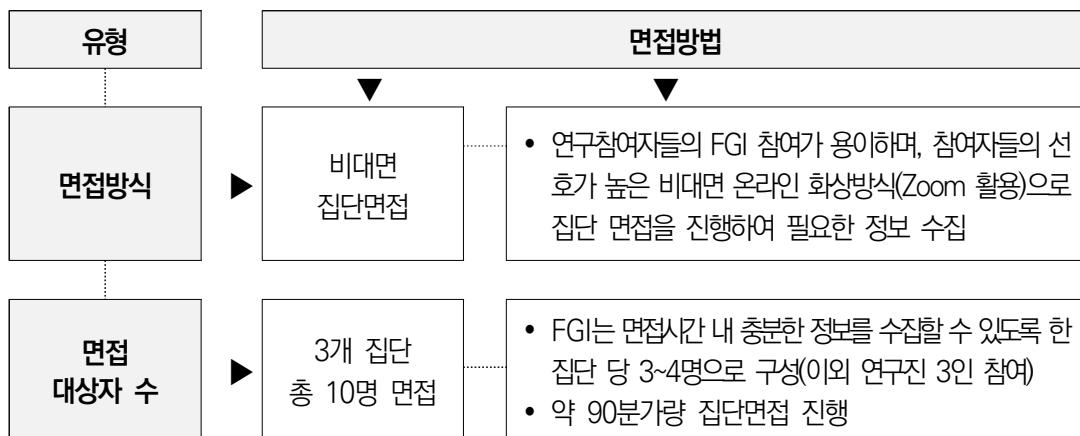


그림 V-4. 현장실무자 초점집단면접 방법

자료 분석을 위해 연구진이 FGI 전사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연구와 관련된 핵심 단어와 문장을 식별하기 위해 개방 코딩을 실시하였고, 범주화는 단순히 주제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제언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분류된 기준에 따라 반복적인 검토를 통해 면접참여자들의 의미 있는 단어와 유형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공통적인 속성으로 묶일 수 있는 내용을 범주화하는 과정을 반복하였고, 연구 질문 내에서 의미의 유사성에 따라 주제별로 재범주화를 시도하면서 재작성된 코딩과 주제 기술에 따라 결과를 정리하였다.

2) 결과 분석

현장실무자 대상의 FGI 자료 분석 결과는 표 V-22와 같다.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변화 추이,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한 측면,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지원 방안의 3개 영역에서 16개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표 V-22. 학교 밖 청소년 취약성 극복 및 자립지원을 위한 주제 분석

영역	주제
1.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변화 추이	- 자신의 진로를 위해 자발적으로 학교를 그만 둠 - 관계부적응으로 인한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 - 정신건강 문제로 학교를 그만둠 -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증가 - 사적 경로를 통한 꿈드림 센터 유입
2.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한 측면	- 심리·정서적 어려움 - 일상생활관리의 어려움 - 소속감의 결여 - 활동공간 부족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편견과 차별 - 진로탐색과 진로준비의 어려움
3.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지원 방안	-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 강화 - 전문적인 심리상담 지원 - 균등한 교육여건 보장 - 학교 밖 청소년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진로지원 - 학교 밖 현장 환경(인력, 예산, 서비스)의 개선

①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변화 추이

가. 자신의 진로를 위해 자발적으로 학교를 그만 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실무자는 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 중에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자신이 희망하는 학업과 진로를 이루기 위해 학교 밖으로 나가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홈스쿨링과 같이 개별학습 방식을 선호하거나(A), 다양한 학습경험을 희망하였고(A), 또래보다 빠른 사회진출과 대학진학을 기대하는(C, D) 등, 학교 안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목표에 접근하기가 어렵고, 학교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경우(E, F) 자신의 희망에 따라 자발적으로 학교를 그만두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는 미래가 불투명하고, 꿈을 찾을 수 없어서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실무자F)

나. 관계부적응으로 인한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게 된 이유 중에는 단순히 학업에 대한 문제보다 학교 부적응의 이유가 많았고(C, I), 특히, 교사 및 교우관계와 같이 대인관계 부적응이 주요 문제로 거론되었다(D, H, J, F). 실무자들은 코로나19 이후 오랜 기간 대부분의 학교수업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면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대인관계 경험을 하지 못하고 성장함에 따라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교사와 또래관계에서의 갈등과 조정,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으로 보고하였다.

학교를 그만둔 이유의 80%가 학교부적응이나 학업부적응이에요. 학교나 학업에 부적응 등으로 학교 밖이 되었다고 이야기한 청소년들이 주요 사유를 들어봤을 때 아무래도 최근에는 코로나 기간 동안 좀 오랜 시간 동안 비대면 수업을 유지하고, 또래관계를 많이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조정해야 하거나, 건강하게 의사소통해야 하거나, 이런 것들을 너무 어려워해요. (실무자H)

다. 정신건강 문제

주목할 만한 변화로 최근 꿈드림센터로 유입되는 학교 밖 청소년 중 경계성 지능장애, ADHD, 심적외상으로 인한 자해와 자살, 발달장애 등과 같이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고위험군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 H, J). 학교 밖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적절한 시기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학교를 그만두는 것을 넘어서, 성인이 된 이후의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H, I, J). 학생 청소년에게 정서 및 행동상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비교적 빠른 개입과 연계가 가능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 그중에서도 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가 시급함에도 접근조차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B).

저희 센터로 유입되는 청소년을 보면 그전에는 청소년 의뢰 사유 1위가 학업 및 진로가 1위였다면 지금은 정신병리가 1위거든요. 이거는 학교 밖 청소년 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청소년기의 자해 자살 문제로 왔다면, 지금 후기청소년에 온 아이들은 이미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한 아이들이 오고 있고, 그것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24세가 넘어가면서 이미 성인기를 앞두고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실무자J)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 내에 있는 청소년들에 비해서 정신 건강 우려가 굉장히 염려스럽다는 결과를 본 것 같아요. 이거 역시도 학교 내에 있는 친구들이 이런 상황에 노출되었다라고 한다면, 신속하게 어떤 기관으로 연계가 되거나 개입이 가능하지만,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이 센터에 등록돼 있지 않고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있다** 라면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 거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건 좀 정확하게 실체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구축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무자B)

라.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증가

현재 꿈드림센터를 이용하는 주 연령대는 상당수가 중·고등학령기 청소년이지만, 최근 주목할 만한 변화는 센터로 유입되는 학교 밖 청소년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C). 과거 초등학생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미인정 유학을 하거나, 해외 출국하는 사례가 많아 실질적으로 꿈드림센터에서 만나기 어려웠지만, 코로나 이후 초등 학생 학교 밖 청소년의 유입이 늘었고, 신규로 홈스쿨링 비율이 높은 초등 자녀의 부모를 통해서도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센터 유입이 늘고 있었다(D).

직접적으로 만났던 아이들은 대부분이 빨라도 17살, 대부분은 18살도 좀 빠른 편이었고요. 2015년, 2016년도에 만났던 아이들은 대부분이 19살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만나는 아이들은 그 이하의 12살, 13살인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되게 많은 연령대가 15살, 16살 아이들도 꽤 많이 만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이 **아이들이 연령대가 떨어져서 의무교육 단계 아이들이 되게 많아졌다**는 걸 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실무자C)

마. 사적 경로를 통한 꿈드림센터 유입

학교 밖 청소년의 주요 발굴 경로는 교육청을 통한 연계가 가장 높은 편이었고, 그 외에 비인가 대안학교를 통한 연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아웃리치 활동(검정고시 접수 현장에 서 사례 발굴)을 통한 기관 차원에서의 연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새롭게 증가하고 있는 유입 경로로는 학교 밖 청소년 스스로가 센터 정보를 미리 알아보고 찾아오는 경우(B, C), 센터 이용 친구 소개(D), 가족에 의한 연계(D, F), 홈스쿨링 커뮤니티(D)를 통한 연계 등 ‘사적 경로를 통한 연계’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교육청에서 명단이 오기 전에 이미 센터로 유입되고 있는 아이들이 많고, 또 센터를 이용하면서 동시에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아이들. 이렇게 가족들에 의한 연계. 또 친구에 의한 연계. 이렇게 ‘개인 연계’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조금 주목할 만하고요. (실무자D)

②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한 측면

가. 심리·정서적 어려움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후 학생 신분이 아님에서 오는 위축감(E), 주변의 시선(D), 학교를 그만둔 후 지지와 지원이 끊김에 따른 심리적 어려움(F), 시간이 지날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감(F)과 같이 다양한 어려움과 스트레스에 직면하면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에 반해 상담욕구는 많지 않아 지원이 필요함에도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진로 및 학업 지원에 앞서 심리정서적 안정감의 확보가 중요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이 센터로 유입 전 다수의 상담에 노출되면서, 필요로 하는 상담을 받아야 할 시기에 상담을 받지 않는 청소년이 많다는 점도 언급되었다(C).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지 않으려면 사실 다양한 서비스, 여러 유형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은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상담과 심리치료의 역할을 어떻게 센터에서 구현해내느냐?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아이들이 조금 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실무자D)

나. 일상생활관리의 어려움

학교를 그만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가장 취약한 분야로 생활관리의 어려움이 지적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이 계획을 가지고 학교를 그만두더라도 통제 없는 생활이 길어지면서 생활패턴이 흔들리고 밤낮이 바뀌는 불규칙한 생활이 이어지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생활습관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었다(C, D, E, F).

제일 취약한 거는... 생활관리가 제일 안 되니까. (중략) 이게 학교를 안 가는 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나태한 생활이 이어지잖아요.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습관 자체가 이제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희가 10시에 전화해서 전화받는 애는... 정말... 10명 중에 한 2명 나머지는 12시, 1시 돼야지 전화받아요. 그래서 제가 어쩔 때는, 이 ○○○ 할 때는 집에 가서 막 애 깨워가지고 데리고 오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실무자E)

다. 소속감의 결여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떠난 뒤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소속감의 부재에 따른 정서적인 혼란과 불안, 우울, 스트레스와 같이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점이 거론되었다(F).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실무자는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또래에 비해 소속감을 많이 경험하지 못함에 따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H).

소속감이 없다 보니까, 학교에 소속된 것도 아니고, 여기에도 소속된 것도 아니고, **소속감이 저하되면서 이제 불안해지거나 이런 심리적인 문제도 생기고요.** 그런 문제들이 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실무자F)

라. 활동공간 부족

재학 중인 청소년은 교실, 급식실, 체육실, 미술실, 음악실 등 충분한 활동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교류와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안전한 성장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었다(G, J). 또한 생활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많은데,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고, 학습하며, 머물 수 있는 전용공간을 제공하여 자발적으로 센터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생활관리와 돌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F).

아이들이 이제 생활 관리가 안 되고 지역이 너무 멀다 보니까 센터에 한번 오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아이들을 위한 전용 공간** 그냥 교육실 이런 거 말고요. 아이들이 진짜 **아침부터 와서 저녁때까지 집에서 있는 것보다 더 재미있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센터에 와 있을 거고요. 아이들이 여기 와서 생활을 하면 (중략) 훨씬 더 효과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실무자F)

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편견과 차별

실무자들은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둔 이후 겪는 어려움으로 주위의 편견과 차별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C, F, H). 이러한 문제는 청소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의 침해로까지 이어지면서, 학교 밖 청소년이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에 대해 보고하였다. 이에 대해 청소년들이 학교를 다녔다면 당연히 받았을 교복, 급식비, 교육비 등과 같은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해서도 불합리함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하였다(C).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학교를 그만뒀을 때 이제 주변분들, 이웃들의 시선, 학교 친구들의 시선,** 이런 부분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실무자F)

늘 얘기하지만 **학생에 한정되어 있는 그런 자격 기준, 조건들이 아이들이 불합리하다고** 많이 느끼는 부분이고요. (실무자C)

공모전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아이들이 연령을 왜 학교 아이들 재학으로** 규정을 하는지. (실무자)

바. 진로탐색과 진로준비의 어려움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둔 당시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진로 준비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A, B). 또한 제공되는 진로지원 프로그램들이 자격증 취득 아니면 검정고시 지원으로 단순화되어 있어, 다양한 배움의 과정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진학-취업 욕구에 따른 단계별 수준별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도 지적되었다(E). 학교 밖 청소년 진로상담 전문인력의 부재로 인해 체계적인 진로준비와 진로설계의 어려움(G, H)과 취업 준비 과정에서의 지역자원의 부족, 기관 예산제약으로 직업체험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그로 인해 참여기회가 제한되는 문제도 제기되었다(F, J).

학교 밖 청소년이나 부모님들께서 가장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 너무 많은 기관들이 있지만 내가 학교 밖으로 나갔을 때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정보를 받을 수 있는지 찾을 수가 없다.. 이걸 다 개별적으로 알아보게 되는데 그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세요 (실무자A)

검정고시 이후에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개발을 해서 해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여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 자체가... 딱, 그냥 학업복귀, 아니면 검정고시 지원, 아니면 자격증, 이거로 딱 나눠지니까. (실무자E)

③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지원 방안

가.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 강화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체계의 대안으로 학교 밖 청소년 관계기관 간의 협력과 연계 강화(A), 청소년 NEIS 개인정보제공 동의 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정보 제공(B, D),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청소년에게 학교를 그만둔 이후의 지원과 관련 기관 소개를 통한 학교를 그만둔 이후 초기 홍보 강화(B), 급식지원과 같이 방문지원서비스가 이루어질 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홍보물을 보내는 방안(D) 등이 제시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시기가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참여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이었다(A). 그 밖에도 학교 밖 청소년 중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도 많기 때문에, 문화비 지원, 교육 참여 수당과 같이 경제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질 때 학교 밖 청소년, 특히 은둔상태의 청소년을 발굴하고 유인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C, F).

저희가 아이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세상○△카드’라는 걸로 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한 달에 5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올해부터는 확대를 해서 이제 미인가 대안학교와 저희 센터를 통해서 무조건 지원이 다 지자체를 통해서도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은둔아들도 생각보다 발굴이 많이 되고 있어요. 작년하고는 좀 다르게 지자체를 통해서도 지원이 되다 보니까, 동사무소 읍사무소를 통해서도 아이들이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발굴을 하고 좀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실무자C)

나. 전문적인 심리상담 지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자는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극복을 위해서는 심리적 안정감 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D, J). 즉, 먼저 상담을 통해 심리적으로 회복이 된 후 지원이 제공될 때 그 효과가 발현될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D). 한편으로는 이러한 심리적 상담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실제 상담욕구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실무자들은 센터로 유입 전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수의 상담 경험으로 피로도가 누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있었다(C, H). 상담 지원의 필요성이 높고 개입이 쉽지 않은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학교 밖 청소년에게 기존 상담모델의 적용은 한계가 있으며, 경험하는 문제와 이에 따른 개입방법에 따라 상담과 심리치료의 역할을 고려하여 상담모델이 달라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D).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아이들이 이미 이제 학교를 나오면서 학업중단 숙려제라든지 또는 이전에 뭔가 관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뭔가 학교부적응을 경험했거나, 이러면 이 아이들이 상담이라는 이름하에 너무 돌린 경험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피로감을 아이들이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거죠. 상담을 통해서 뭔가 아이들이 안정이 되고, 동기도 좀 찾아지고, 뭔가 한 다음에 서비스가 지원이 되면 이 서비스의 효과가 확 발현이 될 것 같은데. 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아이들이 상당수가 있거든요. (실무자C)

다. 균등한 교육여건 보장

학교 밖 청소년이 그들이 처한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모두 청소년으로서 동등한 교육여건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C, D, E). 이를 위해 먼저 학교 밖 청소년이 학생증이 없다는 이유로 소외와 배제를 경험하지 않도록 청소년과 학생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청소년’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제도적 변화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E). 또한 학교 안팎의 청소년에게 동등한 학습자원이 제공될 필요성도 제시되었다. 교재비와 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지원 등이 언급되었는데, 학생이었다면 무상으로 지원받았을

것들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제도적 차별을 경험하고 있었다(D). 그 밖에도 학교 밖 청소년이 배움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고, 활동과 일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마련의 필요성도 제시되었다(F, G, J).

제도적으로 학생들과 차별 없는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학교 학생들이 다 무상교육 지원받고 있잖아요.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도 어쨌든 학습에 대한 욕구가 있고, 검정고시 교재, 이런 학습 지원에 대해서 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을까... (실무자D)

수학능력 모의평가, 그게 이제 학생들의 경우는 모의평가 응시료를 학교 측에서 다 부담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를 나온 친구들은 지원을 받을 수가 없죠. 모의평가를 치려고 하면, 그 응시료를 청소년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사실 학생들은 지원을 받는데... (실무자D)

학교 밖 전용 공간이 꼭 필수적으로 다 센터에 설치가 되어서 아이들이 생활관리가 되고, 아이들이 와서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무자F)

라.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진로지원

현장실무자들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지원을 위해 청소년들의 요구와 수준에 맞는 차별화된 진로 프로그램 제공과 스스로를 이해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진로 탐색과 진로설계를 위한 지원에는 진로상담 전문인력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H), 지역사회 연계 현장대응기관 발굴 및 다양한 진로직업 분야 체험처 확보·제공(A), 지역사회 전문 멘토 연계형 인턴십 과정 제공(A) 등이 진로 탐색 기회 제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제안하였다.

사업을 운영할 때도 아이들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무자A)

전문적인 진로 설계나 코디네이팅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 또 있다면,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좀 고민하는 부분들에 미래설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무자H)

학업 및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으로는 연령 수준별·진학 단계별 학습지원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고(E), 진학단계별 학력수준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퇴직 교사 활용을 통한 학습지원 전문 멘토단 구성·활용(B)도 제안되었다. 또한 수요가 많은 내일이룸학교의 경우 대도시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고, 모집기간이 2~3월에 편중되어 있어도 단위 내일이룸학교의 확대 및 운영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E, F). 그 밖에도 현장과 연결된 현실감있는 직업체험 지원의 필요성도 보고되었다(E).

초등학교, 중학교 연령대의 아이들한테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기획하고 개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냥 고등 연령대 아이들한테 거의 맞춤식이 많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무자E)

아이들 학력 수준을 맞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교육청이랑 조금 연계를 해서 전문적인 교사, 퇴직 교사 집단을 활용해서 아이들 욕구를 조금 충족시켜주는 것도 아이들이 점점 좀 건강해지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실무자B)

마. 학교 밖 현장 환경(예산, 인력, 서비스)의 개선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먼저 예산 확충의 필요성(C, F, G)과 관련해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서비스 1인당 단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 전체 예산 중 인건비를 제외하면 잔여 사업비가 많지 않아, 학교 밖 청소년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 단가도 낮아져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었다(G). 즉, 학교 밖 청소년도 학생 청소년과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 충원을 지적하였는데(B, C),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실무자 1인이 관리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수가 많아 청소년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지원을 해주기 어려운 현실을 아쉬워했다. 업무가 많아 이직률도 높은 편으로, 충분한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B).

저희가 300명이 되든, 400명이 되든 200명이 되든, 저희 사업비는 동일해요. 그래서 서비스 1인당 단가가 너무 낮거든요. (중략) 이제 인건비 다 빼고 하면 사업비가 정말 얼마 안 돼요. 한 3천~4천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상자가 많아지게 되면 애들이 그만큼 서비스를 지원받는 단가가 줄어들어버리는 거예요. 학교 다니는 애들은 애들이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실무자G)

꿈드림센터에 왔다고 하면 그 아이들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게 가장 최선책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서비스를 지원해 주기에는 또 이제 실무자들의 업무가 너무 많은 거죠. 지금 아마 학급에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목 선생님이 관리하는 아이들이 20~30명, 많아도 30명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저희 학교 밖 실무자들 1인당 65명의 청소년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는 교과목 선생님이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고.(중략) 양질의 서비스를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줘서 아이들이 취약성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는 이런 제반적인 제도권에서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무자B)

서비스 지원방식 개선과 관련하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진로상담과 심리상담을

병행하는 원스톱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를 지적하는 실무자도 있었다(J).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충분한 상담인력이 있음에도 학교 밖 청소년에 개입하기 어려운 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일차적으로 동기부여와 정서적 지원이 시급함에도, 상담동기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연계할 경우 오히려 청소년과의 끈이 단절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이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진로상담과 심리상담을 병행하는 원스톱 통합지원 방식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J).

학교 밖 청소년이 이제 내가 뭐 좀 해볼까...하고 꿈드림센터로 어렵게 어렵게 방문을 해요. 근데 그들도 이미 미해결된 과제가 있고, 동기가 부여가 안 된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동기부여나 정서안정이 1차적으로 시급하게 유입이 바로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꿈드림센터에 오긴 왔는데 상담부터 받아라고 해서 다른 기관에 의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꿈드림센터에서 이게 원스톱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입된 아이들을 놓치지 말고, 어쨌거나 꿈드림까지 왔으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 그 안에서 동기부여 시키고, 프로그램에도 참여를 하고, 자립까지도 연결됐으면 좋겠는데...** (참여자J)

3. 요약 및 시사점

1) 전문가 의견조사 요약 및 시사점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분야 학계 및 현장전문가 21명을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취약성, 지원과제 등에 대해 2차에 걸쳐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조사는 개방형 질문 방식의 정성조사를 실시하였고 2차 정량조사는 1차 조사결과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범주화하여 내용에 따라 이에 따른 중요도 및 우선순위 평가를 실시하였다. 2차 조사결과 분석을 위해 평균값 산출, AHP분석 및 Borich요구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1차조사와 2차 조사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변화 양상으로 전문가들은 ‘사회적 관계 역량 증진 기회 부족’, ‘정신건강 문제 증가’, ‘학교와 가정에서 모두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문제’, ‘학교 밖 청소년 특성 다변화’, ‘은둔, 고립 성향 증가’ 등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외에 ‘학교 교육과 학교를 그만두는 것에 대한 청소년, 부모, 사회의 인식 전환’과 ‘자신의 진로에 대한 목표/계획을 갖고 학교를 그만두는 사례 증가’에 대한 의견도 1차 조사에서 다수 제시되었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을 위한 개입과 정신건강 문제 및 은둔·고립에 대한 관심과 학교 및 가정으로부터 이중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장 취약한 환경의 청소년에 대해서도 재조명할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가장 취약한 분야로는 ‘제한된 사회적 경험과 대인관계로 인한 사회성 발달과 인간관계기술 부족’, ‘소속감 부재’, ‘학교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보호,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 ‘제도권 공교육을 통한 모든 보편적 복지에서의 소외(보호, 교육, 적절한 급식, 학습, 건강 등)’가 도출되었고, 이외에 ‘공동체 의식 부재 및 단체생활/집단활동 부적응 등’에 관련해서도 1차 조사에서 다수 의견이 제시되었다. 가장 취약한 영역에 대한 개입(지원)을 위한 중점과제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고, ‘지역사회 지원 네트워크 및 안전망 강화’,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에 대한 상담·치료 등 지원’, ‘진로상담 및 맞춤형 진로지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역량 강화’, ‘정부 부처 간 연계·협력 강화’ 등이 주요 과제로 평가되었다. ‘또래 청소년들 간 교류 기회 제공(단체활동, 취미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에 대해서도 다수 유사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중점과제 우선순위 영역으로는 AHP 분석 결과, ‘심리적 지원’에 대한 중요도가 1순위로 도출되었고, ‘진로/학업 지원’, ‘사회성 향상 기회 제공’, ‘서비스 전달체계

및 지원방식 개선 영역' 순으로 조사되었다. 지원내용에서 뿐 아니라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 그리고 다른 지원에 앞서 심리적 지원의 중요성에 기반한 지원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전문가들이 꼽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서의 주요 성과 세 가지는 검정고시 등 학력취득 지원, 건강검진 등 건강지원, 심리정서 및 정신건강지원(상담 포함)이었다. 아쉬운 점은 '상담 전문성 부족', '직업훈련 및 창업연계 내실 부족', '대학입시 지원 미흡', '자기개발 프로그램 지원 부족', '문화활동 및 전용공간 지원 부족' 등이었는데, 향후 상담지원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있어서의 우선 고려사항으로는 '사회성 발달 기회 제공 및 소속감 제공'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 다음으로 '꿈드림센터의 인력, 예산, 공간 제약 개선', '심리적 지원 및 정신건강 지원',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 '진로 선택에 있어서 다양한 기회 제공'이 도출되었고, '학교 밖 청소년의 개별적이고 다양한 특성(적성, 재능)과 상황에 대한 이해 및 맞춤형 지원'과 관련된 의견도 다수 수렴되었다. 전문가들은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의 필요성을 매우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따른 현장 지원에서의 효과적인 개입 방안이 요구된다.

학교 밖 청소년 자립을 위해 주요 지원 및 Borich 요구도 분석결과, 1순위는 '심리적 지원(심리적 안정감과 성장)'이었고, 다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교육수당 지급', '주거지원 및 안정적 환경 제공', '프로그램 참여 동기를 강화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다양한 직업 체험 기회 제공'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 자립을 위한 시급한 지원은 '정신건강, 심리정서적 지원', '사회성과 관계형성기술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및 자원 제공',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문성 강화', '지원기관 인력 충원',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연계를 통해 사회안전망 내 자립 지원' 순으로 도출되었다. 전문가들은 전체적으로 심리·사회적·경제적 지원과, 진로/직업체험 지원에 대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이러한 공통된 이해를 기초로 개입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향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방향성 우선순위에 대한 AHP분석 결과, 1순위는 '청소년의 특성 및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 이었고, '심리·정서·사회적·신체적 건강 지원 강화', '꿈드림센터 운영 개선'이 동일하게 2순위로 나타났다, 이어 4순위는 '진로지도, 진로지원, 자립지원 정책에 초점'이었고, 5순위는 '학교안팎 청소년의 동일한 권리 향유'로 도출되었다. 정책 및 현장에서의 지원 방향성과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향후 역할·기능으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사례관리 기능 강화’가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이 목표를 갖고 진로를 준비하며 향후 사회에 적응하기까지의 사례관리의 역할에 더욱 초점을 두어야 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중심기관으로서 지역 네트워크 기능 확대, 지역자원 연계/협력 강화’ ‘청소년의 연령/특성,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에 초점’,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습득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적극 발굴 및 관리 강화’, ‘다양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영역에서의 전문성 강화, 고도화’가 동일한 수준의 중요도를 보였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서의 주요 전달체계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고유의 정체성을 가지며, 지역사회 내에서 다른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효과적이고 원활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2) 현장실무자 FGI 요약 및 시사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장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초점집단면접 결과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현장실무자들은 학교 밖 청소년의 주목할 만한 변화로, 뚜렷한 진로목표를 가지고 스스로 학교를 그만둔 선택을 하는 자발적 학교 밖 청소년이 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학교를 그만둔 이유로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같은 학교 부적응 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이는 학교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거나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할 경우 학교를 그만두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센터로 유입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주목해야 할 특징으로,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요하는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교 밖 청소년의 증가가 언급되었다. 이러한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적시에 개입과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성인기 이후의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기 발굴 및 개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주요 변화로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유입을 들 수 있는데, 이로 인해 학교 밖 청소년의 연령 범위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고등학교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에 집중된 지원들이 대부분이어서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에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 시 연령별 진로 환경과 발달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이 경험하는 주요 취약성으로 ‘심리·정서적 어려움’, ‘일상생활관

리의 어려움', '소속감의 결여', '활동공간 부족',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편견과 차별', '진로탐색과 진로준비의 어려움'이 도출되었다. 현장실무자들이 학교 밖 청소년의 주요 취약성으로 지적한 것은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면서 다양한 문제와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에 노출되며, 학교를 그만둠에 따라 통제 없는 생활이 길어지면서 불규칙한 생활습관과 시간관리 등 일상생활관리에 어려움을 겪기 쉽다는 것이었다. 또한, 학교를 그만둔 이후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소속감 결핍과 고립감을 경험하기도 하고, 배움과 성장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이 부족하여 활동과 경험 제약이라는 불리함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그 밖에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차별 대우받는 부담함을 경험하기도 하고, 진로개발의 욕구가 있어도 진로탐색을 위한 정보나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주위에 부족하여 열악한 진로준비 환경으로 인해 곤란함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또 다양한 욕구를 가진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주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개인별 진로단계를 고려한 진로준비에 있어서의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극복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 강화', '전문적인 심리상담 지원', '균등한 교육여건 보장',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진로지원', '학교 밖 현장 환경의 개선'이 도출되었다. 먼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참여 기회를 얻지 못해 성장과 배움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상시적으로 발굴하고 연계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정보 제공 및 연계를 강화하고, 학교를 그만둔 초기에,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학생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공평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한 현장실무자가 제안한 것과 같이 발굴이 어렵고 이후 연계도 쉽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 수당과 같은 유인책을 활용한 적극적인 연계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심리·정서적으로 취약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우선적으로 심리적 회복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로가 다양한 만큼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문제도 복잡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통합적 지원 방식의 상담모델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센터로 유입되기 전 다수의

상담으로 인해 상담동기는 낮은 편이지만, 진로개발에 대한 욕구는 가지고 센터를 방문함에 따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진로상담과 심리상담을 일원화하여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현장실무자의 제안이 현실화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장실무자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처한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청소년으로서 균등한 교육 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인식 및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이 소외와 배제를 경험하지 않도록 학생 청소년과 동등한 학습지원을 보장하고, 배움과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다양한 활동 공간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다양한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진로를 찾아나갈 수 있도록 진로 단계별 준비 과정을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현장실무자의 제안과 같이, 학교 밖 청소년 특성을 이해한 진로상담인력의 확보와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진학-직업에 따른 개인별 요구와 수준을 고려한 학습지원, 현실감 있는 진학·직업 체험처의 발굴과 제공 등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진로지원 프로그램을 확대·발전시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현장 환경의 개선에 대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사업 예산의 확보와 서비스 제공 인력 확충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환경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이 학생 청소년과 동등한 수준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과 인력 확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6장 정책제언

- 1. 연구결과 요약
- 2. 학교 밖 청소년 관련
현안 진단 및 지원 방향성
-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방안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경험하는 취약성을 파악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자립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림 V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행연구 고찰 및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2차 자료 분석,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질적자료 수집, 2차에 걸친 전문가 의견조사, 현장실무자 대상의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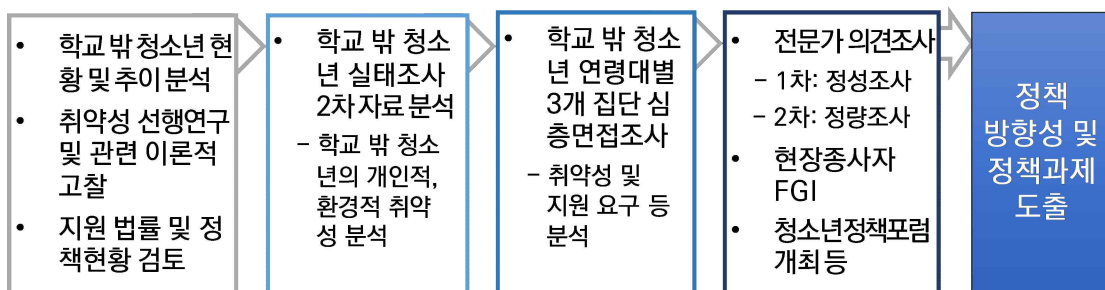


그림 VI-1.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제1장에서의 서론에 이어, 제2장의 선행연구 고찰 및 행정자료 검토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추이를 분석하였고, 취약성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개인적 접근을 위한 이론적 고찰을 수행하였다. 또한 현행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률과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2021년에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학교 밖 청소년

58) 이 장은 김희진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다.

년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할 수 있는 취약한 측면과 관련된 조사문항들을 중심으로 선별하여 기술통계 및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2차 자료 분석의 한계상, 자료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취약한 측면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도권 학교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 30명을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경험과 연령대에 따라 집단A, 집단B, 집단C로 각 10명씩 구성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세 집단의 질적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오랜 기간 질적자료를 축적한 장점과 지원경험없이 성인이 되었다는 집단 특성을 고려하여 집단A를 대상으로 질적종단분석을 시도하였다. 제5장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관련 학계와 현장의 전문가 21명을 대상으로 2차에 걸친 조사를 통해 현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변화양상을 포함한 취약성과 이를 극복하고 지원하기 위한 중점과제와 우선순위를 도출하였고, 향후 지원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현장 실무자 10명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현장에서 직면하는 학교 밖 청소년관련 변화와 취약성, 지원 요구 등을 탐색하였다.

이렇게 수행된 연구의 결과와 이를 토대로 도출한 정책적 함의는 표 VI-1과 같다.

표 VI-1. 주요 조사결과 및 정책적 함의

연구내용	주요 결과	정책적 함의
문헌고찰	- 학업중단 학생 수는 코로나19 시기 잠시 감소하는 듯 하다가 2023년 2월 기준 52,981명으로 학령기 인구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전 시기보다 더 증가하였음. - 여자청소년의 학업중단율이 남자보다 높았으며, 초등학생의 학업중단 비중이 커지면서 저연령 경향을 보임.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도 원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나 심리정신적 문제 등 다양해짐.	• 학령기 인구 감소에도 학교를 그만두는 숫자가 코로나19시기 이전보다 많아지고 있으며, 여러 특성의 변화를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 필요
	- 학교를 그만두면서 학교의 지원·자원에서 배제됨에 따른 다차원적 취약성, 이에 따른 장/단기적 심화된 취약성과 빈곤/심리적 문제 등 내재적 취약성 모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건강한 성인기 이행과 자립이 궁극적인 목표이지만, 성급히 자립 유도보다 충분한 심리적 준비와 진로탐색이 우선되어야 함. -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확인 및 극복을 위한 이론적 틀로는 제도적/환경적 차원의 권리기반접근, 개인적/심리적차원에서는 회복탄력성, 역경 후 성장 개념 활용 가능	•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다차원 취약성에 따른 지원 필요 • 이른 자립보다 자기 이해/진로탐색 시간 필요 • 학생 청소년과 동일한 수준의 권리적 차원의 지원과 심리적 안정·회복이 전제되어야 함.
	- 현행 법률에는 진로준비내용이 학생 대비 상당히 제한적이며, 지원현장에서 이를 감안하여 진로 및 자립지원을 수행하고 있음.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서 현장뿐 아니라 국가 및 지자체의 역할	• 현행 법률과 제도에 진로준비·탐색에 충분한 시간/지원체계 보장 필요

	이 주요 책무임에 따라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 필요 - 지자체에 따른 지원내용과 수준에 격차가 큼.	• 거주지역에 따른 지원 격차 최소화 필요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2차 자료 분석	- 자아존중감, 우울과 불안, 자살 생각 등은 여자청소년, 연령대가 높은 청소년, 경제수준/부모의 지원이 낮은 집단에서 더 부정적이었고, 학교를 그만둔 이후 불이익/어려움을 경험한 경우 자살 생각을 더 많이 하였음. 기관이나 서비스 이용 경험은 없을 때 과체중/비만 비율이 높았고, 신체활동 실천율은 낮았음. -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경우 학교를 그만둔 후 불이익/어려움을 더 적게 경험함.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학교를 그만둔 이후 기간이 경과할수록, 지원받기까지의 기간이 오래될수록, 학교를 그만둔 후 어려움을 더 경험하며, 학교를 그만둠에 따른 지식습득기회 감소를 후회함. - 학교를 그만둔 당시 상담자가 있는 경우 지원관련 정보를 제공받거나, 기관 및 서비스 이용 경험 응답이 더 많았음. - 학교를 그만둔 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친구 사귀기 기회 감소 아수함. - 학교를 그만둔 당시 계획 유무에 부모 지원/학업성적이 영향을 미침. 계획이 있는 경우 기관/서비스 이용 응답이 더 많았고, 지원받기까지 기간도 더 짧았으며, 어려움 경험 응답률도 낮음. -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고, 부모 지원수준이 높을수록, 기관/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을 때, 진로직업태도가 더 긍정적 결과를 보임. - 학교를 그만둔 기간이 짧고, 학교를 그만둔 이후 불이익이나 어려움 경험이 없을 때 진로결정시기가 당겨짐. - 학교를 그만둔 당시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지원받기까지 기간이 짧았고, 대도시 청소년의 진로관련 경험이 더 많았음. - 다변량분석 결과, 경제적 수준, 부모 지원 수준, 학교 성적은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측면에 중요한 요인이었음. - 읍면리 거주/학교를 그만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경우 진로결정 여부와 진로직업태도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보임. - 여자청소년들의 진로관련 지원(학습/진로멘토링, 진학정보제공 진학입시상담, 진로탐색체험 등) 요구가 남자보다 더 많음. - 낮은 연령대, 부모지원/학업성적이 낮은 경우 학습 및 진로 관련 지원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은 경향을 보임. - 학교를 그만둔 기간이 길어질수록 진로탐색체험, 직업교육훈련 고민상담 제공 등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	• 여자/연령대가 높은 청소년, 경제수준/부모의 지원이 낮은 경우 진로 및 자립준비에 앞서 심리정서적 개입 시급 • 기관/서비스 이용을 통한 신체적 건강 증진 필요 • 지적 자극 제공 및 지식 습득 기회 제공 필요 • 지원관련정보 제공/또래와의 사회적 교류 기회 제공 필요 • 낮은 부모지원→계획수립 개입/진로지원, 기관/서비스 이용 지원 더 필요 • 진로결정 및 이후 긍정적 경험위해 조기에 기관/서비스 이용 독려 • 중소도시, 읍면 지역의 진로경험 제공 요구 • 취약한 가정환경사례 조기 지원 필요 • 가정배경이 취약한 경우 심리적 지원 강화 시사 • 읍면리/학교 그만둔 지 기간이 긴 대상에게 진로관련 관심/지원 필요 • 남자청소년/낮은 연령대/부모지원이 낮은 경우 진로관련 지원 필요성 인식 필요
학교 밖	- 학교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 사례 30명을 연령대별로 집단A, B, C로 구성하여 심층면접조사 실시 · 집단A: 2012년 이후 학교를 그만둔 현재 20대 중후반 성인 · 집단B: 2020년 전후 학교를 그만둔 현재 10대 후반~20대 초반 청소년 · 집단C: 가장 최근 학교를 그만둔 대부분 10대 후반 청소년 - 횡단비교분석결과, 20대 중후반 집단A는 대부분 독립한 직장인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됨과 동시에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에도 다소 차이가 있음. •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면밀한 개입 필요 • 또래관계 형성, 또래 문

청소년 심층 면접조사

- 이었고, 일부 결혼/유자녀 상태였음. 집단B는 대학 재학/복교/아르바이트, 집단C는 대부분 대입 준비 중이었음.
- 학교를 그만둔 이유로, 집단A는 학교에서의 자퇴 권유, 친구와의 갈등, 학교분위기 등이었고, 적극적인 진로 모색 이유는 소수(1명)에 불과하였음. 집단B는 친구관계 어려움과 대안적인 진로 탐색을, 집단C는 대입 준비가 다수였음.
- 심리적 차원에서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해 후회감, 불안감, 위축감, 우울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가 관찰되었고, 학교 친구 /또래 문화 등 사회·문화적 자본 취약성이 도출됨. 부정적 사회적 인식으로 자신을 입증하는데 불편함을 느낌.
- 지원받지 못하고 사회인이 된 집단A에서 진로관련 정보 및 자원 부재가 많이 언급됨.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집단B와 C는 학교의 전문적 진로지원을 재인식하고 맞춤형 진로지도/상담을 희망함.
- 집단B, C에서 진로지도/진로설계의 어려움, 체계적 지원 부족, 대입위한 구체적 전략 미흡과 함께 진로작성 탐색 및 상담, 실질적인 입시지원 필요성이 제시됨.
- 제한적인 직업기술훈련 선택지에 대해 아쉬움,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인해 이력서와 면접 시 불편함 경험
- 집단A는 진로준비 및 자립과정에서 개인적 의지와 노력으로 극복한 사례가 많음. 전반적으로 가족의 구조적, 경제적 문제로 진로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사례도 다수 관찰됨.
- 집단A의 수년간 축적된 질적자료 종단분석결과, 지원없이 사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진학, 진로, 구직과정에서, 또한 또래관계 부재, 소외감/부정적 사회적 인식으로 피로감/좌절 경험
- 분석 대상 사례는 크게 진로포부가 강하고 취약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경우, 진로포부가 강하고 취약성 인식이 낮은 경우, 진로포부와 취약성에 대한 인식이 모두 낮은 경우로 구분하였음. 각자 취약한 부분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처하였으나 주로 개인적인 노력이나 현실 수용, 회피 등이 많았음.
- 취약성 인식과 대응과정에서 학교를 그만둔 것의 의미는 시간의 경과, 현재 직업 만족도, 상대적 평가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며, 이에 대한 성찰과 수용도 유동적으로 나타남.

- 화 경험 기회 제공 필요
- 진로 정보/지원 제공의 중요성 조명, 체계적/맞춤형 진로지원 필요
- 점차 수요가 많아지는 대입 지원의 범위와 수준 재고 요망
- 다양한 직업기술훈련 제공
- 채용과정의 학교 밖 경험 노출 불편함 개선, 기관연계 아르바이트 확대
- 취약성 극복은 청소년의 개인노력이 아닌 환경적, 제도적 기반 충실 필요, 공적 지지체계 확대
- 진로 및 자립준비에서 가정환경 영향 최소화 노력 필요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중요성 조명/진로, 진학, 구직관련 지원 강화
- 소외감/부정적 인식에 따른 좌절감 예방/지원
- 개인적인 노력이 아닌 제도적 지원을 통한 극복 기회/방법 제공
-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의미부여, 수용 등에 대한 회복적 개입 필요

-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분야 학계 및 현장전문가 21명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취약성, 지원과제 등에 대해 조사 실시(1차 정성조사, 2차 정량조사)
- 특성/변화 양상: 사회적 관계 역량 증진 기회 부족, 정신건강 문제 증가, 학교와 가정에서 모두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문제, 학교 밖 청소년 특성 다변화, 은둔, 고립 성향 증가
- 가장 취약한 분야: 제한된 사회적 경험/대인관계로 인한 사회성 발달과 인간관계기술 부족, 소속감 부재, 학교·가정에서 보호/지원받지 못하는 사례, 제도권 공교육 통한 보편적 복지 소외
- 가장 취약한 영역에 대한 개입(지원)을 위한 중점과제: 학교

-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변화양상 조명 필요
- 취약한 분야에 대한 관심과 개입방안 모색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용뿐 아니라 지속적 지원에 대한 강조 필요
- 진로지원 이전,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 우선

밖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지역사회 지원 네트워크 및 안전망 강화, 우울·불안 등 심리적 문제에 대한 상담·치료 등 지원, 진로상담 및 맞춤형 진로지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역량 강화, 정부 부처 간 연계·협력 강화

- 중점과제 우선순위(AHP분석): 심리적 지원, 진로/학업 지원, 사회성 향상 기회 제공, 서비스 전달체계 및 지원방식 개선 영역 순으로 도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서의 주요 성과: 검정고시 등 학력취득 지원, 건강검진 등 건강지원, 심리정서 및 정신건강지원
- 지원에서의 아쉬운점: 상담 전문성 부족, 직업훈련 및 창업연계 내실 부족, 대학입시 지원 미흡, 자기계발 프로그램 지원 부족, 문화활동 및 전용공간 지원 부족
- 우선 고려사항: 사회성 발달 기회 제공 및 소속감 제공, 꿈드림센터의 인력/예산/공간 제약 개선, 심리적 지원 및 정신건강 지원,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 진로 선택에 있어서 다양한 기회 제공
- 학교 밖 청소년 자립을 위한 주요 지원/Borich 요구도 분석결과: 심리적 지원(심리적 안정감과 성장),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교육수당 지급, 주거지원 및 안정적 환경 제공, 프로그램 참여 동기를 강화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 제공 순
- 지원정책의 방향성 우선순위(AHP)분석 결과: 청소년의 특성 및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 심리·정서·사회적·신체적 건강 지원 강화, 꿈드림센터 운영 개선, 진로지도, 진로지원, 자립지원 정책에 초점, 학교인팍 청소년의 동일한 권리 향유 순으로 도출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향후 역할과 기능: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사례관리 기능 강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중심기관으로서 지역 네트워크 기능 확대, 지역자원 연계/협력 강화, 청소년의 연령/특성,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에 초점,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습득 지원 순으로 중요도 도출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현장 실무자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FGI결과, 현장에서는 뚜렷한 진로목표를 가지고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는 선택을 하는 자발적 학교 밖 청소년이 늘고 있고,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크며, 정신건강 고위험군 청소년의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됨.
- 저연령 청소년 유입이 많으나 현재는 고등학교 연령대 지원이 대부분임.
- 현장실무자들이 보고한 취약성: 심리·정서적 어려움, 일상생활 관리의 어려움, 소속감의 결여, 활동공간 부족,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편견과 차별, 진로탐색과 진로준비의 어려움 등 도출
- 취약성 극복 방안: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 강화, 전문적인 심리상담 지원, 균등한 교육여건 보장,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진로지원, 학교 밖 현장 환경의 개선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및 제도 개선 필요

- 주요 성과이면서 아쉬운 점으로 도출된 상담지원에 대한 전환적 관점의 재고 필요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서의 우선 고려사항으로, 사회성 발달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으며, 이에 대한 개입 방안 모색 필요
- 심리적 지원뿐 아니라 교육참여수당과 같은 경제적 지원 확대 필요성 시사
- 학교 밖 청소년의 변화하는 특성과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 제공을 위해서는 지원체계 개선 필요
- 학교 밖 청소년 주요 지원체계로서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향후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고: 사례관리 기능 강화와 이에 따른 주요 역할과 기능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 관심, 지원 필요
- 저연령 청소년 유입→발달단계에 따른 지원 마련
- 일상생활관리의 어려움 등에 대한 관심 필요, 소속감 부여 기회, 진로탐색/진로준비 기회 제공과 활동공간 마련 필요
-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위한 다양한 유인책 마련
- 개인별 요구와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 학생 청소년과 동일 수준의 자원제공 환경 마련

2. 학교 밖 청소년 관련 현안 진단 및 지원 방향성

1) 학교 밖 청소년 관련 현안 및 취약성 진단

본 연구과정 전반에서, 즉 문헌 고찰, 학교 밖 청소년 현황 행정통계 검토,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2차 자료 분석, 학교 밖 청소년 면접조사, 전문가 의견조사와 현장실무자 FGI를 통해 살펴본 학교 밖 청소년 및 지원에 있어서의 현안과 취약성에 대해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표 VI-2와 같다.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차원과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적 차원을 구분해서 살펴보았는데, 개인적 차원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다변화 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의 저연령화와 같은 특성과 심리·정서·사회적,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이슈가 여럿 도출되었다.

특히,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는 정책 방향성 설정 및 현장에서의 개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발생 양상, 그리고 이에 따른 지원 요구가 과거와는 크게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즉 과거에는 비행, 이탈, 또는 학교 부적응을 이유로 학교를 그만둔 것에 기반한 정책이 대부분이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학교를 그만두거나 심지어 이른 대학 진학, 또는 유리한 대학 진학을 위해 학교를 그만두는 현상도 다수 관찰되었기 때문이다. 진로를 조기에 결정하는 것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부담감에 진로를 빨리 정하게 하고 자립을 독려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것인지, 또 학교 밖 청소년이 구체적으로 원하는 대학입시 준비를 꿈드림센터에서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연구과정에서 도출된 현안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과 현장 지원의 방향성 설정에 주는 함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현재는 청소년이 학생 신분에서 벗어나는 순간 학교를 통해 학생에게 제공되었던 모든 보편적 복지에서 소외되게 된다. 여기에는 우리 사회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체계적인 진로교육과 진로지원에서도 배제된다는 점에서 불리함을 크게 경험하게 된다. 이뿐 아니라 학생 청소년에게는 당연하게 관대했던 사회 전체의 시선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별적으로 바뀌기도 한다. 본 연구의 면접조사에서 한 청소년은 그래도 점점 인식이 나아지고 있는 것 같다고 했지만, 어느 시기에 학교를 그만두던지 지난 10여년에 걸쳐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 대부분은 우리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체감하고 있었다. 한편으로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자신들을 지원을 받아야 하는

‘불쌍한’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속상하고 당황스럽다는 한 청소년의 면접사례 역시 우리 사회가 학교 밖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청소년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의 시선이 상존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VI-2.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주요 현안 및 취약성 진단 결과

학교 밖 청소년 관련 현안 및 취약성	
개인적 차원	• 학교 밖 청소년 특성 다변화 • 저연령화, 여자청소년 비율 증가 • 심리정서적 어려움, 정신건강 문제 증가 • 사회적 관계 역량 증진 기회 부족 • 은둔, 고립 성향 증가 •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 변화(대학진학 희망 사례 증가 등)
환경적 차원	• 학교에서 가능했던 모든 보편적 복지에서의 소외 • 성인기 이행 및 자립과정에서의 진로탐색, 진로준비, 취업과정에서의 불리함 • 학교와 가정에서 모두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의 가중된 취약성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편견과 차별, 또 다른 불편한 시선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학교의 기본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정에서조차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직면하는 이중적 취약성 또는 불리함의 문제이다. 이 경우 학생 청소년에 비해 더 불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가정의 경제적 배경이나 가족관계가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청소년은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맞닥뜨려야 하는 일들이 간단치 않으며, 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 필요성을 시사한다.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향성

이처럼 본 연구에서 도출된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현안과 취약성에 대한 주요 내용과 학계 및 현장 전문가로부터 수렴된 향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향후 정책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1) 학교 밖 청소년의 전인적 건강 및 성장 지원 우선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이 매우 다양하며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 역시 청소년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들의 장기적인 자립지원을 위해서는 먼저 전인적 건강과 성장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 면접조사에서 또 현장의 많은 전문가와 실무자들은 다른 지원에

앞서 심리정서적 안정과 회복이 우선시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정신건강 고위험군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특히 신체적 건강에 대한 관심도 필요로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 및 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 신체활동 실천율도 더 낮은 것을 볼 때,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집 밖에서의 활동이 심리적/신체적으로 모두 영향을 주며, 이에 대한 관심을 더욱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2) 청소년의 특성 및 욕구 기반 맞춤형 지원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지원의 효과성 뿐 아니라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기 유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청소년의 특성 및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이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확인하였듯이, 학교 밖 청소년은 사회환경적 변화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학교를 그만둔 이유도 과거와는 다르며, 또 동시대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에도 차이가 크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찾는 청소년들이 저연령화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급히 대학에 진학하고 휴학 및 자퇴를 반복하면서 다시 혼란한 시기를 맞는 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 요구도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 대상의 특성과 또 욕구에 대한 이해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3) 직업역량강화 이전 진로개발역량 우선 강화

진로개발역량이 직업역량강화 이전에 먼저 강조, 추진될 필요가 있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서 자립을 위한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 수개월동안 진로상담→진로적성검사→자립동기 부여→기초기술훈련→직장체험→직업훈련/취업연계→사후관리에 참여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참여 신청 대상은 취업에 관심이 있는 만15~24세 청소년으로 일단 본인의 진로를 취업으로 전제할 때, 참여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나 이른 진로 및 직업 결정 대신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로와 관련한 자기이해와 더욱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탐색할 수 있는, 즉 진로개발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과정/기회가 먼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과정을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는 탄력성(진로탄력성, Career Resilience)(조아미, 진영선, 임정아, 2019) 증진과 같은 내용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이는 결국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하는데 있어 가정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한다.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정체성·방향성 검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정체성 및 방향성 검토와 운영 개선이 재고되어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그리고 관련 지원이 제도화된 시점인 2014년의 사회환경적 상황과 지금과는 큰 차이가 있으며,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이 더욱 다양해지고 범위가 넓어졌다. 당시에는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취득과 취업지원에 초점을 두었으나, 시간 경과에 따라 대학진학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현재는 여러 차원의 대학진학 지원까지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저연령 청소년에 대한 지원까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범위와 현실가능한 지원 내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대입 전형이 매우 복잡하고, 전문성을 요한다는 점과 지원대상 청소년의 범위가 넓어진 점은 현재의 제한된 인력과 자원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며, 지원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이전에 결국 잦은 이직이나 처우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5) 학교안팎 청소년의 동일한 권리 보장과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

학교안팎 청소년 대상의 동일한 권리 보장과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집단A, B, C의 많은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다녔다면 진로 및 진학 준비와 또래 관계 등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으로 보았고, 특별한 지원 없이 고군분투하며 자립에 이르게 된 한 집단A의 참여자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복교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많은 청소년들이 꿈드림센터 등의 공적 지원의 도움을 받았지만, 사적 지지체계나 개인의 노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기도 했다. 또한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의 2차 자료 분석결과에서 가정의 경제적 배경과 부모의 지원 수준은 학교 밖 청소년의 여러 유의미한 경험과 생활에 영향을 미쳤다.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가정의 지원을 잘 받을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것 때문에 이들이 성장하여 자립하는데 필요한 여러 지원과 체험 등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아야 하며, 청소년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로 인한 취약성을 극복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학교의 재학 유무와 가정이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고 대신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으로 성장하는데 있어 출발선의 격차를 가능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방안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자립’ 비전하에, 5개 정책방향성에 기반한,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전달체계, 환경적 차원의 3개 영역의 12개 정책과제와 22개 세부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표 VI-3 참조). 현안분석, 정책방향성, 정책과제를 정리한 개요는 그림 VI-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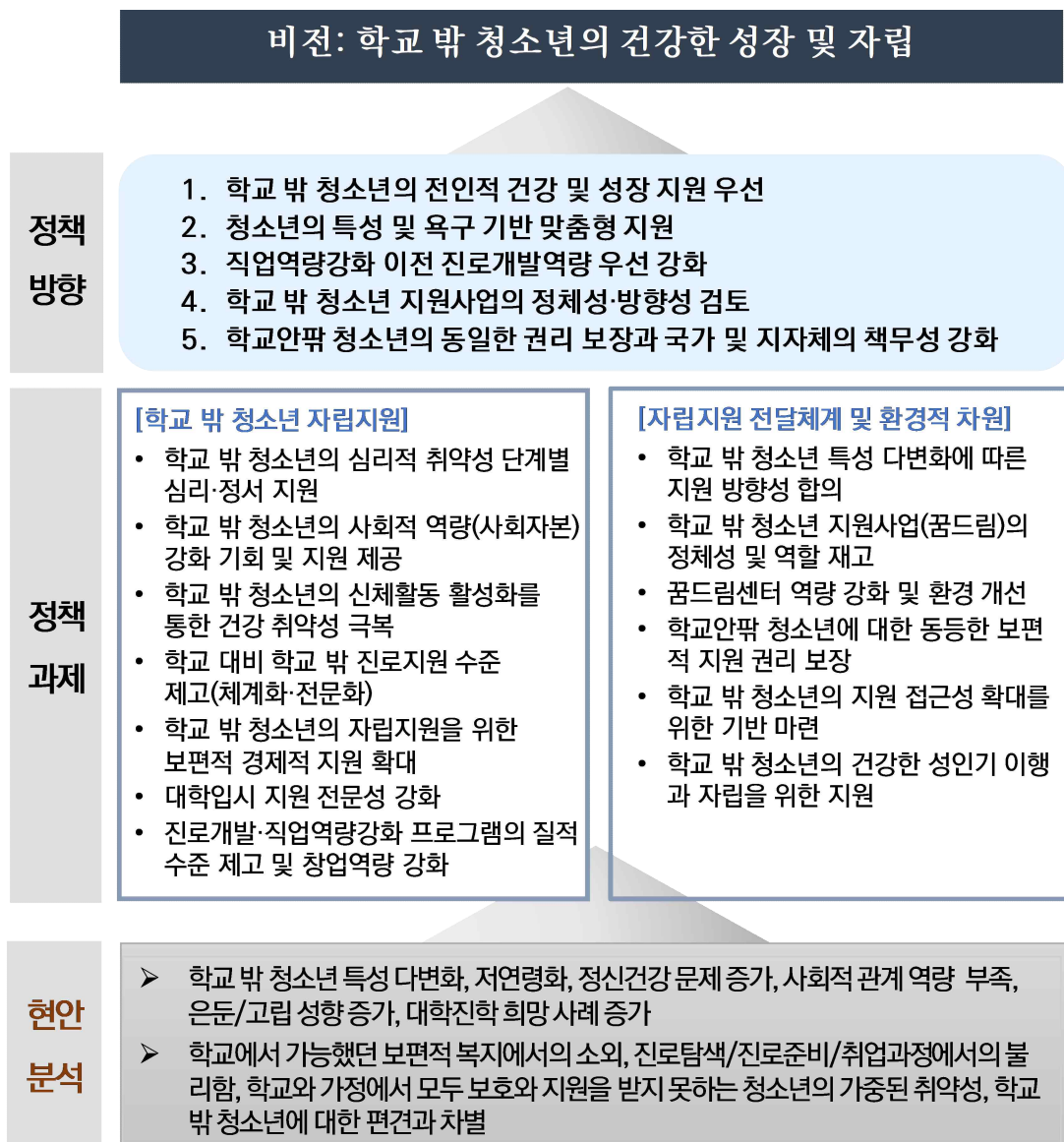


그림 VI-2.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정책방향성 및 정책과제

표 VI-3. 정책과제·세부 추진과제

정책과제·세부추진과제	추진기간	관련부처·기관
Ⅰ.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Ⅰ-1.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적 취약성 단계별 심리·정서 지원		
Ⅰ-1-1.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적 취약 단계별 상담 지원	단기	여성가족부, 지역 내 정신건강 치료기관
Ⅰ-1-2. 정신건강 고위기·취약 청소년 지원 전문성 강화	단기	
Ⅰ-2.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사회자본) 강화 기회 및 지원 제공		
Ⅰ-2-1. 은둔·고립·소외감 등 사회적 취약성 탈피를 위한 또래와의 교류 기회 제공	단기·중기	여성가족부, 지역사회 유관기관
Ⅰ-2-2.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대인관계 기술·의사소통 능력향상 프로그램 지원	단기	
Ⅰ-3.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체활동 활성화를 통한 건강 취약성 극복		
Ⅰ-3-1. 학교 밖 청소년의 지역사회 내 다양한 체계와의 연계를 통한 신체활동 기회 제공(지역 내 스포츠클럽 참여 등)	단기·중기	여성가족부, 교육부, 지자체 지역사회유관기관
Ⅰ-4. 학교 대비 학교 밖 진로지원 수준 제고(체계화·전문화)		
Ⅰ-4-1. 진로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률 조항 신설	중기	여성가족부, 교육부, 지자체, 진 로체험지원 센터
Ⅰ-4-2.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체계적 맞춤형 진로설계 및 진로준비 지원	단기	
Ⅰ-4-3. 지역 내 전문기관(진로체험지원센터) 연계를 통한 진로탐색·진로체험 기회 확대	중기	
Ⅰ-5.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보편적 경제적 지원 확대		
Ⅰ-5-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참여 수당 확대	중기	여성가족부, 교육부, 지자체
Ⅰ-5-2. 취약환경 청소년 대상 경제적 지원 확대	중장기	
Ⅰ-6. 대학입시 지원 전문성 강화		
Ⅰ-6-1. 대학입시 지원 전문성 강화 및 내실화(퇴직 교원 활용 등)	중기	교육부, 여성 가족부, 지자체
Ⅰ-7. 진로개발·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창업역량 강화		
Ⅰ-7-1. 진로개발·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접근성 강화	단기·중기	여성가족부, 고용 노동부, 지자체, 지역사회유관기관
Ⅰ-7-2. 학교 밖 청소년의 창업역량 강화	단기·중기	
Ⅱ.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전달체계		
Ⅱ-1. 학교 밖 청소년 특성 다변화에 따른 지원 방향성 합의		
Ⅱ-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향성에 대한 다체계간 합의 도출	중장기	여성가족부, 교육부, 지자체
Ⅱ-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꿈드림센터)의 정체성 및 역할 재고		

정책과제·세부추진과제	추진기간	관련부처·기관
Ⅰ.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Ⅰ-1.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적 취약성 단계별 심리·정서 지원		
Ⅱ-2-1.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범위 논의·재설정	중장기	여성가족부, 지자체, 지역사회 유관기관
Ⅱ-2-2.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자립지원과 사례관리 기능 강화	중장기	
Ⅱ-2-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중심기관으로서 꿈드림센터의 지역 네트워크 기능 확대	단기·중기	
Ⅱ-3.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역량 강화 및 환경 개선		
Ⅱ-3-1.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역량 강화	중기	여성가족부, 지자체
Ⅱ-3-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장종사자 처우 등 직무수행 환경 개선	중장기	
Ⅲ.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환경적 차원		
Ⅲ-1. 학교안팎 청소년에 대한 동등한 보편적 지원 권리 보장		
Ⅲ-1-1. 학교 재학 여부, 거주지 관계없는 동등한 지원 제공	중기	여성가족부, 교육부, 지자체
Ⅲ-1-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전향적 시선 확산·홍보	중기	
Ⅲ-2.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접근성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Ⅲ-2-1.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연계 강화 및 지원 접근성 확대	단기·중기	여성가족부, 교육부
결론: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인기 이행과 자립을 위한 지원		

세부추진과제

I-1-1.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적 취약 단계별 상담 지원

I-1-2. 정신건강 고위기·취약 청소년 지원 전문성 강화

○ 필요성/추진근거

학교를 그만두기 이전부터 내재되어 있던 우울 등의 심리적 문제는 학교를 그만둔 원인과의 관련성에 따라 학교를 그만둔 후 더 심화되거나 완화된다. 그러나 집단따돌림과 같은 심각한 문제로 학교를 그만둔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트라우마를 경험하며 다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한 막연함 때문에 불안감과 두려움도 경험한다.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한 심리적 회복이나 안정, 정신건강의 개선이 없이는 다른 진로 및 직업관련 지원이 개입된다고 해도 그 효과는 가늠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극복을 위한 심리적 지원은 전문가 대상 지원 요구도 분석에서 1순위로 나타났다. 면접조사에서 한 청소년은 진로에 대한 불안감이 커서 내면을 심층 탐색하는 상담이 의미 없게 느껴졌으며, 꿈드림센터에서 진로상담이 시작되면서 긍정적인 경험을 보고하기도 했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마다 심리정서적 상태의 차이가 큼에 따라 취약성을 극복하는 것에 초점을 두되, 취약 단계 및 욕구별 상담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추진과제 ①: I-1-1. 청소년의 심리적 취약성 측면을 고려한 단계별 상담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둔 이유와 개인의 심리적 취약성 및 환경적 상황에 대한 진단 후 청소년에게 필요한 단계의 상담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학교를 그만두는 원인이 되었던 또래 갈등이나 집단따돌림 등의 큰 스트레스를 경험한 청소년에게는 트라우마로 지속적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깊이 있는 심리적 개입이 필요하다. 일례로, 집단A의 일부 참여자들은 학교를 그만둔 것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했는데,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제는 수용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다. 이는 ‘역경 후 성장’ 과정을 연상케 했는데, 상담을 통해 좀 더 일찍 개입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이를 잘 극복하고(이 과정에 의미를 부여하고, 수용하면서)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또 모두가 학생으로 ‘평범한 삶’을 살고 있지만 자신은 그 경로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한 청소년의 이야기는 공교육을 강조하는 우리 사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의

심리적 부담을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지를 알려준다.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에 압도되거나 좌절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회복탄력성 증진과 같은 개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직면할 수 있는 부정적 시선이나 편견에 쉽게 좌절하지 않도록 예방적 접근 차원에서도 필요한 내용이다. 또한 진로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에 대한 개입을 더 원했던 청소년 사례처럼, 진로상담을 통해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이후 본격적인 심리적 지원 단계로 이동하는 것도 전략적인 개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심리적 취약성을 진단하고 이에 맞는 단계적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서는 초기상담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적절히 단계별로 개입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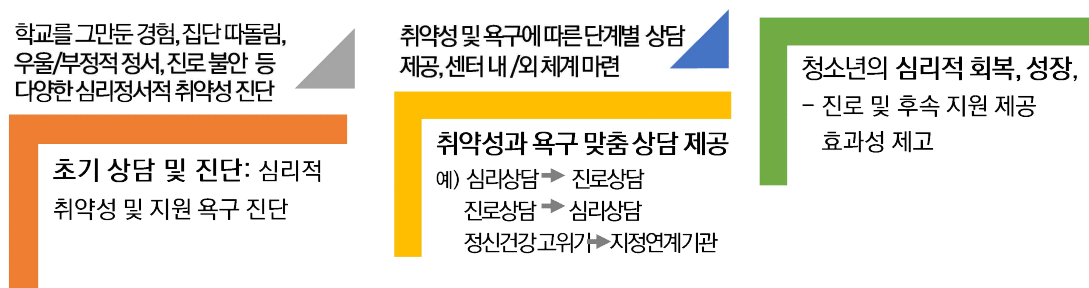


그림 VI-3.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적 취약성 측면을 고려한 단계별 심리·정서 지원

○ 추진과제 ②: 1-1-2. 정신건강 고위기·취약 청소년 지원 전문성 강화

정신건강 고위기·취약 청소년 지원(미디어 과의존, 자살 생각 등)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청소년을 잘 알고 있는 꿈드림센터의 종사자가 전문성을 갖추고 직접 개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재의 꿈드림센터 인력 현황에서는 불가능하다. 또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고위기청소년 대상 지원을 하지만 전국 22개소 정도여서(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02.21.), 지자체 협조를 통해 지역사회 내 전문치료기관에 ‘지정연계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여 청소년이 쉽게 방문하여 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직접적인 치료적 개입은 불가능하더라도 정신건강 고위기 청소년 관리와 다른 지원과의 병행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장실무자대상의 관련 연수 및 교육도 필요하다.

○ **관련부처/기관** :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사회 전문치료기관

○ **기대효과** :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회복, 정신건강 증진, 후속 지원 효과성 증대

정책과제 1-2**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사회자본) 강화 기회 및 지원 제공****세부추진과제**

1-2-1. 은둔·고립·소외감 등 사회적 취약성 탈피를 위한 또래와의 교류 기회 제공

1-2-2.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대인관계 기술·의사소통 능력향상 프로그램 지원

○ 필요성/추진근거

심리적 지원과 같은 맥락에서 전문가 의견조사에 참여한 학계·현장 전문가들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우선 고려 사항으로 사회적 발달 기회와 소속감 제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또 학교 밖 청소년 면접조사에서 청소년들은 또래와의 관계/교류 단절, 학교 친구와의 경험 부재 등을 매우 아쉬워하였다. 그리고 또래와의 관계 형성이나 원활한 대인관계 기술을 갖지 못한 청소년은 인턴십이나 직장체험,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타인과의 소통과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기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갖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사회적 관계 형성이나 소통에 더욱 두려움을 갖거나 사회적 위축감을 많이 경험하는 경우 청년기에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상황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의 또래 갈등이나 친구를 사귀기 어려워하게 되면서 학교를 그만둔 후 대인관계를 끊고 수개월 집 밖에 나가지 않았던 청소년 사례들을 고려할 때(김희진 외, 2022b), 이러한 상태가 더 심화되지 않도록 가능한 조기에 개입하여야 한다. 아울러, 학교를 그만두면서 물리적으로 또래와의 자연스러운 소통과 관계 구축에서 멀어진 청소년들의 향후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해 또래와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와 대인관계 기술/의사소통 능력향상을 위한 지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 추진과제 ①: 1-1-1. 은둔·고립·소외감 등 사회적 취약성 탈피를 위한 또래와의 교류 기회 제공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서처럼 또래와 어울리고 또래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차원의 체험활동, 동아리활동, 신체활동, 봉사활동, 여행 및 캠프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이나 타 꿈드림센터 등과 연합행사를 기획하는 일에서부터 청소년들이 더욱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기회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등의 이유로 참여를 주저하거나 기피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게 보고됨에 따라 청소년들이 이러한 기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물

제공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참여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외부활동 회피나 고립, 소외감 대신, 또래들과의 다양한 활동 참여를 통해 또래 문화를 공유하면서 소속감을 갖고 협동의식/팀워크 방법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을 것이다.

○ 추진과제 ②: 1-1-2.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대인관계 기술·의사소통 능력향상 프로그램 지원

대인관계 기술, 의사소통 기술과 같은 구조화된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을 통한 적응력 향상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일부 학교 밖 청소년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불편해했고, 이러한 경험이 누적되면서 아르바이트나 취업, 대학진학을 위한 면접 등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을 점차 힘들어하였다. 현장전문가들 역시 학교 안에서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의사소통 및 협력하는 방법을 학교 밖에서도 경험하고, 이를 습득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대인관계 기술, 의사소통 기술은 성인기 사회생활과 자립에 매우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최근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중심의 사회분 위기로 인해 청소년들의 대인관계 기회가 더 부족했고, 사회적 위축을 더 강화시켰을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사업 안내 부분의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내용에 의사소통 능력향상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여성가족부, 2023). 그러나 법질서 의식, 안전교육, 도박 예방교육과 같은 다른 교육들과 함께 제시되면서 다소 과소평가 될 수도 있는바, 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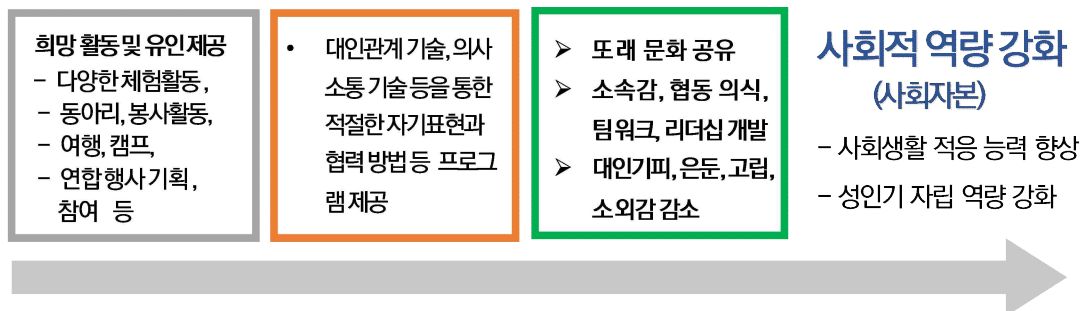


그림 VI-4.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사회자본) 강화를 위한 내용 요약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지역사회 유관기관

○ **기대효과** :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 및 소속감 증진, 사회생활 적응력 향상
및 장기적 관점에서의 성인기 자립역량 강화

세부추진과제

1-3-1. 학교 밖 청소년의 지역사회 내 다양한 체계와의 연계를 통한 신체활동 기회 제공
(지역 내 스포츠클럽 참여 등)

○ 필요성/추진근거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결과, 학교 밖 청소년의 비만율은 2020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학생 청소년의 비만율에 비해 더 높았으며, 신체활동률도 13.8%로 낮은 수준이었다(김희진 외, 2021b). 본 연구에서 해당 실태조사의 2차 자료 분석결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부모의 지원 정도가 낮은 집단에서 비만과 과체중 비율이 높았으며, 신체활동을 하는 비율은 낮았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체적 건강이 학생 청소년보다 더 취약할 수 있으며, 그 안에서도 더 심각한 집단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부에서는 매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공표함으로써 학생 신체활동을 제고하고 있다.⁵⁹⁾ 마찬가지로 건강검진 지원사업이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한 것처럼, 예방적, 적극적 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신체활동은 심리적 건강과 사회적 관계 형성 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바, 학교 밖 청소년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신체활동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추진과제 ①: 1-1-1. 지역사회 내 다양한 체계와의 연계를 통한 신체활동 기회 제공

최소한의 신체활동 수준인 학교체육 교과에조차 참여할 수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인근 청소년 센터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체계와의 연계를 통해 신체활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 위의 교육부 계획에는 ‘학교-지역연계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지역사회 내 스포츠클럽에 같이 참여할 수 있다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신체 건강 측면뿐 아니라 또래와의 교류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한 현장전문가가 제안한 것처럼 지역사회 내 학교 밖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 및 체육시설, 기관을 지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관련부처/기관** : 여성가족부, 교육부, 지자체, 지역사회 유관기관

○ **기대효과** :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 증진, 심리사회적 기능 강화, 또래교류 기회 확대

59) 출처: 교육부(2023). 2023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계획.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6&boardSeq=95698&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302&opType=N>에서 2023.10.05. 인출

정책과제 1-4 학교 대비 학교 밖 진로지원 수준 제고(체계화·전문화)

세부추진과제

- | |
|---|
| 1-4-1. 진로지원에 대한 법률 조항 신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 1-4-2.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체계적 맞춤형 진로설계 및 진로준비 지원 |
| 1-4-3. 지역 내 전문기관(진로체험지원센터) 연계를 통한 진로탐색·진로체험 기회 확대 |

○ 필요성/추진근거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여 자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로지원이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심리적·신체적 건강, 사회적 역량 강화 다음으로 이들이 성인기로 이행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가며 자립할 것인지는 이들에게 어떠한 진로지원이 제공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진로와 관련해서 상담지원(제10조), 교육지원(제9조),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제10조), 자립지원(제11조)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구체적인 진로준비 지원에 대한 내용 없이 제10조에 진로상담이 명시된 이후 바로 교육 및 직업, 자립 내용으로 이어진다. 이에 비해 진로교육법에는 상세히 진로지원 내용과 관련 인프라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해당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2차 자료 분석과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결정과 체계적인 진로지원은 이들의 학교 밖 생활과 경험, 진로직업태도 등 실제 진로관련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면접조사에서 청소년들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진로교육의 효과성은 차치하더라도 재학 중이었다면 학교의 진로교육 교과와 진로상담교사와 같은 전문인력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했다. 현재 진로상담과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에서 진로탐색 내용이 있으나 대상 연령대와 내용상 어느 정도 취업이 전제되어 있다. 10여 년 전 학교를 그만둔 면접참여자 는 진로와 관련된 지원 부재로 대학진학이나 취업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경험했고, 지금은 자신의 진로선택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였으며 학교를 그만둔 결정까지 후회하는 사례들도 관찰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신에 대한 이해와 적성에 기반한 진로설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문적인 다양한 진로체험을 통해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법률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 추진과제 ①: I-4-1. 진로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률조항 신설

진로지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더욱 구체적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 진로교육법의 내용을 참고한 신설 조항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VI-4와 같다.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계획과 관련해서는 신산업분야나 디지털 역량개발 등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 증진⁶⁰⁾ 내용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표 VI-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진로지원” 신설 조항 주요 내용

구분	조항	주요 내용 요약
현행 관련 조항*	제2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진로지원’ 내용 포함
	제8조(상담지원)	- 심리상담, 가족상담 제공(※ 진로상담 내용은 신설 조항으로 이동)
	제9조(교육지원)	- 초등학교, 중학교로의 재취학, 고등학교 재입학 - 대안학교로의 진학, 동등 학력 인정 시험의 준비 등
	제10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 직업적성검사 -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 직업소개 및 관리(취업지원) - 직업교육 훈련 실시
	제11조(자립지원)	-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
신설 조항	진로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계획 수립 -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 진로지원 전담 인력 배치 - 진로체험지원센터와의 연계 운영

주: *표시 내용 출처: 법제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30449#0000>에서 2023.10.02. 인출

○ 추진과제 ②: I-4-2.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체계적 맞춤형 진로설계 및 진로준비 지원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체계적인 진로설계와 진로준비 지원이 필요하다. 학교를 그만두기 이전에 진로 목표를 이미 설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진로에 대한 막막함과 불안감을 호소한다. 일차적으로 검정고시 준비를 통해 학력취득을 하지만, 자신이 궁극적으로 어떠한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하고 살아갈지에 대해 혼자서 고민,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진로목표를 가지고 학교를 그만둔 경우 이른 진로결정이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실제 자신이 적성에 대한 이해와 탐색 이전에 성급히 진로를 결정하는 사례도 있어,⁶¹⁾ 학교 밖 청소년에게 충분한

60)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2023.05.01.).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23~2027).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lev=0&statusYN=W&s=moe&m=020402&opType=N&boardSeq=94877>에서 2023.10.02. 인출

61) 일례로, 한 현장전문가는 서둘러 대학 진학을 한 후 자퇴나 휴학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진로탐색과 진로준비 시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각자의 진로설계가 필요한 대목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정의 경제적 배경과 부모의 지원 수준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따라서 출발선에서부터의 이로 인한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의 적성과 희망, 수요뿐 아니라 현재 가족 지원체계에 대한 부분까지 파악하고, 장기적인 진로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당장의 직업선택이나 취업이 아닌 사회환경적인 변화와 미래사회 전망 등을 바탕으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진로준비 및 이후 직업세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진로탄력성(Career Resilience) 함양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추진과제 ③: 1-4-3. 지역 내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진로탐색·진로체험 기회 확대

지역 내 전문기관(진로체험지원센터) 연계를 통한 전문적 진로탐색·진로체험 기회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진로관련 자기 이해와 진로체험/직업체험을 위해 현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더욱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전국 223곳에 소재되어 있는 직업체험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진로준비에 더욱 전문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미 이러한 시도가 지자체/지역사회별로 시도되어 있는데,⁶²⁾ 이를 제도화하여 전국 모든 지역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기회가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은 모두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계획안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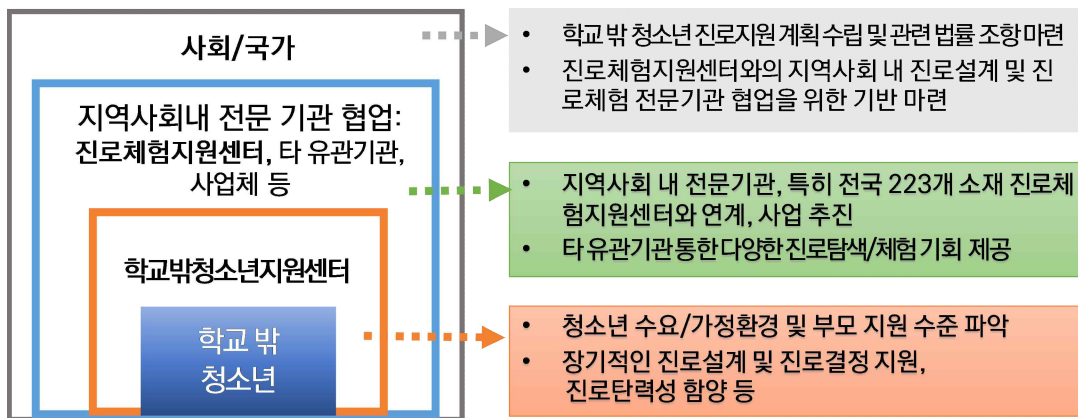


그림 VI-5.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설계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 활용

○ **관련부처/기관** : 여성가족부, 교육부, 지자체, 진로체험지원센터

○ **기대효과** :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체계화, 다양한 진로탐색 및 체험 기회 확대

62) 강원도민일보(2023.05.18.). 춘천진로체험지원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 청소년체험프로그램 '꿈꾸집' 운영.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184136>에서 2023.10.20. 인출

정책과제 1-5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보편적 경제적 지원 확대

세부추진과제

1-5-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참여 수당 확대

1-5-2. 취약환경 청소년 대상 경제적 지원 확대

○ 필요성/추진근거

본 연구의 Borich 요구도 분석에서 상당히 높은 순위를 보인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교육수당 지급은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전남지역의 꿈드림센터와 서울시교육청의 친구랑센터의 경우만 5만원~20만원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고, 이외 소수 지자체에서(대전, 춘천 등) 교통비 명목으로 연령 불문 5만원이나,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훈련(직업기술훈련) 참여시, 또는 자격증 취득 시 일부 지자체 꿈드림을 통해서 수당(최대 25만원)⁶³⁾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는 직업(기술)훈련이나 관련 자격증 취득에 따른 것으로 이미 진로를 취업으로 염두에 둔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보다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둔 이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면서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데 필요한 보편적인 차원의 수당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⁶⁴⁾ 아울러 현재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의 수준과 범위를 넘어, 취약한 환경의 청소년, 부모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성에 부합하는 일이다.

○ 추진과제 ①: 1-5-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참여 수당 확대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프로그램 참여 수당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범위와 수준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현재 전라남도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참여 수당 금액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친구랑센터에서 지급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이지만 만 24세까지로 하고 있어 친구랑센터의 18세까지에 한정된 것보다는 연령범위가 더 넓다. 이러한 보편적인 프로그램 참여 수당의 장점은 진로탐색 및 준비에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63)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자립훈련 참여 시 참여과정 시간에 따라 15만원에서 25만원이며, 자격증 취득 시 20만원이 지원된다(출처: 수원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https://blog.naver.com/suwonkdream/222811390500>에서 2023.10.05.인출)

64)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의견조사에 한 전문가는 학생 1인당 교육비를 고려할 때, 학교 밖 청소년 1인당 자기 계발비 형식으로 충분히 지원가능한 범위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교통비를 포함한 활동비를 충당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 이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이 집 밖으로 나와 지역사회의 지원 기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에 대한 만족도와 프로그램 참여율 제고에 기여한 내용은 면접조사에서 또 현장의 전문가들로부터, 그리고 관련 연구(예, 강명숙 외, 2019)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전국 모든 학교 밖 청소년이 해당 지역의 꿈드림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수당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관심과 예산마련, 그리고 적극 홍보가 필요하다.

○ 추진과제 ②: 1-5-2. 취약환경 청소년 대상 기초생활 보장 등 경제적 지원 확대

보편적인 혜택인 프로그램 참여 수당 지원 외에, 취약한 환경의 청소년을 위한 경제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2차 자료 분석결과, 가정의 경제적 배경과 부모의 지지 수준은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요인뿐 아니라 이들의 학교 밖 경험과 진로결정, 진로직업태도, 기관/서비스 이용 등 대부분에 영향을 미쳤다. 면접조사에서도 경제적으로 취약한 경우, 또 부모의 지원이 없는 경우 청소년들은 스스로 경제적인 필요를 충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진로설계와 준비를 위한 중요한 시기를 지나쳤고, 일부는 그렇게 성인이 되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는 학교 밖 청소년도 해당되며, 기초생계비를 포함한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등이 제공된다(여성가족부, 2023). 그러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학교 밖 청소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가구의 소득 및 재산조사 등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또는 부모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가출 및 학대와 같은 긴급한 위기상태인 경우 제한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 현장의 꿈드림센터의 판단이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엄격한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또 일부 3~4개월 수준의 지원기간을 더욱 연장하는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준비를 위한 시간을 더 부여하는 차원에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지원에 대한 홍보를 통해 현실적인 어려움을 그대로 수용하고 스스로의 진로를 제한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교육부, 지자체

○ **기대효과** :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취약한 환경의 학교 밖 청소년 진로준비 기회 제공, 학생과 동등한 형평성 있는 지원 제공,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성 확대

※ 법률·예산상 특이사항: 교육급여 관련 개정안 발의, 프로그램 참여 수당 예산편성 등

본 연구에서 교육계의 한 전문가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교육급여가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데, 같은 맥락에서 2023년 8월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급여 제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⁶⁵⁾이 발의된 바 있다. 해당 내용에는 학생 대상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개방하는 것으로 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저소득 아동·청소년 모두에게 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과 이용권 형태로 약 65만원(2023년, 고등학생 기준) 상당의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함으로써 이를 통한 교육 기회와 형평성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⁶⁶⁾ 따라서, 이 개정안 통과 시 저소득층 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무관하게 부모의 지원을 받지 못하여 스스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거나, 또는 진로설계/준비과정에서 충분한 지원의 부재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경제적 지원이 충분히 확대, 제공되어야 한다.

유사한 맥락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꿈드림센터 이용을 통한 프로그램 참여 수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같은 수준에서 지원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큰 규모의 예산편성이 필요하지만, 이는 학생 1인당 소요되는 교육비를 고려할 때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하는 부분이다. 현재는 지자체 차원에서 제공됨에 따라 수당 지원에 있어서 지역에 따른 격차가 큰데, 이는 어느 정도 국고를 통한 지원이 꼭 필요함을 방증하는 것이다. 현재 급식비 지원과 같이⁶⁷⁾, 꿈드림센터 프로그램 참여 수당 사업비는 역시 국고와 지방비의 매칭으로 예산을 편성하되, 다만 시·도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군지역(읍면리) 등에서는 7:3 정도의 비율로 국고 보조금 부담을 크게 할 필요가 있다.

표 VI-5.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 수당 제공을 위한 국비 지원 기준안

지역별 구분		매칭 비율
지역별	특별시, 광역시, 인구 규모, 재정자립도 평균 이상 지자체	국비:지방비=50%:50%로 매칭·편성
예산 편성	인구 규모 및 재정자립도 평균 이하 지자체 ^주	국비:지방비=70%:30%로 매칭·편성

주: 인구 일정수준 미만 소도시, 군지역이 다수인 지자체의 경우 상황에 따라 국비보조금 비율 확대

65)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2023.08.10.).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2P3NOV8V0U7V1T3S5S4A2A9Z4Z0Y8&ageFrom=21&ageTo=21에서 2023.10.20. 인출

66) 출처 상동

67)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사업에서는 국고보조율이 서울과 지방 동일하게 50%이다(여성가족부, 2023)

정책과제 Ⅰ-6 대학입시 지원 전문성 강화

세부추진과제

Ⅰ-6-1. 대학입시 지원 전문성 강화 및 내실화(퇴직 교원 활용 등)

○ 필요성/추진근거

학교 밖 청소년 특성 변화 중 가장 두드러진 측면이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사례의 증가이다. 면접조사에서 이미 성인이 된 집단A에서도 대학진학을 한 사례가 있으나, 집단B의 상당수는 대학생이었으며, 집단C에서는 8명이 대학입시 준비 중이었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⁶⁸⁾한 학교 내신 관리에 대한 부담으로 학교를 일찍 그만두고 검정고시 후 수능을 준비하는 사례와 유사한 경우도 있었으나, 부모의 기대와 부담감 또는 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들은 꿈드림센터를 통해 검정고시 지원과 입시준비 지원을 받았는데, 학교 재학 중이었다면 더 전문적인 입시준비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일부는 학교를 그만둔 것을 후회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변화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를 고려한 전문적인 대학입시 지원이 필요하며, 한편으로는 대학진학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급히 대학에 진학하였지만 짧은 기간 내 자퇴나 휴학하는 사례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 추진과제 ①: Ⅰ-1-1. 대학입시 지원 전문성 강화 및 내실화(퇴직 교원 활용 등)

꿈드림센터에서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관계 기관과 대학진학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서울과 같은 일부 지역에 제한되어 있어(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3), 전국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한 더욱 폭넓은 지원이 요구된다. 면접조사에서, 청소년생활기록부 작성과 입시상담 등 보다 구체적인 지원이 요구되었는데, 관련해서 퇴직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하다. 매우 복잡한 대학입시 준비를 꿈드림센터에서 수행하기 쉽지 않으며, 최근 퇴직교원은 학생생활기록부 작성 등을 포함한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의 협조체계가 필요해 보인다.

○ **관련부처** : 교육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 **기대효과** : 학교 밖 청소년의 대학 진학 수요 부응, 진로 및 진학지도 내실화

68) 출처: 매일신문(2023.08.14.) 내신 관리 부담 탓? 일반고 자퇴 학생 2년새 60.5% ↑.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3081411152590754>에서 2023.09.21. 인출

세부추진과제

1-7-1. 진로개발·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접근성 강화

1-7-2. 학교 밖 청소년의 창업역량 강화

○ 필요성/추진근거

본 연구의 면접조사에서 청소년들은 직업체험에 대한 욕구가 많았다. 현재 꿈드림센터를 통해 이루어지는 직업관련 지원 중 하나인 내일이룸학교는 차년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해 주무부처는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설명하였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09.11.). 따라서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보면, 먼저 더욱 많은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넓힐 필요가 있다. 내용적인 면에서도 진입장벽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경쟁이 많은 바리스타나 네일아트와 같은 직종에 치우치기보다 다양성 차원에서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가 요구된다. 면접참여자들은 보다 선택지가 많은 다양한 훈련을 받길 희망했지만 제한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으며, 지역에 따라 접근가능한 프로그램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현장전문가들도 직업훈련 및 창업연계에 있어 내실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보다 광범위한 직업체험 및 직업세계에 대한 관심과 진입을 위해서는 창업에 대한 지원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연계 내실화와 창업지원 성과가 큰 우수사례의 벤치마킹 및 확산 등이 필요하다.

○ 추진과제 ①: 1-7-1. 진로개발·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접근성 강화

시·도/시·군·구 꿈드림센터에서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활용하되, 질적 수준을 담보한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먼저 만 15세 이상으로 어느 정도 취업으로 진로방향을 설정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령기준을 낮추고 여기에 진로개발역량 부분을 추가하여 더욱 포괄적인 진로개발 및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의 확대 개편을 제안하고자 한다. 청소년과 부모 및 가족에게 해당 프로그램을 상세히 안내한다면, 청소년이 프로그램에 더욱 적극적으로 끝까지 참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학교의 진로교육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하고(특히 신산업분야 직업 등), 전문가 초청 및 관심있는 사업체 방문 등을 포함한다면 청소년에게 더욱 흥미를 갖게 할 수 있다. 아울러

수개월의 프로그램 기간 동안 청소년들이 흥미를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유인책이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참여 및 유지율 제고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은 특히 많은 인프라를 필요로 함에 따라 지역격차가 클 수 있다. 따라서 지역자원의 탐색과 발굴이 매우 중요하며 지자체의 특성화된 사업이나 작업장 개발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청소년이 희망하는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서는 이동 지역 숙박 등 꿈드림센터 간 협력과 경제적 지원도 요구된다.

○ 추진과제 ②: 1-7-2. 학교 밖 청소년의 창업역량 강화

창업 지원을 포함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진로와 관련된 더욱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책포럼에서 우수사례로 발표된 곡성군꿈드림센터의 자립지원 사업은 협동조합과 창업을 포함한 것으로, 특히 지역사회의 청소년기관, 대학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추진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3). 더욱 다양한 창업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위해 모의 창업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고 창업경진대회 등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표 VI-6. 진로개발·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보완 고려 사항

프로그램 단계	기간	현재 지원내용*	보완 내용
신청		취업에 관심이 있는 만 15~24세의 청소년	-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모든 청소년(9~24세) - 청소년, 부모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진로상담 및 진로적성검사	1주	상담, 진로적성검사 등을 통해 기본사항 확인, 맞춤 직업군 탐색 등 실시	-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전문 직업인 강연 추가 - 관심있는 사업체, 직장체험처 방문 - 진로탄력성(Career Resilience) 함양 등
자립동기 부여	2주	참여 동기 및 또래 관계성 강화	사회성 발달 및 대인관계 기술 내용 추가
기초기술훈련	4주	기술 선택하여 훈련 진행(훈련수당 지급), 생활관리 개선 프로그램 운영	기초생활·사회생활 역량 강화(생활습관, 근태관리, 규범 준수 등)
직장체험	3개월	청소년작업장 또는 청소년우호기업 직장체험 진행(직장체험 수당 지급)	- 실제 작업환경과 관련된, 직접 실천해 볼 수 있는 훈련(hands-on learning) 제공 - 모의창업훈련 내용 포함, 창업경진대회 참여 독려 및 지원 추가(수당 지급)
전문직업훈련 또는 취업연계			취업연계 및 창업지원(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
사후관리	6개월	고충상담 등 지속적으로 청소년과 교류하며 직업훈련 및 취업 현황에 대해 관리	

* 출처: 꿈드림 홈페이지, 직업역량강화. <https://www.kdream.or.kr:446/user/sub/sub04/sub040302.asp>에서 2023.10.10. 발췌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지자체,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사업체

○ **기대효과** : 진로개발 및 직업역량강화를 통한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진입 용이

○ 필요성/추진근거

본 연구결과에 기초한 향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방향성을 앞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성과 향후 지원 내용을 설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국가 및 현장, 학계의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본격화 되었을 때와 현재와는 사회환경적인 변화도 컸지만, 무엇보다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들의 규모와 특성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다. 본 연구의 면접조사에서 학교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 집단A, B, C의 학교를 그만둔 이유와 학교 밖 경험, 지원 요구에서 꽤 차이가 나타났다. 한편으로는 청소년들이 자신만의 목표를 가지고 학교를 그만두는 사례가 많아졌지만 그 이면에는 무단결석 끝에 학교를 그만두고 코로나19시기 비대면환경에 익숙해지면서 사회성을 포함한 여러 측면에서 더 취약해지기도 하였다. 지원 요구도 단순히 검정고시 준비 지원이나 진로상담, 직업체험이 아닌 더욱 고도화된 대학입시 지원과 전략까지 희망하기도 한다. 꿈드림센터에서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원욕구가 많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응하기에 쉽지 않다. 또 학교 밖 청소년은 대안교육기관이나 유사 기관의 지원 대상이기도 해서, 이들의 발굴과 지원하는데 있어 일부 중첩되기도 하며 누락이 발생하기도 한다. 다원화된 체계 속에서 또 제한된 자원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향성을 위한 합의가 도출될 필요가 있다.

○ 추진과제 ①: II-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향성에 대한 다체계 간 합의 도출

학령인구수 감소에도 학교 밖 청소년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접근하여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 도출을 위한 장(場)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와 교육 체계, 그리고 관계기관 및 담당자들이 세미나,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으고 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함께, 각 지원체계의 장점과 한계를 공유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원의 중복과 누락, 특히 지역 격차에 따른 취약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교육부, 지자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

○ **기대효과**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다체계 공동 대응 및 효과적인 지원

정책과제 Ⅱ-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꿈드림센터)의 정체성 및 역할 재고

세부추진과제

Ⅱ-2-1.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범위 논의·재설정
Ⅱ-2-2.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자립지원과 사례관리 기능 강화
Ⅱ-2-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중심기관으로서 꿈드림센터의 지역 네트워크 기능 확대

○ 필요성/추진근거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다변화와 지원 요구의 다양성 등을 고려할 때,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주요 지원체계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이에 모두 대응하여 지원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당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취지와 변화요구를 검토하면서 제한된 자원과 인력 상황에서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재고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주요 방향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 개선이 도출되고, 또 중점과제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자립지원과 사례관리 기능 강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중심기관으로서 지역 네트워크 기능 확대가 우선순위로 조사된 결과는 향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있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역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 추진과제 ①: Ⅱ-1-1.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범위 논의·재설정

학교 밖 청소년의 변화양상 중 이와 관련된 내용 중 하나는 저연령 청소년의 증가이다. 홈스쿨링과 대안교육기관의 교육을 받는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까지 고려할 경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지원내용과 프로그램에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실제로 현장전문가 중에는 현재의 꿈드림센터 프로그램들이 가장 많이 학교를 그만두는 고등학교 단계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저연령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적절한 지원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지원대상자에 대한 내용 외에도 지원내용에 있어 특히 전문성을 요하는 대학입시 지원의 수요가 많아진 것이 최근 큰 변화 중에 하나이다. 면접에 참여한 사례 중에는 조용히 학습할 스터디카페와 같은 공간에 대한 욕구도 있어, 이전에 전용공간 부족 문제가 있는 다수 꿈드림센터에게는 또 다른 유형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 이는 정책대상으로서의 학교 밖 청소년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따른 것이며, 지원 프로그램이나 공간 등의 문제는 그에 따른 후속 문제일 것이다. 따라서 지역에 따라, 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대상과 범위를 설정한다면 현장의 혼란과 종사자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것이다.

○ 추진과제 ②: II-1-2.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자립지원과 사례관리 기능 강화

전문가들의 의견처럼 꿈드림센터의 역할은 자립지원과 사례관리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이나 취업 이후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함께, 대학 진학 후 자퇴나 휴학이 빈번해지는 현상이 증가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례관리도 필요한 상황이다. 본격적인 상담과 교육, 진로지원 및 취업지원, 대학입시지원은 지역 내 전문기관과 협업하면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고, 청소년 개개인에 대해서는 사례관리를 통해 잘 성장, 자립하고 있는지를 지원하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위해서는 종사자의 잦은 이직을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한 인력충원이나 업무조정 등이 수반되어야 된다.

○ 추진과제 ③: II-2-3. 지원 중심기관으로서 꿈드림센터의 지역 네트워크 기능 확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과 사례관리에 초점을 둔다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지역사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 즉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고 서비스를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체계와 행정체계와의 협의 및 합의가 필요하며, 해당 지역사회에서 그 위상이 강화되어야 한다. 위상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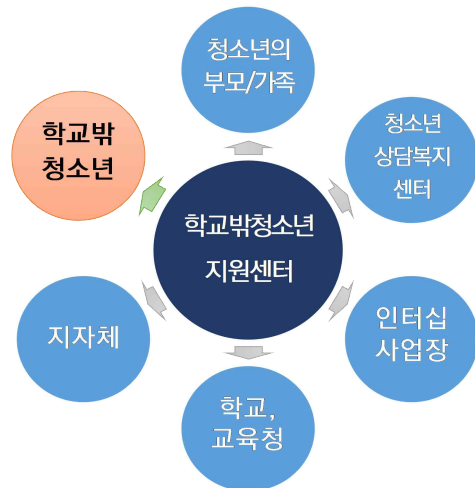


그림 VI-6. 지역사회 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지자체, 지역사회 유관 기관

○ **기대효과** : 꿈드림센터의 지역사회 내 위상 강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정책과제 II-3**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역량 강화 및 환경 개선****세부추진과제**

II-3-1.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역량 강화

II-3-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장종사자 처우 등 직무수행 환경 개선

○ 필요성/추진근거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꿈드림센터 역량 강화에 대한 내용이 중점과제로 도출되었으며, 현장종사자의 업무과중에 따른 잦은 이직과 인력부족 및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의견이 제시되었다. 현재의 과중한 업무 속에서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한편으로는 처우 개선을 논하는 것이 모순일 수 있으나,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에서 이 내용들은 꿈드림센터를 둘러싼 현안 중 하나였다.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자의 역량 강화는 매우 중요하며, 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지원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처우 등 직무수행을 위한 환경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 추진과제 ①: II-3-1.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역량 강화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을 파악하고 제공하기 위해서는, 특히 정신건강 고위기, 취약청소년이거나 복합적인 문제로 지역사회 다기관 연계가 필요한 경우 현장종사자의 초기상담역량과 자원 동원 능력 등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또한 전문적인 심리적 지원이 필요함에도 청소년이 타 기관 연계를 꺼리거나, 은둔 상황의 청소년에게 직접 지원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입시지원 등에 앞서 기본적인 진로설계 및 진로준비 지원 등을 위해서는 연수와 같은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

○ 추진과제 ②: II-3-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장종사자 처우 등 직무수행 환경 개선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와 지원 수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인력 충원이 매우 필요하다. 특히 대도시 꿈드림센터의 경우 업무 과중과 이에 따른 소진으로 이직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사례관리의 전문성 등을 고려한 보수체계 개선이 필요하며, 각종 수당 등을 통한 최소한의 보상을 위한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지자체

○ **기대효과**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지속, 지원 효과성 증대

세부추진과제

Ⅲ-1-1. 학교 재학 여부, 거주지 관계없는 동등한 지원 제공

Ⅲ-1-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전향적 시선 확산·홍보

○ 필요성/추진근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주요 방향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생 청소년과 동일한 수준의 권리보장에 대한 내용이 도출되었다. 현안분석에서도 학교에서 가능한 모든 보편적 복지에서의 소외와 균등한 교육여건 보장에 대한 주장들이 피력되었다. 과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법제화되었을 당시에 비해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변화가 있다고 해도 청소년으로서 학생과 동일한 권리를 가졌고 국가 역시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해야 하지만, 당시의 법률내용에서 이러한 동등한 청소년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부분을 찾기 어렵다. 이는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둔 이유를 환경적 차원, 제도적 문제가 아닌 청소년의 비행이나 일탈, 또는 부적응과 같은 개인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사회전반의 분위기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회환경 및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변화 때문만이 아닌 학교 밖 청소년이 학생 청소년과 동일한 수준의 권리를 누리고 지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서의 관점을 가지고 국가의 책무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의 전환이 본격화될 필요가 있다. 10여 년 전 학교를 그만두면서 경험한 부정적 시선과 편견,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면서 경험하는 불편함이 여전히 지속되는 문제를 심각하게 주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학생과 동일하게 보는 전향적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 추진과제 ①: Ⅲ-1-1. 학교 재학 여부, 거주지 관계없는 동등한 지원 제공

권리기반 접근의 평등과 비차별의 원칙,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 실현을 위한 의무이행자로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성에 대한 부분이 해당 법률에서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향성’ 또는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청소년으로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에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선언적으로 명시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 내용들이 시행규칙 등을 통해 제시되어야 한다(예시, 표 VI-7).

이와 마찬가지로 같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위임에도 거주지역의 지원 격차⁶⁹⁾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리함을 겪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에서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해당되는 많지 않은 지원이 거주지역으로 인해 더 감소/부재하는 경험까지 이중적인 취약성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하며, 형평성있는 지원을 위한 국가 및 중앙지원기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시·도 꿈드림 센터의 역할이 더욱 필요하다.

표 VI-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동등한 권리 보장 내용 예시

관련 조항	내용 예시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신설)	학교 밖 청소년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 없이 청소년으로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교육, 활동, 복지 지원에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편적 지원을 위하여 학교 내 교육과 복지와 균등한 수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

○ 추진과제 ②: III-1-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전향적 시선 확산·홍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학생 청소년과 동일한 수준의 보편적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에 큰 장애가 된다. 청소년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논외로 하더라도 학교 밖 청소년을 여전히 비행이나 일탈청소년으로 바라보며 불이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상황은 10년 전에도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다. 면접조사에서 최근 1년여 전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은 아르바이트를 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자퇴생이라는 이유 때문이라고 보고하였고, 실제로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경험한다. 사회적 시선과 관련하여 이번 면접조사에서 한 청소년은 자신을 불쌍한 대상으로 보는 시선이 속상하고 당황스럽다고 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다르게’ 보는 시선부터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옛날에는 자퇴생이 비행아 같은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좀 고치면서 오히려 자퇴생을 불쌍하게 보는 시선이 많이 늘었어요. 학교 폭력 피해자라든지 잘 적응을 못해서 나왔구나라는 시선들이 있는데 시선이 속상할 때가 있어요. (B7)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을 비행청소년으로 보거나, 학교부적응의 문제로만 보는 등 개인에

69)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뿐 아니라 이번 면접조사에서도 앞서 제안한 경제적 지원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및 프로그램에서 지역마다 차이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청소년들의 불리함, 불편함도 보고되었다.

초점을 두는 시선이 아닌, 환경 및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인식과 관점, 그리고 지원 방식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결국 우리 사회가 학교 밖 청소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는 어떠한 지원할 것인지의 사회적 합의의 시작점이 되며, 한편으로는 대학생활, 취업 및 직장생활 등에까지 영향을 주고 궁극적으로 자립 성패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다니지는 않지만, 학생 청소년과 다를 바 없는 건강한 청소년으로서의 인식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홍보방안이 필요하다.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교육부, 지자체

○ **기대효과**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해소를 통한 보편적 지원 확대,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자립을 위한 기반 마련

정책과제 Ⅲ-2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접근성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세부추진과제

Ⅲ-2-1.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연계 강화 및 지원 접근성 확대

○ 필요성/추진근거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과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조항이 2021년에 신설되면서,⁷⁰⁾ 의무교육 대상자들의 지원 접근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닌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교를 그만두는 많은 청소년들 중 정보연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 접근성에 매우 취약하다. 본 연구 결과는 학교를 그만둔 이후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시간이 경과할수록 더 불리한 경험을 하게 됨을 시사하였다. 또한 과거에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성인이 된 연구참여자들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 없이 성인기 이행과정에서 자립을 위해 얼마나 고군분투하였는지를 통해 잘 확인할 수 있다.

○ 추진과제 ①: Ⅲ-2-1.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연계 강화 및 지원 접근성 확대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의 개인정보연계를 위한 관련 법률개정안(하단 ‘※ 특이사항’ 참조)이 발의되었으나 여전히 계류 중인 상태에 있다. 코로나19 시기가 지나고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빠른 입법절차가 촉구된다. 이를 위한 사회적 관심 유도를 위한 정책관계자 간담회 등 다각적인 방법이 요구된다.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교육부

○ **기대효과** : 학교 밖 청소년 조기 개입 및 지원

※ **법률적 특이사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의원 등 12인)

이 개정안에는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등 고등학교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경우에도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제안하였다고 명시되어 있다.⁷¹⁾

70)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30449#0000>에서 2023.10.02. 인출

71)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의원 등 12인)(2023.04.12.).https://likms.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2M3L0M4LOG7F1E6C4L5M2K1J9H2P9에서 2023.10.05. 인출

학령기 인구 감소와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그 수가 더 많아진 학교 밖 청소년은 사회전반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관련 법률과 제도에 기반하여 전국 220여개 이상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운영 중이며, 교육체계에서도 최근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의 지원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이 다양하게 구성된 집단임에도 지원하는 주체에 따라, 또는 관점에 따라 일면만으로 평가되기도 하는데, 이는 결국 그 지원 내용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양한 특성의 학교 밖 청소년은 제도권 공교육을 그만두었다는 점에서만 공통점을 가짐에 따라, 본 연구는 학교를 그만둔 개인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 이전에, 먼저 물리적으로 학교를 그만둠에 따라 경험하는 취약성, 또 재학 중 내재된 취약성과 심화된 부분과 가정과 지역사회와 같은 환경적 취약성을 주목하였다. 그리고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이들이 청소년으로서 학생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주체임을 이론적 틀로 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고 자립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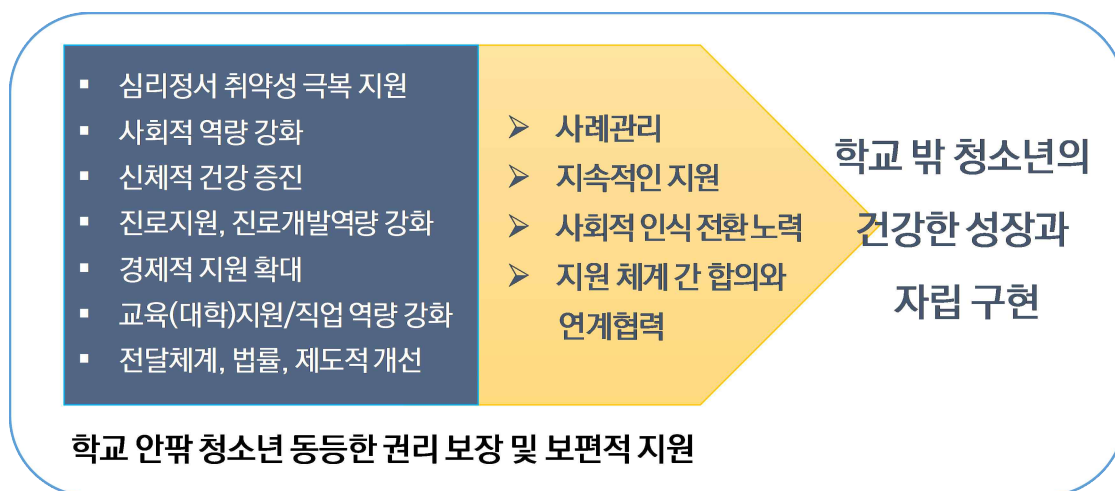


그림 VI-7.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한 지원 요약

그림 VI-7은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원 내용과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한 것이다. 즉,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자립을 위해서는 결국, 학교 안팎 청소년의 동등한 권리보장 및 보편적 지원이라는 방향성을 토대로, 심리사회적 건강, 신체적 건강과 진로지원, 경제적 지원에 더해, 대학진학 및 직업역량 강화, 전달체계·법률과 같은 제도적 측면의 개선 등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지원이 더욱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지원 이후의 사례관리와 지원의 지속성, 이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인식 전환의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에게 실질적으로 지원을 수행하는 지원체계 간의 합의와 연계·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더 추가, 보완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며 관점에 따라 초점이 다를 수 있다. 일례로, 과거에는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는 과정에서 가족과의 갈등을 대부분 겪었다면, 현재는 적극 지원하는 가정도 드물지 않아 이 역시 변화하고 있는 양상 중 하나이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성장과 자립에 부모의 지원 수준이 미치는 영향이 점차 더 커지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재학 여부와 무관하게, 그리고 이에 따른 격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또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청소년으로서의 동등한 권리 보장과 보편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방향성에 기초하여야 하며,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 자립에 도달할 때까지 관심을 갖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강명숙, 강창원, 윤철경, 하태욱, 황지원, 신호진 (2019).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 강라현 (2021). 미혼모들의 출산과 양육 경험에 대한 구성주의 근거이론 연구. **한국가족사회복지학**, 68(1), 387-425.
- 교육부 (2023). **2023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계획**. 세종: 교육부.
- 권지성, 김희진, 서고운 (2022).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과정에 대한 맥락-패턴 분석: 20대 초중반이 된 후기 청소년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6(2), 5-38.
- 김경숙, 김인희 (2016). 중·고등학교의 학업중단 위기학생이 경험하는 소외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교육행정학연구**, 34(2), 253-285.
- 김문길, 김기태, 정세정, 김성아, 김기현 (2020). **다차원적 빈곤 접근을 통한 청년 취약계층 발굴과 정책방향 설정 연구**(정책보고서 2020-115).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통령비서실.
- 김미옥, 조아미 (2020). 학교 밖 청소년의 노동을 통한 삶의 성장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22(1), 27-52.
- 김상현, 양정호 (2013).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고등학생의 학업중단 배경과 복교 후 학교 생활에 대한 연구. **한국교육문제연구**, 31(1), 81-113.
- 김성아, 노현주, 김문길, 곽윤경, 임덕영, 신영규, 함선유, 송치호 (2021). **취약계층 청년 범위 및 지원에 관한 연구-사회적 고립(은둔) 청년을 중심으로**(정책보고서 2021-88). 세종: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신, 김승희 (2022). 학교 밖 후기청소년의 경험과 요구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교육문제연구**, 40(3), 1-31.
- 김영희, 최보영 (2015). 학업중단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정. **한국청소년연구**, 26(2),

145-175.

- 김윤희, 남정민 (2023). ESG 인식에 대한 세대별 비교 연구: Borich 요구도와 The Locus for Focus 모형 활용.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 7(3), 107-121.
- 김정숙 (2017).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결정 여부 및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미래청소년학회지**, 14(3), 27-49.
- 김지민, 이은경, 민미연 (2022).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진로장애와 자아탄력성의 이중매개효과. **인문사회** 21, 13(2), 1049-1062.
- 김지연, 백혜정 (2017).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모형 개발 연구**(연구보고 17-R42). 서울: 여성가족부.
- 김혜경, 어운경 (2021). 학업중단 위험요인과 진로장벽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진로활동, 성별, 지역의 개인차 효과: 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34(3), 123-143.
- 김희진 (2014). **청소년지도사 인권의식 함양 방안** (수사과제 14-R23).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희진, 서고운, 김은정 (2021a).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IV: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연구보고 21-R15).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희진, 서고운, 조혜영 (2022a).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V: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연구보고 22-일반04).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희진, 서고운, 조혜영, 민윤경 (2022b).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V: 질적 종단자료 심층분석보고서**(연구보고 22-일반04-0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희진, 임희진, 김정숙, 서고운 (2021b).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김희진, 장근영, 이동훈, 윤철경 (2020).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III: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연구보고20-R14).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노지혜, 문성호 (2019).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특성 및 진로성숙 예측요인. **청소년문화포럼**, 58, 61-86.
- 노치경, 홍혜영 (2016). 회복탄력성이 역경 후 성장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서인식명확성, 의도적 반추와 문제중심대처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7(6), 1-20.
- 류방란, 정바울, 김성식, 조상식, 송행희 (2013). **빈곤층 학생의 교육 취약성 분석 및**

- 정책 대응방안: 사회적 자본 형성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명소연, 조진옥 (2016). 학교밖 청소년의 학교 이탈과 이후 삶의 도전과 성장에 관한 질적연구: 학교밖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상담연구**, 24(2), 75-98.
- 문동욱 (2018). 학교 밖 청소년들의 스포츠 활동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코칭능력개발지**, 20(2), 3-12.
- 문진영, 박주원, 이창문 (2020). 학교 밖 청소년의 게임중독과 사회적 낙인감에 관한 상호관계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8(1), 343-355.
- 민지원 (2014).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가 통제감을 매개로 역경 후 성장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근수, 김민 (2016). 학교 밖 청소년과 학업청소년의 건강실태 비교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14(2), 17-26.
- 박동, 김수원, 이경상, 김미정, 장선숙 (2019).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진로교육 활성화 연구 I: 보호관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을 中心으로.** 세종: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박동진, 김나연 (2019).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활동연구**, 5(3), 71-87.
- 박선하, 강영배 (2022).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주도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탄력성, 가족건강성의 매개효과 분석. **청소년문화포럼**, 70, 35-67.
- 박지현, 황미영 (2017).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4(3), 1-24.
- 박하은, 김수진 (2020). 학교밖 청소년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진로성숙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인간발달연구**, 27(2), 83-94.
- 백혜정, 송미경 (201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연구보고 15-R09).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성경주 (2021). 학교 밖 청소년의 게임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사회적 낙인감, 친구애착, SNS 가해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18(3), 97-110.
- 성윤숙, 문호영, 천정웅, 이희현 (2022).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보완 연구 I**(연구보고 22-일반09).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송현아, 유순화, 안세영 (2016). 학교밖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과 진로미결정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3(9), 409-431.

- 신혜령, 한지은, 백미진, 김진희 (2006). **보호아동 자립지원프로그램 개발 연구: 연구사업 최종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 심지경, 김미애 (2023). 유아교사들의 소진 경험과 정체성 형성: 구성주의 근거이론적 접근. **한국유아교육연구**, 25(1), 169-207.
- 심현아 (2020).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장애가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 우울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 529-550.
- 안태용, 임혜경, 강선모 (2019). 학교 밖 청소년의 성공적인 진로 재구성 경험에 대한 질적 메타분석. **초등상담연구**, 18(5), 615-637.
- 양계민, 정윤미, 장운선 (2021).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 (MYF21-19-개)**. 서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 여성가족부 (2021). **2021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3). **청소년사업안내II**.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3). **청소년정책포럼: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협력 방안**. 세종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 오혜영, 지승희, 박현진 (2011). 학업중단에서 학업복귀까지의 경험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9(2), 125-154.
-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8).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스토리.
- 유민상, 신동훈, 신영규, 박미희 (2022).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II: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연구보고 22-일반07).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유진이, 신효민 (2018).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준비를 위한 경험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16(2), 29-36.
- 윤철경, 서정아, 유성렬, 이동훈 (2018a).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 I: 질적 패널 조사를 중심으로**(연구보고 18-R16).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 서정아, 유성렬, 조아미 (2014).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II** (연구보고 14-R19).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 유성렬, 김신영, 임지연 (2013).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연구보고 13-R18).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 최인재, 김승경, 김성은 (2018b).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이경상, 조혜영 (2005).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설정 및 준비실태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 연구**, 18(2), 41-64.
- 이정은 (2021). 학교 밖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68(2), 93-125.
- 이래혁 (2022). 학교 밖 청소년의 미래지향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정서적 지지에 의한 우울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Stress**, 30(4), 213-220.
- 이옥희 (2015). 역경후성장과 적응모형 검증: 중년기 성인을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옥희, 이지연 (2015). 역경 후 성장과 적응 모형 검증: 중년기 성인을 대상으로. **인간발달 연구**, 22(3), 111-133.
- 이정자, 서희정, 윤명희 (2019). 학교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역량 비교. **수산해양 교육연구**, 31(1), 225-241.
- 이지연, 조아미 (2021). 학교 밖 청소년의 낙인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복지 연구**, 23(1), 55-82.
- 이지혜, 조은호, 박미연, 김현정 (2020). 학교 밖 청소년의 부모지지 및 또래지지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과 사회적 낙인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3(2), 165-180.
- 이화명, 김영미 (2016).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3(9), 127-154.
- 임선영 (2013). 역경 후 성장에 이르는 의미재구성 과정: 관계상실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선영, 권석만 (2013). 역경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처리방략과 신념체계의 특성: 관계상실 경험자를 대상으로.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2(3), 567-588.
- 장정임 (2009).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학교밖청소년의 진로성숙도 및 진로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교육과학연구**, 11(2), 141-163.
- 전주희, 김혜미 (2020). 학교 밖 청소년의 적응유연성과 자아존중감, 가족응집력, 사회적 지지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28(1), 293-313.
- 전진호, 이성규 (2022). 학교 밖 청소년의 게임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종단연구

- 구. **청소년학연구**, 29(10), 405-429.
- 전현정 (2022). **ISSUE 통계: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추정**.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 정문경 (2022). 학교 밖 청소년의 부모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과 진로장애의 매개효과. **교정복지연구**, 76, 93-120.
- 정제영, 정예화, 장선희, 이슬아 (2017). 지역규모에 따른 고등학생 학업중단의 학교요인 탐색. **아시아교육연구**, 18(1), 75-94.
- 정지범, 임준규, 오윤경, 황하, 정승후, 김병제, 강민희 (2019). **안전취약요인 통계분석 및 지표 개발 연구**. 대전: 울산과학기술원·통계청
- 조규필 (2011). 취약 청소년 자립준비요인 탐색 및 시사점. **청소년복지연구**, 13(2), 97-120
- 조아미, 진영선, 임정아 (2019). 대학생의 진로탄력성 척도 개발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16(2), 65-81.
- 조진옥, 명소연 (2016). 다시 맞이하는 결정적 시기 (critical period): 학교밖지원사업에 참여한 취약가정 학교밖 청소년에 관한 해석학적 근거이론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3(3), 375-406.
- 조혜정, 홍다영 (2017). 학업형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8(2), 35-61.
- 최정원, 문호영, 전진아, 박용천 (2021).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조사**(연구보고 21-R03).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효식, 연은모 (2022).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 방임, 심리적 특성, 스마트폰 중독 간 구조적 관계: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2(6), 83-98.
- 하여진 (2022). 학교 밖 청소년의 부정적 심리정서 발달양상과 지원방안. **청소년복지연구**, 24(4), 1-22.
- 하형석 (2023). **ISSUE 통계: 2022년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추정**.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3).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30년사**. 부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현숙자 (2017). 대학생의 역경후성장 모형에서 자기자비의 조절효과 검증. **한국청소년연**

- 구, 28(1), 183-210.
- 황순길, 조규필, 김명찬, 이민영, 황수진, 신정란 (2014). **학교 밖 청소년 건강실태 및 건강증진 방안 연구**. 부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황정하 (2022). 학교 밖 청소년 희망감과 탄력성에 관한 요인 연구. *청소년학연구*, 29(1), 373-398.
- 황하, 한승헌 (2021). **신종 감염병 취약성 분석 및 스마트 대응 정책사례 연구**. 서울: 행정연구원.
- Baumgardner, S. R., & Crothers, M. K. (2009). **긍정 심리학[Positive psychology]** (안신호, 이진환, 신현정, 홍창희, 정영숙, 이재식, 서수균, 김비아 공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Original work publish 2009).
- Boesen, J. K., & Martin, T. (2007). *Applying a rights-based approach: An inspirational guide for civil society*. Copenhagen: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 Borich, G. (1980). A needs assessment model for conducting follow-up studies.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31(1), 39-42.
- Blanchet-Cohen, N., Hart, S., & Cook, P. (2009). *Child rights in practice: Measuring and improving out impact. A model of accountability to Children*. A draft paper for discussion, Victoria, British Columbia, Canada: International Institute for Child Rights and Development.
- Burström, B. & Tao, W. (2020).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and inequalities in COVID-19. *European Journal of Public Health*, 30(4), 617-618.
- Charmaz, K. (2006). *Constructing grounded theory: A practical guide through qualitative analysis*. Thousand Oaks, CA: Sage.
- Charmaz, K. (2014). Grounded theory in global perspective: Reviews by international researchers. *Qualitative Inquiry*, 20(9), 1074-1084.
- Crivello, G., & Morrow, V. (2020). Against the odds: Why some children fare well in the face of adversity. *The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56(5), 999-1016.
- Delprato, M., & Frola, A. (2022). Zones of educational exclusion of out-of-school youth.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Development*, 88, 1-36.

- De Meur, G., & Gottcheiner, A. (2009). *The logic and assumptions of MDSO/MS DO designs*. In Byrne, D., Ragin, C. (Eds.), *The Sage handbook of case-based methods*(pp. 208-221). California: Sage.
- Fernandes-Alcantara, A. L. (2020) *Vulnerable youth: Background and policies*.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RL/RL33975/30>에서 2023.02. 14. 인출.
- Füssel, H. M. (2007). Vulnerability: A generally applicable conceptual framework for climate change research. *Global environmental change*, 17(2), 155-167.
- Garcia, K. L., & Ozogul, G. (2023). US Air Force's Special Warfare Preservice Instructors' Training: A Systematic Needs Assessment Approach. *TechTrends*, 67(1), 17-31.
- Green, C. (2004). The evaluation of vulnerability to flooding. *Disaster Prevention and Management*, 13(4), 323-329.
- Kelly, P. M., & Adger, W. N. (2000). Theory and practice in assessing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and facilitating adaptation. *Climatic Change*, 47(4), 325-52.
- Lamb, S. (2010). School dropout and inequality. In *School dropout and completion: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ies in theory and policy* (pp. 369-390). Dordrecht: Springer Netherlands.
- Linley, P. A., & Joseph, S. (2004). Positive change following and adversity: A review.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7(1), 11-21.
- Luthar, S. S. (1991).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A study of high-risk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2(3), 600-616.
- Luthar, S. S., Cicchetti, D., & Becker, B. (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71(3), 543-562.
- Maluccio, A. N., Krieger, R., & Pine, B. A. (1990). *Preparing Adolescents for Life after Foster Care: The Central Role of Foster Parents*. Washington, DC: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 Patton, M. Q. (2002).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 (3rd ed.).

-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 Pelling, M., & Uitto, J. I (2001).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natural disaster vulnerability and global change. *Environmental Hazards*, 3, 49-62.
- Rabinowitz, J., (1992). Collective Decision-Mak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26(1), 87-97.
- Rogers, C. R. (1963). The concept of the fully functioning person.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 Practice*, 1(1), 17-26.
- Rutter, M. (1999). Resilience concepts and findings: implications for family therapy. *Journal of Family Therapy*, 21, 119-144.
- Saaty, T. L. (2008). Relative measurement and its generalization in decision making why pairwise comparisons are central in mathematics for the measurement of intangible factors the analytic hierarchy/network process. *RACSAM-Revista de la Real Academia de Ciencias Exactas, Fisicas y Naturales. Serie A. Matematicas*, 102(2), 251-318.
- Strauss, A. L. & Corbin, J. M.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Newbury Park, CA: Sage.
- Tedeschi, R. G., & Calhoun, L. G. (1995). *Trauma and transformation: Growing in the aftermath of suffering*. Thousand Oak, CA: Sage.
- Yin, R. K. (2003).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3rd ed.). Thousand Oaks, CA: Sage.
- UNHCR (2003). *The human rights based approach to development cooperation towards a common understanding among UN agencies*. https://unsdg.un.org/sites/default/files/6959-The_Human_Rights_Based_Approach_to_Development_Cooperation_Towards_a_Common_Understanding_among_UN.pdf에서 2023.05.22. 인출.

[웹사이트 자료]

- 꿈드림 홈페이지. 공지사항_2023년 내일이룸학교 훈련생 모집 안내. https://www.kdream.or.kr:446/user/sub/view.asp?bid=bid_7&boIdx=5461에서 2023.07.30. 인출.

꿈드림 홈페이지. 직업역량강화. <https://www.kdream.or.kr:446/user/sub/sub04/sub040302.asp>에서 2023.10.10. 인출.

꿈드림 홈페이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개_지원체계 내용 일부 수정. <https://www.kdream.or.kr:446/user/sub/sub01/sub010204.asp>에서 2023.09.20. 인출.

꿈드림 홈페이지. 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찾기. <https://www.kdream.or.kr:446/user/sub/sub02/sub020101.asp>에서 2023.10.02. 인출.

대전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키움사업안내. http://cumdream.or.kr/pages_t50/dream-2.php에서 2023.10.22. 인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40075>에서 2023.04.25. 인출.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업소개. <https://seoulallnet.org/program/business.php>에서 2023.08.07. 인출.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센터소개. <https://seoulallnet.org/introduce/history.php>에서 2023.08.07. 인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 소개. https://friend.sen.go.kr/sub/content.do?cntId=CNT_0000000000000001&menuNo=1010000에서 2023.09.20. 인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 주요 사업 <https://friend.sen.go.kr/index.do>에서 2023.09.20. 인출

수원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수당 안내. <https://blog.naver.com/suwonkdream/222811390500>에서 2023.10.05. 인출.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안내서.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2&bbtSn=704824에서 2023.07.20. 인출.

춘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023 꿈드림수당안내. http://8181388.co.kr/bbs/board.php?bo_table=sub07_1&wr_id=177에서 2023.10.22. 인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학업중단현황. <https://kess.kedi.re.kr/index>에서 2023.02.02. 인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https://www.kyci.or.kr/userSite/sub02_2_info.asp에서 2023.07.20., 2023.09.08. 인출.

[법령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기본법. <https://www.law.go.kr/LSW/main.html>에서 2023.02.14. 인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로교육법. <https://www.law.go.kr/LSW/main.html>에서 2023.07.20. 인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 <https://www.law.go.kr/LSW/main.html>에서 2023.02.14. 인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https://www.law.go.kr/LSW/main.html>에서 2023.02.14. 인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W/main.html>에서 2023.02.14., 2023.05.23., 2023.07.20., 2023.10.02. 인출.

의안정보시스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2023.08.10.).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2P3N0V8V0U7V1T3S5S4A2A9Z4Z0Y8&ageFrom=21&ageTo=21에서 2023.10.20. 인출.

의안정보시스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의원 등 12인)(2023.04.12.).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2M3L0M4L0G7F1E6C4L5M2K1J9H2P9에서 2023.10.05. 인출.

[보도자료·기사]

강원도민일보 (2023.05.18.). 춘천진로체험지원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 청소년 체험프로그램 꿈꾸잡‘운영.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184136>에서 2023.10.20. 인출.

교육부 보도자료 (2023.05.01.).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23~2027) 발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lev=0&statusYN=W&s=moe&m=020402&opType=N&boardSeq=94877>에서 2023.07.02., 2023.10.02. 인출.

매일신문 (2023.08.14.). 내신 관리 부담 탓? 일반고 자퇴 학생 2년새 60.5%↑.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3081411152590754>에서 2023.09.21. 인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02.21.). 고위기청소년 지원 청소년안정망 22개 지자체로

확대. https://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에서 2023.10.15. 인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09.11.). 청소년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6&bbtSn=709531에서 2023.10.15. 인출.

연합뉴스(2023.05.08.). 서울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지급 재개. <https://www.yna.co.kr/view/AKR20230504131000530>에서 2023.10.21. 인출.

이데일리 (2023.09.15.). “매일같이 죽겠다고 하는 우리 아이들 어떡하나요?”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584646635740448&mediaCodeNo=257&OutLnkChk=Y>에서 2023.10.21. 인출.

전라남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보도자료 (2023.04.26.). “전라남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참여 수당 최대 20만원” 지원. http://www.jnkdream.or.kr/bbs/board.php?bo_table=bbs5_3&wr_id=42에서 2023.10.22. 인출.



부 록

부 록

1. 학교 밖 청소년 면접 상세내용

영역	면접내용
기본정보 및 도입	• 현재 살고 있는 곳 지역: 거주형태(자취, 부모님/보호자 집, 친구 등) • 학교 그만둔 시기 확인(고등학교, 대학교 복귀 여부) • 현재 주로 하는 일(어떻게 지내는지 확인)
1. 현재생활 및 진로관 련 상황	• 1-1. 현재 생활 탐색: 학업, 직업준비, 취업, 무업, 군대 등 응답자 상황에 따라 질문 - 전년도 상황과 비교하여 진로관련 변경 내용 탐색(집단A, B) - 무업의 경우 하루 일과, 이유, 만족도, 변화 가능성, 하루 일과 등 • 1-2. 최근 관심사나 고민(건강, 경제적 어려움, 거취나 생활문제 등) - 심리정서적/질병 문제 - 가정 경제 상황 등
2. 학업중단 이유와 인식 변화	• 2-1. 학교를 그만둔 이유와 과정 - 현재 기억하는 학교를 그만둔 이유(집단A, B) - 현재 기억하는 학교를 그만둔 이유와 과정에서의 학업중단숙려제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경험 유무(집단C) • 2-2. 학교 밖 선택으로 기대한 것과 현실과의 차이 경험 유무(기대가 충족 여부, 또는 현실과의 괴리)와 그 추정 이유, 그 차이/격차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지원 • 2-3.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후회 여부, 만족도(1점~10점으로 질문) - 학교를 계속 다녔을 상황을 가정했을 때 현재와의 비교
3. 취약성에 대한 인식	• 3-1.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학교를 다니지 않음에 따른) 취약성에 대한 인식 -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불리하거나, 부족하거나, 취약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 3-2. (학생과, 또는 본인이 학생이었던 때와 비교했을 때)상대적으로 더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생각되는 측면(기회가 부족하거나, 미흡/배제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 개인 심리사회적 차원, 진로준비, 환경체계 관련, 시간 등 - 재학 당시 취약한 부분과도 연결 • 3-3. 취약성 발생의 원인 탐색(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 3-4. 그러한 인식의 시간의 흐름(연령변화, 학업중단이후 시기, 20세 전후 등)에 따른 변화 - (취약성이) 심화/완화되었다고 생각되는 측면이 있는지와 그 변화 - 또래와의 차이(격차) 누적 탐색 (집단B, C만 해당) • 3-5. 학생 청소년과 유사한 수준에서 제공받는 지원에 대한 생각(건강검진, 급식지원 등) • 3-6. 코로나19시기 학교 밖 청소년이어서 더욱 취약하다고 생각하는지

영역	면접내용
	3-7. 특별히 더 불리하거나 취약하다고 느끼지 않을 경우 이유 탐색 * 취약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진로준비, 취업 등등으로 이어서 취약성 탐색 3-8. 학교를 그만두면서 취약성이 완화된 측면들, 학교를 다니지 않음에 따른 장점들과 이유 3-9. 취약성 극복 노력과 지원 - 극복 여부, 극복 노력,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지원과 자원 * 취약성을 극복하면서 얻어진 긍정적인 자아상, 회복력, 탄력성 탐색 - 이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학생과 동등한 수준) 지원 3-10.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현실에서 어느 정도로 충족됐는지, 환경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은 부분 탐색
4. 진로준비와 진로지원에서의 취약성	4-1. 학교 재학 시 (공교육 제공)진로교육, 진로지도에 대한 경험 - 경험의 긍정적/ 부정적인 측면, 희망하는 방향성은 무엇인지 4-2. 학교를 그만둔 이후 진로준비, 진로설계와 관련해서 고군분투했던 경험 4-3. 진로결정 여부 확인: 진로미결정일 경우 그 이유 - 진로결정시기와 관련된 고민 포함 4-4. 현재 진로준비 상황과 지원경험, 이를 저해하는 취약한 부분: 진로준비에 있어 취약한 측면 - 현재 진로관련 지원에 있어 아쉬운 점이나 개선점 - 진로준비에 있어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 내용 - 학생과 마찬가지로 수준의 진로지원에 대한 가능성, 의견(장기적인, 진로설계 포함) 4-5. 장기적인 진로설계, 진로준비 경험 유무와 그 내용 - 경험했던 진로상담, 진로지원에 대한 내용(꿈드림센터, 또는 다른 곳) - 학교를 그만둔 이후 진로준비(진로설계 등)를 위한 첫 단계 경험 질문 4-6. 여전히 학교를 다녔다면 진로준비나 자립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측면들 4-7. 가족포함 사적 지원 내용은?
5. 진학과정에서의 취약성	5-1. 현재 진학관련 상황: 과거(현재) 검정고시 경험 5-2 학업/진학 상황과 목적/이유, 현재 활동, 만족도와 요구 - 진학 준비 시 불리/취약한 측면 - 진학준비와 입시결과에서의 불리함이 드러났다고 생각되는 부분 - 학업중단과의 관련성에 대한 생각 5-3. 진학준비 과정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 내용 - 지원 경험과 도움 정도 등 - 가족포함 사적 지원 내용
6. 취업에서의 취약성	6-1. 현재 취업 관련 상황 - 아르바이트, 인턴십, 직장체험, 취업 준비 경험 등 - 취업의 경우 현 상황과 목적/이유, 현재 활동, 만족도와 요구 6-2. 취업 준비에 있어 부족한, 불리한, 취약한 측면 - 현재 준비 중인 또는 계획 중인 상황에서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 학업중단과의 관련성에 대한 생각 6-3. 취업준비와 그 과정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 내용 * 지원 경험과 그에 대한 도움 정도 6-4. (취업/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경우) 현재 상태와 향후 계획, 지원 요구 등 - 취업에서 결과적으로 불리함,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생각되는 부분 - (원하는 직업/경제활동이 아닐 경우) 만약 장기적인 진로/자립 계획을 세운다면(설계를 한다면) 어떠한

영역	면접내용
	자원을 필요로 했을지, 어떠한 지원이 있었다면 장기적인 진로설계가 가능했는지 등 - 어떠한 학교 밖 지원체계의 진로지원이 있었다면 지금 더 나아진 상황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지 • 가족포함 사적 지원 내용
7. 자립준비에서의 취약성	• 7-1. 성인기 이행과 자립: 성인과 자립의 의미, 자신에 대한 인식 - 본인의 자립여부에 대한 인식 - 자립에 있어 본인이 인식하는 취약한 부분, 자립을 저해하는 불리함, 취약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학교를 그만둔 것과의 관련성에 초점을 두어 탐색 필요 - 객관적, 주관적으로 어느 정도 자립을 한 패널의 경우 이를 가능케 했던 요인(극복 요인) • 7-2. (20대 중후반 집단A) 아직 진로/자립이 더 불안정한 경우 -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불리한, 취약한 요인에 대한 생각 * 어떤 부분에서의 취약성이 현재의 결과를 가져왔는지 탐색 • 7-3.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의 자립준비에 있어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지원 내용 * 지원 경험과 도움 정도(가족 등 사적 지원 내용 포함)
8. 심리 사회적 취약성	• 8-1. 자신에 대한 생각과 학교를 그만두는 결정, 이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과 대처 방식 - 스스로에 대한 만족/불만족,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부정적/긍정적 감정 유무 및 이유 * 학교를 다니지 않고, 또는 그만둔 것과의 심리적 취약성 관련성 탐색 -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 내용과 경험, 도움 정도(가족 등 사적 지원 내용 포함) • 8-2. 학교 재학 당시 사회적 관계와 관련한 취약한 부분 - 재학 당시 사회적 관계에서의 어려움 여부 - 학교를 그만두는 과정에서의 친구관계의 변화 • 8-3. 학교를 그만둔 이후의 사회적 관계 - 학교를 그만둠에 따른 또래 관계 형성의 어려움(취약성), 대인관계 기술에서의 어려움, 기회 부족 - 학교 안에서와 밖에서의 사회적 관계 및 차이 - 학교를 그만둔 이후의 사회적 관계에서의 부정적 경험 낙인감과 이로 인한 사회적 위축 경험 * 학교를 다니지 않고, 또는 그만둔 것과의 사회적 취약성(긍정적 측면 포함) 관련성 탐색 - 이를 보완하기 위한 지원 내용과 경험, 도움 정도
9. 환경체계에서의 취약성	• 9-1. 가정환경의 취약성 질문 - 학업중단 전후 가정에서의 취약성(경제적 상태, 가족해체 등 포함)과 변화 - 학교를 그만둠에 따른 가족 간, 가정 내 어려움 • 9-2. 지역사회에서의 취약성 경험 - 학교에서는 불가능해진 다양한 활동, 경험의 장(場)으로서 거주지역사회에 대한 생각, 향후 개선점 - 학교를 대신하여 지역사회 내 청소년 시설, 기관 등의 인프라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내용, 필요로 하는 부분 -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내 지원, 자원에 대한 요구, 유의점, 개선이 필요한 부분 • 9-3. 학생 청소년과 동등한 지원을 위한 의무이행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에 대한 생각 등 -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사회 인식, 낙인/차별 경험 포함
마무리	• 취약성 극복을 위한 지원에 대한 추가 보충 질문

2. 전문가 의견조사지

2-1. 전문가 의견조사서(1차)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가운데 본 연구의 전문가 의견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을 감사드립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분석 및 자립지원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다니지 않음에 따른 취약성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취약성과 불리함, 어려움 등에 초점**을 두어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성공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일환으로, 학계 및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취약성과 이에 따른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전문가 의견조사는 2회에 걸쳐 수행될 예정으로 1차 조사응답은 8월 18일(금)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에 기초하여 구조화된 질문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통한 2차 조사는 9월 초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지원방안 모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간을 많이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8월 18일(금)까지** 회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응답하신 의견은 전적으로 연구의 자료로만 활용될 것임을 약속드리며, 본 1차 조사를 완료하신 분께는 사례금(○○○○○원)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잠시 시간을 내어 응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사내용 관련 문의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삶의질연구실
김희진 선임연구위원(044-415-2106)
한지형 전문연구위원(044-415-2244)
박소영 연구원(044-415-2214)

조사진행 관련 문의처

(주)한국리서치 여론조사부 황인창 부장
연락처: ichwang@hrc.co.kr / 02-3014-0086
(주)한국리서치 여론조사부 송승연 연구원
연락처: sy.song@hrc.co.kr / 02-3014-0752

※ 응답요령은 따로 없으며, 질문내용을 읽어주시고, 자유롭게 의견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1.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취약성

1. 급변하는 사회환경적 변화와 더불어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과 특성이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변화 양상 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다니지 않음에 따라 (또래 학생에 비해) 가장 취약한 분야(영역)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교를 다니지 않음에 따라 가장 취약한 분야(영역)	
이유	

- 2-1. 위에서 지적하신 학교 밖 청소년이 가장 취약한 영역에 대한 개입(지원)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를 위한 중점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 분야(영역)에 대한 개입(지원) 방안	
중점과제	

II.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 아래 표는 다음으로 이어지는 조사 응답을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여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안내서*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시도, 시군구에 따라 지원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출처: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2&bbtSn=704824(2023.07.20. 인출)

영역	지원내용
상담지원	1:1 대면상담,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필요시) 찾아가는 상담
심리·정서지원	- 꿈드림 멘토링 - 정신건강 지원(필요시 전문상담기관 연계)
교육지원	- 학업동기 및 학습능력 증진 프로그램 지원 - 검정고시 등 학력취득 지원 - 대학입시 지원(대입설명회 제공, 청소년생활기록부 작성 등) - 재입학, 편입학 등 복교 지원
진로·직업지원	- 직업적성검사 지원 -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직업훈련 및 창업 연계 지원(내일이룸학교, 청소년비즈니스쿨 등)
자립지원	- 자기계발 프로그램 지원(문화예술, 봉사활동 등) - 근로권익 등 기초소양교육 지원 - 꿈드림 청소년단 참여를 통한 정책 제안활동 - 문화활동 및 전용공간 지원 - 생활지원(기초생활수급,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건강지원	- 건강검진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 청소년에게 무상 급식지원

3. 그동안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있어서 **주요성과 세 가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근거나 이유**도 함께 제시해 주십시오.

	1	2	3
주요성과 내용			
근거/이유			

4. 반대로, 그동안의 지원정책에서의 아쉬운 점이나 한계에 대해 세 가지를 제시해 주시고 그 이유와 수정 및 보완의견도 함께 작성해 주십시오.

	1	2	3
아쉬운 점/한계			
이유/근거			
수정, 보완책/ 방향성			

4-1. 같은 맥락에서 현재 정책 외에 무엇을 더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어떻게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지원해야 할 내용, 또는 방법	
이유	

5.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다니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취약성과 관련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있어 우선 고려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특히, 성인기 이행과정 및 자립에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서의 우선 고려 사항	
이유	

5-1. 학교 밖 청소년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또 시급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지원	가장 시급한 지원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지원		
이유		

6. 향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방향성이 어떻게 설정되어야(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향후 방향성	
이유	

6-1. 구체적으로, 주요 지원체계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의 향후 역할과 기능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꿈드림센터의 향후 역할, 기능	
이유	

바쁘신 가운데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2. 전문가 의견조사서(2차)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본 연구의 2차 전문가 의견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분석 및 자립지원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다니지 않음에 따른 취약성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취약성과 불리함, 어려움 등에 초점을 두어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차 조사에서 다양하고 의미있는 여러 고견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구조화한 정량적 평가 방식으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차 조사의 응답은 9월 20일(수)까지입니다.

전문가들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지원방안 모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간을 많이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응답하신 의견은 전적으로 연구의 자료로만 활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해 주신 소정의 사례는 한국리서치를 통해 〇〇〇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부디 잠시 시간을 내어 응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사내용 관련 문의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삶의질연구실
김희진 선임연구위원(044-415-2106)
한지형 전문연구원(044-415-2244)
박소영 연구원(044-415-2214)

조사진행 관련 문의처

(주)한국리서치 여론조사부 황인창 부장
연락처: ichwang@hrc.co.kr / 02-3014-0086
(주)한국리서치 여론조사부 송승연 연구원
연락처: sy.song@hrc.co.kr / 02-3014-0752

I.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취약성

1. 급변하는 사회환경적 변화와 더불어 가장 주목해야 할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변화 양상에 대한 1차 조사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각 내용에 대해 귀하께서 가장 주목해야 한다고 동의하는 정도, 즉,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도(1~5점)에 V 표해 주십시오.

	주목해야 할 학교 밖 청소년 특성과 변화 양상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교 밖 청소년 특성 다변화	①	②	③	④	⑤
2	저연령화	①	②	③	④	⑤
3	청소년 문화의 개인주의화	①	②	③	④	⑤
4	은둔, 고립 성향 증가	①	②	③	④	⑤
5	사회적 관계 역량 증진 기회 부족	①	②	③	④	⑤
6	정신건강 문제 증가	①	②	③	④	⑤
7	무기력과 낮은 동기 수준	①	②	③	④	⑤
8	생활 습관 및 집단 규칙 부적응	①	②	③	④	⑤
9	자신감 증가, 사회적 낙인 두려움 감소	①	②	③	④	⑤
10	자신의 진로에 대한 목표/계획을 갖고 학교를 그만두는 사례 증가	①	②	③	④	⑤
11	다양한 교육 선택 욕구 증가(홈스쿨링, 대안교육 등)	①	②	③	④	⑤
12	대학입시 목적으로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 증가	①	②	③	④	⑤
13	학교 교육과 학교를 그만두는 것에 대한 청소년, 부모, 사회의 인식 전환	①	②	③	④	⑤
14	다양한 폭력에 노출(가해/피해)	①	②	③	④	⑤
15	무분별한 정보 노출	①	②	③	④	⑤
16	학교와 가정에서 모두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문제	①	②	③	④	⑤
17	향후 주거 문제	①	②	③	④	⑤

- 1-1. 위의 내용 외에, 주목해야 할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이나 변화가 있다면 적어주시고, 없다면, 2번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다니지 않음에 따라 (또래 학생에 비해) 가장 취약한 분야(영역)에 대한 1차 조사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각 내용에 대해 귀하께서 동의하는 정도(1~5점)에 V 표해 주십시오.

가장 취약한 분야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자존감 및 정서적 측면 취약성	①	②	③	④	⑤
2	제한된 사회적 경험과 대인관계로 인한 사회성 발달과 인간관계 기술 부족	①	②	③	④	⑤
3	공동체 의식 부재, 단체생활/집단활동 부적응 등	①	②	③	④	⑤
4	소속감 부재	①	②	③	④	⑤
5	진로 체험, 진로계획 및 준비, 지원 미흡	①	②	③	④	⑤
6	학업(대학 진학)에 있어서의 제약	①	②	③	④	⑤
7	부적절한 정보 과다 노출, 필요한 정보(학습, 다양한 경험 등) 부족	①	②	③	④	⑤
8	제도권 공교육을 통한 모든 보편적 복지에서의 소외(보호, 교육, 적절한 급식, 학습, 건강 등)	①	②	③	④	⑤
9	학교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보호,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①	②	③	④	⑤
10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낙인과 차별	①	②	③	④	⑤

- 2-1. 위의 내용 외에, 학교에 다니지 않음에 따라 또 다른 취약한 분야가 있다면 적어주시고, 없다면, 3번으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3. 학교 밖 청소년이 가장 취약한 영역에 대한 개입(지원)으로서 중점과제에 대한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각 내용에 대해 귀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정도(1~5점)에 V 표해 주십시오.

취약한 영역 지원을 위한 중점과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교 밖 청소년 발굴(홈스쿨링, 은둔형 청소년 등)	①	②	③	④	⑤
2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에 대한 상담·치료 등 지원	①	②	③	④	⑤
3	또래 청소년들 간 교류 기회 제공(단체활동, 취미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①	②	③	④	⑤
4	대인관계, 의사소통기술 훈련 및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 제공	①	②	③	④	⑤
5	공동체 경험 기회 제공	①	②	③	④	⑤
6	진로상담 및 맞춤형 진로지원	①	②	③	④	⑤
7	학교에서와 같은 다양한 진로체험 제공	①	②	③	④	⑤
8	학업 및 진학 지원(학습 멘토 및 입시 컨설팅 등)	①	②	③	④	⑤
9	디지털/미디어 과의존 예방	①	②	③	④	⑤
10	건강한 정보 선별 기술 필요	①	②	③	④	⑤
11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역할 재정립	①	②	③	④	⑤
12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역량 강화	①	②	③	④	⑤
13	정부 부처 간 연계·협력 강화	①	②	③	④	⑤
14	지역사회 지원 네트워크 및 안전망 강화	①	②	③	④	⑤
15	차별 및 낙인감 해소	①	②	③	④	⑤
1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①	②	③	④	⑤
17	학생 청소년과 동등한 보편적, 전반적인 지원 제공 확대	①	②	③	④	⑤
18	가족에 대한 지원	①	②	③	④	⑤
19	경제적 지원	①	②	③	④	⑤

3-1. 1차 조사결과에서 높은 빈도를 보인 정책과제들을 영역별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한 영역에 대한 개입(지원)을 위한 **중점과제 영역 중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곳에 **V** 표해 주십시오.

중점과제 영역	상세 내용
1. 심리적 지원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에 대한 상담·치료 등 지원
2. 사회성 향상 기회 제공	또래 청소년 간 교류 기회, 대인관계기술 프로그램, 공동체 경험 제공 등
3. 진로/학업 지원	맞춤형 진로지원 및 진로상담,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 제공, 학업·진학 지원 등
4. 서비스 전달체계 및 지원방식 개선	학교밖청소년진로센터 역할 재정립 및 역량강화, 부처간/지역사회 내 연계협력 강화, 차별 및 낙인감 해소 등

중점과제 영역	《《 왼쪽 영역이 더 중요								이동	오른쪽 영역이 더 중요 《》								중점과제 영역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 심리적 지원																		2. 사회성 향상 기회 제공	
1. 심리적 지원																		3. 진로/학업 지원	
1. 심리적 지원																		4. 서비스 전달체계 및 지원 방식 개선	
2. 사회성 향상 기회 제공																		3. 진로/학업 지원	
2. 사회성 향상 기회 제공																		4. 서비스 전달체계 및 지원 방식 개선	
3. 진로/학업 지원																		4. 서비스 전달체계 및 지원 방식 개선	

* 1번이 2번보다 더 중요하고, 1번보다 3번이 더 중요하다면, 2번과 3번 비교 시 3번이 2번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반대의 경우 응답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질은 회색 표시 영역)

4.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다니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취약성과 관련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있어 우선 고려 사항**에 대한 1차 조사결과입니다. 각 내용에 대해 **귀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정도(1~5점)에 V 표해** 주십시오.

취약성 고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있어 우선 고려 사항(성인기 이행 및 자립)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심리적 지원 및 정신건강 지원	①	②	③	④	⑤
2	위축감 극복, 자아정체성 형성 지원	①	②	③	④	⑤
3	사회성 발달 기회 제공 및 소속감 제공	①	②	③	④	⑤
4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	①	②	③	④	⑤
5	최소한의 교육 기회 제공	①	②	③	④	⑤
6	학생 대비, 부족할 수 있는 자기관리, 기초소양교육, 경제교육, 법교육 등 지원	①	②	③	④	⑤
7	학교에서와 같이 다양한 활동(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경험 제공	①	②	③	④	⑤
8	안전한 활동공간 마련	①	②	③	④	⑤
9	학교에서의 진로진학 지원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적극 지원	①	②	③	④	⑤
10	진로 선택에 있어서 다양한 기회 제공	①	②	③	④	⑤
11	안전한 생활공간, 의식주 보장 등 기본적 지원 제공	①	②	③	④	⑤
12	자아실현 욕구 지원	①	②	③	④	⑤
13	학교 밖 청소년의 개별적이고 다양한 특성(적성, 재능)과 상황에 대한 이해 및 맞춤형 지원	①	②	③	④	⑤
14	프로그램 참여 동기 강화 및 지속적인 참여 유도 필요	①	②	③	④	⑤
15	서둘러 직업을 갖거나 자립을 유도하기 전 충분한 준비가 가능하도록 지원 제공(심리적 지원, 직업적 기술 등)	①	②	③	④	⑤
16	사회적응·자립을 위해 꿈드림센터 등 안전한 곳에서의 실패/성공 등 성장경험 제공	①	②	③	④	⑤
17	비행청소년 또는 취약청소년으로 바라보는 인식 개선	①	②	③	④	⑤
18	꿈드림의 기능과 실효성에 대한 분석 및 점검	①	②	③	④	⑤
19	꿈드림센터의 인력, 예산, 공간 제약 개선	①	②	③	④	⑤

5.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원으로 조사된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에 대해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중요도와 현재 수준에 대해 V 표해 주십시오.

자립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원		중요도					현재수준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매우 낮다	낮다	보통	높다	매우 높다
1	심리적 지원(심리적 안정감 및 성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자아정체성 형성 및 자신감 향상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또래관계(사회성/소속감 향상)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맞춤형 멘토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학력취득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진로/직업 관련 자기 이해, 진로 모색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적성을 고려한 진로지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8	다양한 직업 체험 기회 제공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9	자립 준비를 위한 단계적인 지원체계 구축 - 진로/학업계획을 포함한 자립목표 설정 ->사례관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0	실질적 자립준비도 점검을 통한 맞춤형 개입 - 경제적, 심리적 상황 점검과 개입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1	직업 연계 및 창업 역량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2	현장성이 반영된 직업교육/경험 기회 제공 * 내일이룸학교와 같은 실무경험과 사회적 응력 고양 기회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3	프로그램 참여 동기 강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4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교육수당 지급(교육권 보장) * 학생 청소년 1인당 교육비 고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5	주거지원 및 안정적 환경 제공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1.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시급한 지원**으로 조사된 1차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각 내용에 대해 **귀하께서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 정도(1~5점)**에 **V 표해** 주십시오.

	자립을 위해 가장 시급한 지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연계를 통해 사회안전망 내 자립 지원	①	②	③	④	⑤
2	정신건강, 심리정서적 지원	①	②	③	④	⑤
3	자신감 향상 프로그램 지원	①	②	③	④	⑤
4	사회성과 관계형성기술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및 자원 제공	①	②	③	④	⑤
5	은둔, 고립형 청소년에 대한 개입 모형 개발	①	②	③	④	⑤
6	학력취득 및 검정고시 지원	①	②	③	④	⑤
7	학교안팎 청소년에게 공통된 학습권과 경험 기회 제공	①	②	③	④	⑤
8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①	②	③	④	⑤
9	대학진학 지원 강화(대입상담 확대 등)	①	②	③	④	⑤
10	진로지원 강화(진로상담, 진로체험처 확대 등)	①	②	③	④	⑤
11	일경험 프로그램 확대(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규모 확대)	①	②	③	④	⑤
12	자립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13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 준비 지원(관련 매뉴얼 개발 및 보급)	①	②	③	④	⑤
14	안전과 생존 등 기본권 보장(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성장 보장)	①	②	③	④	⑤
15	건강지원(건강한 급식 제공 등)	①	②	③	④	⑤
16	교육 급여 등 경제적 지원	①	②	③	④	⑤
17	주거지원	①	②	③	④	⑤
18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서비스 제공 기관의 전문성 강화	①	②	③	④	⑤
19	지원기관 인력 충원	①	②	③	④	⑤
20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	①	②	③	④	⑤

6. 향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방향성	상세 내용
1. 심리·정서·사회적·신체적 건강 지원 강화	심리·정서, 신체적 건강 지원 강화,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 중요성 인식
2. 진로지도, 진로지원, 자립지원 정책에 초점	진로지도와 진로지원 정책에 중점, 자립역량 강화 및 체계적 자립지원 초점 필요
3. 학교안팎 청소년의 동일한 권리 향유	학생 청소년과 동일한 수준의 학교 밖 청소년 권리 향유(교육 권, 진로지원, 사회적 배제가 아닌 통합 등)
4. 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의 연령, 특성 및 욕구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5. 꿈드림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개선	지역특성과 인프라 고려한 특성화 꿈드림센터, 거점 꿈드림센터 지정, 꿈드림센터의 독립성 등

* AHP 상대평가의 제약으로 주요 의견으로 제시된 내용만 도출

이 중에서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곳에 V 표해 주십시오.

중점과제 영역	《《 왼쪽 영역이 더 중요 》》										비교	오른쪽 영역이 더 중요 《》》										중점과제 영역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 심리·정서·사회적·신체 적 건강 지원 강화																			2. 진로지도, 진로지원, 자 립지원 정책에 초점			
1. 심리·정서·사회적·신체 적 건강 지원 강화																			3. 학교안팎 청소년의 동일 한 권리 향유			
1. 심리·정서·사회적·신체 적 건강 지원 강화																			4. 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에 기반한 맞춤형지원			
1. 심리·정서·사회적·신체 적 건강 지원 강화																			5. 꿈드림센터 운영 개선			
2. 진로지도, 진로지원, 자 립지원 정책에 초점																			3. 학교안팎 청소년의 동일 한 권리 향유			
2. 진로지도, 진로지원, 자 립지원 정책에 초점																			4. 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에 기반한 맞춤형지원			
2. 진로지도, 진로지원, 자 립지원 정책에 초점																			5. 꿈드림센터 운영 개선			
3. 학교안팎 청소년의 동일 한 권리 향유																			4. 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에 기반한 맞춤형지원			
3. 학교안팎 청소년의 동일 한 권리 향유																			5. 꿈드림센터 운영 개선			
4. 청소년의 특성 및 요구에 기반한 맞춤형지원																			5. 꿈드림센터 운영 개선			

* 1번이 2번보다 더 중요하고, 1번보다 3번이 더 중요하다면, 2번과 3번 비교 시 3번이 2번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반대의 경우 응답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짙은 회색 표시 영역)

7. 주요 지원체계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의 **향후 역할과 기능**에 대해 의견 수렴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각 내용에 대해 귀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정도(1~5점)**에 **V** 표해 주십시오.

꿈드림센터의 향후 역할과 기능 변화		전혀 중요하 지 않다	중요하 지 않다	그저 그렇 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하 다
1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습득 지원	①	②	③	④	⑤
2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사례관리 기능 강화 - 목표 성취, 진로준비 및 사회적응까지 사례관리	①	②	③	④	⑤
3	청소년들의 연령과 특성,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에 초점	①	②	③	④	⑤
4	학교 내 학습지원(기초학력 유지 등)을 충족할 수 있는 교육지원(연계)기관 역할	①	②	③	④	⑤
5	학습/학업 위주의 지원 지양	①	②	③	④	⑤
6	단계별 다양한 운영모델 개발 및 제공 - 대인관계 프로그램, 기초생활역량 강화 등 기본 프로그램에서 전문 프로그램(분야별 특성화 프로그램 제공 등 전문 프로그램 등)까지	①	②	③	④	⑤
8	학교 밖 청소년이 항상 편하게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마련·제공 - 진로 탐색 및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공간	①	②	③	④	⑤
9	학교 밖 청소년 적극 발굴 및 관리 강화	①	②	③	④	⑤
10	다양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영역에서의 전문성 강화, 고도화 - 은둔, 고립 청소년 포함 심리정서 지원 및 사회적 교류활동 지원에서의 전문성 강화 - 학업, 복지, 상담(정신건강), 취업, 진로준비, 문화체험 등에서 전문성 강화, 고도화	①	②	③	④	⑤
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중심기관으로서 지역 네트워크 기능 확대, 지역자원 연계/협력 강화	①	②	③	④	⑤
12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전문적인 지원기관으로서의 독립성 강화 - 독립기관, 독립공간, 전임센터장 등	①	②	③	④	⑤
13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적 서비스 전달체계의 허브 역할 수행	①	②	③	④	⑤
14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세분화	①	②	③	④	⑤

3. 현장실무자 대상 집단면접지(FGI)

구 분	FGI 내용
I.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경향성	1. 현재 센터를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센터를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수와 센터 이용 청소년의 주요 연령대, 학교를 그만둔 주요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2. 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특성 중, (과거와 현재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는) 주목할 만한 변화와 청소년의 특징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3. 귀 센터를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주로 어떤 경로로 발굴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II. 지원사업의 주요 성과와 한 계점	1.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면서 현장에서 체감하는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귀 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 만족도가 가장 크고 성과가 컸던 지원은 무엇이었나요? 2.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는데 있어 어려운 점이나, 한계, 지원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 이유와 함께 말씀해 주세요. 2-1. 특히, 진로 및 자립지원과 관련해서 어떠했나요?
III.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1. 학교를 다니지 않음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어려움(취약한 분야, 불리함)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2. (취약성과 관련해서) 학교에 재학 중인 또래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비교하였을 때, 더 취약한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취약하거나 차이가 있다면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3. 청소년이 원래 가지고 있던 취약한 부분(심리정서·사회적 측면, 가족환경적 측면 등)이 학교를 그만두면서 더 심화되거나, 반대로 완화된 측면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고, 어떠한 이유에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4.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다니지 않음으로써, 성인기 이행과 이후 자립과정에서 더 취약하거나 불리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IV. 취약성 극복을 위한 주요 지원과 청소년 의 요구	1.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극복을 위한 지원에 있어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취약성 지원 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1. 또는 이와 관련해서 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데 어떠한 제약과 어려움이 있나요? 2. 센터를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받고 싶어하는 지원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그러한 지원을 받고 싶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V. 지원정책의 방향	1.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인기 이행과 자립지원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원에는 무엇이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어떤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VI. 기타의견 수렴	1.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지원방안과 관련해서 미처 답변하지 못했다거나, 추가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둠에 따라 경험하는 취약성, 특히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저해할 수 있는 다차원적인 불리함이나 어려움을 파악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립지원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와는 다른 학교 밖 청소년의 변화양상에 주목하고, 청소년으로서의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에 기반하여 이들이 건강한 성장과 자립지원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 연구는 다양한 질적, 양적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였다. 먼저, 학교 밖 청소년 규모와 관련된 행정통계 및 자료를 검토하였고, 취약성 및 권리기반 접근, 회복탄력성 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였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실증데이터 수집을 위하여 학교를 그만둔 시기가 각각 다른 세 개 집단(집단A, B, C)으로, 학교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 청년과 청소년 총 3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수행하였다. 집단A는 20대 중·후반의 성인기 청년, 집단B는 성인기 이행과정의 청소년, 집단C는 최근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으로 이들이 학교를 그만둔 시기에 따른 학교 밖 경험과 지원 요구들을 탐색하였다. 이에 더해, 과거 학교 밖 청소년 질적 종단연구를 통해 수년간 질적자료가 축적된 집단A의 면접조사결과는 보다 심층적인 질적종단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양적연구의 일환으로 가장 최근 수행된 전국 규모의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2차 자료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불리함, 어려움 등 관련 변수들을 선별하여 기술 분석 및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분야 학계 및 현장 전문가

21명을 대상으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과 Borich 요구도 분석 등을 실시하여 학교 밖 청소년 현안(취약성) 분석을 수행하고 정책과제 및 방향성에 대한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면접지 및 전문가 의견조사지, 현장실무자 FGI 면접지와 조사수행 과정 및 내용에 대해서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BR)의 승인절차 후 조사에 활용하였다. 이외에 관련 전문가들과의 자문회의와 워크숍, 정책연구실무협의회, 학교 밖 청소년 정책포럼 등을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들을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정책방안 도출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해 분석된 결과에 기초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자립’이라는 정책 비전과, ① 학교 밖 청소년의 전인적 건강 및 성장 지원 우선, ② 청소년의 특성 및 욕구 기반 맞춤형 지원, ③ 직업역량강화 이전 진로개발역량 우선 강화, ④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정체성·방향성 검토, ⑤ 학교안팎 청소년의 동일한 권리 보장과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라는 5개 방향성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정책 방향을 기조로, 먼저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심리적 취약성 단계별 심리·정서 지원, 사회적 역량 강화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수준 제고, 경제적 지원 확대와 관련한 세부 추진과제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자립지원 전달체계 및 환경적 차원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향성 합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정체성 및 역할 재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역량 강화 및 환경 개선, 학교안팎 청소년에 대한 동등한 보편적 지원 권리 보장 등에 해당하는 추진과제들을 제안하였다.

핵심어 : 학교 밖 청소년, 질적연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방안

A b s t r a c t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devise strategies supporting the independence of out-of-school youth by identifying the vulnerabilities that they experience after leaving the school, such as various disadvantages and difficulties that impede their healthy growth and independence. Due to the significant amount of time that has passed since the initiation of out-of-school youth support programs, more attention is required to the changing patterns of out-of-school youth in order to respect their rights as youth and derive plans to help their healthy growth and independence.

To achieve these goals, the study employed multipl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methodologies. First, we reviewed administrative statistics and data related to the size of out-of-school youth, and examined theories related to vulnerability, rights-based approaches, and resilience. To collect empirical data, we conducted interviews with 30 youth and young adults who had previously dropped out school in three groups (groups A, B, and C). Group A consisted of young adults in their mid-to-late twenties, Group B of youth transitioning to adulthood, and Group C of youth who recently left school. We explored their out-of-school experiences and

needs for support depending on the time they left school. Additionally, the interview results for Group A, for which we have accumulated qualitative data over several years through previous longitudinal qualitative studies, were utilized for more in-depth longitudinal qualitative data analysis.

As part of the quantitative research, we conducted a secondary data analysis using the most recent national results from the '2021 Out-of-School Youth Survey'. Descriptive and multivariate analyses were carried out by selecting variables including vulnerabilities, disadvantages, and difficulties of out-of-school youth. Furthermore, we conducted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analysis and Borich needs assessment with 21 academics and field experts in the out-of-school youth sector to find out current issues (vulnerabilities) and determine the importance and priorities for policy tasks and directions. Interviews with out-of-school youth, expert opinion surveys, field practitioner FGI interviews as well as survey execution process and content were performed after obtaining the approval from the Institutional Bioethics Review board (IBR). Furthermore, advisory meetings and workshops with relevant experts, and out-of-school youth policy forums were held, and the results were reflected in formulating policy measures to support the independence of out-of-school youth.

Based on the results from these analyses, we established a policy vision of 'Healthy growth and independence of out-of-school youth' and the following five strategic directions: ① priority in supporting the holistic health and growth of out-of-school youth; ② customized support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and needs of each youth; ③ priority in strengthening career development capabilities ahead of enhancing vocational competencies; ④ consideration on the nature and direction of out-of-school youth support projects; and ⑤ ensuring equal rights for all youth in and out of school and strengthening the accountability of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Under these policy directions, we first proposed specific implementation tasks including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upport at each level of psychological vulnerability, strengthening social competencies, improving the level of career support, and expanding economic support for out-of-school youth. In terms of delivery of independence support and the environments, we suggest tasks of making consensus on the direction of out-of-school youth support, re-evaluation of the identity and role of out-of-school youth support centers, increasing the capacity and improving the environment of these centers, and ensuring the right to equal support for all youth in and out of school.

Keywords: out-of-school youths, qualitative research, out-of-school youth support centers, strategies supporting the independence of out-of-school youth.

202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연구보고23-기본01	청소년들은 '금융'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 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 및 금융생활 실태 / 김지경·서정아·송현주
연구보고23-기본02	청소년활동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 문호영·서고운·김진호
연구보고23-기본03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방안 연구 / 이윤주·최용환·길정아·황현정
연구보고23-기본04	2023 청소년 가치관 조사 연구 / 임희진·황여정
연구보고23-기본05	디지털 유해환경과 청소년 위험행동 실태 연구 / 배상률·김영한·황현정
연구보고23-기본06	청소년의 대안교육 참여 실태 및 지원방안 / 오해섭·최홍일·송원일
연구보고23-기본07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정치참여 지원 방안 연구 / 최정원·이인영·박지숙·이호준
연구보고23-기본08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 / 최인재·임지연·김민·강영배
연구보고23-기본09	보호소년 범죄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소년보호재판 및 보호처분 제도를 중심으로 / 박지수·이지연·한윤선·김혁
연구보고23-기본10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분석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 김희진·조혜영·한지형
연구보고23-기본11	청소년 디지털인재를 어떻게 양성할까? / 이창호·모상현·최항섭
연구보고23-일반01	202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총괄보고서 / 유민상·이경상·유성렬·이수정
연구보고23-일반01-01	202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 / 유민상·이경상
연구보고23-일반02	사회통합을 위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방안연구 / 양계민·권오영·이영신·장윤선·장인숙
연구보고23-일반07	202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사업보고서 / 황진구·김윤희·정윤미
연구보고23-일반07-01	202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윤희·정윤미
연구보고23-일반08	2023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총괄보고서 / 신동훈·이정민·홍명기·이용해·임선아·김지혜
연구보고23-일반08-01	2023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기초분석보고서(1기 패널) / 신동훈·이정민·홍명기·이용해
연구보고23-일반08-02	2023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기초분석보고서(2기 패널) / 신동훈·이정민·홍명기·이용해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6-01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Ⅲ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3) / 김형주·김정숙·김문길·변금선·배정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7-01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Ⅲ: 시민권과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4) 참여-총괄보고서 / 김기현·장근영·신인철·임성근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7-02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Ⅲ: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4-01) 시민권과 참여-심층분석 보고서 / 김기현·장근영·신인철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8-01 청년종합연구Ⅱ: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5) 백혜정·김지연·김승경·김이배·노혜진·김성아·박광옥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8-02 2023년 시설퇴소청년의 생활실태 및 정책개발 /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5-01) 백혜정·김지연·김승경·노혜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8-03 청년의 금융취약 및 정책소외 실태와 과제 /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5-02) 김성아·김문길·나원희·한영섭·강예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8-04 발달장애청년의 정책소외 실태와 정책과제 /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5-03) 박광옥·김용득·이복실·이은영·이동림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9-01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보완 연구Ⅱ /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6) 김경준·김영지·윤철경·이은주·이은주·임성은

수 시 과 제

- 연구보고23-수시0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학교내 설치 활성화 방안 연구 / 황진구·김윤희
- 연구보고23-수시02 미디어 속 학교폭력 양상 분석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 도출 / 배상률
- 연구보고23-수시03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 유민상·서고운·신동훈·이지연
- 연구보고23-수시04 청소년복지시설 설치기준 개선방안 연구 / 김영한
- 연구보고23-수시05 니트 청년 지원 사업의 참여자 발굴 개선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의
구직단념청년 발굴 사례를 중심으로 / 유민상·김기현·김나영

수 탁 과 제

일반

- 연구보고23-수탁01 디지털시대, 디지털 문해력 개념의 확장 / 황용석·이현주·황현정
- 연구보고23-수탁02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콘텐츠 개발방안 연구 /
강진숙·김지연·류숙

연구보고23-수탁03	유니세프 아동친화학교 사업 성과 연구 / 이윤주·최정원·최홍일·이수진
연구보고23-수탁04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연구 / 김영한
연구보고23-수탁05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 강화방안 연구 - 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 제고를 중심으로 / 김승경·백혜정
연구보고23-수탁05-01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별위원회 정책자료집 / 김승경·백혜정
연구보고23-수탁06	디지털기반 인성교육 - 존중과배려 메타버스 체험학습 플랫폼 개발 / 임지연·황여정·이미영
연구보고23-수탁07	디지털기반 인성교육 - 존중과배려 메타버스 체험학습 교실 - 교사용 수업활용 안내서 / 임지연·황여정·이미영
연구보고23-수탁08	학교-지역사회-민간연계를 통한 우수인성교육프로그램 발굴확산 사업 결과보고서 / 이창호·주예찬·이슬기
연구보고23-수탁09	인성교육 프로그램 비인증제 운영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김봉제·신현우·곽현석
연구보고23-수탁10	2023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사업보고서 / 김영지·김지연·서고운·이정민·최홍일
연구보고23-수탁10-01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 이미숙·양소현·고혜정·최진혁·한송이·문미혜·윤애영·김주이·조성윤·박유정
연구보고23-수탁11	2023년 자치구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용역 / 최용환, 이동성, 장혜윤, 임채홍
연구보고23-수탁12-01	2023년 교과 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초등 / 최용환·김동일·임지영
연구보고23-수탁12-02	2023년 교과 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중고등 / 최용환·김동일·임지영
연구보고23-수탁13	2023년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원 전문인력 양성 및 정책연구 결과보고서 / 최용환·김동일·박윤수·김보경·장혜윤·임지영
연구보고23-수탁14	2023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관리 보고서 / 최용환·임지영, 서기희, 김성혜
연구보고23-수탁15	2022년 중앙정부 및 시도교육청 인성교육 추진성과 및 인성교육정책 분석평가 / 최용환·박윤수·김보경·장혜윤·김수진, 오지혜
연구보고23-수탁16	2023년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결과보고서 / 최용환·서기희·오지혜
연구보고23-수탁17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김희진·임희진·김정숙·박소영
연구보고23-수탁18	2023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황진구·김영지·모상현
연구보고23-수탁19	2023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 서정아·조아미
연구보고23-수탁20	신 소외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 연구 / 서정아·조아미
연구보고23-수탁21	청소년활동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현황 연구 / 서정아·김정율·김지수
연구보고23-수탁22	글로벌 K-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성과측정체계 연구 / 양계민·권오영
연구보고23-수탁23	레인보우스쿨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 양계민·이영신

연구보고23-수탁24	지방소멸시대 지방정부의 청년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 장근영·김기현·이상준·황성수·이규용·윤석천·최성은·조양진
연구보고23-수탁25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김지경·송현주·김균희
연구보고23-수탁26	청소년동반자 사업운영 효율화 방안연구 / 김윤희·황진구·이상현·김태성·정윤미
연구보고23-수탁27	2023년 청년정책 성과자료 제작 / 김기현·김형주·김지민
연구보고23-수탁28	청년문제 대응 재원 조성방안 연구 / 김기현·이윤주·조양진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연구보고23-학폭01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초등학교 저학년) / 모상현·구찬동·조규복·송채원·신보람
연구보고23-학폭02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초등학교 고학년) / 모상현·구찬동·조규복·송채원·신보람
연구보고23-학폭03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중학교) / 모상현·구찬동·조규복·송채원·신보람
연구보고23-학폭04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고등학교) / 모상현·구찬동·조규복·송채원·신보람
연구보고23-학폭05	2022년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발간 모음집 / 모상현·김예원·신보람
연구보고23-학폭06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운영 안내서 / 모상현·김창겸·김예원
연구보고23-학폭07	2022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모상현·이경상·남지영·송채원·장원빈
연구보고23-학폭08	2022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활동 사례연구 보고서 / 모상현·남지영·장원빈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

연구보고23-대안01	대안학교(각종학교) 운영실태조사 / 최홍일·김세광·오해섭
연구보고23-대안02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기초 연구 / 최인재·송원일

자 료 집

세미나

세미나23-01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세미나 (23.7.19.)
세미나23-02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MAPS) 데이터 설명회 및 방법론 특강 (23.8.24.)
세미나23-03	「한국 아동·청소년 데이터의 역사와 전망」 (23.9.12.)

워크숍

- 워크숍23-01 2022년 하반기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 (23.2.8.)
- 워크숍23-02 2022 하반기 학교민주시민교육 배움 공유회 (23.1.16.)
- 워크숍23-03 2023 꿈지락 운영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 워크숍 (23.5.2.)
- 워크숍23-04 2023년 학생 참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 및 중립성 원칙 기반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 (23.5.3.)
- 워크숍23-05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선도교원 양성_기본과정 (23.7.27.~7.28.)
- 워크숍23-06 2023년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협의회 (23.7.19.)
- 워크숍23-07 2023년 어울림(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재구조화 집필진 워크숍 참고자료 (23.8.5.)
- 워크숍23-08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선도교원 양성_심화과정 (23.11.2.~23.11.3.)

포럼

- 포럼23-01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방안 : 생애주기 시각에서의 사회적 고립 대응 (23.4.25.)
- 포럼23-02 챗GPT 알고리즘 이해와 청소년 시민성증진을 위한 활용방안 모색 (23.7.4.)
- 포럼23-03 2023년 다문화 청소년 포럼: 초-중 전환기 다문화 청소년의 성장과 지원방안 (23.8.24.)
- 포럼23-04 보호소년 특성에 대한 이해 및 보호처분제도 개선 방향 모색 (23.8.25.)
- 포럼23-05 대안교육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 (23.9.20.)
- 포럼23-06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협력 방안 (23.9.21.)
- 포럼23-07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포럼 (23.10.25.)
- 포럼23-08 청년종합연구 포럼: 협동연구 연구성과 보고 (23.11.14.)
- 포럼23-09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방안 :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의 통합적 대응 (23.11.21.)
- 포럼23-10 청소년정책포럼 '도시를 만드는 아이들' (23.12.7.)

콜로키움

- 콜로키움23-01 행정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처리의 이해 (23.4.19.)
- 콜로키움23-02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1차 콜로키움 “SDGs 시대의 청소년정책” (23.6.19.)
- 콜로키움23-03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2차 콜로키움 “학습 회복(Learning Recovery)에서 교육 혁신(Education Transformation)으로:코로나 이후 해외 교육 사업의 변화” (23.7.20.)
- 콜로키움23-04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3차 콜로키움 “청소년 사이버범죄 양상 파악을 위한 연구 방법: ATLAS.ti 23을 이용한 주제 분석(원제: Using Thematic Review with ATLAS.ti 23 to Identify Patterns of Cybercrime among Youths from Literature)” (23.8.18.)

- 콜로키움23-05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4차 콜로키움 “청소년과 국제개발협력 : 월드비전의 전략과 사례를 중심으로” (23.8.28.)
- 콜로키움23-06 교육 혁신 도구로서의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방향과 현황 (23.9.18.)
- 콜로키움23-07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5차 콜로키움 “세계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공동체의 역할 : 도전과 기회를 중심으로” (23.11.13.)
- 콜로키움23-08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6차 콜로키움 “공존과 상생을 위한 세계시민의식” (23.12.01.)

기타자료집

- 자료23-01 2022 공교육 안팎 대안교육 이해도 제고를 위한 정책설명회 및 연수 보고서
- 자료23-02 2022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집
- 자료23-03 인성교육 재정립 및 학교인성교육 추진방향
- 자료23-04 학교 시민교육과 시민성 개념의 재구조화
- 자료23-05 민주적 학교 운영 길잡이
- 자료23-06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 자료23-07 2023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위촉식 및 연수
- 자료23-08 2023년 학생참여교육 실천 프로젝트 전문가 특강 자료집
- 자료23-09 2023년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자료집
- 자료23-10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가이드북
- 자료23-11 제12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 자료23-12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선도교원 양성 적용평가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34권 제1호(통권 제108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4권 제2호(통권 제109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4권 제3호(통권 제11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4권 제4호(통권 제111호)

기타 발간물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 145호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Ⅳ: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146호 전환기의 국가청소년정책 전략 연구
- 147호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 보완 연구 I
- 148호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구축방안 연구 II
- 149호 다양한 가족 메타버스 상담·활동·교육 플랫폼 설계구축 및 효과 연구
- 150호 메타버스의 활용경험이 청소년의 행동변화에 미치는 영향

NYPI Bluenote 통계

- 74호 후기청소년의 미디어 이용실태 조사결과
- 75호 코로나-19 시대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구
- 76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5차 조사(2022년) 주요 조사결과 및 데이터 분석·활용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가나다 순)

◆ 집 필 진 ◆

유 성 열 (백석대학교·교수)

◆ 자 문 진 ◆

강 지 영 (숙명여자대학교·교수)

곽 윤 철 (서울해누리초중이음학교·교장)

김 미 정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청소년상담사연수부장)

김 은 정 (덕성여자대학교·교수)

김 진 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교수)

박 수 미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사무관)

박 윤 범 (광주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팀장)

박 은 미 (니트생활자·대표)

안 재 우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주무관)

유 성 열 (백석대학교·교수)

유 혜 진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조 린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과장)

전 성 신 (니트생활자·대표)

정 선 옥 (덕성여자대학교·교수)

진 종 순 (경기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연구보고 23-기본10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분석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인 쇄 2023년 12월 23일

발 행 2023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계문사 (044)866-7451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398-5 93330

연구보고 23-기본10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분석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ISBN 979-11-5654-398-5